현대불교

제 784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2010년 5월 19일 수요일 (음력 4월 6일 · 불기 2554년 · 주간)







부처님 오시었습니다.
때는 푸르러 맑은 바람의 날, 룸비니동산 무우수나무 아래,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 삼계가 괴로우니,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빛이 되었습니다.
2010년 5월, 그 빛이 더욱 간절하여 큰 절 올리며 또 올립니다.

박준수 화가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하는 세상

봉축특집호 56면 발행 지면 안내

A

아소까 리더십 A2
정치인들이여, 저 아소까 대왕을 보시오

교계 지도자 · 이웃종교 봉축 법어 · 메시지 A10~12
오늘은 부처님이 미완의 여래로 태어나서 해탈의 길을 열고 우리 곁에 오신 날입니다. 법신은 불멸하여 온 누리에 그 모습을 나툽니다.

선지식을 찾아서 – 진제 스님 A14~15
수행 통해 자신이 부처임을 깨닫는 것이 부처님 오신 뜻…

B



장선우 감독 B1
그가 제주에서 스승을 만났다. 행복하고 슬프다고 한다. 스크린 가득 부처님 법을 펼칠 날은 언제일까?

생명평화의 현장 – 여강 한마당 B2

레게 소울 밴드 윈디씨티 B3
부처님도 아티스트… 그들이 노래하는 이유



재즈보컬리스트 웅산 B5
열일곱 살에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출가했죠. 재즈는 저를 늘 궁금하게 만드는 음악입니다. 올 겨울 병원 음악회 준비 중…

십선으로 부처살이 B8~9
계율은 현대사회의 실천윤리

세계의 부처님오신날 B24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일본, 대만, 네팔, 홍콩, 말레이시아… UN 매년 5월 보름 베삭데이 축제

소설 – 신발의 행방 B26~27
집에 도착한 그는 신발을 고이 벗어놓고, 목욕을 한 다음 다시 자신의 방에 들어갔다. 그리고 또 나오지 않았다…

부처님오신날 남북동시법회 봉행

부처님오신날인 5월 21일, 한반도 전역의 모든 사찰에서 한마음으로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남북동시법회가 봉행된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남북불교도 동시법회 참가자 일동 명의'로 발표된 남북공동 발원문에서 남북 불교계는 "통일된 부강한 지상정토가 될 때까지 남 · 북의 사부대중은 불국정토를 향해 발걸음 맞춰 함께 나가겠다. 우리 손으로 상호존중과 평화체제의 정착, 신뢰의 통일 민족공동체를 이루겠다"고 발원했다.

21일 오전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봉축법요식에는 정관계 인사, 이웃종교 지도자들과 주한외교사절 등 1만 여 사부대중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제7회 불자대상 한주호 한혜숙 조용석

제7회 불자대상으로 故 한주호 준위와 방송인 한혜숙씨, 대불련 조용석 중앙간사가 선정됐다.

조계종 불자대상 선정위원회(위원장 자승 · 총무원장)은 5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시상식은 21일 오전 10시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진행된다. **조동섭 기자**

■ 봉축칼럼

부처님, 중도의 등불을 밝히시다

좌우 편가르기 · 경직된 권력 여기에 부처님께서 오시길



청화 스님 조계종 前 교육원장

만일 돈을 많이 짊어지고 간다면 캄캄한 밤길이 환하게 밝아질 수 있을까. 만일 절대 권력을 손에 들고 간다면 칠흑의 밤길이 대낮 같이 밝아질 수 있을까. 만일 무엇이든지 때려눕힐 수 있는 강한 체력을 가지고 간다면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 사라질 수 있을까.

그럴 리는 없다. 천지가 개벽을 하고 검은 개미가 태양을 삼키는 일이 있어도 절대로 그러한 이적이 일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밤길이 캄캄한 것은 재벌이건 권력자이건 강한 체력이건 다 마찬가지이다. 결국 돈도 권력도 체력도 빛은 아니다. 아니 어둠인 것이다. 때문에 어둠 속에서는 천하에 없는 것을 다 가졌어도 등불이 없으면 그것들은 소용없는 것이 된다.

부처님은 등불이시다. 빛이시다. 평범한 인간으로 출발해서 지고한 원력을 승화하고 또 승화한 결과, 마침내는 등불이 되고 빛이 되신 것이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다섯 비구에게 최초로 하신 설법은 다음과 같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극단의 길이 있다. 하나는 쾌락의 길이고 또 하나는 고행의 길이다. 사문은 이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배워야 한다. 여래는 바로 이 중도의 이치를 깨달았다."

이 설법에 근거하면 인간 석가모니가 등불이 되게 하고 빛이 되게 한 것은 중도의 이치다. 이 중도의 이치를 깨달으므로 이제까지 중도의 이치를 알지 못했던 그 어둠이 밝은 등불로 또는 빛으로 전화한 것이다. 그것이 벌써 2600여 년 전의 일이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이 등불과 빛으로써의 의미이다. 그것이 곧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핵심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등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들의 무지와 욕망에서 비롯된 행위들의 어둠을 대상으로 한 개념이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무지한 한, 그리고 인간이 자기 욕망에 집착하는 한, 거기서 나온 모든 생각, 모든 판단, 모든 행위들은 결코 밝은 것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그것들은 어둠의 농도를 더욱 짙게 할 뿐이다. 그러므로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등불과 빛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 빛을 의지함으로써 적어도 무지한 어둠쯤은 청산할 수 있는 까닭이다. 이를 전제로 해서 금년의 부처님오신날에는 꼭 부처님이 오셨으면 하는 캄캄한 곳이 있다.

하나는 편 가르기를 하는 곳이다. 소위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은 좀 진보적이고 건전한 사고를 하는 측들을 좌파라고 매도하면서 마치 곡식 밭의 잡초처럼 취급하고 있다. 이것은 불구적인 사고로써 다양함의 원형인 사회성을 부정하는 매우 위험스러운 행위이다. 수레는 하나의 바퀴만으로 수레의 구실을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방향도 제대로 잡을 수 없게 된다. 수레는 좌와 우의 두 바퀴를 다 갖추었을 때 비로소 수레로서 완벽한 것이다.

이른바 보수와 진보는 수레의 두 바퀴이다. 그러므로 보수와 진보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것이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발전케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 좌와 우의 편 가르기를 하는 곳에 부처님이 오셨으면 한다.

도 하나는 경직된 권력이다. 지금 대통령과 국민들 사이에는 소통 부재가 심각하다. 냉소와 냉소, 외면과 외면 이것이 피차 간에 높은 성곽을 이루고 있다. 이유는 4대강 사업 때문이다. 이 4대강 사업을 놓고 강행과 반대, 이런 대립으로써 서로 힘 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보면 대통령은 국민을 향하여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는 일에 너희들이 무슨 시비냐?"하는 것 같고,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해 "4대강은 사유물이 아닌데 왜 네 맘대로 하느냐?"라는 투다. 이 지경에까지 온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무엇보다도 4대강 사업에 대한 불신감이 국민들 속에 팽배되어 있는 것을 주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태도는 바로 권력의 유연성이 결여된 데에서 나온 것이다. 이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 이상 대통령과 국민들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여기에도 부처님이 오셨으면 한다.

부처님은 극단의 대립과 치우침의 어둠을 중도라는 등불로 밝히신 분이기 때문이다.



웨살리에 있는 아소까 돌기둥과 아소까 탑.

정치인들이여, 저 아소까 대왕을 보시오

'자비로운 삐야다시 왕(아소까 왕)은 왕위에 오른지 8년만에 깔링가를 정복하였다. 15만 명이 포로로 끌려오고, 10만 명이 살상되었고, 그리고 그 몇 배의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었다. 그 후 깔링가는 합병되었다.

깔링가를 정복한 후에 자비로운 왕은 매우 열성적으로 담마에 몰두하게 되었고, 담마를 열망하였고, 사람들에게 담마를 가르쳤다. 지금 자비로운 왕은 깔링가를 정복한 것에 대해 깊은 자책을 느끼고 있다. 독립된 나라를 정복하였을 때 사람들의 살육과 죽음, 그리고 포로가 있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자비로운 왕에게 슬픔을 주고 한탄하게 한다. 참으로 자비로운 왕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해침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며, 자신을 절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부드럽게 대하기를 열망한다. 자비로운 왕은 담마에 의한 정복(담마비자야)을 가장 훌륭한 정복이라고 생각한다. 이 담마칙령은 다음 목적으로 새겨졌다. 나의 아들, 손자, 증손자들이 새로운 정복을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담마에 의한 정복만이 이 세상과 저 세상의 행복을 가져온다.' (아소까 대왕의 바위칙령 13)

돌기둥에 새긴 담마비자야

아소까 대왕(기원전304~233)은 수많은 나라들로 분열됐던 인도대륙을 정복해 하나의 국가로 통일시키고 확립시킨 인도사의 위대한 통일군주이다. 아소까는 지금도 10억 인도인들의 가슴 속에 영원한 이상군주 · 이상정치가로서 기억되고 있다. 그러나 일찍이 부처님께 귀의했던 아소까 대왕에게 끊임없는 정복전쟁은 크나큰 고통이었고 한탄이었다. 바위칙령(磨崖勅令) 13에 기록된 '깔링가 전쟁' (기원전 262년)은 그의 삶을 바꿔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깔링가(Kalinga)는 지금 인도 동남부 오랏사 지방이다. 이 전쟁에서 15만 명이 포로가 되고 10만 명이 살해됐고, 그 몇 배의 민중들이 전쟁 때문에 죽어갔다. 이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고 아소까는 오열하고 자책하며 괴로워했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들의 슬픈 얼굴들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다. 그는 부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참회하고 새로운 삶을 맹세했다. 폭력을 포기했다. 자자손손 영구히 폭력을 포기했다. 폭력전쟁을 포기하고 담마비자야(Dhammavijaya), 곧 담마에 의한 정복-담마에 의한 정치로 전환했다.

담마란 무엇인가? 그것은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정법(正法) · 정의(正義)로 일컬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담마비자야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초한 정의로운 정치이고, 그 핵심은 어떤 생명도 해치지 않으려는 비폭력 정치를 의미한다. 아소까 대왕은 이것을 위해 스스로 열성적으로 불교에 몰입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를 전파하고 가르치기를 열망해 대륙 전역에 8만 개의 불탑을 세워 부처님 가르침을 새기고 전법사들을 파송하며 불교승단을 정화하고 교리를 확립하며 경전을 결집했다.

1950년대 우리는 동족끼리 서로 죽이는 전쟁을 저질렀다. 수십만 군인들이 살육당하고 포로가 되고 수백만 동포들이 이 전쟁으로 인해 비참하게 죽어갔다. 전쟁의 폭력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아 · 미망인 · 이산가족 · 장애자가 돼 아직도 한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아소까는 나오지 않았다. 아소까 대왕 같이 폭력을 영구히 포기하고 정의로서 다스리기를 맹세하는 위대한 정치인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전쟁의 폭력은 계속되고 있다. 폭력으로 인한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남북이 군비강화에 국력을 탕진하고 있다. 북은 주민들의 생존을 희생하며 대량살상이 가능한 무서운 핵무기를 개발해 위협하고, 남은 미국의 핵우산을 불들고 경제력을 배경으로 최신무기를 구입하는 데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붓고 있다. 10년 가까이 겨우겨우 추구됐던 협력과 공존정책은 폐기되고 다시 대결과 폭력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 폭력대결의 구도 속에서 천안함 젊은이들이 죽어갔다. '대한민국은 그대 영웅들을 영구히 기억할 것입니다', 이 화려한 수사가 그들 젊은이들의 고귀한 생명들을 보상할 수 있을까? 자식 잃고 남편 잃은 그들 가족들의 통한을 위로할 수 있을까? 이 폭력대결 구도 속에서 언제 다시 우리 젊은이들이 죽음의 수렁으로 빨려들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

우리 불교가 할 일

이제 바야흐로 우리 불교가 나서야 한다. 우리 불교가 나서서 정치인들을 일깨워야 한다. 그들을 찾아가 대화하고 토론하고 함께 고뇌하며 정의를 외쳐야 한다.

'그대 정치인들이여, 대통령이여, 장관들 국회의원들이여, 장군들이여, 저 아소까 대왕을 보시오. 저 아소까 대왕을 보고 배우시오. 아소까의 눈물을 보고 탄식을 듣고 고통을 느껴보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무조건 폭력을 포기하시오. 폭력 대결구도를 포기하시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긍심 위에 확고히 서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시 협력과 공존정책으로 나아가시오. 금강산 개성 문을 다시 열고 백두산도 가고 합작공장도 짓고 올림픽도 같이 나가고 – 남북 정치인들이 모여 정상회담 국회회담도 열고 군비축소회담도 열고 평화회담도 열 준비를 하시오. 무엇보다 당장 굶어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 어린이들 살릴 양식과 의약품을 공급하시오. 이것이 진정한 안보이고 이것이 최선의 국방일 것이오. 그대 정치인들이여, 비폭력만이 유일한 평화정책이란 사실 명심하시오. 분노는 분노를 낳고 폭력은 또 새로운 폭력을 불러온다는 붓다의 담마를 기억하시오. 이것이 아소까가 눈물로 바위에 새긴 정치인의 길이란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시오.'

이 땅의 정치인들이 불교를 알고 아소까를 알았다면, 이 나라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김재영
청보리회 지도법사

우리가 만나는 붓다

부처님은 진정 오시는가

2010년 4월은 춥고 슬펐다.

이상한파가 지속되어 봄꽃들이 더디게 얼굴을 내밀었다. 중순이 되어도 꽃을 틔우지 못한 벚나무가 많았다.

서해의 연평도 앞바다에서는 천안함 사고로 46명의 장병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그들을 구하려고 바다에 뛰어든 한 중사와 구조를 돕던 어민들도 불의의 사고를 당해 안타까움은 더했다. 아직은 회고조의 말로 표현하기 힘든 현재진행형의 슬픔이다. 시간이 흐른 뒤에도 모두의 가슴 속에서 쉽사리 잊히지 않을 아픔이다.

TV 앞에 앉아 처참하게 동강난 함체의 인양작업을 지켜본다. 비통함에 몸을 뒤틀며 울부짖는 유가족들의 모습에 눈물짓지 않을 수 없었다.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사고의 원인은 규명될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책임공방을 둘러싼 관계자들의 싸움과 음모론으로 변질되고 있다.

연일 계속해서 들려오던 비보에 지쳐 채널을 돌린다.

환경 파괴와 세금 낭비를 우려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과 시민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은 추진되고 있다. 학교 무상급식 문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정치논쟁화 되어간다. 북반구 전체의 항공운항에 차질을 입힌 아이슬란드의 화산재와 세계 곳곳의 지진들, 그 외에도 숱한 사건과 사고들의 소식이 마음을 불안하고 어지럽게 한다.

다시 채널을 돌려본다. 이 와중에도 우스꽝스런 모습의 코미디언들이 관객을 희롱하고 시트콤 드라마의 청중들이 박장대소한다. 홈쇼핑 채널에선 질 좋고 값싼 내의와 특등급 한우 소고기를 판매하고 멋지게 차려입은 패션모델들이 런웨이를 걷는다. 최신 건강 상식을 전하는 의사와 교리를 설파하는 종교인도 보인다.

돌려도 돌려도 끝이 없다. 눈앞에서 빙글빙글 화면이 돌고 세상이 돈다. 네모난 상자 안, 영상과 소리가 되어 방영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잠시 넋 놓고 바라본다.

우리 삶을 중계하는 TV속 세상은 마치 요지경속 같다.

기쁨과 슬픔, 노여움과 즐거움, 병듦과 늙음, 태어남과 죽음이 한데 뒤섞여 굴러가고 있는 세상의 역설이 이곳에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저것이 혹시 부처님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를 울게 하고 웃게 하는 화면 속 허상들의 모습 위에 부처님의 얼굴이 겹친다. 아름다운 석굴암 부처님의 얼굴이다. 어린 시절, 경주 수학여행에서 본 그 얼굴이다.

그러나 그 얼굴 또한 허상일 뿐 진짜 부처의 얼굴은 아닐 것이다. 다만, 먼 과거의 인류가 영원히 가닿을 수 없는 이상향을 한없이 실상에 가깝게 정성스레 쪼고 다듬은 경이로운 허상일 것이다.

오랫동안 방 한켠에 놓아둔 석고 불상을 곁에 가지고 온다. 잊을 수 없는 그 얼굴을 기리기 위해 수학여행 기념으로 사온 싸구려 불상이다. 석굴암 부처님을 모방해 만든 작고 조잡한 것이다.

허상인 인간은 허상을 사랑한다. 허상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허상을 잃지 않기 위해 싸우고 허상 때문에 웃고 눈물도 흘린다.

지난 4월에도 고통 받는 허상들이 우릴 슬프게 했다.

영정 속, 죽은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는 어느 어머니처럼 모조 불상의 얼굴을 매만져본다. 길게 감은 눈과 반듯하게 내려선 코, 다문 입과 큰 귀. 가부좌를 틀고 고요히 앉은 그는 무엇에도 흔들림이 없다.

이제 그만 TV를 끄고 싶다.

그러나 TV를 끄지 않는다. 끄려다가 그만둔다.

대신 굴처럼 어두워진 방 안에서 가만히 눈을 감아본다. 숨을 가다듬고 입은 가만히 다문다. 귀는 모든 것을 듣기 위해 아무 것도 듣고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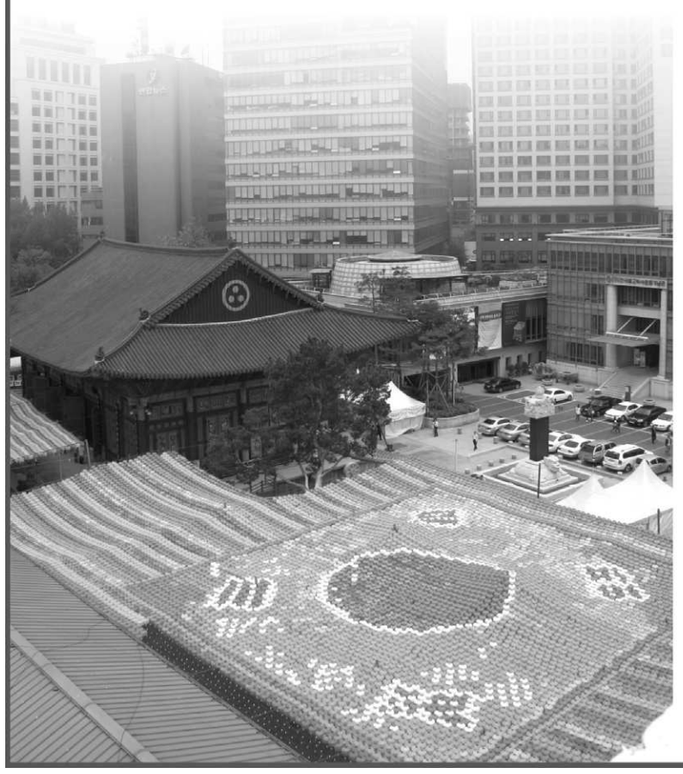
TV의 브라운관을 통과한 세상이 빛과 소리가 되어 어두운 방안에 앉은 내 위에서 명멸하고 있다.

이제 곧 부처님 오신 날이다. 슬픈 일이 많았다. 우리들 마음에 실상으로의 부처님이 오시길 빈다.



이상경
시나리오 작가

2554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되는 세상



태극기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힘내라 대한민국!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조계사 주지 홍명 토 진
상임고문 덕암 구자선
신도회장 대각심 이연숙
조계사 사부대중 일동 합장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Tel. 02-732-2115 Fax. 02-720-1391
http://www.jogyesa.org
인터넷 검색엔진 조계사 검색

조계사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경내 연등으로 태극기를 형상화 하였습니다. 이번 태극기는 2009년 5월 은평구 진관사에서 발견된 독립운동당시 추정 태극기로서 4괘 중 감과 리의 자리가 요즘 사용하는 태극기와는 서로 바뀌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올 한해는 어느 때보다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화합이 필요한 때입니다. 연등 하나하나가 모여 밝힌 태극기 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의 번영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4대강 토론회’ 국토해양부 제안

4대강 사업 반대가 거세지는 가운데 그동안 일방적인 홍보만을 거듭하던 국토해양부가 5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교환경연대를 비롯한 종교 · 환경 단체 , 언론매체, 인터넷 포털 등에 ‘4대강 살리기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본부장 심명필)는 “대국민 소통과 의견 수렴의 장을 열어 4대강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불교환경연대 최은영 사무처장은 “정부의 제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내부 협의를 거쳐, 각 단체들과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명동성당에서 5월 10일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시국미사가 열렸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 시국미사에서는 전국에서 300여 사제와 신도 등 8000여 명이 모였다. 또 전국 사제 · 수도사 5005명은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수도사들은 “6 · 2 지방선거에서 ‘강의 생명’을 약속하는 후보들을 선택해 4대강 사업을 분명히 심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 김용택 시인, 이상돈 중앙대 교수,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등 종교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 77인도 4대강 사업을 일단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주 금강선원에서는 29일 금강공사 반대운동 결집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주 여강선원에서는 24일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4대 종단 종교인 기도회’가 열린다. 이상언 기자

“소신투표로 미래 열자” 종지협 대국민호소문

6 · 2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 이광선, 종지협) 5월 10일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종지협은 호소문에서 △민주사회 발전과 국민 화합을 위한 바르고 깨끗한 선거 풍토 정착 △올바른 선택을 위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후보자의 정책 · 정견을 꼼꼼히 살펴보는 소신 투표 △투표에 참여해 민주주의 근간을 세워가는 지방선거를 만들자고 밝혔다. 이상언 기자

“뜻 모아 팔공산 시대 열 터”

동화사 신임 주지 성문 스님 임명… “선거제도 비불교적”

“원융화합으로 팔공산 시대를 열겠습니다. 산중 여론을 조율해 깊은 대립의 골을 메우겠습니다.”

치열한 선거전을 펼쳤던 대구 동화사 새 주지에 성문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 자승 스님은 5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성문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장 전달식을 마치고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성문 스님은 “가장 치열했던 선거전이었다.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다”고 소감했다. 이어 성문 스님은 본사 선거제도가 비불교 · 반승가적이라며 “전통과 율장에 비추어 발전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렵게 선출된 성문 스님은 앞으로 계획을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선 스님은 선거를 치르면서 생긴 갈등과 상처 치유부터 시작한다. 스님은 팔공산 지역 문파, 문중을 대표하는 8~9으로 여론을 조율하는 (가칭) ‘팔공산중회의’를 조직한다.

그밖에도 스님은 교구로서의 임무에 충실할 계획이다. 성문 스님은 “전통적 본사의 개념과 교구의 개념 구분이 필요하다. 본사의 개념보다는 교구본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침체된 동화사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신행단체 조직도 생각하고 있다. 포교의 활성화를 위해서다. 성문 스님은 “교구 소임을 보고 있는 재적 스님들과 신도, 소임자들이 크고 작은 일을 함께 처리하고 도움을 주는 교구 사무처를 대구 시내에 마련할 계획”이라며 “광역시 소재라는 위치적 장점을 살려 대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친절, 친근감을 가지고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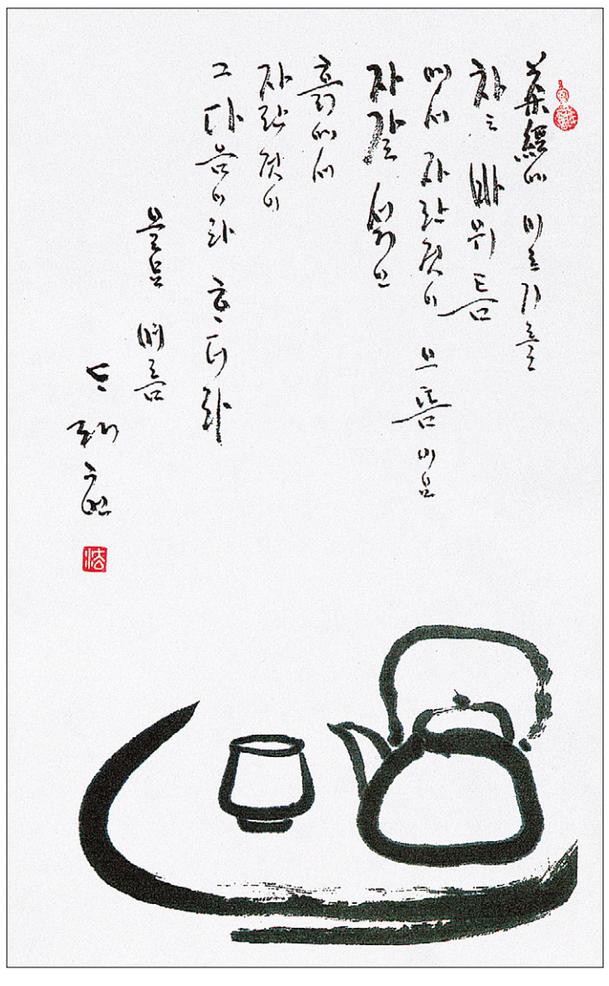


1998년 종단사태로 멸빈 및 공권정지를 받았던 스님에게 어떻게 지냈냐고 묻자 “종단이 돌아가는 상황이나 풍토가 생경하고 서툰 부분이 있지만, 종단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임명장 수여식에서 자승 스님은 축하 인사와 함께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준비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말하자, 성문 스님은 “동화사 통일대불 지하에 조성중인 템플스테이 선수련원과 선체험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상언 기자

법정 스님이 그린 ‘차묵화’

물파스페이스에서 19일 처음 공개



법정 스님이 35년 전 그린 차묵화. <다경>의 한 구절을 인용해 화제로 삼았다.

법정 스님이 35년 전 봉은사 다래헌에 주석할 때 그린 차묵화(茶墨畵)가 처음 공개된다.

서울 관훈동 물파스페이스(관장 손병철)는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법정 스님을 비롯한 27명의 스님 작품을 전시한다.

‘나는 누구인가(我也誰也)’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물파스페이스가 불교미술문화의 발전을 위해 여는 두 번째 기획전으로, 선(禪)과 차를 주제로 한 묵화와 회화 작품들이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 공개되는 법정 스님의 작품은 가로 35cm, 세로 65cm 크기의 화선지에 차묵화로 표현된 그림이다. 차묵화는 차와 관련된 풍경을 먹을 사용해 그린 그림.

법정 스님의 작품에는 ‘茶經(다경)에 이르기를 차는 바위틈에서 자란 것이 으뜸이요, 자갈 섞인 흙에서 자란 것이 그 다음이라 하더라’라는 화제와 함께 주전자와 찻잔이 표현돼 있다.

물파스페이스 손병철 관장은 “불교와 차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스님은 수행자로서 차에 관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했다”며 “스님의 그림은 예술적으로 뛰어난 작품이라기보다 수행자로서의 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소박한 그림이다. 스님의 그림은 문인화에 가깝다”라고 설명했다.

손 관장은 “1971년 법정 스님이 <영혼의 모음>을 출간할 당시, 책 표지에 들어갈 글씨를 부탁했었다”며 “스님이 봉은사 다래헌에 주석하던 시절이었는데, 스님은 글씨를 써준 고마움의 표시로 이 그림을 나에게 선물했다. 그 동안 개인 소장을 해오다가 이번 전시를 기획하면서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입적한 경봉 · 추담 · 청화 · 일타 · 원담 · 월하 · 중광 스님과 생존해 있는 석정 · 성파 · 향봉 · 수안 · 종림 · 진관 등 28명의 스님들의 작품 40여 점이 전시된다.

소개되는 작품은 손 관장의 소장품, 대여, 기증받은 작품들이다. 5월 19일~6월 1일. (02)739-1997 이은정 기자

MB정부 종교편향적

무설연구소, 지방선거 예비후보 종교의식 조사

6 · 2 지방선거 출마자 중 58%가 이명박 정부가 특정종교에 편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직자가 특정종교 찬양 · 비난하는 것은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의견은 85%에 달했다.

불교무설연구소(소장 법만, 이하 연구소)은 5월 12일 전법회관에서 발표한 ‘2010 정치 · 행정지도자 종교의식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한백리서치에 의뢰해 3월 29일~4월 23일 지방선거 예비후보 85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는 ±3.33%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8.1%(매우 공감 26.1%, 공감 31.9%)가 현 정부가 특정종교에 편향적이라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25.3%였다. 정당별로는 진보신당(100%), 민주노동당(96.2%), 민주당(73.5%) 순으로 야당은 모두 현 정부가 종교편향적이라는 말에 공감했다. 반면, 여당인 한나라당은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43.3%)이 ‘공감한다’는 응답(34.6%)보다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64.7%), 광주(75%), 대전(70.8%), 충남(63.6%), 전북(60.8%), 전남(64.5%), 제주(60%) 순으로 공감의견이 평균보다 높았으나 불교 강세지역인 부산(35.5%) · 경남(38.6%)과 개신교 우세지역인 인천(35.6%)에서는 비공감 의견이 평균 이상이었다.

또, 응답자 85%는 공직자의 특정종교 찬양 · 비난이 정교분리 위반이라 지적했으나 공직자 종교차별 금지 위반 시 처벌조항 명문화에는 55%만이 찬성해 정교분리 원칙에만 공감할 뿐 처벌에는 부정적임을 보여줬다. 상급자의 종교성향이 하급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은 응답자 중 51%였다.

예비입후보자의 종교분포는 개신교(29.9%)>무교(26.4%)>불교(24.2%)>천주교(14.4%) 순으로 개신교와 천주교를 포함한 범기독교 신자는 44%에 달했다.

응답자 중 49.1%는 사회적 영향력이 가장 큰 종교로 개신교를 꼽았다. 이어 불교가 27.5%, 천주교가 15.9%로 조사됐다. 조동섭 기자

‘봉은사 직영’ 갈등 재연 조짐

토론회 이후 잠잠했던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6월 중 열릴 예정인 임시종회에서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을 집행하라고 조계종 총무원에 촉구할 것으로 보여 부처님오신날 이후 총무원과 봉은사 사이에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5월 12일 송진 봉은사 신도회장 등 신도회 임원 10여 명을 초청해 소통을 시도했다. 자승 스님은 “얼굴 표정도 펴고 편안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신도회는 면담 후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송진 신도회장은 “총무원이 한국불교의 변화를 모르고 있다. 종단 입장이 바뀌거나 새로운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면담에 응했지만 나아진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봉은사 前 신도회장단은 이날 오후 자승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봉은사 법석이 오염되고 있어 찾아왔다”면서 총무원 측에 봉은사 직영 전환 집행을 촉구했다.

총무원은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봉은사의 직영사찰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으나, 봉은사 측은 참가하지 않았다.

설명회에서 박용규 총무차장은 발표 자료를 통해 봉은사를 도심포교 활성화를 이루는 종단의 모범도량 등으로 잡고 종단 종책을 모범적으로 구현해 종단 전체로 확산하는 도량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웅기 재가연대 사무총장은 질의를 통해 “봉은사 대중 등에게 직영전환 설명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나, 형식에 머문 것 같아 아쉽다. 설명안도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지적하고 “수도권 포교전략이 없어 저항에 부딪히는 것이니 전략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봉은사 신도회는 9일 ‘봉은사 직영지정 철회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조동섭 기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교지도자 대국민 호소문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대 국민 호소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는 6월 2일에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명선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거에 대한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르고 깨끗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당선 되느냐 하는 것보다 어떻게 당선 되었느냐가 더 중요한 규범이 되어야 하며, 결과와 더불어 과정이 중요시되고, 대립 보다는 상생의 원리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유권자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할 때는 바로 투표할 때입니다. 더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여덟 장의 투표지로 지방자치와 교육의 미래를 이끌 지도자를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정책과 정견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 소극적인 참여보다는 소신 투표를 통하여 유권자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함으로서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 입니다.

이에 우리 7대 종교 지도자들은 6.2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첫째, 민주사회 발전과 국민화합을 위한 바르고 깨끗한 선거 풍토 정착을 위하여 우리 모두 적극 노력합시다.

둘째, 올바른 선택을 위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후보자의 정책 · 정견을 꼼꼼히 살펴보는 소신 투표에 우리 모두 적극 참여 합시다.

셋째, 유권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지방선거가 되게 합시다.

2010. 5. 10

(사)한국종교지도자 협의회

공동대표 의장 이 광 선(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공 동 대 표 자 승(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공 동 대 표 김 희 중(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대주교)
공 동 대 표 김 주 원(원불교 교정원장)
공 동 대 표 최 근 덕(유교 성균관장)
공 동 대 표 임 운 길(천도교 교령)
공 동 대 표 한 양 원(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佛紀2554年 庚寅年 Buddha's birthday |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순수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하면 기쁨은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물체를 따르듯…
- 법구경

韓國佛教 太古宗

宗　　正　崔慧草
宗正禮敬室長　趙常虛

僧正院院長　柳南坡
副　院　長　李寶峰
副　院　長　金法藏

元老會議 議長　金一宇
副　議　長　姜慧宗
副　議　長　權德化

中央宗會 議長　成圓峰
副　議　長　尹靈祐
副　議　長　趙常虛

中央司正院長　朴芸谷
副　院　長　馬一雲

總務院長　朴印空
副　院　長　姜靑峰
副　院　長　閔法顯
副　院　長　李華鏡

宗務調整室長 兼 總務部長 金淸光
敎務企劃室長 兼 敎務部長 朴圓明
交流協力室長 金能海
財政支援室長 車月潭
文化宗務特補 金法顯
財務部長　朴法京　企劃部長　金法雲
社會部長　曺古潭　文化部長　沈智虛
糾正部長　安九山　敎任部長　金道法

■ 한국불교 전통문화 전승관 : 서울시 종로구 사간동 112번지 / TEL 02)739-3450 FAX 02)739-3470

大韓佛教 天台宗

종정 김도용 대종사
종정사서실장 정장호

총무원
총무원장 주정산
총무부장 김무원
교무부장 김유정
재무부장 김용암
교육부장 김세운
사회부장 김경천
규정부장 김영제

원로원
원로원장 윤덕산

종의회
종의회의장 김도산
종의회부의장 정명구
최인규

감사원
감사원장 변춘광
감사위원 이월장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부이사장 전운덕
금강대학교총장 성낙승

참의원장 권영철
중앙신도회장 김학송
원각불교사상연구원장 권기종

■ 총본산 구인사 :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131-1번지 전화 043)423-7100 팩스 043)420-7399 www.chentae.org

2554 BUDDHA'S BIRTH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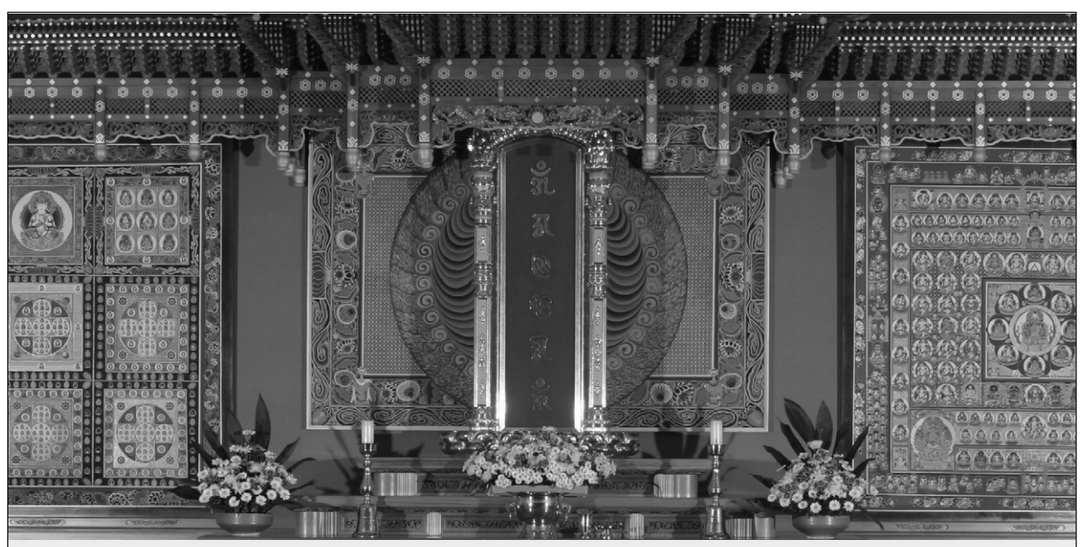
생활불교 실천불교 진각종

진언향기 가득한 참 세상 구현되길 서원합니다.

총　인　도　흔
사서실장　원　암

통리원장	혜정	교육원장	경정
총무부장	수성	교법부장	지정
총무국장	일경	교법국장	효원
기획국장	상명	교육부장	상제
전산미디어팀장	재당	교육국장	정법
재무부장	관천	종의회의장	혜명
포교·문화사회부장	덕정	부의장	일석
포교국장	원혜	부의장	선본
문화사회국장	대원	사무처장	관명
건설국장	의신	사감원장	효운
전승원건립추진팀장	법정	사감부장	정훈
전승원건립추진건설담당	원주	사무국장	청효
국제불교연구소장	덕정	진각대학원장	수성
		교학처장	혜언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136-86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2동 22번지 전화 : (02)913-0751~4 팩스 : (02)913-0755 http://www.jingak.or.kr



불교총지종

불기 2554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불자 여러분의 가정에 법신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력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총지종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상임이사, 불교텔레비전 이사, 불교방송 이사,
한일 불교문화교류협의회 상임이사, 한중일 불교문화교류협의회 상임이사 종단으로서
불교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총지종은 불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종단, 발전하는 종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전화 02)552-1080~3 / 팩스 02)552-1082 www.chongji.or.kr

불기2554년

부처님 오신날

奉 祝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



대한불교관음종 사부대중 일동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178-3 / T :02)763-0054 / F : 02)763-5851 www.kwanum.kr

대한불교 무량종

고　문　혜우 대종사
종　정　혜안 대종사

종정사서실장　보인

원로원장　지은 대종사

종회의장　보인　　종회부의장　보광
기획실장　보광　　사무총장　보성
고시위원장　현장　　상벌위원장　보각

총무원장　보경　　총무부원장　보아
교육원장　보산　　포교원장　무천　　감찰원장　법공
재무부장　효각　　규정부장　범일　　교무부장　도안　　사회부장　원정

■ 대한불교 총본산 칠보정사
■ 경남하동군 적량면 서리 550번지 / 전화 055)883-7771, 7790 / 직통 055)883-7714

방방곡곡 시민과 함께 화합 · 자비나눔 넘실

부산 · 대구 · 김천 · 대전 · 군산 · 청주 · 청원 등 부처님오신날 기리는 행사 '다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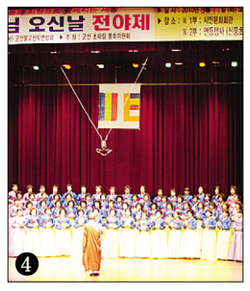
부산, 대구, 김천, 대전, 군산 등 전국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로 열기가 뜨겁다. 천안함 사고, 구제역 파동, 지역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해 전국 사암연합회는 화려한 행사보다는 지역민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데 힘썼다. 특히 대부분의 봉축행사에서 천도재를 함께 봉행해 천안함 희생자 및 유족을 위로했다.

화려한 행사보다는 어르신과 함께하는 자비나눔 경로잔치, 지역시민과 함께하는 시민문화축제, 종단과 종교 간의 화합으로 부처님오신날의 참의미를 일깨우는 자리가 됐다.













❶ 부산 불자들의 소망이 담긴 풍등이 장관을 연출했다.
❷❸ 청주청원불교연합회가 주최한 연등축제가 5월 9일 봉행됐다. 청주 무심천변에서 열린 연등축제에는 지역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어 봉축 열기를 더했다.
❹ 5월 11일 군산 시민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연등축제 전야제 1부 행사에서 군산시연합합창단이 찬불가 공연을 하고 있다.
❺ 왼쪽부터 삼광사 주지 화산 스님,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 미륭사 회주 정각 스님(오른쪽) 등이 풍등을 날리고 있다.
❻ 김천 직지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을 초청해 만발공양 경로잔치를 열었다.

#부산 봉축 열기 후끈~

200만 불자를 자랑하는 불심(佛心)도시 부산에서는 봉축상징물 점등식을 시작으로 봉축 열기가 고조됐다.

부산연등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 봉축상징물 점등식이 5월 7일 부산역 광장 일대에서 열렸다. 이날 밝힌 연등은 21일까지 광장을 환하게 밝힌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정여)가 주관하는 점등식에는 천태종 삼광사를 비롯해 부산지역 각 사찰에서 출품한 장엄물이 한자리에 모였다.

2000여 사부대중은 이날 손수 소원을 풍등에 적어 하늘로 날려 보내기도 했다. 소망성취를 기원하는 풍등은 올해 처음 선보여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12일에는 부산연등축제와 부처님오신날을 시민에게 홍보하는 '대형 장엄등 카퍼레이드'가 부산시 주요 도로에서 펼쳐졌다. 카퍼레이드는 사직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해 구덕운동장을 경유, 해운대 벡스코까지 이어졌다. 선도를 맡은 부산개인택시불자연합회 법륜회에 이어 대형 장엄등 10여 점과 축제 홍보영상 방송차량 등이 카퍼레이드에 참여해 부산 시민의 발길을 붙잡았다.

한편, 부산 기장군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성, 혜광사 주지)는 군내에서 독자적으로 '기장군민 연등축제'를 봉행했다. 5월 9일 봉행된 축제는 불교문화체험, 제등행진, 봉축법요식 등으로 구성돼 여법하게 진행됐다.

기장초등학교 운동장에서는 염주와 컵등 만들기, 전통차 및 탁본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불교문화 부스가 마련됐다. 봉축법요식에는 기장군 내 30여 사암 주지스님 및 최현돌 기장군수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직지사 · 원만사 자비나눔

김천 직지사와 대구 원만사는 어르신과 함께하는 자비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원만사(주지 법홍)는 5월 10일 원만사 경내에서 나눔봉사회 주축으로 경로 위안잔치를 열어 어르신들과 함께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했다.

11일 김천 직지사(주지 성웅)는 경내 만덕전에서 만발공양 경로잔치를 열었다. 경로잔치는 관내 어르신을 모시고 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정성스런 음식과 흥겨운 한마당 잔치로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군산 연등축제 봉행

군산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5월 11일 연등축제를 군산시민회관과 나운동 일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사암 스님과 기관장 등 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법요식에서 성우 스님(금산사 부주지)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오신날의 참뜻을 알고 마음공부를 게을리 하지 말자"며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이웃과 함께 하는 부처님오신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등축제는 군산시 연합합창단의 찬불가 합창, 흥천사 유치원 어린이들의 율동으로 시작돼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또한 화려한 장엄등이 군산 거리에 빛을 발해 아름다움을 더했다.

#대전사암련 시민문화 연등축제

대전불교사암연합회는 시민과 화합, 종단간의 소통으로 부처님오신날을 반겼다.

제2회 대전 시민문화 연등축제는 5월 15일 대전시청 남문광장 건너편 보라매공원에서 진행됐다.

연등축제는 종교행사를 넘어 시민이 함께하는 전통 문화행사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많은 종단과 단체가 참여해 종단간의 화합의 장을 펼쳤다.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지역의 각 종단과 연합신도회, 여성불자회, 거사림연합회, 연합합창단, 종립학교인 보문고등학교 관련 신행단체들이 한마음으로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했다.

대전불교사암연합회 총무부장 법륜 스님은 "한국 불교가 보유하고 있는 전통문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불자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로 만들었다"며 "신도간의 교류와 결집을 위해 불교연합합창제를 열고 시내 곳곳에 연등과 장엄물을 설치해 봉축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제등행렬 구간에서 천태종과 진각종에서는 장엄물을, 태고종에서는 영산재 시연 차량을 특별 제작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충북도민과 함께하는 연등축제

충북도민과 함께하는 연등축제와 부처님오신날 연합봉축법회가 5월 9일 청주 무심천변에서 열렸다.

청주청원불교연합회가 주최하고 충북불교총연합회가 후원하는 이날 축제에는 원봉 스님(보현사 주지), 노현 스님(법주사 주지), 정우택 도지사 예비후보, 청주신행단체협의회 이상칠 회장, 불교단체장들과 회원들, 도내 불자들 1만 여 명이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했다.

노현 스님은 법문에서 "인생에는 어느 것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우리들은 하루에도 수천수만 번의 생과 사의 윤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실속 없는 지혜로는 생사초탈 못하나니, 무상한 도리를 알라"고 설했다.

이어 기관장 및 원로 스님들의 점등식, 불꽃놀이가 펼쳐졌다. 제등행렬은 무심천을 출발해 청주대교, 성안길, 도청 서문, 상당공원까지 이어져 시민과 함께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했다.

박지원 기자 · 혜철 충청지사장
손법천 대구지사장 · 조동제 전북지사장

팔공산 제2석굴암 대구역 봉축 점등식



팔공산 제2석굴암(주지 법등)은 5월 13일 대구역 3층 콘코스에서 부처님오신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주제로 봉축점등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 이채권 본부장, 대구역장 박희범과 불자역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법등 스님은 법어에서 "자비의 등불이 온 누리에 두루 비추어 어두운 무명업장 맑게 가시고 삼계의 고뇌를 모두 벗어나서 일체중생이 성불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반야심경 사경 목사님 이웃종교와 합동법회



이근태 목사가 사경을 하는 모습.

부처님오신날인 21일 충북 옥천 대성사(혜철)에서는 불자들뿐 아니라 개신교 · 천주교의 성직자와 신도들이 함께 봉축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는 옥천성당 신순근 주임신부, 보은 학림교회 이근태 목사와 이웃종교 신도들이 동참해 부처님과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비교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특히 이근태 목사는 직접 사경한 반야심경을 대성사에 선물하며 종교 화합을 발원할 예정이다.

혜철 스님과 옥천성당 신 주임신부는 5년 전부터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 때 신도회 회장단과 함께 상호 방문해 법회와 미사를 합동으로 봉행하고 있다. 조동섭 기자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 조계종 삼화불교

불기 2554년(2010) 경인년 부처님 오신날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종 정
총무원장 : 혜인

■중앙율원장 : 성민
역 경 원 장 : 혜산법종
방 장 : 혜일, 대련
중앙선원장 : 도일

■원 로 원 : 법종, 성민, 혜일, 혜정, 백공, 일봉, 혜경, 천불, 수원, 혜원
종 회 의 장 : 백공

▣총무원
부 원 장: 동안
총무부장: 성산
재무부장: 도불
교무부장: 정덕
사회부장: 원광
문화부장: 지운

총무국장: 남산
재무국장: 묘현
교무국장: 지성
사회국장: 법천
문화국장: 혜일
문화재관리국장: 진각
총무과장: 법산
총 무: 조덕연

교육원장: 혜만
교육부원장: 청호
교육부장: 덕산
교육국장: 지원

포교원장: 정산
포교부장: 보운
포교국장: 법진
국제포교국장: 청목

기획원장: 진성
기획실장: 노사나

호계원장: 정호
호계부장: 지오
규정부장: 월성
규정1국장: 영암
규정2국장: 영산
호법부장: 태산
호법국장: 서산

감찰원장: 상산
감찰부장: 도명
감찰1국장: 인산
감찰2국장: 운산

비구니부장: 지성
총무: 묘현
부회장: 해월
재무: 도은
교무: 현타
교육: 수정, 성담
문화: 원산, 관불
포교: 석경, 보명, 련성
강원: 덕산, 지해
복지: 정해, 보현
감찰: 수산, 본각
불화: 혜담, 인산
의식: 영산, 수옥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교구종무원장: 상산
경기교구종무원장: 도불
인천교구종무원장: 혜원
강원교구종무원장: 광덕
충남교구종무원장: 무광
충북교구종무원장: 백공
대구교구종무원장: 원명
경북교구종무원장: 원광
경남교구종무원장: 도흥

경남서부종무원장: 지원
부산중부교구종무원장: 정오
전북교구종무원장: 정산
광주전남교구종무원장: 지각
제주교구종무원장: 덕산
일본동경종무원장: 정대
미국뉴욕종무원장: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해산
중국청도종무원장: 청목
일본오사카종무원장: 인해

◇ 학교법인 삼화학원 ◇

▣삼화불교대학림
학 장 : 법종 부학장 : 혜원
교 수 : 법종, 백공, 해운, 월곡, 봉선, 혜정, 정산, 박수구, 김수정, 김동균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호,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원광, 묘현, 지성

▣삼화불교대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법종,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도홍,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청산

▣중국남경중의약대학
총 장 : 오멘화 부 학 장 : 황봉, 가산
한국총장 : 손혜인 중고등학교장 : 손영진
학생처장 : 정 노사나 조 교 : 심미, 유위, 손정 국제부교무과장 : 이안산
운영이사 : 혜담, 보현, 본각, 수옥, 관불, 향인, 수정, 현조, 보경, 지해, 지홍, 원산, 해월, 성담

▣종 림
-서울종림 해인사
-삼화종림 백화사
-부산종림 흥국사
-경남종림 백천사
-강원종림 조주선관
-충북종림 청룡사

▣종단법인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본국검도협회
-사단법인 천지무예도협회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조계종 삼화불교신문사
발행인: 혜인
편집인: 조덕연
논설위원: 이기형
사회부기자: 이근진
이사 : 혜원, 정산, 보운, 각원, 덕산, 관불, 해인, 중비, 묘현, 지성 보현, 수옥, 서호, 성화

▣종단사업부
대표이사: 노사나
사업부: 김희곤
삼화불교
좋은상조: 김호철
H&G: 이영호

▣전국신도회
고문: 김윤주
회장: 인권식
사무처장: 이상훈
부산신도회장: 허민
강원신도회장: 김현재

▣청년신도회
회장: 손영진
홍보처장: 박영실
서무차장: 조덕연
기획실장: 조일

총무원: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우135-887
총무국 (02)511-2026~7 / 팩스 (02)511-2028
종단사업부: (02)549-1918

총무원장실 (02)511-1080
조계종삼화불교신문 (02)3445-7375~6
일간동국신문사: (02)511-1080

인터넷주소: 조계종삼화불교.kr (www.shbuddhism.or.kr)
삼화불교신문: www.jogaejong.or.kr
삼화불교학림: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www.njutcm.co.kr
E-mail주소: samhwade@hanmail.net
samhwade@naver.com

“심신의 휴식과 깨달음 준다”

공주 마곡사 10개국 참가 템플스테이 찾은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공주 마곡사(주지 원혜)에서 5월 8~9일 진행된 템플스테이에는 브라질, 멕시코, 인도 대사와 미국,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프랑스, 영국, 인도네시아, 인도, 스페인 등 10개국 부대사관 및 참사, 상공회의소, 관광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행사에는 발우공양, 새벽예불, 타종체험, 스님과의 차담, 탑돌이, 108배, 참선, 포행, 암자순례, 연등만들기, 사찰 안내 등 전국 사찰의 기본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행사가 열린 1박 2일 동안 수행자에 가까웠다.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자세로 모든 프로그램에 처음부터 끝까지 동참했다. 한국어와 영어를 번갈아가며 참가자들에게 적절한 통역에 해석까지 덧붙였다. 그는 원활한 행사를 이끌어가는 촉매였다.

모든 일정을 마친 그에게 소감 대신 깨달은 점을 물었다. “종교를 알면 알수록 결국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교파와 종단이라는 다양한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불교의 원리, 가르침은 종교가 지녀야 할 참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렇게 체험을 하니 더욱 그렇게 느껴집니다.”



5월 8일 마곡사 템플스테이에서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을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젊은 시절부터 종교에 관심이 많아 구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과를 졸업한 종교학도 답다. 종교단체 세미나 관계로 방한한 것이 인연이 돼 한국에 귀화한 그에게 한국불교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이참 사장은 템플스테이가 한국 문화를 알리는 훌륭한 상품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템플스테이는 세계인에게 매력적인 명품 관광 상품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고유의 가치를 가졌으면서도 모든 종교의식, 정신문화를 가졌습니다.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에 대한 극찬도 빼놓지 않았다. 이참 사장은 “한국 불교는 온전하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통큰’ 정신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참 사장은 “배우는 관광, 심신치유의 관광이 요구되는 때에 템플스테이는 종교를 떠나 짧은 시간 많은 깨달음과 심신치유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언 기자**

법화종 총무원장 혜륜 스님 재임

법화종 제18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혜륜 스님이 재 선출돼 두 번째 총무원장 임기에 돌입했다.

법화종 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0일 부산 흥국사에서 임시 중앙종회를 소집해 총무원장 선거를 시행했다. 전국의 중앙종회의원과 지방교구종무원장 등이 참석한 이번 선거는 개표 결과, 재적의원 13명 중 12명이 출석해 11표의 지지를 받아 제17대 총무원장을 지낸 혜륜 스님이 재선출됐다.

이날 혜륜 스님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고, 종정 성파 스님으로부터 제18대 총무원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혜륜 스님은 “대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종단의 종무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승풍을 일으키기 위한 대안으로 승가대학 등 승가를 위한 교육기관 설립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100자 뉴스

분황사, 원효 성사 제1324주기 제향대재



제1324주기 원효 성사 제향대재가 5월12일 경주 분황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 불국사 관장 종상 스님, 분황사 주지 종우 스님, 이평래 원효학연구원장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원효 성사를 추모하고 생전 가르침을 되새겼다. 제향대재가 끝난 뒤에는 분황사 경내에서 어르신 위안잔치와 만발공양 행사가 이어졌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법륜사, 지역어르신 초청 위안잔치



광주 법륜사(주지 월인)는 5월 13일 지역 어른들을 초청해 노인잔치를 벌였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역민들에게 작은 점심공양을 대접하고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태고종 원로의원 지암 스님과 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장 호산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법요식에 이어 전통불교영산회(회장 혜령) 회원스님들의 영산작법과, 민요가수 초청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밀양 용궁사 극락보전 아미타 삼존불 봉안법회

밀양 용궁사(주지 정무)는 5월 8일 극락보전 아미타삼존불 봉안불사 회향식을 봉행했다. 주지 정무 스님은 “용궁사는 사명대사의 구국정신을 이어받아, 지혜와 사랑을 실현하고자 하는 보살정신을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심기 위한 지역 포교 중심도량이었다”며 “이제 수행과 교육은 물론, 교화와 기도 도량으로 일신코자 극락보전 삼존불 봉안불사를 발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증명법사 혜총 스님은 법문을 통해 “역사와 전통을 되짚어 아미타 도량의 명맥을 잇는 주지스님의 원력과 신도들의 열의가 모여 이룬 값진 결과”라며 축하했다. **박지원 기자**

군산 동국사 회주 재훈 스님 교구장 봉행

군산 불교사암연합회장이며 동국사 회주인 재훈 스님이 5월 10일 입적했다. 법랍 54년, 세납 72세.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은 12일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 다비장에서 교구장으로 엄수됐다.

1937년 전북 고창에서 태어난 재훈 스님은 1957년 선운사에서 남곡 스님에게 출가해 1958년 혜원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해방 후 불교정화 활동으로 한국불교의 수행풍토를 조성했고, 1987년 군산 성불사를 창건하고 교도소와 청소년 포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법왕사, 범주 스님 선묵화 전시회

달마도로 유명한 범주 스님의 선묵화 전시회가 5월 8~21일 대구 법왕사(주지 실상)에서 열린다.

법왕사가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마련한 이번 전시회에는 달마스님의 모습을 다양하게 형상화한 그림을 비롯해 산수화, 한산습득도 등 선묵화 70여 점이 선보인다.

전시회 개막식에 맞춰 범주스님이 직접 1미터가 넘는 대붓으로 거대한 달마도를 그리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G20 정상회의 위한 경찰청 봉축



경찰청 법회에 참석한 500여 사부대중이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발원문을 낭독하는 모습.

“인정받는 경찰, 사랑받는 경찰, 존경받는 경찰이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찰청 봉축법회가 5월 13일 경찰청에서 봉행됐다.

경찰청 법회는 경찰청불교회(회장 허영범)가 주최하고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스님)과 서울 도선사(주지 선묵)가 후원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포교원장 혜총스님, 서울 도선사 동광 스님이 참석했다. 경찰청 경승 스님인 계성 스님, 현종 스님, 혜만 스님, 여행 스님과 강희락 경찰청장, 모강인 경찰청 차장,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임희웅 포교사단장, 하복동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 박상필 국제포교사회장 등 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한편, 경찰불교 활성화와 포교활동에 앞장서온 경찰청 불교회원 정미자, 서현숙 씨에게 각각 총무원장, 포교원장 표창패가 수여됐다. **이상언 기자**

충북불교미술인회 불화전시회

충북불교미술인회(회장 이희영)는 5월 7~12일 청주예술의전당에서 불화전시회를 개최했다.

올해 제4회를 맞는 ‘산사에서 대중 속으로’ 불화전시회는 충불불교미술인회가 주관하고 청주 · 청원불교연합회가 주최했다.

충북불교미술인회는 충청불자들의 모임. 평소에는 각자의 예술활동을 하고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해 전통불화, 서각, 민화, 조각, 서예 등을 하는 불자들이 함께 준비했다.

청주청원불교연합회장 광해 스님은 “문화유산 중 불교미술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우리생활 곳곳에 이미 불교미술이 깊게 뿌리내려 있다”면서 “그림을 보면서 자비심을 일으키고 환희심을 내도록 주옥같은 작품을 전시하여 불자들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해인사 원당암 달마선원 ‘가야산 정진불’ 출판기념법회 봉행

해인사 원당암 달마선원(선원장 원각)은 5월 5일 혜암 스님 입적 9주기를 맞아 혜암 큰스님 일대기를 소설화한 〈가야산 정진불〉(정찬주 지음) 출판기념 법회을 문도회장 성법 스님 등 300여 문도와 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스리랑카 사미승, 구례 화엄사서 출가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는 5월 10일 경내에서 한국-스리랑카 장학재단과 협약서를 체결하고 스리랑카 불교에 대한 지원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화엄사의 총무 일문 스님은 “2004년부터 외국인노동자와 이주민을 대상으로 활동 중인 장학재단과 인연을 맺어, 이번 사미승 6명을 포함해 8명의 출가자들을 국내로 초청해 화엄사 강원에서 한국불교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한국불교 원융교단 무문총림

지관(止觀)쌍수 원융 결사문

대한민국의 비구 마정. 정림. 해우. 법인. 덕치. 혜조. 영관. 법천. 원명. 지암. 보당. 해석. 대허. 법붕. 도일. 혜안. 원돈 등은 지관쌍수 원융결사의 원을 함께하여 제방의 선지식을 공경히 맞이하고 청정대중과 더불어 무문총림에서 불전에 헌향하며 지관쌍수 원융결사의 서원을 세우노라.

총림의 동참대중과 더불어 지관쌍수 원융결사로 범행을 이루어 중생을 제도하며 구경에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증득케 하여 선지가 밝게 드날려 정법이 상속하고 중생계가 다하여 부처님의 자비롭고 윤택한 법열에 목욕함으로서 가없는 지혜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분별을 헤치고 진여 본성에 계합하고 무상의 지혜를 증득하여 별도로 수승한 패찰이 없이도 다 같이 불토에 이르게 하여 지이다.

실로 무명 업생인 유정 함식중생들의 숙세 이숙습기는 지혜의 장애가 되므로 업연은 전도되고 산란하여 고통의 바다인 육도윤회에 계박 되므로 윤회의 업연을 벗어나기 어려우나 다행히 제방의 눈 밝은 선지식을 초청하고 수승한 법회상에 인도되어 바른 인연에 훈습함으로서 밝은 지혜의 방편 얻기를 기원하노라.

오직 지혜의 힘은 미약하고 청정한 훈습은 엷으며 세력은 적고 지혜가 용렬할지나 맡은바 소임을 감당함으로서 불은에 보답하고 가없는 법계에 회향되기를 바라노라.

〈 지관쌍수의 지표 〉

1. 제불여래와 역대조사의 규범을 의지하며 널리 불법을 선양하고 오묘한 뜻을 기준삼아 정진함을 **교육의 종지**로 한다.
2. 초기불교와 대승 경전에 의한 교법의 의취에 의지하여 응당히 선교방편으로 진실한 참구와 실천에 의한 증명을 **교학의 방침**으로 한다.
3. 제불 조사의 깊고 오묘한 비밀장에 의지하여 종파와 종단을 초월하여 미약함은 보충하고 넘침은 잘라서 바르게 인도하되 잊은 것을 찾아 증득 하는 것을 **시교의 목표**로 한다.
4. 초기불교와 대승의 가르침 가운데 핵심요결을 발췌하여 학인이 수요하고 실천함에 복습할 수 있도록 보충하고 편제하여 수교과정을 엄격하고 체계화 하여 명백히 인도함에 있어 그 **전적**으로 삼는다.
5. 교학의 편제는 실제로 필요한 것에 의지하고 간결함에 핵심 요결을 삼아 교육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원만하고도 자세히 하는 교학을 실시한다.
6. 교학의 핵심내용을 보충하고 그 내용을 관통하여 온전히 통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완함에 역점을 두어 그 학습능력이 수행과 대중포교에 원만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7. 경. 율. 론 삼장을 의지 하되 역대조사와 선지식들이 가르치고 경계하신 호리의 문장과 제 규범을 널리 포섭하고 함께 의지하여 출가자와 대중이 인천의 사표가 될 수 있도록 우수한 인재로 양성한다.
8. 총림의 조직과 운영은 고래의 전통을 계승하되 학제의 편제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제도적 보완을 적극 활용한다.

불기 2554년(2010) 경인년 부처님 오신날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叢林論示〉
持戒淸淨 止觀雙修 和合大衆

無門叢林 **永平寺**
證明 **圓明. 芝菴**
開山法主 **摩定**
副法主 **正林**

한국불교 원융교단 무문총림
본산중앙협의회 의 장 **석해우** 부의장 **석법인**

조계1선림 본산 법주 **마정** 조동선림 본산 법주 **정림** 대승선림 본산 법주 **법인** 삼론강림 본산 법주 **덕치**
임제선림 본산 법주 **혜조** 정토선림 본산 법주 **법천** 조계2선림 본산 법주 **보당** 화엄선림 본산 법주 **영관**
운영이사: **지암 해석 대허 원돈 법붕** 사무총장 **석원돈**

金悟禪院 院院長 **釋道一**
華山學林 講主 **釋摩定** 靈山律院 律主 **釋慧眼**
중앙불교대학원 재가불자 교육원장 **이홍표**

曹洞禪林 (社)大韓佛敎 須彌山門 曹洞正宗 조동선림 본산 **영평사**
曹溪禪林 大韓佛敎 曹溪宗 조계1선림 본산 **관음사**
三論講林 大韓佛敎 三論宗 삼론강림 본산 **구룡사**
臨濟禪林 韓國佛敎 臨濟禪學院 임제선림 본산 **천년고찰 수암사**
大乘禪林 (社)大乘佛敎 六祖曹溪宗 대승선림 본산 **법타사**
華嚴禪林 海東佛敎 華嚴宗 화엄선림 본산 **희룡사**
淨土禪林 大韓淨土佛敎 曹溪宗 정토선림 본산 **쌍용사**
曹溪禪林 韓國佛敎 曹溪宗 조계2선림 본산 **보국사**

〈 동참할 종단과 사암을 모십니다 〉

■총 림: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44 전화 031)676-0908. 676-3960 / FAX 031)676-2960
■종단본산협의회: 서울 중랑구 망우 3동120-7 전화 02)496-3952-3 / FAX (02)496-3951

佛紀 2554年 庚寅年 Buddha's birthday |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마음이 확고하지 않고 진리의 길
모른다면 지혜의 완성에 이를 수 없다.
- 법구경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본사
효찰대본산
용 주 사

주 지 정 호
특 보 성 로
부주지 성 직

총무국장 성 무
사회국장 본 각
박물관장 보 승
교무국장 탄 웅
포교국장 덕 본
연수국장 대 현
재무국장 응 진
호법국장 성 유

■ 부설
효행박물관
경기불교대학
효행교육원
용주사 템플스데이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188 ☎ 031)234-0040 / 팩스 031)234-2818 www.yongjoosa.or.kr

대한불교 조계종 제 5교구 본사
법 주 사

조 실 범 행
회 주 혜 정
주 지 노 현
사부대중일동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209번지
종무소 : 043)543-3615, 8655 / 원주실 : 043)543-4755
전송 043)543-3620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 곡 사

마음을 맑게하는 수행도량
자연과 하나되는 생태도량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도량

주 지 원 혜

사부대중일동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567 ☎(041)841-6221 전송 841-6227
www.magoksa.or.kr

대한불교 조계종 제 8교구 본사
직 지 사

조 실 영허 녹원 대종사
주 지 성웅



대 중 일 동

www.jikjisa.or.kr

경북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216
종무소 : 054)436-6174, 6013
FAX : 054)436-3174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산 동 화 사

조실 진제 법원
주지 남명 허운

대 중 일 동



신도회장 김석순
신도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번지
Tel (053) 982-0101
Fax (053) 985-4405
www.donghwasa.net

노인전문요양원 **동화사 자비원**
치매, 중풍, 전문노인요양
☎ 053)985-2115 Fax 053)986-2115
http://cafe.daum.net/jabihappy

대한불교 조계종 제 10교구 본사
銀 海 寺



주 지 돈 관
특 보 장 적
부 주 지 태 관
총무국장 범 천
기획국장 성 산
교무국장 원 조
재무국장 혜 안
포교국장 자 행
호법국장 덕 관
사회국장 혜 담
연수국장 대 웅
불교대학 교학처장 동 인

문도대표 혜 인
관 장 돈 명
도 감 혜 휴
원 주 석 담

은해사승가 대학원
원장 요 산

사 부 대 중

♣ 노인장기요양 지정기관 은해사 포근한집 054)335-3314
♣ 자연과 함께하는 장례문화 은해사 수 림 장 054)335-0566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479번지 전화 054)335-3318, FAX 054)335-0293

佛紀2554年 庚寅年 Buddha's birthday |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이 몸은 질그릇처럼 부서지기 쉽나니
이 마음을 튼튼하게 정비하라.
- 법구경

대한불교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 국 사



주 지 성타
관 장 종 상
학 장 덕 민
선원장 종 우
부주지 장 주
총 무 종 천
기 획 정 문
교 무 정 수
재 무 종 천
사 회 각 천
포 교 성 요
호 법 종 민
신도회장 변영우

부설기관
- 분당포교당 석가사
- 불국성림원 (불국사부설 노인요양시설)
- 불국사 문화회관
- 불국사유치원
- 성림어린이집
-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

대 중 일 동

■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 전화 054)746-9912~4 / 팩스 054)746-1476

대한불교 조계종

法寶宗刹海印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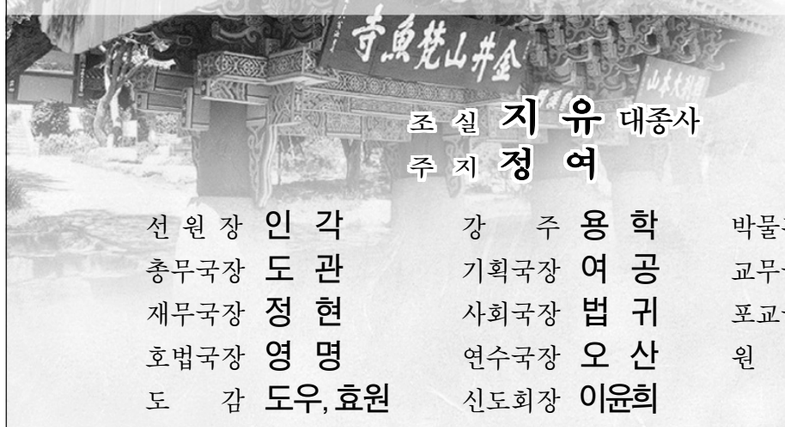
조계종 종정 해인총림 방장
도림 법전
주 지 회암 선각

총림대중일동

www.haeinsa.or.kr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10번지 TEL 055)934-3000 / FAX 055)934-3010

선찰대본산 금정산 # 범 어 사



조 실 지 유 대종사
주 지 정 여

선 원 장 인 각
총무국장 도 관
재무국장 정 현
호법국장 영 명
도 감 도우, 효원
강 주 용 학
기획국장 여 공
사회국장 법 귀
연수국장 오 산
신도회장 이윤희
박물관장 경 선
교무국장 승 련
포교국장 일 광
원 주 정 오



범어사에는 삼국유사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번지 www.beomeo.kr
종무소 TEL 508-3122~5 원주실 508-3636 범어사 템플스테이 508-5726
범어사불교대학 불교회관 4층 TEL 866-7277
(사복) 범어 · (재)범어청소년동네 TEL 508-8822 성보박물관 TEL 508-6139

봉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축
대한불교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 운 사

조 실 현봉 근일
회 주 송암 혜승
주 지 남전 호성

총 무 등운
교 무 성공
사 회 등목
포 교 용담
기 획 지현
재 무 도륜
호 법 정우

고운사 고운노인요양원 원장 성민
영주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도륜
의성노인종합복지관 관장 탄하
템플스테이 연수국장 지견

사부대중일동

홈페이지 www.gounsa.net

■ 경북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116번지 TEL 054)833-2324 / FAX 054)834-6935

대한불교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미륵근본도량 # 모악산 금 산 사



회 주 태공 월주
주 지 벽산 원행
부주지 성우
총 무 원혜
기 획 덕산
교 무 대명
재 무 보순
사 회 응묵
호 법 원성
포 교 덕림
신도회장 김백호

신 도 일 동

■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9번지 전화 : 063)548-4440~2 / 팩스 : 063)548-1390
홈페이지 www.geumsansa.org / 이메일 geumsansa@hanmail.net

대한불교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고불총림 백 양 사



방장 수산 지종
주지 시몽

총림대중일동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번지 TEL 061)392-7502
홈페이지 : www.baekyangsa.org

꽃비 내리고 산천초목 춤을 춥니다

[게재 무순]

모든 중생이 부처로 태어납시다

■ 법전 스님 조계종 종정



오늘은 부처님이 미완의 여래로 태어나서
해탈의 길을 열고 우리 곁에 오신 날입니다.
무생한 삶은 자재하여 오고 감이 없으나
법신은 불멸하여 온 누리에 그 모습을 나툽니다.
찾으면 은현자재하여 엿볼 수가 없고
모든 곳에 응하나 텅 비어 공적합니다.
미오의 근기에 따라 차별을 일으키지만
여러분 앞에 본체의 기용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무명 속에 부처를 빚어내는 밝은 길이 있고
번뇌 가운데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이 있으니
눈앞에 있는 모든 생명이 법신의 구현체요
여러분이 불조대기를 구족한 미륵의 현신입니다.
본래는 범부도 성인도 아니고 이름도 없었으나
어둠에 미혹하여 중생이 되고 부처가 되었으니
오늘은 얽매임에서 벗어나 무위진인을 이룩하여
모든 중생이 부처로 태어납시다.

부처님은 늘 계시니 멀리서 구하지 말라

■ 관음종 종정 죽산 스님



부처님의 광명이 모든 나라와 일체중생을 비추니 시방세계 어느 곳에 어두운 곳이 있으랴.
사람들 각각 스스로의 등불을 지녔으니
어찌 해와 달을 기다려 앞을 찾으랴.
부처님은 영산에 늘 계시니 멀리서 구하지 말라.

영산은 어디에 있는가 중생들 마음속에 있느니라.
마음이 깨끗하면 여래가 절로 나타나니
물이 맑고 밝으면 해와 달이 선명히 비추니라.

희망과 자비가 가득하길 서원합니다

■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



불기2554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복과 지혜가 넘치고
희망과 자비가 가득하길 서원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위하여
심인의 참된 마음을 전하고자
이 곳,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심인의 참된 마음은
집착의 어리석음을 깨치는 광명의 지혜이자,
나눔을 실천하는 무량 불변의 자비심이며,
실천을 이끄는 용맹심입니다.
불자 여러분,
지혜와 자비 그리고 용맹의 마음가짐은
자신을 바로 세우는 수행의 근본이자,
인류 미래를 이끌 희망찬 기운입니다.

그 기운은 시방삼세 두루하여 없는 곳 없어,
일체유정을 이익케하고
안락케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을 내어 쓰는 주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불자여러분,
해마다 찾아오는 부처님오신날은
날마다 나의 몸과 입
그리고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자성법신의 모습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를 깨달아
일체중생의 삶이 지혜로운 행동과 바른 말
그리고 진실한 생각으로 넘쳐
복과 지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마음 평온하면 부처님은 곁에 있다

■ 혜초 스님 태고종 종정



빛의 나라 동쪽 땅
푸른 언덕 우리나라

집집마다 향과 등불과 부처님의 깃대 모시는 풍속 일천 칠백성상 이룩되어
곳곳에서 들려오는 범패와 종과 바라소리
온 나라에 울려 퍼지니
슬픈 사람 슬프게 바다를 향해 울고
기쁜 무리 기쁘게 땅을 향해 웃으면서
또 한 성상 보내는 가운데
우리 부처님 오셨습니다.

남의 말도 잘 듣고 생각 깊이 하여
마음에 들게 말하는 법 익혀서
듣는 마음 평화롭게 하면
어느 틈에 우리 부처님이 곁에 와서 활짝 웃으실 것입니다.

생명 가치 실현하신 부처님

■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고귀한 생명의 가치를 선언하고 실현하신
부처님 오심이여.

봄의 설렘 속에 피어오른 새 잎들이
푸른 물결 되어 함께 노래하네.

삼라만상 모든 존재 서로 서로 의지하듯,
좋은 인연 맺으면서 봉축의 기쁨 나눌지니
실의와 아픔에 빠진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길을 잃고 헤매는 이들을 위해 등불을 밝히라.

기도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기쁨을 얻을 수 없고
땀 흘리지 않으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천지에 바람 불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고
찬 이슬이 없으면 결실을 얻을 수 없느니라.

삼세 불은과 사대은혜에 보답하길

■ 도흔 정사 진각종 총인



오늘은 시방삼세와 육대본체로 계시는 법신 부처님께서 일대사의 인연을 갖고 석가화현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유정들이 받고 있는 고해의 중생고를 떠나게 하고, 안락한 피안의 세계에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불조의 교법 가운데 불생불멸의 수승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불생불멸의 이치를 깨닫게 되면 우주 대자연의 진리와 인생의 진리를 함께 깨닫게 됩니다. 모든 불자와 인류가 중생번뇌의 어리석음을 벗고 열반의 깨달음에 이르는 전미개오의 경지에서 불작불행과 무량선행의 두터운 신행을 실천하면 이 세상은 곧 불국정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불자는 위에 설한 바와 같이 여실지견의 등불을 밝혀서 탐진치 삼독을 여의고 지혜와 자비 그리고 용맹을 실천하여서 삼세 불은과 사대은혜에 보답하는 진실한 불자가 되기를 간절히 서원합니다. 이를 바로 깨쳐 부처님오신날 수행 정진하는 불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와 자비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 효강 종령 불교총지종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불자여러분들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2500여년 전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의 무명을 벗기고 고해에서 벗어나도록 만고불변의 진리를 가르쳐주셨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 가르침이 오늘도 이어져 우리들은 연등을 밝히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투신 뜻을 다시 새기며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시아를 벗어나 온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를 강조하는 불교의 보편적 진리성과 인종과 민족을 초월한 조건 없는 자비심의 확대에 힘입은 것입니다. 인류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계는 미신과 맹신을 버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욱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훌륭한 가르침이 더욱 펼쳐져 온 인류가 전쟁과 테러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빈곤과 기아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불자들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자비 광명이 항상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불교총지종 지성 통리원장



시방삼세에 두루하신 법신 부처님께 귀의 합니다.

뭇중생들을 위해 깨달음의 문을 열어 보이시고 인도하신 부처님 탄신일을 맞았습니다. 불자된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깨달음을 궁구해 나아가는 수행인으로서 부처님 오신날을 경축해 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몸을 받고 부처님 법을 만남은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기에 고통이나 욕락에 떨어지지 않고 수행을 할 수 있고, 부처님의 정법을 바탕으로 깨달음의 길로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 당체로서의 부처님은 허공계에 편재충만하지만 미처 깨닫지 못한 우리네 범부중생들에게는 2500여년 전 역사상 실재하셨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발자취를 좇는 마음이 각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 깨달음의 길을 몸소 걸으신 부처님의 여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은 태자 시절에 사람이 태어나고 병들어 죽는 고통을 목도하고 왕자의 길을 버리고 출가했습니다. 히말라야 설산에서 6년을 고행하신 후 온갖 마군의 항복을 받아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인 무상정등정각을 성취하십니다. 그 후 평생을 길 위에서 설법과 교화에 매진하시다가 길 위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부처님 육신은 사라졌으나 그 가르침은 면면히 계승되어 오늘에 이르렀고 지금도 감로 법문은 항상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지나신 길을 되새기며 우리 교도님들도 더욱 분발하시어 정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법등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일에도 힘써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처님 오신날을 경축하오며 불자님들의 가정에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님의 대자비 광명이 항상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옴마니 반메훔.

정토로 만들 것을 다짐하는 날

■ 자승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꽃은 잎이 되고 그 잎은 다시 꽃이 되는 5월입니다. 낮에는 신록이 산하를 장엄하고, 밤에는 연등이 천지를 밝히니 천등만화가 부처님오신날을 환희로움으로 경하합니다.

구름이 겹으로 가려도 태양은 반드시 출현하듯이 어둠 속에서도 지혜구슬은 빛나기 마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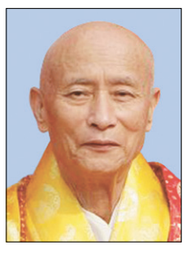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공주(共住)를 위하여 등불을 대강(大江)에 걸고 국민을 받들 줄 아는 공복(公僕)을 향한 등불을 밝히며 종교 간의 화합을 위하여 삼소(三笑)등불의 심지를 돋우어 재삼 점등합니다.

천안함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유가족의 청안을 기원드리며 더불어 걱정해 주시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 주신 모든 국민들은 이 공덕으로 원하는 바 모든 일을 뜻대로 이루시길 지심축원드립니다.

사부대중은 스스로를 등불삼고 부처님 가르침을 등불삼아 여일(如一)한 정진과 자비로운 보살행을 통하여 사바세계를 정토로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날입니다.

부처님의 가피 늘 함께하길 축원

■ 인공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불기2554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온 누리와 시방법계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국민 모두와 불자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기를 축원 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지혜의 빛으로 일체중생의 행복과 영원한 자유의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자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사바세계가 결코 괴로운 세계가 아니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세계임을 정각으로 증명하시며 참된 진리의 세계를 열어 보이시고 깨달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의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보살은 본래 병이 없으나 중생이 병들기 때문에 보살도 병이 든다"는 유마거사의 말씀처럼 타인의 고통이 나의 괴로움과 다르지 않다는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고 삶의 순간마다 깨어 있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깨달음은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들 존귀하니 아끼고 사랑합시다

■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인연이 지중하신 불자 여러분! 환희로운 마음으로 부처님 강탄을 봉축합시다.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룸비니동산에서 일곱 발자국 걸어가서 오른손은 하늘을, 왼손은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아당안지(天上天下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라고 외치셨습니다.

요즘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최고이고, 독불장군으로 잘못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래의 뜻은 우주 만물 중에서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즉 인간의 존엄한 실존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들 스스로를 존귀하게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연이 지중한 나는 그리고 우리들은 고통 속에서 헤매는 모든 중생을 구제 하리라는 대자비심을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뜻은 내가 이 우주에서 가장 숭고함을 깨닫고, 가장 존엄한 내가 중생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이 세상에서 독불장군이 아닌 가장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을 경외하는 일이며, 이것이야 말로 부처님께 올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마십시오, 부처님이 강탄하시며 하신 첫 말씀의 진정한 뜻을 바로 알고 실천합시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강탄을 봉축합시다.

세상은 기쁜 것, 마음 모아 합장

■ 정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늘에선 꽃비가 내리고 땅에선 산천초목이 춤을 추며 부처님 오심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다르지 않음을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나와 네가 다르지 않고 우리가 다르지 않으며 더 나아가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아 일체중생이 다 나의 아들임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몸으로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고, 마음으로는 걱정과 슬픔, 고통과 괴로움으로 응어리진 우리 중생에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본래 늙을 것도 죽을 것도 없는 영원한 생명임을 가르쳐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開示悟入하신 일대사의 인연입니다.

불자 여러분.

사월초파일. 꽃바람에 타고 실려 온 이 거룩한 소식에 우리 모두 마음 모아 합장합시다.

불자와 국민여러분 서로 화합하길

■ (사)대한불교원융종 종정 일공



이 우주의 주인이요, 인천(人天)의 스승이시며, 사생육도 중생의 어버이시고 만고 광명의 등불이신 부처님께서 애민중생 제도하고자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국가로 더불어 온 누리에 거룩하신 지혜광명이 가득함으로 모든 중생들에게 축복과 영광이 함께하여, 소원성취하는 길이 원융의 길이며 국가와 민족에게 충성하는 길이 원융의 길이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입니다.

불자와 국민여러분 서로 화합하여 애국애족하는 호국불교에 매진하여 부처님의 자비희사 정신으로 상구보리 하화중생 제도하여야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바른 해탈로 번뇌 멸해야

■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정 붕해



천항칠보우(天降七寶雨)
인욕불지단(人慾不知端)
종정해탈(從正解脫)
적연귀멸(寂然歸滅)

하늘의 칠보의 비를 내려주워도
사람의 탐욕은 끝을 모르니
바른 해탈을 하게 되면
고요함 속에서 번뇌를 멸하게 되리라.

자비하신 부처님 이 땅에 오소서

■ 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얼마나 울어야 그 한(恨)이 풀리려나
얼마나 죽어야 그 업(業)이 다 녹으려나
외로운 초승달 서해(西海)에 싸늘하고
잔인한 사월(四月)은 피빛으로 붉은데
내탓은 도무지 찾을곳 없으니
동방(東方)에 등불은 업풍(業風)에 흔들리네
자비(慈悲)하신 부처님 이땅에 오셔서
이 민족(民族)의 아픔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실상 깨닫자

■ 대한불교불입종 종정 면철



부처님은 오늘날 참되고 진실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물론 하루만 살고 말 것처럼 인생을 가볍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큰 가르침은 없을 것입니다. 일체 모든 중생은 영원한 생명성의 빛나는 존재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은 생명의 실상을 깨닫는 보배로운 날임을 명심하고 모두가 정성을 다해 정진합시다.

나눔으로 사람사는 세상 만들자

■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혜공



참으로 이 몸 하나 지탱하기도 힘겨운 세태입니다. 시기, 질투, 투쟁, 범죄, 불신 등 모든 부조리가 만연하고 나 자신이 나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니 남인들 나를 믿을 수 있으며 나또한 남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눕시다. 내가 가진 것 아낌없이 모두와 함께 나눕시다. 나눌 것이 없으면 넉넉한 마음만이라도 나눕시다. 소통과 화합으로 맑고 밝고 향내나는, 진정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자성 깨우치고 성불의 길로

■ (사)한국불교정토종 종정 월호



부처님 오시는 길목마다
꽃 향기 가득하고 물향 향기 가득하구나!
어찌 사월초파일만 부처님 오신날일까!
밝은 날도 먹구름 가득하면 어둡고
어둠도 한줄기 빛으로 밝아지는데
하늘은 어둡고 땅은 흙이라 노래하는구나!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정진하면
자리마다 길마다 부처님 자리라내
사부대중이여! 이번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자성을 깨우치고 스스로 성불의 길로 들어가소서!

한 송이 연꽃 피우자

■ 대한불교조동종 종정 지명



지금 우리들의 발 밑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허탈하고 참담한 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숱한 생명과 한줌의 빵과 한줌의 자유를 얻기 위해 중생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만능과 황금병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뒤틀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존의 탄신을 기해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밝히고 한 송이 아름다운 연꽃을 피워봅시다.

나무석가모니불

온누리 연꽃으로 장엄하자

■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도선



부처님이 오신 이유 오직 하나 뿐일세
이천만 불자 하나같이 동체대비 사상을 근본으로 삼아 우리 이웃에 따뜻함과 어두운 곳에는 빛을 메마른 곳에는 물을 주는 그런 온누리 세상을 밝혀 나갈 때 부처님이 사바에 나투신 참 뜻 아닌가,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연등불 밝혀 온누리 곳곳마다 연꽃으로 장엄합시다.

너와 나 분별망상 없애야

■ (사)대한불교금강종 종정 무학



우리는 해마다 부처님 오신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봉축법회를 원만 회향합니다. 그러나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온다하여 어찌 해마다 똑같은 해가 반복 되겠습니까? 금년은 불기 2554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사고와 재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된 불자들은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며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베품을 다해야 할것입니다. 너와 나의 분별 망상심이 없어 질 때 우리는 행복해 질수 있으며 문화, 정치, 경제적으로 일류 선진국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함께 견성성불하자

■ 대한불교미타종 종정 청연



석가여래의 자비광명이 온 세계의 어두운 곳이나 무명에 헤매는 이나 원컨대 두루 다 비추어서 능히 불법으로 하여금 안락함을 얻게 하시고 여래의 은혜가 일체세간에 광대무변하시고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의 가피가 충만하오니 진정 석가세존님을 우러러 존경하는 바입니다. 우리들도 다함께 견성성불합시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뜻을 바로 세워야 행복한 삶 누려

■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창종주 의륜



뜻은 인이요, 행은 연이라. 사람이 행복을 원한다면 반드시 뜻을 바로 세워야 한다. 뜻을 바로 세우지 않고 행복만을 추구한다면 결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가엾이 여긴 뜻을 인으로 삼고 수행을 통하여 연을 맺어 지혜를 과로 삼아 우리곁에 다가 오셨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 수행자는 수행자로서 불자는 불자로서 해야 할일을 잘 살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나를 바로 세우고 이웃과 함께 하는 세상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곁에 오신 참뜻이 아니겠는가.

수행으로 중생 이롭게 하자

■ (사)한국불교미륵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송정



중생사유 업광대 (衆生思惟 業廣大)
종종차별 심희유 (種種差別 甚稀有)
결의수행 무퇴진 (決意修行 無退陣)
이차요익 제중생 (以此饒益 諸衆生)

중생사유의 세계는 업이 광대하니 가지가지 차별로 심희 바라게 됨이라
결단의 뜻으로 수행하여 물러감이 없어서 이로서 중생들을 이롭게 함이라

사랑과 나눔으로 극락정토 이루자

■ (사)대승불교본원종 종정 대화



뭇 생명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혜와 자비의 등불 높이 들고 부처님께서 이 땅위에 오셨으니 우리 모두의 기쁨이요 경사입니다. 다 같이 등불 밝혀 마음껏 봉축하고 오신 뜻 받들어 사랑과 나눔 실천하여 이 땅 위에 다 같이 살기 좋은 극락정토를 실현 합시다.

밝음 없는 것 그 자체가 부처님 본성

■ (사)대승불교조계종 종정 은파



무명실성즉불성 (無明實性卽佛性)
홍환공신즉불성 (紅幻空身卽佛身)
불신충만어법계 (佛身充滿於法界)
만법이역후여시 (萬法以赤復如是)

밝음이 없는 것 그 자체가 부처의 본성이요
허공에 붉게 물듬이 불법이요 그것이 즉
부처님의 법신이라
부처님의 몸은 이 법계에 충만하고
모든 법이 이와 같고 이와 같나니라

계율청정하니 극락이로다

■ 불교조계종삼화불교 종정대행
총무원장 혜인



계육청정하니 극락이로다

우주는 성(成), 주(住), 괴(壞), 공(空)하고
인생은 생(生), 노(老), 병(病), 사(死)라
계율이 청정하니 일체가 만월이요
대중이 화합하니 극락이로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니 천상천하 모든 것이 평등하도다
스스로를 청정하면 이 법이 진리요
청정에 의지하고 진리에 귀의하라
일체중생과 보살이 환희에 넘치고 평등하도다

부처님 탄생 환희 · 경탄으로 합장

■ 국제선불교조계종 종정대행 목탁



천상천하유아독존 삼천개오당안지
天上天下唯我獨尊 三界皆苦吾當安之

모든 부처님이 세간에 출현하시는 것은 중생으로 하여금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함이니 迷妄(미망)을 여의고 스스로 모든 법을 깨닫고 12인연의 뜻을 중생들에게 교도하여 햇볕이 싹을 내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게 하는 보리심의 싹을 내어 무루(無漏)의 도수(道樹)를 자라게 하며 해가 어두움을 없애는 것처럼 중생의 번뇌를 없애는 自覺(자각)과 覺他(각타)를 팔상 성도를 통해 몸소 보여 주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을 환희와 경탄으로 합장합니다.

집착 버리고 부처 이루자

■ 한국대승불교조계종 종정 봉진



너도 부처, 나도 부처 몸을 태어났건만 부처 마음(心)으로 살지 못하고 중생의 마음으로 살아가니 고통이 따르는 구나!

천지인(天地人) 삼세에 중생들아! 집착을 버리고 불심(佛心)으로 살아가면 모두들 해탈하여 부처몸을 이루리라.

나무 아미타불!

마음 통해 근본 생명 자리 알아야

■ 대한불교삼계종 종정 법수



마음자리에 잘못이 없어 자성의 계(戒)이며 마음자리에 어리석음이 없어 자성의 혜(慧)이며 마음자리에 어려움이 없어 자성의 정(定)이고 더하고 덜하지 않음이 자기의 금강이고 몸이 가고 옴이 본래삼매(本來三昧)니라.

일체 마음의 바탕이 되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관하는 것이며 마음 정진하는 법은 첫째가 계행을 지키는 것이다. 그 안정을 통해서 화두를 들던가 염불을 하던가 주력을 하던가. 점점 그 안정이 굳어지고 굳어질수록 지혜가 굳어 지고 이 수행을 통해 근본 생명의 자리를 잘 알아야 하나니.

부처님 출현으로 중생 행복을

■ (사)한국미륵불교 종정 법련



무명의 시대는 걷치도다.
세존은 가시고 미륵부처님이 오시도다
세계는 황사로 뒤 덮혔고
중생은 살기에 바쁘도다 기쁘하시라
여기 해가 밝아오니 미륵부처님 오시는 소식이로다.

서토(西土)의 도반이 동토(東土)에 다 오셨으니 이 이상 희망이 어디 있으랴

이 국토 중생은 행복을 받는도다 중생과 함께 부처님오신날 합장하고 절 합니다.

거룩한 날, 행복한 날 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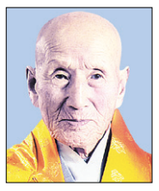
■ 대한불교법성종 종정 덕암



부처께서 무명의 어둠을 밝히려 오셨습니다. 넘치는 욕망으로 번뇌가 쌓이고 쌓이면 불성은 사라지고 사악이 번성하여 갈등과 대립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고통은 불화와 대립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고통은 불화와 대립으로 이어져 넘치는 번뇌로 나와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오늘 하루만이라도 부처님을 닮아가며 스스로 부처임을 알아야 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세상의 주인입니다. 내 가족을 넘어 이웃과 세계의 안녕을 위해 기도합시다. 나무석가모니불

수행 통해 처처 부처 만나자

■ 대한불교선각종 종정 영담



부처님께서 오신 이날, 밝은 연등을 들어 봉축합시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공양을 올립시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이 생사의 굴레를 벗어나 해탈에 이르기를 염원하시는 대자대비이십니다. 이 뜻을 알아 진실된 이치만을 염원하며 불성을 찾아 부처님을 따라 정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되게 사는 것은 내가 아닌 남을 위해 기도하고 행하여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자비의 원리이며 가장 아름다운 덕이며,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며 자성을 찾는 길입니다. 참회의 마음으로 다 비우고 이 아름다운 부처님오신날을 본연의 마음자리에서 맞이합시다.

생사에 속지 않는 소식 알아야

■ (사)대한불교해동종 종정 혜봉



영겁의 세월을 밝혀 오는 동쪽하늘 새벽 별빛은 생사의 속지 않는 노인의 소식이 아니던가?

오늘도 오고 가는 벗들마다 웃으며 권하는 차 한잔이여.

행여 잃을까 두려워 않는 당당한 천백억불 모습이라네

도량청정 이루자

■ 대승불교태고종 종정 법성



도량이 청정하여 더러움이 없음을 우리는 항상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 실제는 많이 소홀한 것 같다 아침저녁 예불시 사시공양불공을 올릴 때마다 항상 우리는 '도량청정무하예 삼보천룡강차지(道場淸淨無瑕穢 三寶天龍降此地)'를 독송하면서도 그 실체가, 행동이 부진한 것 같다. 부처님오신날에는 입으로 하지 말고 몸소 실천해 도량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여 삼보천룡님이 이 도량에 강림하시길 다같이 기원 합시다.

나무석가모니불

마음 속 구름을 걷어야

■ 대한불교우리조계종
총무원장 지도



남이 보는 것도 허망함이 아니요
나를 깨닫는 것도 역시 무생이로다
출세하여 무엇을 노해할 것인가
사람의 마음이란 본래 태평한 것을.

다섯가지 기본적인 덕인 믿음(信), 정진(精進), 마음챙김(正念), 선정(定), 지혜(慧)등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섯가지 덕을 통해 마음의 때를 확 벗어 버리고 귀를 열고 정각하여 성불에 이르기를 바라면서. 나무석가모니불

온세계 티끌마다 부처님 몸

■ (사)대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청해



푸른산 푸른물이 나의 참모습이니
밝은달 맑은 바람의 주인은 누구인가
본래부터 한 물건도 없다 이르지말라
온세계 티끌마다 부처님 몸 아니런가
심심심(心)이며 난가심이라
마음을 마음이라 하는 마음이여
기희 찾기 어렵도다
크게 나타낼때는 천지도
오히려좁고 작게 쪼그라들때는
바늘 끝으로도 짚일 것 없도다

본성 깨우쳐 피안에 이르자

■ (재)한국불교원광원 이사장 선진



부처님 오신날은 부처님께서 부모에 수생(受生)하시어 뭇 생명은 반야법신을 구족한 본래부처임을 자각시키기 위해서 사바세계(娑婆世界)에 오신 날입니다.

일찍이 삼세제불(三世諸佛)은 만유(萬有)에 평등하시어 진실불허(眞實不虛)의 참 마음으로 적정열반(寂靜涅槃)의 활로(活路)를 제시(提示)하시기 위하여 우리 곁에 몸을 나투셨습니다.

오늘은 여래께서 지혜와 자비로서 일체중생을 위해 인토(忍土)에 오시었으니 우리 모두 신령스러운 본성을 깨우쳐 자타(自他)가 피안(彼岸)의 세계에 도달하고자 정진합시다.

부처님 오심은 자유와 평등 선언

■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정산 법진



선학원 설립자의 한 분이신 만해 한용운 스님께서는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성탄' 시에서 "부처님의 오심은 이 곳과 저 곳에 밝고 어둠이 없고, 너와 나에 살고 죽음이 없음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연등과 더불어, 마음속 진리의 등을 환희 밝혀야 할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진리의 등을 밝히려면 믿음을 심지로 하고, 자비를 기름으로 하며, 생각을 그릇으로 하고, 공덕을 빛으로 하여, 탐진치 삼독심을 없애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사회의 모든 어둠을 소멸하기를, 그리고 소외받는 자들에게도 부처님의 광명이 충만하기를 기원합시다.

한 등, 한 등 부처님 뜻을 걸자

■ 일붕법왕종 종정 혜운



"금불은 용광로를 건너지 못하고, 목불은 불을 건너지 못하고, 니불은 물을 건너지 못한다."

우리에게 세가지 부처가 있으니 부처님 오신 날, 우리는 어떤 부처님을 맞이 할 것인가. 내안에 부처가 있으니 이 또한 어떤 소식인가. 해마다 부처님오신 날은 어김없이 돌아 오는데 내 안의 부처는 보지 못하고 있으니 이 또한 어떤 도리인가.

금불이거나 목불이거나 니불이거나 부처는 한 몸으로 차별이 없는데 사람이 굳이 이를 갈라 놓고 딴 데서 부처를 찾는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불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총무원장 연화



백운일월역무상 (白雲日月 亦無常)
풍수거래역무상 (風水去來 亦無常)
천지일물무상회 (天地一物 無常外)
만물본래비유상 (萬物本來 非有常)

해와달 흰 구름이 무상하고
물과 바람 오고감도 역시 무상이요
천지간 한 물건마저도 무상할진 데
어찌 만물 중 무상하지 않음이 있으리오

불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두 손 모읍니다.

부처님 발자취 일깨우자

■ 대한불교대원종 종정 신풍



부처님오신날을 계기로 우주의 근원적인 질서에 순응하고 저 무명대정(無名大定)으로 부터서 우리는 부처님 품속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맑고 맑음이여 거룩하고 거룩함이여 이제 나의 전신에 깃들어서 우리 모두 부처님의 발자취를 일깨워서 본각시분(本覺是分)의 자리에 안주하도록 정진합시다.

상생과 나눔 실천 발원하자

■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부처님은 사바세계의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생들을 가엽게 여기시어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부처님오신날에 밝히는 연등이 우리들의 어두운 마음, 무명을 지워내는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시다.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는 상생과 나눔의 실천으로 고통이 없는 세상, 그늘진 세상을 밝음으로 이끌기를 큰마음으로 발원합시다.

내가 부처라 믿고 수행정진해야

■ 한국불교법안조계종 종정 운봉



부처님께서는 오늘만 오신것이 아니라 항상 불자님들의 마음속에 와계십니다.

행복은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신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진리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의 불성을 믿고 여여하게 생활해 나간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금강석 같은 믿음으로 자신이 부처임을 믿고 수행해 나갈 때 자신의 부처와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로운 삶을 가꾸기 위해 뚜벅뚜벅 수행정진 합시다.

솔선수범이 자비요 진리

■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 회암



만세를 두고 변치 않는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고 범부중생의 부질없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며, 세속의 생활을 벗어나 출가 승려로 수행하는 교단의 일원으로써 언제나 중생을 위해 부드럽고 온화하고 착하여 성실하게 교화하고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거나 높이는 짓은 수행의 근본이라 할 수 없나니 먼저 깨쳐 솔선수범만이 자비요, 보살이요, 진리다.

그러므로 고해가 없나니.

날마다 좋은날 이루자

■ 대한불교화엄조계종 종정 법정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새로운 불교인의 진정한 도리에 대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불교인은 항상 상구보리 하화중생 하며, 부처님 진리의 가르침을 따르며 수행하는 것이 진정한 불자의 길입니다.

더불어 항상 참회하여 마음을 맑게 해야 합니다. 범부의 어리석음과 고해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부처님의 진정한 말씀을 새겨 항상 날마다 좋은날이 될 수 있도록 수행 합시다.

(사진은 덕정 스님께)

습관에 안주하지 말고 정진하자

■ 대한불교법상종 종정 자봉



어법가립유가중 (於法假立瑜伽中)
약행어일시대의 (若行放逸失大義)
의지차법급유가 (依止此法及瑜伽)
약정수행득대각 (若正修行得大覺)

법으로 거짓 세운 유가 가운데
만일에 방일하면 큰 뜻을 잃고
이 법과 그리고 유가에 의하여
바르게 수행하면 대각을 얻으리
수행과정에 물든 습관에 안주말고 정진하여 부처를 이룹시다.

하심으로 화합 · 공경 이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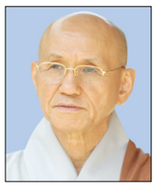
■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회장 송산



계율을 지킴으로서 화합하고 공경하며 (同戒和敬)
견해를 지님으로서 화합하고 공경하며 (同見和敬)
수행함으로서 화합하고 공경하며 (同行和敬)
서로 예절을 지킴으로서 화합하고 공경하며(身慈和敬)
바른 언행을 지님으로서 화합하고 공경하며(口慈和敬)
서로의 뜻을 존중함으로서 화합하고 공경함을 생활화 합시다.(意慈和敬)

보살행을 실천하는 거룩한 불자

■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나와 이웃, 자연과 삼라만상은 별개(別個)가 아닌 한 몸, 한 생명의 동일법성(同一法性)인 것입니다. 연기법을 깨달을 때, 마음에는 자비심이 생겨나고, 다툼과 갈등과 반목이 평화와 행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계 국제개발구호단체인 지구촌공생회는 도움이 가장 절실하고 긴급 구호지원이 필요한 빈곤 국가 곳곳에서 활발하게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살리고 보살피고, 함께 행복하겠다" 고 서원한 자비의 힘이 만들어낸 기적과 같은 일들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모든 생명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보살피는 보살행과 깨달음의 사회화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에게도 관심 · 사랑의 연등을

■ 파라미타청소년협회 회장 도후



온 우주의 스승이신 부처님도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시고, 청소년기를 거쳐 훌륭한 인류의 스승이 되셨습니다.

처음부터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씨앗이 발아하여 잎과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 정성을 담아 연등을 밝히듯 미래의 부처님인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관심과 사랑의 연등을 켜주시기를 발원합니다. 시방세계 모든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와 남이 없는 일체된 마음으로

■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정련



세상의 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맑고 아름다운 마음이 지혜요, 뭇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자비입니다.

내가 그러하듯 일체 생명은 하늘 위 하늘 아래 두루 평등하고 원천은 둘이 아닌 하나인 것으로 무엇과도 비유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모든 만물은 마음으로 이어져 있어 밝은 세상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나와 남이 없는 일체된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어둠을 밝히는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온 누리에 환히 비추는 부처님오신날을 발원합니다.

생명나눔은 더불어 사는 기쁨

■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이번 부처님오신날에는 불자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자리이타(自利利他)와 동체대비(同體大悲)의 가르침을 따라 가난과 병고에 시달리는 소외된 이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명나눔은 나, 너, 우리가 더불어 사는 기쁨이며, 세상을 좀 더 행복하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실천입니다. 저희 본부도 더 많은 이웃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 모금 · 홍보활동을 활발히 해나가겠습니다.

생명나눔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언제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서원합니다.

중생 하나하나가 등불 되는 날

■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본부장 명진



세존께서는 어리석고 캄캄한 중생들의 세상을 광명으로 밝히는 빛으로 나투셨습니다. 지도자는 여민동락(與民同樂)의 마음으로 봉사하며, 가진 자는 나눔으로 선근복덕을 엮어가고, 얻은 자는 이타의 베풂으로 자연의 진리에 순응하는 진정한 염화미소의 소통과 만물동체의 일여한 화합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진리의 꽃비가 사바의 만 중생에게 두루하는 신록의 계절에, 이 땅에 오신 아기부처님을 맞이하여 중생 하나하나가 등불이 되어 탁세의 어둠을 걷어내고, 광명천지의 가피가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자비로 희망과 용기 나누는 삶 서원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 퇴휴



불기 2554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불자님들의 가슴에 부처님의 자리이타 정신과 자비 광명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측은히 여기시고, 한량없는 자비의 마음을 베푸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소통부재로 인한 피해와 민주주의 후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날로 심해지고 있고, 서민들의 고통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고통 받는 모든 이들에게 자비와 진리를 제시해주신 부처님의 삶을 되새기고,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희망과 용기를 나누어주는 삶을 구현하여 정토사회가 구현되길 서원합니다.

자비 · 나눔 · 평화가 공존하는 세상

■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불기 2554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자리이타의 거룩한 정신이 온 누리에 널리 퍼져 지구촌 곳곳에 자비의 꽃이 피어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번뇌와 무명 속에 고통 받는 인간과 일체 중생의 깨달음을 위해 부처님이 이 땅에 나투신 참으로 뜻 깊은 날입니다.

부처님의 큰 가르침에 따라 자비와 나눔을 적극 실천하고, 인류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이 되도록 모든 불자들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불자를 비롯하여 국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고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평등과 공존 사상 되새기는 날

■ 불교상담개발원 원장 담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인간과 자연,
유정물과 무정물은 평등한 관계 속에서 공존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인간들이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
환경을 파헤친 결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불기 255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부처님께서 무엇을 우려해서 그렇게 간곡히
공론의 법칙을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 번 되새기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진여의 뜻을 만방에 찬탄하세!

■ 대한불교삼보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태풍은 손발 없어도 큰 모양을 변화시키며
일월은 손발 없어도 만물을 길러 내듯이
인간은 만물의 창조자로 큰 작품을 되찾아
불조의 오신 진여의 뜻을 만방에 찬탄하세!

오늘은 좋은 날!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회장 도경



꽃비가 흩날리는 부처님오신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와 고행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 만유불성(萬有佛性)과 동체대비(同體大悲)의 가르침으로 중생들의 앞길을 밝혀 주셨습니다.

본회도 다양한 계층과 소통하고 나눔으로 어린이 · 청소년 포교와 교육에 힘써 미래불교의 주역이 될 새싹들에게 아름다운 부처님의 종자를 심어 주고자 서원했습니다.

법회지도교사와 레크리에이션 전문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하여 처처(處處)에서 소통과 화합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불교포교로 성숙한 불교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편견과 편협을 버리고 올바른 길로

■ 청와대불자회 회장 박재완



부처님은 삼라만상이 서로 의지하며 좋은 인연이 맺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청와대 불자들도 이러한 부처님 가르침을 좇아 불국정토(佛國淨土)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정부의 생각이 짧거나 미치지 못한 점을 일깨워 주신다면, 허심(虛心)으로 듣고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석가모니의 근본 가르침인 팔정도(八正道)의 참뜻을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저부터 편견과 편협을 버리고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희망과 전법의 등불을 밝힙시다

■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 김의정



희망과 전법의 등불을 전하는 진정한 불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힘들고 배고프며 아픈 이들을 위해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성인의 눈과 마음으로 중생들의 고통을 감내하며 힘과 용기를 북돋아 줘야 합니다.

이(理)와 사(事)에 구분이 없고, 정(正)과 사(邪)를 초월하는 자비행으로써 오로지 이웃에게 희망과 전법의 등불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며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법신광명이 함께하고 하시는 가업이 승승장구하심을 삼보 전에 삼가 발원드립니다.

지혜와 자비가 법계에 이루어지이다

■ 불교인재원 이사장 엄상호



촌음의 선정으로 아라한과를 증득해서 모든 번뇌를 소멸할 수 있는 행복을 포기하고 연등부처님께 보살 수기를 받으므로 칠천생의 육도윤회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제도한다는 원력 보살의 바라밀 수행을 통해 이 땅에 여래로 오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원하나이다.

인재 양성으로 부처님 가르침 실천

■ 동국대학교 총장 오영교



크나큰 지혜를 주고 가신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앞에 고개 숙여 귀의하며, 부처님 오신 날, 우리 모두 마음의 등불을 켜고 진리와 자비로 자신의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히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두루 비춰 가정 내 화목이 깃들길 발원합니다.

화합의 부처님이 함께

■ 조계종 포교사단 단장 임희웅



부처님께서는 삼계가 모두 고통 속에 있으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하게 하리라 하시며, 무명의 전도망상을 깨고 환한 진리의 등불을 밝혀 구경열반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여 스스로 어둠을 밝히는 포교사가 되고, 미혹에 빠진 일체 중생들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는 포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생의 삶을 이루자

■ 교수불자연합회 회장 최용춘



우리들은 매사 스스로 책임지는 주인의식을 갖고, 나와 너 우리가 제각각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세상에 서로 이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여 나의 타산적 계산과 다툼을 버리고 상대의 가치와 존재를 인정하고 소통을 통한 화합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불교정신은 지혜와 자비를 중심으로 관용과 화합을 실천하는 것인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아집과 욕망을 벗어 버리고, 서로 아끼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부처님법과 혜안 절실히 그리운 때

■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 정웅정



천안함 사건, 4대강 사업, 종교편향 등 수많은 사건과 사고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그 어느 해 보다도 부처님의 법과 혜안이 절실히 그리운 때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사셨던 모습을 닮아가고자 노력한다면 지금 올려 퍼지는 고통과 갈등의 울음소리는 기쁨과 행복의 메아리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부처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불제자인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의 갈등과 반목을 넘어서서 소통과 화합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향기롭게 해주시는 부처님

■ 국회 정각회 회장 최병국



생명의 빛 가득한 불기 2554년, 우리 인류의 큰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온 국민과 함께 봉축합니다.

사생자부(四生慈父)이신 거룩하신 부처님께서는 일체중생을 암흑과 번뇌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생명이 빛으로, 우주의 영원한 광명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이 온누리에 충만하여 고통 받는 중생이 한 사람도 없도록 기원합니다. 우리 국회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여 동체자비와 이타행의 정치로 나라의 안보가 튼튼하고 민생이 편안하도록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세계는 한 송이 꽃과 같습니다

■ 국제포교사회 회장 박상필



세계는 한 송이 꽃과 같습니다. 온 세계는 서로 연결되어있습니다. 이주민 110만 명이 넘는 우리사회는 또 다른 변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다문화 시대에 살아가야하는 숙제가 놓여있습니다. 다양한 종교, 다양한 피부색깔, 다양한 역사를 지닌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이주민 2세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전통을 이어받은 어린아이들이 한국인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가치와 존재를 이해하고 화합하며 오손 도손 살아가는 지혜를 열게 하소서.

즐거운 마음으로 소임 다하겠습니다

■ 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 하복동



부처님은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음을 몸소 보여주시고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나 무명과 미혹 속에 사는 범부중생은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삼독(三毒)에 젖어 있습니다. 지구촌 반대편에서 발생한 작은 풍랑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며 우주 삼라만상이 서로 그물처럼 얽혀 있다는 부처님 말씀의 깊이와 오묘함을 실감케 합니다. 우리 공무원 불자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소임을 성심껏 바르게 수행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고 기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불법을 외호(外護)하는 호법신장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연기적 소통의 새 문화를 일구자

■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김동건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이 인연으로 맺어져 있어,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관계성의 회복을 선언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자와의 관계를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삶은 종국에는 스스로도 파멸로 몰아넣습니다.

강물의 흐름을 조작하는 4대강 사업이 더 이상 국민의 마음을 파헤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겠습니다. 생명 가진 모든 것들의 관계성을 더는 파국으로 몰아서는 안 됩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종교 강요로 상처를 주거나, 정치와 종교가 유착하여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일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립시다

■ 불교여성개발원 원장 이은영



우리는 각자 자신의 존엄함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이웃과 더불어 모든 존재의 존엄함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존엄함은 존중되지 않으며 무지로 인한 차별과 억압이 존재하므로 이 세상은 괴로운 것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유정 무정의 모든 존재가 서로 존엄성이 발휘되고 있는 세계가 진리의 세계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고통과 질곡의 땅 예토를 안락과 해탈의 땅 정토로 바꾸기 위한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는데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기쁨과 정진의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평온한 삶·공존을 위해 노력하자

■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 의장 장 루이 토랑



그리스도인들과 불자들은 모두 인간 생명을 깊이 존중합니다. 우리가 평온한 삶과 평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환경 의식을 증진하는 데 더욱 노력한다면, 더 많은 소유보다는 더 나은 존재에서 의미를 찾는 품위 있는 생활 방식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불자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거듭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존엄은 종교인의 공동확신

■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추기경 정진석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우리 종교인들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인들이 먼저 자비와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며 이념과 사상, 종교적 신념을 넘어선 대화합의 길을 걸어간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처럼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을 위해 종교인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 사회는 좀 더 맑고 향기로운 세상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 기쁨이 넘치는 세상 이루어지길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권오성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모든 불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고통의 시대에 쉬지 않고 선을 행하고, 생명과 화해, 평화를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아름다운 세상이 열려지리라고 믿습니다. 기독교와 불교를 포함하여 이 땅의 서로 다른 종단들이 대화와 협력, 섬김과 봉사에 공력을 기울일 때 우리 시대의 방향이 바로 서고, 대중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선업(善業)이 결실 맺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함께 하는 한국 불교의 결지(決志)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하여'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빌며, 다시 한 번 더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일한의원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250-14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25-중-2672호

코막힘 한방(韓方)으로 해결!!

코막힘 한방(韓方)
코막힘,비염,축농증

코막힘,비염,축농증 답답하시죠?
이제 다년간의 연구와 연구성과를 거둔 죽전네거리 동일한의원에서 한방(韓方)으로 치료해 보세요!!

코가 정말 시원합니다



한의학박사 보건학박사 원장 노 동 일
전)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매주 수요일 오후 휴진)



☎ 053)552-8800

백중행사준비는 붓다쇼핑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그동안 붓다쇼핑을 찾아주시고 구매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영가천도다라니
할인가 800원(200개 이상) 정 가 1,000원
• 구성 : 금강경탑다라니,지장경탑다라니, 아미타경탑다라니, 신묘장구탑다라니,천수다라니,개팔전,상평통보,만관, 신묘장구대다라니,지전,봉투

종이영가옷 (남자/여자/동남/동녀/수자)



A형-남 정가 1,500원 A형-여



B형-남 정가 1,300원 B형-여



C형-남 정가 1,200원 C형-여



동남 정가 1,000원 동녀



수자영가옷 정가 800원



예수재함A (50개 1박스)



예수재함B (50개 1박스)

네이버 검색창에 [붓다쇼핑]을 치세요~



한지접은 영가옷/위패
100개 30,000원
• 남자/여자/위패



금강경탑다라니
할인가 150원(600개 이상)
• 크기 : 53×180㎜



고급종이신발 1켤레
할인가 1,500원
정 가 2,000원



축원카드 칼라
할인가 60원(2,000장 이상)
정 가 10,000원(100매)
• 크 기 : 268×190㎜



축원카드 금장(가로/세로)
할인가 60원(2,000장 이상)
정 가 10,000원(100매)
• 크 기 : 268×190㎜

동진기획·붓다쇼핑
☎(051)515-8888
※ 37년 전통의 동진/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 불교달력카다록은 매년 8~9월에 우편발송합니다.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 515-2988, 555-1087, 508-9377~8
휴대폰 : 011-554-2988, 011-879-0889
팩스 : 508-0101 인터넷 : 070-7425-0518
♣ 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 엄 사

조 실 도천 도천
문 장 혜광 종산
선원장 장월 현산
주 지 포월 종삼

부주지 영관
재무국장 우석
포교국장 대요
기획국장 원문
사회국장 성문
호법국장 우범
총무국장 일문
교무국장 우화

■ 주소 :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번지 전화 061)783-7600



대한불교조계종 제 24교구 본사

도솔산 선운사

주 지 법 만
사부대중 일동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안내
- 봉축 법요식 - 오전 10시
  법어, 육법공양, 관불의식 등
- 고창군민 어울림마당 - 오후 2시
  살풀이, 지역민 초청한마당, 연등 만들기 등
- 연등축제 7시

■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500번지 전화 063)561-1422 홈페이지 http://www.seonunsa.org

꿈이 이루어지는 낙 산 사

(봉) 불기 2554년 부처님 오신날 (죽)



www.naksansa.or.kr
관음진신주처 관음성지 오봉산낙산사

■ 낙산사
- 무산사(양양포교당)
- 낙산사불교대학
- 관음회
- 보현회
- 의상회
- 바라밀회
- 합창단

■ 낙산사 복지재단
- 낙산사상락원
- 낙산노인복지센터
- 무산지역아동센터
- 의상도서관
- 낙산무료급식소
- 낙산모자원

대한불교조계종 낙 산 사

설악산 신흥사 조실 무산 오현 주지 무문

사 부 대 중 일 동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5번지 ☎ 033) 672-2447~8 홈페이지 www.naksansa.or.kr

불기2554년 4월 8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온누리에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승보살의 서원과 실천으로"



선학원에서 열린 조선불교선종 제 1회 수좌대회(1931년 3월 14일).

재단법인 선학원 임원 일동

재단법인 선학원

우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40번지 | 전화 (02)734-9654~6 | 전송 (02)734-3410

불기 2554년(2010) 경인년 부처님 오신날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사단법인 한국미륵불교

승정원장	청호 만오	직할교구종무원장	대 력
종회의장	지언 만성	서울교구종무원장	홍 각
총무원장	화륜 송봉	경기교구종무원장	일 광
사무총장	덕산 남송	인천교구종무원장	도 경
선원장	도 행	대전교구종무원장	보 성
호법원장	삼 장	대구교구종무원장	금 강
교육원장	지 언	울산교구종무원장	성 산
포교원장	대 력	부산서교구종무원장	청 련
문화원장	법 륜	부산남교구종무원장	도 경
국제문화원장	일 교	김해교구종무원장	관 음
감사원장	도 경	창원교구종무원장	법 장
포교사회회장	보 하	동마산교구종무원장	대 행
포교사회부회장	청 정	마산교구종무원장	대 비
중앙신도회회장	승만석	제주교구종무원장	혜 봉
중앙신도회부회장	권탁위	일본동경교구종무원장	만 공
중앙신도회부회장	김영규	종정실 사서실장	정산 금봉
중앙신도회총무	이금동		

■ 총본산 대무량사 : 경남 고성군 대가면 양화리 578번지 / 전화 055)672-4591~2 , 672-4394

사단법인 한국미륵불교 종단등록자중 제3차 제적자공고

◆아래 사찰 및 승니 · 포교사는 정관 제6조 및 8조, 종헌 제 18조에 의거 정기총회결의로 제적공고함
◆제적일자 : 2010년 3월 1일부,
◆제적자는 본 종단 명의로 일체 업무금지, 사찰등록증, 승려 · 포교사증 무효
◆본종단 소속사찰로 사업자등록(세무소)을 즉각 취소 요망.
년말정산기부금 영수증 발급금지

성 명	불 명	사찰명	승 번	주 소
김희안	규봉	용 암 사	A006-020	대구시 서구 비산5동
김재용	동봉		A007-027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정희섭	보은	약 수 암	A006-	경남 함양군 마천면
김창순	행련	대 왕 암	B004-002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3가
박봉순	문수	석 불 암	B004-003	울산시 중구 북정동
김정희	금련		B006-020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최정옥	원림		B006-025	경북 예천군 예천읍
신명수	일봉	용왕정사	A008-034	울산시 남구 신정5동
문성분	대륜	보 현 사	B007-027	울산시 중구 교동
구현자	덕화	칠 성 암	B008-039	울산시 동구 화정동
박명순	덕애	법 수 암	B008-040	울산시 동구 화정동
공정숙	정수	희 성 암	B008-041	김천시 아포읍 대성리
김춘자	옥경	옥 정 암	B008-038	울산시 동구 화정동

이상 13명 제적

불기 2554년 4월 8일

사단법인 한국미륵불교 이사장 신용태 법련, 총무원장 강 경우 송봉



수행 통해 자신이 부처임을 깨닫는 것이 부처님 오신 뜻

부산 해운정사 조실 진제 스님

진제 스님은 ...

1934년 경남 남해에서 출생해 1954년 해인사에서 출가해 석우 선사를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1957년 통도사에서 구족계 수지 후 제방 수선안거했다. 1967년 향곡 선사로부터 법을 인가받아 석가여래부촉법 제79법손으로 정법맥을 이었다. 1971년 부산 해운정사를 창건한 스님은 선학원 이사장, 문경 봉암사 태고선원 조실 등을 역임했다. 2004년 대종사에 추서된 스님은 현재 조계종 원로의원이며, 해운정사 금모선원 · 대구 동화사 금당선원 · 조계종 기본선원 조실이다.

법어집으로는 〈옛 못에서 달을 건진다〉 〈돌사람 크게 웃네〉 〈선 백문백답〉 〈석인은 물을 긷고 목녀는 꽃을 따네〉 등이 있다.

진리의 눈 열려야 부처님 '살림살이' 알 수 있어

'화두' 시비분별 떠나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공부

부산 해운대는 서울의 강남 버금가는 신천지이다. 해운대 백사장 인근 동백섬에는 2005년 제13차 APEC 정상회담 회의장으로 사용됐던 누리마루가 세워졌다. 그 주위로는 해안가를 따라 마천루가 펼쳐져 있다. 중생의 욕망으로 깊은 밤에도 불야성을 이루는 해운대 번화가와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위치하며 진속일여(眞俗一如)의 가르침을 보이는 도량이 있다. 해운대 장산 자락에 자리한 부산 해운정사가 그곳이다. 해운정사는 진제 스님이 참선 대중화를 위해 1971년 창건한 사찰이다.

5월 21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어느 날,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식으로 꼽히는 진제 스님을 만나기 위해 해운정사를 찾았다.

해운정사에 이르니 해운대 시가지가 굽어보였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맑은 날에는 일본 대마도까지 보인다고 한다.) 얼마 오르지도 않은 곳인데 높지도 낮지도 않은 장산 중턱에 위치한 곳에서의 시원한 풍광은 나그네에게 신이하기만 했다. 풍광을 만끽하려는 순간 지척에서 처소를 나선 진제 스님이 보였다. 스님은 나그네를 본 체 만 체 도량을 둘러보고 있었다.

"오전 일찍 찾아뵌다고만 말씀드렸는데, 설마 (나그네가 도착한) '때'를 알고 나오신 것일까?"

기자라는 직업 때문인지 나그네는 의심이 많다. 신 · 해 · 행 · 증의 첫째가 믿음이라는데 일단 의심부터 하는 통에 나그네에게 한 소식 할 시절이 있을까 싶다.

부처님은 〈안반수의경(安般守意經)〉에서 "들숨과 날숨의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했다. 나그네는 어느 선지식에게서 들은 기억이 있다. 호흡이 들고 나는 '때'를 바로 알면 세상의 모든 '때'를 알게 된다고.

시자스님에게 소식을 알렸다. 그리고 금장실(金杖室)에서 진제 스님을 기다렸다. 금장은 부처님 법을 상징하는 금빛 주장자를 뜻한다.

스님께 삼배를 올렸다. 그리고 여쭸다.

부처님오신날의 참 뜻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오신 참 뜻은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님 같이 참된 대지혜를 갖추고 있음을 알리러 오셨습니다. 중생은 탐 · 진 · 치 삼독과 '나'라는 허세로 번뇌가 그칠 날이 없어요. 자신의 본성을 모르고 허상을 쫓는 겁니다. 부처님은 '참 나'를 잊고 사는 중생에게 각자가 부처님의 지혜와 덕상이 갖춰져 있으니 수행을 통해 자신이 부처임을 깨달으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 이 사바세계에 오신 것입니다.

이 몸뚱이는 죽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면 스러질 것인데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인가(父母未生前 本來面目)' 하는 도리를 알아야 합니다. '참 나'를 바로 보면 '참 나'는 아주 청정하고 맑아 티끌만큼의 번뇌와 허물도 없습니다. 오직 지혜와 자비뿐이지요.

부처님이 처음 태어나서 동서남북으로 일곱 걸음을 걸으시고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이라고 게송을 읊은 것도 자기의 참모습을 몸소 보이며, 그것이 부처님의 참모습일 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의 참 모습임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참 나'를 바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의 자기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래야 '참 나'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 화두 들고 있을 여건이 안된다는 탓을 하지 말고 자기 직분에 충실하면서 화두를 잡으세요. 그러면 그 순간만큼이라도 세상 모든 시비분별에서 떠나게 됩니다. 시비분별에서 멀어질수록 크고 밝은 지혜가 계발되지요. 이것이야 말로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공부입니다.

혼자 화두만 들고 있으면 됩니까?

-화두를 든다고 참선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앉고 눕고 걷고 일하고 돌아다니는 등 언제나 화두를 들어야 합니다. 참선이 일상생활에서 무르익어야 해요. 늘 화두가 들려 있으면 온갖 분별심과 망상이 사라지고 나와 삼라만상이 오로지 간절한 화두 한 생각으로 꽉 찬 상태인 일념삼매(一念三昧)가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마음의 갈등이 없어지고 동시에 사리를 정확하게 판단케 됩니다. 근심걱정이 모두 사라지게 되지요. 진리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진리의 눈이 열리려면 바른 진리를 아는 스승을 만나 바른 수행법을 익혀야 합니다. 스승이 없으면 자기 현주소를 알 수 없습니다. 서울을 향하던 사람이 대전, 대구까지 와놓고 서울입네 하고 착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화두를 들고 한번 죽었다 살아나야 바른 눈(正眼)이 열립니

재단법인 한국불교원광원

원로원장 법민 승정원장 법원
총무원장 성우 보선 종의회의장 법등
총무부장 대광 규정부장 혜오 교육부장 법인 포교부장 일도
문화부장 지정 재무부장 혜안 사회부장 동인
비구니회장 혜지 비구니부회장 혜암 비구니총무부장 지연
법사단단장 은성 법사단부단장 도경
서울종무원정 은성 경기남부종무원장 혜안 인천종무원장 혜암 충남종무원장 지정
충북종무원장 예원 전남종무원장 경진 경북종무원장 일도 경남종무원장 지경
강원도종무원장 도봉
총무국장 송암 규정국장 도명 교육국장 청송 사회국장 화담
포교국장 정관 재무국장 금산 중앙신도회장 묘성 중앙신도회총무 지명

<재단법인 원광원 이사진>
이사장 : 원광 선진 상임이사 : 동초
이사 : 송암 이사 : 도명 이사 : 청송 이사 : 화담 이사 : 정관
감사 : 금산 감사 : 법등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118번지 전화 031)593-8200, 593-9502 / 팩스 031)593-9503

불기 2554년(2010) 경인년 부처님 오신날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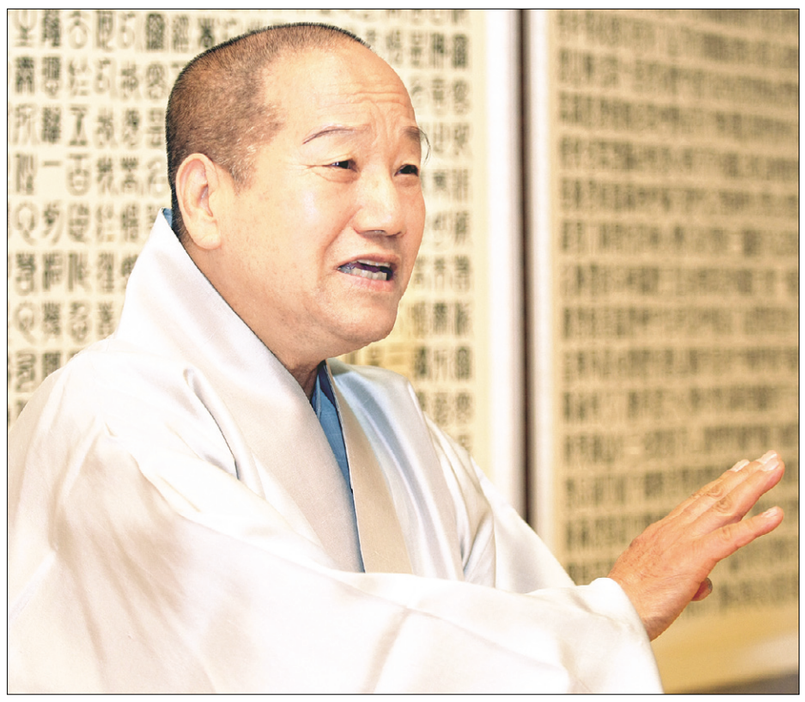


화두로 '참의심' 시동 거세요

다. 진리의 눈이 열려야 부처님의 '살림살이'를 알 수 있습니다.

참선하는 방법을 일러주십시오.

–'참 나'를 찾겠다,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발심했으면 앉아서 익혀야지요. 이것이 좌선입니다. 좌선할 때는 바른 자세가 정립돼야 몸뚱이에 끄달리지 않고 화두 드는 데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세가 잘못되면 상기(上氣) 돼 참선을



할 수 없습니다.

반가부좌라도 바로 앉아서 양손을 포개 아랫배에 붙이고 가슴과 어깨를 펴고 허리를 곧게 하고 앉아야 합니다. 화두는 시선과 함께 2m 앞에 두세요. 눈은 편안하게 뜨면 됩니다. 화두를 들다 혼침과 망상이 침범하면 다시 또렷하게 화두를 챙기세요. 옛날 시골 방앗간 방아기계를 보면 시동 걸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숱하게 화두를 챙겨 '참의심'의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한번 화두 챙긴 것이 한 시간이 흐르다 차츰 몇 시간씩 흐르게 됩니다. 목숨을 다해서라도 깨달음을 얻겠다고 발심하고 용단을 내린 이라면 3~10년이면 해결됩니다.

선지식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발심한 이도 적고 안목을 갖춰 지도하는 이도 드물기 때문입니다. 뚜렷한 안목이 생겼다면 선사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부처님도 '광대무변한 진리의 세계를 혼자 가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피나는 정진 끝에 일가견을 이뤄야 하는데 작금의 수행 풍토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법거량이 드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눈이 깜깜한데 누구를 보겠습니까? 동서남북 전체를 다 봐야 부처님 살림살이를 알 수 있습니다.

깨닫고 나면 무엇이 다릅니까?

–'나'라는 집착[我相]이 없어지고 바른 진리의 눈을 갖췄으니 세상일에 집착이 끊어져 항상 마음이 평온합니다. 중생의 습기(習氣)가 봄바람에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면서 만가지 법이 가득한 보배의 창고에서 편안히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항시 밝은 진리의 즐거움이 지속되니 먹고 자는 모든 일상이 그대로 평상심(平常心)인 것이지요.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지만 흙을 묻히지 않는 것처럼 일체중생과 한 몸이 돼 지극한 평안과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스님은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은사이신 석우 스님은 해인사 조실과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낸 분입니다. '절집 정승은 석우 선사'라고 할 만큼 지혜와 인덕이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고향 남해에서 오촌 당숙을 따라 해관암을 찾았을 때 은사스님을 처음 뵈었습니다.

스님은 제게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좋지만 금생에 사바세계에 안 나온 것으로 하고 중놀이를 해보지 않겠는가?" 하시더군요.

어린 마음에 "중놀이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하고 여쭸습니다.

은사스님은 "범부가 위대한 부처되는 법이 있네"라고 답하셨습니다.

스님의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 1951년 출가했습니다. 20세에 출가해 한 소식을 하기까지 13년이 흘렀어요. 33세에 오도송을 읊고 향곡 스님에게 깨달음을 인가 받았습니다. 석우 스님을 만나 발심 출가할 수 있었고, 남방 제일 선지식 향곡 스님 법의 방망이 덕에 화두와 씨름 끝에 오늘날의 '진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출가 후 4년간 석우 스님 밑에서 정진했던 진제 스님은 스스로 깨달았다는 착각에 월내 묘관음사 향곡 스님을 찾아가 법을 물었다. 법을 묻는 진제 스님에게 향곡 스님은 모두 아니라고 답했다. 다시 오대산 상원사로 들어가 공부하던 진제 스님은 어느날 문득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발심했다.

스님은 다시 향곡 스님을 찾아 "화두를 내려주시면 깨칠 때까지 걸망을 지지 않겠다"고 말했다. 향곡 스님은 진제 스님에게 '향엄상수화(香嚴上樹話)' 화두를 내렸다. '향엄상수화'는 한 사나이가 높은 나무에 올라가 입으로 가지를 문채 매달려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달마대사가 중국에 온 뜻을 물으니, 대답을 하면 떨어져 죽을 것이고 대답을 안하면 모르는 것이 되니 어찌해야 하는가라는 내용의 화두이다.

스님은 이 화두를 2년간 참구해 해결했다. 그런데 '일면불 월면불(日面佛 月面佛)' 화두에서 막혀 버렸다. 이 화두는 마조 스님에게 원주스님이 "밤새 존후(尊候)가 어떠하셨습니까?"하고 물으니 마조 스님이 "일면불 월면불(日面佛 月面佛)"이라 답한 내용이다. 진제 스님은 다시 5년을 화두를 붙들고 정진했다.

1967년 하안거 해제 법회 때 진제 스님은 묘관음사 법당에서 향곡 스님과 법거량을 했다. 다음날 진제 스님은 향곡 스님에게 다시 물었다.

"불안(佛眼)과 혜안(慧眼)은 여쭙지 아니하거니와, 어떤 것이 납승(衲僧)의 안목입니까?"

향곡 스님은 답했다. "비구니 노릇은 원래 여자가 하는 것이니라(師姑元來女人做)."

마하가섭과 제28조 보리달마 제38조 임제의현을 거쳐 태고보우로 이어진 정법안장(正法眼藏)은 향곡 스님에게서 제79조 진제 스님에게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진제 스님의 생사를 건 치열함이 담긴 수행담은 한 편의 영화와도 같았다. 깨달은 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나그네의 의심을 송곳처럼 파고 들어와 후볐다. 부처님 법에 목말랐던 나그네에게 스님의 법문은 한여름 소나기와도 같았다.

가야할 '때'에 자리를 일어서는 나그네에게 진제 스님이 "서울 가거든 모두에게 전하라"며 말을 건넸다.

"모든 국민들이 나고 날 적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데, 만인에 앞서는 밝은 지혜를 계발해 억만년이 다하도록 진리의 낙을 누리소서."

글=조동섭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93. 위빠사나 대가 마하시 스님

미얀마 불교의 특징은 사리탑 신앙과 탁발승들의 경전 암송 그리고 위빠사나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 당시 불교수행은 37조도법에서 나타나 듯 다양한 방법이 있었다. 미얀마에서는 특히 호흡(들숨과 날숨)을 중심으로 한 위빠사나 수행법이 발달했다. 이 수행법은 86가지나 돼 상당한 수준의 수행자도 혼돈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마하시 스님은 이러한 수행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전 세계에 보급한 선지식이다.

1904년 7월 29일 태어난 마하시 스님은 12세에 출가해 '빛나는', '아름다운'이라는 의미의 소바나(Sobhana)란 법명을 얻었다. 사미 시절부터 빨리 삼장 등을 두루 공부했던 스님은 20세에 비구계 수지 후 교학에 더욱 몰두하기 시작했다. 1941년 법사시험을 통과한 스님은 처음 위빠사나를 가르쳤던 세이쿤에서 본격적인 수행지도에 나섰다.



이후 미얀마 수도인 양곤에 명상센터가 개설되며 미얀마불교

위빠사나 수행법 정리해 보급… "수행의 기본은 교리"

도하기 시작했다. 1941년 법사시험을 통과한 스님은 처음 위빠사나를 가르쳤던 세이쿤에서 본격적인 수행지도에 나섰다.

이후 미얀마 수도인 양곤에 명상센터가 개설되며 미얀마불교 두했다. 스님은 빨리 교학시험 최고 단계를 통과한 후, 24세에 교학의 중심지인 만달레이로 가서 빨리 삼장과 주석문헌에 대한 공부를 했다. 만달레이에서 다수의 스님에게서 교학을 배운 1년 후, 마하시 스님은 몰민(Moulmein)에서 후학들에게 교학을 지도했다.

수행에 대한 관심도 높았던 마하시 스님은 명쾌하고도 단순한 수행법을 찾기 위해 1931년 저명한 명상 스승인 밍군 제따반(Mingun Jetawun) 스님의 제자가 됐다. 마하시 스님은 타똔(Thaton)에서 밍군 스님 지도 하에 4개월 동안 한 잠도 자지 않고 수행에 몰두했다.

1938년 마하시 스님은 고향인 세익쿤(Seikkhun)으로 오게 됐고 50명의 수행자에게 7개월 간 위빠사나를 가르쳤다. 교학 지도를 위해 몰민으로 돌아간 마하시 스님은 교학뿐만 아니라 수행도 지협회는 마하시 스님에게 명상 수행 지도를 부탁했다. 스님은 1949년 12월 4일부터 양곤의 선원에서 수행을 지도했다. 이때부터 양곤 명상센터는 마하시 선원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마하시 스님은 항상 수행의 기본적인 초석은 교리에 있음을 강조했다. 스님은 "자신을 위한 수행이라면 교학에 대한 지식 없이 수행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는 사람은 교학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하시 스님은 "교학에 정통한 사람만이 부처님 가르침의 가치를 전할 수 있으며 이론적 지식을 수행에 적용시켜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러한 교학적 내용을 기반으로 위빠사나 수행법을 초심자도 쉽게 접근 할 수 있게 정리했다. 마하시 스님은 "요가식으로 초심자는 하던 일을 정지하고 속으로 '자기가 숨을 쉬고 있는 가' 혹은 '쉬지 않고 있는 가'를 점검하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숨 하나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나온 숨이 못 들어가고, 들어간 숨이 나오지 못하면 끝나게 되어 있는 것이 인연인데, 그 호흡지간에 온갖 분별 · 시비가 일기 때문이다.

간단한 위빠사나 수행법, 일명 마하시 수행법이 개발되자 세계 각국에서 한 때 대도시 인구에 준하는 수십만의 수행자들이 모여들었다. 마하시 센터 설립 23주년이 되던 1973년, 랑군의 센터에서 수행한 수행자는 60만명에 달한다. 태국에서, 스리랑카, 캄보디아, 인도 등지에서 수행한 수행자의 수를 모두 합하면, 70만명에 이르렀다. 이후, 마하시 사야도는 태국, 스리랑카, 캄보디아,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유럽, 미국 등지에 위파사나를 전하였으며, 1938년에 처음 위파사나를 지도한 이래 1982년 8월 14일, 78세를 일기로 입적하실 때까지, 44년간 위파사나 지도는 물론 저술과 법문을 통해 많은 가르침을 남기신 위파사나 수행의 대선지식이다. 마하시 사야도 생존시부터 많은 제자들이 마하시 센터와 분원에서 수행자들을 지도해 왔으다. 현재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우 빤디따 스님, 우 실라난다 스님, 우 자나카 스님, 우 쿤달라 스님, 우 자띨라 스님과 같은 마하시 사야도의 직제자들에 의해 수행 지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마하시 스님은 위빠사나 수행법을 보급함으로서 자신과 불교, 더 나아가 미얀마라는 나라의 이름까지 세계에 널리 알렸다. 부처님께서는 "한사람의 깨달은 성자가 나오면 그 땅이 황금 땅으로 변한다"고 하셨다. 바로 마하시 스님의 업적을 두고 한 말이 아닌가.

능인향당 www.nihwa. com
순수원향을 지향하는 고품격 향의 명가

항상 열려있습니다.

그동안 능인향당의 침향제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능인향당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침향 전반에 관한 문의를 해주십시오.
늘 그렇듯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준비한 침향에 대한 것을 침향전시관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견지동 조계사 맞은편 능인향당 침향전시관



沈香



프리미엄 침향 제품군



능인침향 수
150,000
80,000
50,000
프리미엄 침향에 인도 마이소르산 최상급 백단을 더하여 향의 품격을 한껏 올린 새로운 향

침향적정
300,000
150,000
80,000
프리미엄 침향에 불가의 오단향인 진자단향을 더한 명상과 기도용 향의 수작

침향
600,000
300,000
150,000
80,000
능인향당 향 법제기술의 총아, 프리미엄 자연산 순수 침향100%로 만든 침향제품의 명작

능인향당에서 준비한 최고의 공양물



침향 108주 · 침향 합장주 · 침향왕단주 · 침향 1000주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96번지 (02)3663-6777 직영매장 : 02)730-6888(조계사맞은편), 인사점(통인가게입구)

爐香觀空法圖 -金弘道

佛紀2554年 庚寅年 Buddha's birthday |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됐고
현재의 생각은 내일의 삶을 만들어 간다.
- 법구경

불기 2554년(2010) 경인년 부처님 오신날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大韓佛教 佛入宗

宗 正 **勉哲**

元老院長 正觀
總務院長 鏡岩

호법원장 **인수** 교육원장 **지학** 종회부의장 **상운** 포교원장 **혜련**
총무부장 **법진** 역경부장 **혜광** 재무부장 **묘훈** 사회부장 **봉산**
감찰부장 **송광** 호법부장 **대원** 포교부장 **명진**
서울경기종무원장 **지철** 부산경남종무원장 **법륜**

■ 總本山 : 忠北 堤川市 鳳陽邑 玉田里 二七一의 三 松華寺 전화 043)653-4800. 4848 / 팩스 043)653-5858
■ 總務院 : 忠北 堤川市 靑田洞 八六의 四 전화 043)653-4848 .0999 / 팩스 043)642-6660

대한불교 삼론종

종 정 **이혜공** 사서실장 **지영**
부종정 **혜승**
승 정 **향운. 은곡. 인봉**

총무원장 **진봉** 부원장 **지민**
종회의장 **지경** 부원장 **지민**
사정원장 **지운** 부원장 **지법**

교육원장 **명산** 포교원장 **명재** 문화원장 **지향** 수선원장 **지심**
부 원 장 **혜암** 부 원 장 **지화** 부 원 장 **도희** 부 원 장 **성희**

총무부장 **보명** 재무부장 **일선** 교무부장 **혜송** 규정부장 **혜산** 사회부장 **지허**
총무국장 **자원** 재무국장 **성우** 교무국장 **혜암** 규정국장 **혜관** 사회국장 **도일**

종 도 일 동

■ 총무원 : 서울시 노원구 상계5동 169-539번지 인광빌딩 5층 전화 0502)321-3333 / 팩스 02)937-0344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도선
승정원장 벽봉 원로원장 도원

원 로 법령 지관 월타 일장 무송 혜암 원해 일우

◇각원원장
호법원장 대원 의전원장 보광
교육원장 남산 포교원장 보광
기획원장 일두 총무원장 도선
비구니회장 혜담 문화원장 도명
연수원장 대공 사정원장 묘허

◇총무원각부장
총무부장 도흥
교육부장 정봉
사회부장 청암
연수부장 지공
포교부장 도명

◇총무원각국장
문화국장 보성
포교국장 용정
수행국장 보각
사서국장 성덕
포교국장 용정. 원각 성담. 성오

◇각시 도 종무원 원장
경북서부종무원장 석문
경북중앙종무원장 태룡
경북예천종무원장 명허
경남중앙종무원장 청강
경북성주종무원장 홍재
제주중앙종무원장 의공
전남중앙종무원장 원행
충북중앙종무원장 선학
포항중앙종무원장 체법
광주중앙종무원장 아도
강원강릉종무원장 원응
경기서부종무원장 도문

◇종립미래로 봉사단
회 장 학산(이종길)
부회장 대도심(어월순)
총 무 무생심(예옥자)
감 사 진불심(이순임)
법화심(김막두)

◇지역 각 포교국장
경남포교국장 충효
인천포교국장 무현
서울포교국장 보현
경기포교국장 효성
전통예술국장 승원
대구포교국장 법성

◇법사승각원장
경남원장 도혜 충남원장 명보 대전원장 정대
울산원장 법광 포항원장 명성 부산원장 용성
총무국장 원명 재무부장 자운 대구국장 금강
국제국장 지원 경산국장 송정 부산국장 혜성
마산국장 혜명 경기국장 덕산

■ 총본산 : 경북 영양군 수비면 계2리 58-1번지
대표전화 054)682-5808 / 팩스 682-9848
■ 총무원 : 서울 서대문구 홍제 3동 279-26 2층
대표전화 02)3217-4611 / 팩스 391-8583

사단법인 대승불교 본원종

종 정 **범해당 대화**
부종정 **동광. 법용**

총무원장 만혁
원로원장 대원
원 로 원 관곤. 보명. 대봉. 대심. 대월

교육원장 무공 감찰원장 대능 연수원장 현담 포교원장 대련
문화원장 송담 복지원장 대천 염불원장 대황

종회의장 대운 종회부의장 혜공. 지명
종회의원 대월. 법훈. 자광. 원각. 감로. 용담. 월광. 광덕. 부용. 지선. 진묘. 혜광. 혜련
자관. 혜은. 지호. 성각. 중정. 지명. 혜원. 용우. 법천. 원광. 지혜장. 대원. 현공

전국신도회장 대광 부회장 성덕화. 청연행

총무부장 **경산** 기획실장 **법성** 재무부장 **성문** 교무부장 **혜원** 규정부장 **현공**
조직부장 **도광** 사회부장 **정오** 포교부장 **자관** 복지부장 **지연**

부산경남종무원장 **동광** 경북종무원장 **자광** 충남대전종무원장 **지천** 충북종무원장 **대월** 강원종무원장 **진묘**

종 도 일 동

■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17-3 전화 02)391-4376 / 팩스 02)379-2746

한국대승불교조계종

종 정 **봉진 대종사**
총무원장 **부경** 총무부장 **사우**

종회의장 **법장** 종회부의장 **혜관**
종회의원 **부경. 사우. 운고. 무법. 운선. 혜월. 혜인. 무애. 성군. 무설. 보명. 미정. 자공. 혜각. 대공. 덕산. 무우. 무여. 대진. 휘훈. 광영. 종철. 법공. 덕심. 종화. 명도. 일화. 성화. 상묵. 석도. 법면. 도일. 혜안. 도명. 지광. 법운. 취암. 득성. 경도. 법성. 용연**

광주종무원장 **법장** 부산종무원장 **운고** 울산종무원장 **혜관**
경남종무원장 **지형** 경북종무원장 **지관** 대구종무원장 **일해**
충남종무원장 **도법** 충북종무원장 **법관** 경기종무원장 **일정**
강원종무원장 **혜일**

(종도모집 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1105 불국사 / 전화 055)521-1236
총무원 : 경남 창녕군 영산면 교리 389 / 팩스 055)536-5315. 010-6420-1145

사단법인 대한불교 금강종

종 정 **무학 송천**
총무원장 **법산 영봉**
총무원부원장 **법선 능호.동인**

대 승 정 **덕인**
승정원장 **법선** 승정원부원장 **무상** 원로원장 **월서** 원로원부원장 **법진**
중앙종회의장 **법화** 부의장 **정인. 정암** 중앙종회사무총장 **현우**

사정원장 **법천** 부원장 **정효**
포교원장 **정대** 부원장 **정산** 교육원장 **법성** 부원장 **정담. 정유**
문화원장 **덕일** 부원장 **보성** 고시원장 **법일** 복지원장 **법영**
수선원장 **도공** 비구니원장 **지명** 부원장 **정명. 정연**

종정예하 예경실장 **정묵** 총무원장 사서실장 겸 총무부장 **정행**

서울교구원장 **반야지(서원암)** 부산교구원장 **일도(반야사)** 대구교구원장 **정산(범룡사)**
울산교구원장 **덕일(도성암)** 대전교구원장 **정인(원광사)** 강원교구원장 **지명(지명정사)**
경기북부교구원장 **정안(금강정사)** 경기남부교구원장 **정호(금강포교원)** 충북교구원장 **정명(관음사)**
충남교구원장 **무중(구암사)** 전북교구원장 **정안(삼불사)** 전남교구원장 **혜신(우두사)**
경북교구원장 **정암(정암사)** 경남교구원장 **정행(금강암)**

■ 총본산(총무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동 294-4 일성사 / 전화 042)524-2149, 935-2279 / 팩스 042)526-2149

佛紀 2554年 庚寅年 Buddha's birthday |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미움은 오직 사랑으로써만 정복되나니
영원한 진리이다.
- 법구경

사단법인 한국불교 정 토 종

이사장 **지산** 종 정 **월호** 부종정 **해심. 각호**

원로의장 **법보** 원로의원 **보덕. 만공**

총무원장 **무 각** 종 회 의 장 **설 정** 사 서 실 장 **세 목**
교 육 원 장 **초 암** 포 교 원 장 **봉 운**

경기교구원장 **법 천** 경남교구원장 **설 봉** 전남교구원장 **정 조**

총 무 부 장 **혜 명** 감 찰 부 장 **학 조** 재 무 부 장 **법 성**
포 교 부 장 **해 조** 호 법 부 장 **설 진**
법 사 단 장 **도 암** 법사부단장 **대 암, 혜 월, 법 해** 법사단총무 **원 영**

종 도 일 동

■ 총무원 : 인천 남구 학익동 25-10 석목법조빌딩 701호 / 전화 032)543-2693 팩스 032)868-2684

社團法人 大韓佛教三界宗

종정 **서 허 석 법 수**

총무원장 **박 일 초** 대본산 연화사주지 **석 문 수**

■ 산하단체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0-나호 범패 · 나비춤 보존회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사단법인 인해전통문화예술원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 삼계종 의료법인 정광병원

http:www.samgyeoijong.org 한글인터넷: 삼계종
http:www.bumpae.org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6동 611-10호 인해빌딩 4층
☒ **총무원** : 자원사 TEL 032) 529-5191 FAX 032) 523-8066 | 문화원 TEL 032) 529-6708 FAX 032) 529-6709
☒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 TEL 032) 529-5190

■ 총본산 연화사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후평1리 산 9-2호 TEL: 031) 988-3531 FAX: 031) 988-1876

사단법인 대한불교해동종
사단법인 해 동 자 비 원

원로원장 **석봉** 대종사 원로원부원장 **백담** 대종사
위 원 **법준. 정화. 동원. 고산. 원심. 경호**
종 정 **혜봉** 대종사

총 무 원 장 **송산** 총무부원장 **도현. 청운**
총무부장 **덕광** 교무부장 **무연** 재무부장 **도은** 사회부장 **현무**

중 앙 종 회 의 장 **보장** 부 의 장 **수운**
중 앙 종 회 의 원 **청산. 지선. 연각. 백파. 이타. 수진. 송연. 혜정**

중앙사정원원장 **동원** 부 원 장 **옥용** 사정부장 **혜광**
중앙포교원원장 **정화** 부 원 장 **보담** 포교부장 **진아**
중 앙 교 육 원 장 **공덕** 부 원 장 **현법** 교육부장 **성암**
중앙복지봉사원장 **무량** 부 원 장 **무봉** 복지봉사부장 **지연**

서울교구종무원장 **청산** 부산교구종무원장 **삼자** 경기교구종무원장 **혜언**
경북(대구)종무원장 **수진** 경남동교구종무원장 **지성** 경남서교구종무원장 **혜광**
충남(대전)종무원장 **무기** 전북교구종무원장 **광호** 전남교구종무원장 **청림**
중 앙 법 사 단 단 장 **혜일** 부 단 장 **혜등** 총 무 **혜연**

사단법인 해동자비원원장 **덕광** 재단법인 국제교화원원장 **공덕**
용인소년의집원장 **무봉** 중앙비구니회회장 **법인**

종 도 일 동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392-5 전화 031)262-1577 / 팩스 031)263-1353

"모든 이 마다 부처님의 자비가 충만하시길 빕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 미 타 종

종 정 **청연 월정** 사서실장 **노정혜**
재단이사장, 법인원장 **권성우** 원로원 **엄혜우. 이혜봉. 하청암**

총무원
총 무 원 장 권 성 우
총 무 부 장 하 동 산
재 무 부 장 김 법 제
사 회 부 장 주 만 석
문 화 부 장 최 혜 원

중앙종의회
중앙종의회의장 임 은 주

감찰원
감 찰 원 장 나 석 진
감 찰 부 장 한 지 관
조 사 부 장 전 법 하

법인원
총 무 국 장 양 재 언
재 무 국 장 이 지 법
사 회 국 장 우 해 암
교 무 국 장 김 법 성
문 화 국 장 김 보 광
포 교 국 장 노 연 화
비구니부장 박 혜 명

교육원
교 육 원 장 남 석 진
교 육 부 장 한 영 각
연 수 부 장 이 혜 견

포교원
포 교 원 장 김 진 표

부산울산종무원장 전 도 광
광 주 종 무 원 장 허 대 성
인 천 종 무 원 장 지 해 무
대전충남종무원장 최 법 화
경기남부종무원장 허 지 월
경기북부종무원장 박 찬 형
강 원 종 무 원 장 허 금 성
충 북 종 무 원 장 고 월 공
전 북 종 무 원 장 김 태 산
전 남 종 무 원 장 유 진 법
경 북 종 무 원 장 문 도 성
경남동부종무원장 김 신 진
비 구 니 회 장 강 지 명
벽 암 문 도 회 장 나 석 진
월 공 문 도 회 장 김 대 운
자 비 회 회 장 이 혜 봉
경기북부지부장 최 병 익
경기중부지부장 전 민 근
경 북 지 부 장 주 한 성

국제불교정법대
교 수 장 정 태

연합종교신문사
편집부국장 이 해 균

미타종 종도일동

■ 총무원 : 서울 동대문구 휘경1동 112-39 진영빌딩 305호 전화 02)2242-1049 . 011-9090-1049

사단법인 대승불교조계종

종 정 **은 파**

원 로 원 장 **대호** 원로부원장 **만송. 경월** 기 획 실 장 **각원**

중앙종회의장 **무애** 부의장 **명현** 사무처장 **현담**
중앙종회의원 **만송. 종파. 혜암. 화산. 경월. 정암. 법승. 선우. 근파. 월봉. 대전. 법광. 한파. 종원 종욱. 선산. 지운. 정혜. 법공. 법인. 유초. 연지. 도일. 성각. 인각. 혜원. 혜광. 현불**

총무원장 **한파** 부 원 장 **혜암**

총무부장 **현담** 재무부장 **법우** 교무부장 **무적** 감찰부장 **법인**
규정부장 **인각** 교육부장 **성각** 포교부장 **도일** 사회부장 **혜원**

부산종무원장 **유초** 경남1종무원장 **선우** 경남2종무원장 **근파** 중부 종무원장 **정암**

◆ **입종을 환영합니다.**
본 종단은 사단법인 등록 제184721-0000861호로 등록되어 있는 종단입니다. 유사 종단에 유의하십시오.

■ **입종 구비서류**
· 본종 입종 신청서(총무원 비치, 홈페이지 출력가능) 요청시 우편 발송
· 주민등록등본 1부 · 타 종단 승려증 사본 1부 · 사진 1장
· 사찰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1부 · 사찰 전경사진(내,외부)

■ 문의 및 접수처 : **(사)대승불교 조계종 총무원**
주소 : 부산시 동구 초량2동 448-6번지 동신빌딩 302호 전화 051)527-7733, 5431 / 팩스 051)527-5432

부산 종무원 051)527-7733 휴대폰 010-4133-0333 경남1종무원 055)853-0479 휴대폰 011-583-0479
경남2종무원 055)291-4218 휴대폰 011-572-4218 중부 종무원 043)648-8942 휴대폰 010-8849-9573

공익법인 대한불교본조계종

원로원 **용담. 대봉. 지연**

종 정 **회암** 승정원장 **현산**

총무원장 **윤호**

법 규 원 장 **혜산** 고 시 원 장 **기산** 중앙선원장 **제묵** 감 찰 원 장 **덕인**
포 교 원 장 **대련** 교 육 원 장 **혜견** 문 화 원 장 **법성**
법 사 단 장 **월성** 법사단부단장 **마생**

중앙종회의장 **대호**
중앙종회의원 **혜철. 진관. 산수. 진묵. 현광. 대안. 정암. 청산. 정인. 송학. 자연. 지현. 구달**

총 무 부 장 **청담** 교 무 부 장 **경덕** 사 회 부 장 **제오** 복 지 부 장 **덕화** 규 정 부 장 **법장**
재 무 부 장 **대도** 조 사 부 장 **광덕** 호 법 부 장 **보광** 문 화 부 장 **자은** 포 교 부 장 **혜철**

서울북부교구원장 **청담** 경기양평교구원장 **구달** 경기평택교구원장 **법묵** 대 구 교 구 원 장 **무후**
경 남 교 구 원 장 **경덕** 전 남 교 구 원 장 **법성** 경 북 교 구 원 장 **대안** 비 구 니 회 장 **지연**

고문변호사 **김진태** 한국종교예술방송국

■ 총본산 : 서울 종로구 무악동 산 2-13 전통사찰 인왕사 전화 02)3436-0797 팩스 02)2201-1163

책, 그 속에서 부처님을 만나다

5월이 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다. 여름이 오기 전 완연한 봄의 모습을 절정으로 느낄 수 있고 눈부신 햇살이 움츠러들었던 몸도 활력이 솟는다. 게다가 여러 기념일 · 공휴일이 한 데 모여 있는 달이어서 가족, 친지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좋다. 그러나 5월에는 여러 기념일이 한 데 모여 있어 선물에 대한 부담이 크기도 할 것이다. 이럴 때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책들을 선물해보는 것은 어떨까? 시간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라는 핑계로 지인들에게 아직 선물을 하지 못했다면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불서를 선물해보자. 가정의 달이니 만큼 자녀, 친구, 가족 간에 '맞춤형 불서'를 선물 해보자. 자신에게 필요로 하는 책을 선물로 주고받는다면 주는 이 받는 이의 기쁨은 더욱 커 질 것이다. **이나은 기자**

감수 : 이미령 (동국대 역경원 역경위원)
'붓다와 떠나는 책 여행' 운영자
BBS '무명을 밝히고(보리살타의 서제)' 진행
YTN FM 지식카페 '라디오 북 클럽' 진행



어린이에게 불심을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새싹불자들을 잘 키워야 된다는 소리는 계속 있어 왔지만 매번 메아리뿐인 울림에 그쳤다. 최근에는 어린이들을 겨냥한 불서들이 많이 나와 이러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 미취학 아동에게는 재밌는 그림과 단순한 이야기로 꾸민 책이 좋다. 어린이를 위한 동화 <화가 났어요>는 주인공 얀이 자신의 새빨간 털투성이 '화'와 친구가 되고 금새 '화'를 다스릴 줄 알게 된다는 내용이다. 마음 챙김 명상과 요가를 오랫동안 지도해 온 작가 게일 실버가 전문적인 경험을 살려 어린이들이 자신의 화를 인식하고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경쾌한 글로 제시했다. <운주사의 하얀 도깨비>는 도깨비의 왕이 될 운명을 타고나 부모님까지 마을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마을을 떠나 운주사에 정착한 하얀 도깨비와 언청이인 자신 때문에 혹시나 표를 잃을까 걱정이 된 국회의원 아빠 덕분에 운주사에 숨어 지내는 은희, 운주사의 말썽꾸러기 동자승 삼정의 이야기를 담았다. '못생긴 얼굴보다는 예쁜 마음'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동화다.

화가났어요 | 게일실버 · 문태준 | 불광출판사
운주사의 하얀 도깨비 | 김자환 · 김태환 | 디자인하우스
얘들아 절에 가자 | 홍주연 | 조계종출판사
우리에게 오신 부처님 | 이슬기 | 조계종출판사
지혜가 쑥쑥 자라는 명상동화 | 다르마처리나가라자외 | 불광출판사
지혜의 샘 | 쿠루네고다피야티싸 · 이추경 | 불광출판사
불교 교과서 밖으로 나오다 | 김형중 · 김문수 | 운주사
부처님 나라 개구쟁이들 | 이봉직 · 용정운 | 운주사
야단법석 여래네 집 | 스튜디오 돌 | 솔바람 |
정말 멋져 누가? | 박선영 · 강병호 | 민족사
자비롭고 위대한 스승 부처님과 만나요 | 덕진 외 | 불광출판사
나무가 자라는 물고기 | 김혜리 | 사계절
저승사자에게 잡혀간 호랑이 | 김미혜 · 최미란 | 사계절
싯다르타 왕자 이야기 | 조나단 랜다우 외 | 씨앗을뿌리는사람
마음을 훔친 도둑 | 우봉규 · 최수웅 | 주니어김영사

청소년에게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학창시절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그래서인지 무엇이 자신에게 더 가치 있는 일인지 그 중심은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이럴 때 하버드대를 졸업한 스님의 이야기는 학생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하버드대에서 촉망받는 대학원생이었던 저자가 숭산 스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의 진리와 생의 가르침을 깨닫기 위해 불교에 입문하는 이야기인 현각 스님의 <만행,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는 지성인의 냄새를 풍기기보다는 수행자의 맑고 치열한 번뇌와 선택의 고통, 그 가운데서도 자신을 이끌었던 선에 대한 수행의 가르침을 만나는 과정이 사뭇 뭉클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14세 여름 때 당한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괴로움을 껴안은 채 폭주족이 돼 방황하다가, 우연히 찾은 선사에서 만난 <반야심경>을 통해 삶이 변화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저자의 이야기를 담아낸 <반야심경 희망을 쏘다>도 눈여겨볼만 하다.

만행,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1 · 2 | 현각 스님 | 열림원
젊은 날의 깨달음 | 혜민 스님 | 클리어마인드
반야심경 희망을 쏘다 | 이노우에 기도 | 대숲바람
청바지를 입은 부처 | 수미 런던 | 해바라기
10대와 통하는 불교 | 강호진 | 철수와 영희
거지성자 | 전재성 | 선재
그래서 어쨌단 말인고 | 이오안나 살라진 지음 | 들녘
나는 공부하러 박물관 간다 | 이원복 | 효형출판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 | 최순우 | 학고재
무소유 | 법정 스님 | 샘터
물, 뱀이 마시면 독 소가 마시면 우유 | 손승현 외 | 조계종출판사
벽틈으로바람들어오듯마음틈으로욕심들어온다 | 이욱태외 | 시공사
부처와 돼지 | 고이즈미 요시히로 | 들녘
불교가 정말 좋아지는 불교우화 1 · 2 | 이용범 | 수희재
빨리가기보다더중요한것은함께가는거야 | 이종서외 | 조계종출판사

사회 초년생에게 마음공부를

요즘의 대학생들은 예전처럼 청춘을 만끽할 수 없다. 고등학교 3년 내내 겪은 입시 스트레스가 끝나기도 전에 눈앞에는 취업스트레스가 기다리고 있다. 사회초년생도 마찬가지다.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지는 오래, 이제는 자신만의 영역을 확보해나가야 하는 시기다. 셀러던트(셀러리맨과 스튜던트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럴 때 불서 읽기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느리게 걷는 삶을 사는 것도 좋을 것이다.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시리즈인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외 2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회에서 겪을 법한 고민거리를 명쾌하게 해결해준다.

붓다가 CEO라면 어떤 방식으로 회사를 경영했을까? <시장에 간 붓다>는 흥미로운 질문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저자 로이드 필드는 세계 500대 기업의 경영컨설턴트로 일하면서 기업의 경영진이 불교의 방식으로 경영을 실천한다면 기업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면서 오래도록 장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외 2권 | 법륜 스님 | 정토출판사
술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 아잔브라흐마 | 이레
길 없는 길(전4권) | 최인호 | 여백
젊은 날의 깨달음 | 혜민 스님 | 클리어마인드
시장에 간 붓다 | 로이드필드 | 한언
활쏘기의 선 | 오이겐헤리겔 | 삼우반
공자속의 붓다, 붓다속의 공자 | 박민영 | 들녘
신도 버린 사람들 | 나렌드라 자다브 | 김영사
암베드카르 | 디완챤드아히르 | 에피스테메
동행 | 조지크레인 | 무우수
틱낫한의 마음 한가운데 서서 | 틱낫한 스님 | 북북서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 보르헤스 | 여시아문
행복한 출근길 | 법륜 스님 | 김영사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 월호 스님 | 마음의 숲
용서 | 달라이 라마 | 오래된미래

부처님의 생애

고따마 붓다(역사와 설화) | 성열 스님 | 문화문고
부처님의 생애 | 조계종 교육원 편찬위원회 | 조계종출판사
불타 석가모니 | 와타나베 쇼코 · 법정 | 문학의 숲
사캬무니 붓다 | 마성 스님 | 대숲바람
사람의 아들 붓다 1 · 2 | 디팩 초프라 | 푸르메
스스로 깨어난 자 붓다 | 카렌 암스트롱 | 푸른 숲
대불전경(전10권) | 밍군 사야도 | 한언

불교 좀 더 알고 싶어요-경전공부

간경 수행 입문 | 조계종 불학연구소 | 조계종출판사
왕초보 경전 박사 되다 | 계환 스님 | 민족사
미산스님 초기경전 강의 | 미산 스님 | 불광출판사
고맙습니다 관세음보살 | 이미령 | 불교시대사
틱낫한 스님이 읽어주는 법화경 | 틱낫한 스님 | 명진출판
선방일기 | 지허 스님 | 여시아문
공이란 무엇인가 | 김영진 | 그린비
상식에서 유식으로 | 정승석 | 정우서적
처음처럼(초발심자경문) | 지안 스님 | 조계종출판사
날줄원각경 | 우승택 | 불광출판사
반야심경과 마음공부 | 법상 스님 | 무한

선 · 수행

들숨날숨에 마음챙기는 공부 | 대림 스님 | 초기불전연구원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 한형조 | 여시아문
나는 여성의 몸으로 붓다가 되리라 | 비티메킨지 | 시공사
위없이 심히 깊은 미묘법이여 | 김일수 | 도피안사
선의 황금시대 | 존 C. H. 우 | 한문화
길을 걷는 자 너는 누구냐 | 장휘옥外 | 더북컴퍼니
성철스님 화두참선법 | 원택 스님 | 김영사
두 문을 동시에 투과한다 | 박영재 | 불광출판사
불교 수행법과 나의 체험 | 우룡 스님 | 효림
마음 닦는 길-수심결 | 지눌 스님 | 불일출판사
묻지 않는 질문 | 현웅 스님 | 민족사

초발심불자들에게 수행

'종교가 뭐냐'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집안이 불교라 '불교'라고는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다. 스스로가 불자라고 생각된다면 가장 기본적인 부처님의 생애를 알아야 한다. 부처님의 생애를 소설이나 전기형식으로 소개하는 책과 불교사의 흐름을 짚어주는 책은 곁에 두고 읽는 불서가 될 것이다. 부처님의 삶을 인간의 역사로 재조명한 성열 스님의 <고따마 붓다>와 <부처님의 생애> 등이 눈여겨 볼만 하다. <왕초보 불교 박사 되다>는 평소 불자가 궁금하게 여기는 문제 '전생과 내생은 정말 있습니까' '지장보살은 어떤 분입니까' 등 절 에서 쓰고 있는 일상적인 말과 불자가 궁금하게 여기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담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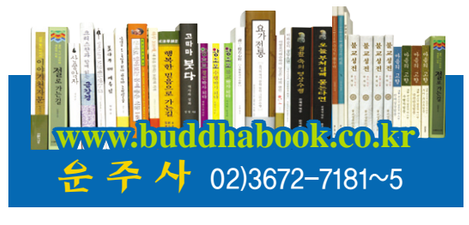
또한 경전공부와 수행을 하는 불자들에게는 오십 대 중반에 선에 입문한 이후 자기와의 치열한 투쟁을 통해 참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생활 속의 참선수행 이야기>와 <한권으로 읽는 팔만대장경> 등을 선물해보자.

왕초보 불교 박사되다 外 4권 | 석지현 외 | 민족사
선어록 15 간화선입문(불교수행입문) | 조계종출판사
절수행입문(불교수행입문) | 조계종출판사
불교, 이웃종교로 읽다 | 오강남 | 현암사
불교미술의 해학 | 권중서 | 불광출판사
부처되는 공부 | 우학 스님 | 뜰
불교초보탈출 100문100답 | 김성철 | 불광출판사
한국불교문화사전 | 운주사
이야기 원효사상 | 강승환 | 운주사
무엇이 우리를 불교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가 | 이기화 | 예지
보살예수 | 길희성 | 현암사
사찰 어느 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 목경찬 | 조계종출판사
하루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 김재성 | 아롬미디어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 원철 스님 | 호미
아잔차 스님의 오두막(위빠사나가르침) | 잭 콘필드 | 침묵의향기
아는마음모르는마음(위빠사나수행기) 황영채 행복한숲
선가귀감 | 서산대사 | 법공양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2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3	영혼의 모음	법정	샘터
4	버리고 떠나기	법정	샘터
5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6	인연이야기	법정	문학의 숲
7	맑고 향기롭게	법정	조화로운 삶
8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을	법정	문학의 숲
9	산에는 꽃이 피네	법정	이레
10	홀로 사는 즐거움	법정	샘터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불기 2554년(2010) 경인년 부처님 오신날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국제불교지도자협회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ION
LEADER
국제불교지도자협회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TION

국제 선불교 조계종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법을 중시여기는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준비 되셨죠?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용단을 내리세요.

• 사찰 등록 • 주지 임명 • 승려증 발급
• 행자 (예비 비구, 비구니 스님)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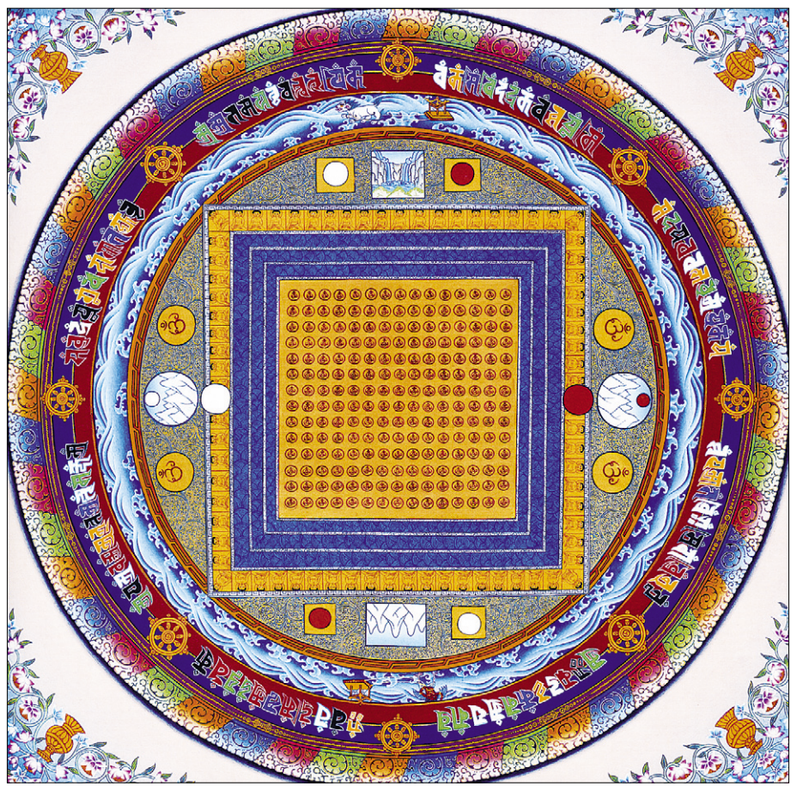
어렵고 복잡한 것 싫습니다.
그저 종단의 보호만 받고 부처님 재산인 내 사찰 내 재산 내가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세계 각처에 어렵게 살아가는 극빈자들에게 종단에서 추진하는 중생 교화, 인간방생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고 약속하면 됩니다.

개인 사찰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종단 법으로 일체 간여하지도 간섭도 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찰에서의 불사나 행사에는 이제 부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같은 도반이요 부처님 제자요 가족이기에 품앗이 정신으로 서로서로 도우며 아무리 조그마한 사찰이라도 원만하고 자랑스럽게 행사를 봉행하도록 협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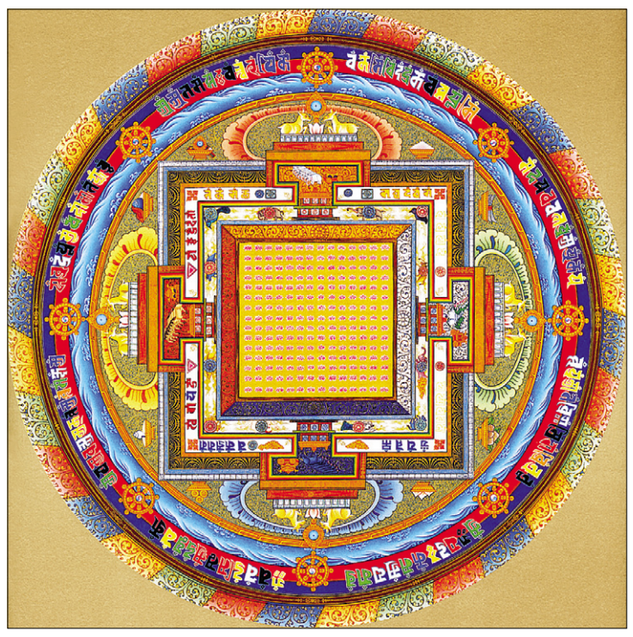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산하종단 국제 선불교 조계종 / 총무원 : 02)733-5670. 733-5665 / 펙스 : 02)733-5671

‘빛의 씨앗’ 찾아 떠나는 여행

불일미술관서 5월 30일까지 동휘 스님 해피만다라전



동휘 스님은 파스텔 계열의 환한 색채로 한국식 만다라를 표현했다.



“부처님 세상이야 말로 진정한 ‘해피월드’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해피만다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행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동휘 스님(해피만다라 문화원 원장)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 우주의 진리를 표현한 만다라를 선보인다. 스님은 ‘해피붓다 해피만다라 해피코리아’라는 행사를 통해 세계 각국의 만다라작품들과 스님의 해피만다라 작품 200여 점을 선보인다.

스님은 “만다라는 병들은 영혼과 심신을 치유하는 ‘빛의 통로’”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전 세계가 행복해지고, 그 빛의 중심에 한국이 있고, 부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동휘 스님의 이번 해피만다라전은 ‘빛을 먹다’라는 주제로 출판기념회 및 깨달음의 씨앗, 빛의 씨앗 해피옴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동휘 스님이 이처럼 ‘빛의 씨앗’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스님이 직접 만다라를 그리는 과정에서 자궁 속의 태아 같은 작은 마음의 씨앗이 용(龍)의 형상으로 점점 커지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스님은 “어느 날 기도를 마치고 눈 덮인 도량을 걷고 있는데, 얼어붙은 연못 위에 햇빛이 가득했다. 그 햇빛 속에서 어머니 뱃속에 든 태아 같기도 한 밝은 모습의 ‘옴’자가 수없이 반짝이는 것을 목격했다. 그 옴자는 빛을 받으며 점점 커지더니 용의 형상으로 하늘로 솟구쳤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 체험을 겪고 난 후, 만다라에 관련된 자료들을 찾다 어느 영국서적에 ‘옴 마니 반메 홈’이 ‘빛의 씨앗’ ‘말의 씨앗’ ‘깨달음의 씨앗’으로 표현된 것을 발견했다. 동휘 스님은 “그때부터 빛도 씨앗이 있음이 알게 됐다”며 “사람들은 햇빛 속에 서있어도 그 햇빛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빛의 씨앗을 해피만다라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스님의 작품 중 ‘해피 옴’은 이런 빛의 씨앗을 나타내는 대표적 작품이다. ‘해피 옴’은 마치 태아가 웅크리고 있는 형상 같기도 하고, 하트모양을 연상시키기도 하며, 용이 꿈틀되는 모습 같기도 하다.

스님은 “모든 예술작품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만다라는 부처님의 진리와 깨달음, 우주의 빛의 상상의 세계가 창조된 것이다. 그래서 만다라는 그 내면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만다라를 그리는 것은 깨달음의 과정이며, 깨달음은 바로 부처님 말씀인 ‘빛’의 세계이다. 만다라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가피를 얻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동휘 스님은 이번 해피만다라전에서 스님만의 한국식만다라를 선보일 예정이다. 티벳의 만다라가 검은빛이 도는 짙은색채를 주로 사용했다면, 스님은 빛의 세계를 구현하고자 파스텔톤의 밝은 색채로 만다라를 표현했다.

“우리 몸의 빛의 통로는 바로 ‘눈’입니다.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빛을 먹는 것’입니다. 해피만다라 또한 제가 본 빛의 씨앗으로 빛의 통로를 많은 분들게 보여드리고자 합입니다. 앞으로 해피만다라를 통해 우주의 행복과 빛의 통로가 한국불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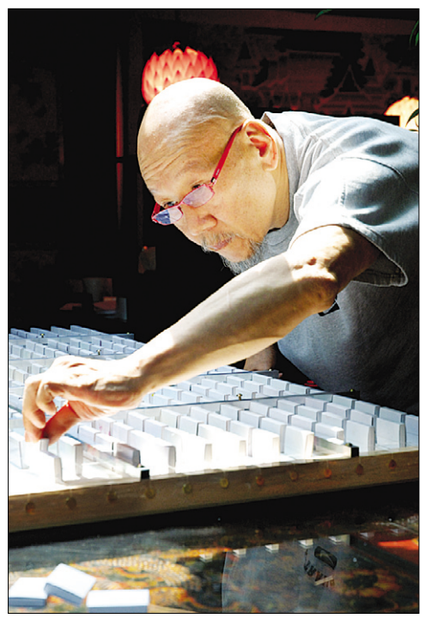
스님은 “식물과 동물에 씨앗이 있듯이, 빛에도 씨앗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피만다라에는 이런 빛의 씨앗이 중심에 들어있으며, 그 빛의 씨앗은 우리들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게 해주는 열쇠”라고 설명했다.

동휘 스님의 해파만다라 대전은 5월 30일까지 서울 법련사 불일 미술관에서 열린다. (02)733-5322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공과 색, 인드라망으로 엮이다

정산 김연식의 ‘천강에 비친 달’ 담갤러리서 5월 28일까지



세상은 진보한다. 이는 미술도 마찬가지이다. 기존의 관습적인 미술행위를 벗어난 설치미술, 행위미술, 오브제 등 파격적이고 창조적인 미술세계가 요즘 현대미술의 주를 이루며 관람객의 다양한 감정과 사고, 상상력을 자극한다.

정산 김연식(사진)은 서울 안국동 담 갤러리에서 5월 28일까지 ‘천강에 비친 달’전을 연다. 매니큐어로 다양한 회화작품과 설치작품을 선보여 왔던 그는 이번 전시에는 좀 더 실험적인 설치작품을 보여준다.

성냥갑 크기의 포맥스에 매니큐어로 ‘무(無의)’와 달을 그려 넣는가 하면, 대중매체의 잡지들을 콜라주해 오브제를 완성한다. 이는 저마다의 마음에 비춰진 달을 통해 우리네 사는 인간사를 말한다.

단위원소의 작은 오브제들은 다시 이미지가 그려져 있지 않은 흰 측면이 전면을 향하도록 첩첩히 병렬시킨다. 이렇게 쌓인 오브제들은 전시장 건물을 통째로 감싸며, 건물이 또 하나의 오브제로 탄생된다. 이번 전시에 사용된 성냥갑크기의 포맥스만 해도 외부에 2만 3000개, 내부에 1만6000개 정도가 사용됐다.

불교의 ‘공(空)’과 ‘색(色)’을 표현하기 위해 한쪽에만 표현된 그림은 수 만개의 오브제를 병렬한 탓에 빈 화면에 그림이 비춰져, 그 빛의 반영을 통해 신비감을 불러일으킨다. (02)738-2745

이은정 기자

진분홍 작가 금니의 현대적 변용

고려불화의 전통적인 기법을 현대의 풍경에 새롭게 담아낸 작품이 있어 눈길을 끈다.

진분홍 작가는 전통의 금니(金泥)기법을 새로운 환경과 자연에 다시 재현해내 새로운 화법을 구사한다.

2009년 복합문화공간인 스페이스 선+의 신진작가 공모전에 당선된 진분홍 작가는 전통미술이



진분홍 작가의 ‘무제’.

부진하는 가운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획기적인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다.

심사위원장 정준모(국민대 미술관박물관학) 교수는 “북한에서 어렵게 존속되는 금니화 기법이 한국화의 새로운 방법으로 재현돼 앞으로 새로운 장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진분홍 작가의 ‘복고風경’전은 5월 25일까지 스페이스 선+에서 열린다. (02)732-0732

이은정 기자

연극 ‘지대방’ 6월 6일까지

자신의 진정한 자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연극이 있다. 산중의 안거에 든 세 스님들의 이야기를 다룬 ‘지대방’이다. 이미 2006년 초연된 연극으로, 불교의 소재를 따뜻한 감성적 스토리로 녹여낸 작품이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원담 스님의 작품이기도 하며 당시 출연배우들이 삭박을 감행할 정도로 연기에 대한 열정을 보이며 큰 반향을 일으켰던 지대방이 또 한 번 무대에 오른다.

이번 ‘지대방’ 공연의 연출은 현재 극단 완자무늬 대표인 김태수가 맡았다. 완자무늬 극단의 지대방 공연은 6월 6일까지 서울 동숭동 대학로극장에서 공연된다.

공연은 허운, 돈조, 혜산 세 스님이 치열한 수행생활의 과정을 보여준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한 스님이 6년간의 무문관 수행중에 잠적하는 일이 발생한다.

작품을 쓴 원담 스님은 “삶에는 정답이 없듯이, 무문관 같은 고행이 아니여도, 지대방이라는 공간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지대방은 스님들이 공부를 하다가 잠시 쉬는 방을 말한다. 연극은 어지러운 세속을 정화시키려는 듯 동화적인 세계가 그려진다. 인간 본성의 ‘참 자아’를 찾아 고행하는 수행자들의 모습을 통해 상생과 생명존중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

연출을 맡은 극단완자무늬 김태수 대표는 이번 공연에 대해 “현대사회는 생명 존중사상의 결여와 무자비한 소비문화의 정착으로, 서로를 경쟁구도로 몰고 가고 있다”며 “막장드라마 등이 유행하는 시대에 모든 경계를 허물고, 진정한 나를 찾아 자유를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공연에는 정현, 배상돈, 배수백, 이용규 등이 출연한다. (02)765-1984

이은정 기자

빙의의 시대 증상을 바로 알면 치료법이 보인다!!!



빙의의 시대

빙의란 무엇이며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또 그 치료법은 무엇인가?
일평생 빙의치료를 공부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사후 영역에 있어야 할 귀신이 인간한테 접신되는 과정과, 귀신을 천도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 등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빙의의 시대 2

〈빙의의 시대〉를 출간한 뒤 수많은 독자와 빙의 환자, 또 그들의 보호자들을 상담하면서 느꼈던 1권에서 못 다한 이야기를 내놓았다.
이 책에서는 귀신에 접신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조기퇴치의 방법, 본인 스스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준다.

저자 / 일광(逸廣) 선생

오로지 천지인(天地人)의 궁극적 이치를 깨우치기 위해 전국 산하를 떠돌며 수행하던 일광 선생이 문득 회통의 밝은 빛을 보았으니, 오대산의 한 토굴에서였다.
그 뒤로 사후세계가 확연히 드러나며 영령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고, 자신의 역할이 그들 귀신들을 안온한 세계로 천도해 다시는 인간세계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빙의의 시대〉는 그러한 마음에서 저술한 일광 선생의 첫걸음이다.

병은 알릴수록 양약이 나타난다!

- 정신질환자 ●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무당 생활이 싫으신 분
- 꿈에 죽은 사람이 자주 보이고 가위눌림에 시달리시는 분
- 환청이나 환각으로 고생하시는 분
- 귀신이 몸에 있다고 고민하시는 분
- 몸에 통증은 있지만 병원의 진단에는 이상이 없는 분
- 원인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좌골신경통으로 오래 동안 고생하시는 분
- 만성 간경화증 환자 ● 말기 간암 환자

※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책을 읽은 뒤에 상담해주십시오.

상담전화 02) 743-7679. 010-5040-7679

우리출판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전화 (02)313-5047, 5056 팩스 (02)393-9696

佛紀2554年 庚寅年 Buddha's birthday |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선을 행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축복의 꽃밭길을 간다.
- 법구경

사단법인 대불교조계종

원로의원 석보 해우 무상

종정대행 청해
총무원장

종회의장 **오봉**
중앙선원장 **법해**
교육원장 **진성**
포교원장 **성산**
사정원장 **해능**
문화예술원장 **로도**
법사원장 **청허**
대체의학원장 **고산**
사회복지원장 **혜광**
비구니원장 **보성**
사서실장 **진산**

총무부장 **묘진**
재무부장 **담교**
교무부장 **천호**
사회부장 **혜안**
홍보부장 **해심**
문화부장 **혜명**
감찰부장 **무공**
조사부장 **대원**
봉사부장 **향천**
법사부장 **월명**
경북지역법사원장 **능각**

경기남부종무원장 **청허**
충남서부종무원장 **혜안**
충북종무원장 **오봉**
전북종무원장 **진성**
광주전남종무원장 **성산**
경북종무원장 **해능**
경남종무원장 **해주**
부산종무원장 **로도**
사무국장 **박찬혁**

■ 총무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138-12 (학생회관1길 29호)
전화 041)551-5537 팩스 041)621-5537

대한불교 원효종

총무원장 **향운** 원로원장 **대운**

원로위원 **벽송. 고산. 창해. 혜담. 법산. 금봉. 법성. 호성**

규정원장 **도천** 중앙종회의장 **인담** 총무부원장 **보원**
감사원장 **운오** 법규위원장 **도봉** 전국비구니회장 **명관**
원효대학장 **강설** 전국신도회장 **석송곤** 보살승단장 **보광**

수석중앙종회부의장 **운학** 차석중앙종회부의장 **원봉**
법규위원 **진산. 상경. 성은**
종회의원 **지호. 옥운. 도명. 운영. 지상. 혜인. 천수. 진혁. 원각. 성원**

서울종무원장 **진산** 충남대전종무원장 **일륜** 대구종무원장 **법웅** 강원종무원장 **청암**
충북종무원장 **석암** 전남종무원장 **마명** 경북남종무원장 **심상** 경남종무원장 **도암**
서부경남종무원장 **성원** 전국비구니부회장 **자성** 총본산 금수사 부주지 **상행**

포상위원장 **태운**
교육원장 **수혜** 문화원장 **효산** 포교원장 **태일** 의전실장 **대련**
사서실장 **혜공** 규정부장 **성암** 포교부장 **시현** 교육부장 **대각**
재무부장 **상기** 복지부장 **범일** 규정국장 **정행** 조사국장 **행길**

■ 총무원 : 울산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565-3번지 목련암 / 전화 052)262-6857

대한불교 선각종

종정 **영담** 대종사
총무원장 **정암**

원로원장 **법경**
종회의장 **동명** 종회부의장 **보안** 종책연구실장 **자공**

◆총무원
총무부장 **진목** 기획부장 **행진** 교무부장 **법인** 재무부장 **명일**
사회부장 **원주** 문화예술부장 **목언** 조직부장 **은광** 감사부장 **진하** 규정부장 **태송**
기획국장 **혜현** 교무국장 **형진** 재무국장 **선지** 사회국장 **혜인**
문화예술국장 **선주** 조직국장 **진오** 감사국장 **선정** 규정국장 **서진**

◆교육원
교육원장 **혜명**
연수부장 **법혜**

◆보건원 복지원 환경원
보건원장 **다행**
보건부장 **무령**
복지원장 **경봉**
복지부장 **진송**
복지국장 **덕성**
환경원장 **정각**
환경부장 **무공**

◆중앙포교원
포교원장 **벽해**
포교부장 **각림**
포교국장 **정진**

◆국제불교문화원 및 국제포교원
문화원장 **진환**
문화국장 **혜룡**
국제포교원장 **진덕**
국제포교부장 **진제**

◆사정원
사정원장 **진원** 사정부장 **서원**
호법국장 **진각** 감찰국장 **진철**

◆중앙위원회
법규위원장 **혜원**
법계고시위원장 **원명**

◆국제불교문화교류원
원장 **혜룡**

◆중앙선원
선원장 **도륜**
선원부장 **진안**

◆교구종무원
경주교구원장 **진봉**
광주교구원장 **혜관**
부산교구원장 **원정**
서울교구원장 **진보**
인천교구원장 **정각**
포항교구원장 **성법**
강원교구원장 **혜국**
전남교구원장 **진철**

■ 총무원 : 전남 강진군 옴천면 개산리 391번지 옴천사 / 전화 061)433-2233. 3233 (종무소) 팩스 433-2425

종교법인 대한불교 三寶조계종

大僧(皇) **멸공 大宗師**(초대종정)
宗正직대 **비담 大宗師**(3대)

元老院長 **금산 大禪師** 副宗正 **총무원장 代行** 원로위원 **정안. 정민. 효성. 혜공. 도문. 용운. 성주**
考試院長 **현각 宗師** 부원장 **일현 宗師** **향적. 법천. 법영. 정공. 조연. 향관. 문봉.**
護法院長 **법천 禪師** **청안. 오연. 덕성. 지훈. 대한. 흥국.**

법조고문 **김인수 변호사. 백경석 변호사** (전직 판, 검사) 법조위원 **주신식 법무사. 박명준 법무사** (전직 법원주사)
호법위원 **덕암. 영운. 법현. 지훈. 법건. 운봉** 고시위원 **일현. 화륜. 광진. 송파. 경호. 정법**

총무원장 **법장** 부원장 **법조. 법경**

총무부장 **선묵** 교육부장 **평산** 교무부장 **무진** 기획실장 **석연** 규정부장 **도담**

종회의장 **원명(6대).** 부의장 **지우. 정수** 종회의원 30人일동

감찰원장 **법도** 부원장 **성안** 교육원장 **홍인** 부원장 **진묵** 중선원장 **화륜** 부원장 **관정**
문화원장 **정수** 부원장 **자혜** 염불원장 **원명** 부원장 **청산** 복지원장 **원각** 부원장 **경보**
포교원장 **우암** 부원장 **지공** 국제원장 **남산** 부원장 **보성** 무술원장 **청도** 부원장 **보원**
건설원장 **성담** 부원장 **보각**

교구현황
서울교구원장 **석원현** 경기교구원장 **석법인** 광주교구원장 **석관조** 강원교구원장 **석보산** 부산교구원장 **석법호**
대구교구원장 **석각원** 경북교구원장 **석취운** 경남교구원장 **석서암** 울산교구부원장 **석도연** 충남교구원장 **석태륜**
충북교구원장 **석지원** 전남교구원장 **공석** 전북교구원장 **석청광** 대전교구원장 **공석** 인천교구원장 **석법영**
중국교구원장 **석정륵** 일본교구원장 **석수원** 제주교구원장 **공석**

종무위원 **선묵. 평산. 석연. 지명. 법고. 도담. 보우. 선가. 도오. 청조. 청파. 법운. 법진. 진묵. 이산. 성운. 청봉. 혜찬. 도묵. 도우. 성수. 성효** 사무국장 **성무**

전국종도 일동 합장

■ 종단총림 : 천년고찰 (천명대중 수행도량) 유학산 위봉사 ■ 총 무 원 : ☎(055) 338-0089 ■ 경남 김해시 삼정동17-10 삼보선원
■ 승가대학 : 제3기 학인모집 - 1년과정 전문교수교육 - 핵심, 단기, 실전 / 국제 칭기스칸대학교 한국캠퍼스 4년제 정규대학(편입학)
■ 사단법인 : 한국청소년보호회 전국연합회장, 전국연합회장, 지회 희망자 상담센터 055)334-1122

대승불교 태고종

종정 법성 총무원장 화봉

사서실장 **성학** 총무국장 **호산**
원로원장 **명운** 원로위원 **혜안**
교육부장 **학운** 포교부장 **이운**
비구니총무 **용주** 비구니위원 **법정**

서울종무원장 **태웅** 경기종무원장 **도경**
강원종무원장 **설경** 충북종무원장 **정운**
경북종무원장 **지영** 충남종무원장 **관웅**
경남종무원장 **현공** 전북종무원장 **송광**
전남종무원장 **해공** 부산종무원장 **태국**

<전국 사암 및 종도 입종안내>

▶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 입종자격 : 승려, 법사, 포교사,
▶ 입종서류 : 입종신청서(총무원), 주민등록증복사1매, 사진 4매

■ 총본산 : 경남 창녕군 계성면 사리 113 용주사
총무원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숭진리 산 121-2 석산사 / 전화 055)351-0562 / 010-4054-0562

사단법인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총재 **혜정** (사단법인 대한불교일승종 총무원장)
부총재 **무송** (사단법인 대한불교화엄선종 총무원장)
우담 (사단법인 중앙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회장 **송산** (사단법인 대한불교해동종 총무원장)
부회장 **마정** (한국불교임제종 총무원장)
정림 (사단법인 수미산문조동정종 총무원장)
사무총장 **법봉** (사단법인 대한불교승가종 총무원장)

기획원장 **대현** (한국불교법안조계종 총무원장)
포교원장 **법인** (대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문화원장 **향운** (세계불교법사종 총무원장)
복지원장 **법천** (대한정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의전원장 **일초** (사단법인 대한불교삼계종 총무원장)
재무원장 **대명** (대한불교천지종 총무원장)
호법원장 **덕진** (한국불교원각종 종회의장)

이사 **무각** (사단법인 한국불교정토종 총무원장)
정일 (한국불교근본해동종 총무원장)
법성 (국제불교선덕종 총무원장)
대일 (대한불교법륜종 총무원장)
보경 (대한불교무량종 총무원장)
봉암 (대한불교연화종 총무원장)
간사 **지고** (세계불교법사종 종회의장)

회원일동

■ 총무원 : 경기도 안산시 보개면 신장리 산 44 전화 : 사무실 031)676-3960, 회장 031)262-0606
사무총장 051)335-2210 / 011-9330-6210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 학 · 빙의 · 퇴마
스님이 쓰는 역학과 최면 영가와 명리를 실전위주로 확실한 비법을 개인 지도함.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역학 : 귀신 빼는 명리(우주물상을 연상법으로 사주, 궁합, 택일,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귀신든 병
스님 : 염불, 사물, 사찰 운영법 지도
부산 051)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서울 총무원 02)579-3690
연락처 010-2606-5121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기입 및 불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자기 도량처럼
출퇴근하며
포교, 화주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고양
018-382-3448

혜봉스님 비법전수
- 빙의퇴치법, 무병장수, 죽비 타골법.
- 전수비 99만원
- 전수기간 9일

한국심령과학연구회
(www.jijang999.com)
011-9585-4908

한국불교법화종
위 종단은 50년된 작은 종단이며 현재의 종단을 좀더 활성화 하고자 입종을 안내합니다.
(행사협조, 친목도모, 계첩, 도첩, 법계증. 권익보호와 운영에 관심 있으신 분 환영)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567-2 (성불사)
총무원 051)204-8494
011-885-8989

꿈바위불교교육원
능엄신주. 경전독송 영가천도
전국 기도 회향 대법회
(6월 30일 .부산국제신문사 대강당)
참가신청바람
꿈바위 후원자를 모십니다
서울 부산 대구
010-6789-5008

비구
부전스님
구함
▷45세 미만, 마산
016-428-6665

빙의 퇴마 전문치료
수시접수 中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악령에 시달려 머리가 자주 아픈 분 신병, 빙의로 신내림 받아야 할 분
지장사 주지 광덕 합장
032)261-8425
010-7335-8425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대한불교도서관건립 불사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하옵고, 불자님들의 가내에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佛書의 典當 대한불교도서관 건립에 뜻있는 불자님들의 선근인연을 기다립니다
헌책도 대 환영합니다
대한불교도서관추진위원회
010-2002-6332

직 원 구 함
(도서출판사)
만20세부터 45세까지의
여직원을 구합니다.
▷급여는 면담 후 결정
011-2707-6776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강원도 대덕사
010-9219-7695

출가자(비구니, 행자)구함
본 도량은 육지장보살을 모신 바른 지장기도도량으로써 비구니 스님 및 행자를 구합니다
· 자 격 : 20~30대, 학력, 지역 관계 없음
· 수행 후 주지 임명 (수행중 승려증 발급, 독자운영)
· 출가 하실분만 전화바랍니다. (장난전화 절대사절)
010-2599-6020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017-324-162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포천
010-4015-9494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행자님도 모십니다
▷부산
010-830-954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보시금 상담 후 결정
010-3188-5103

부전스님
모십니다.
사무직원도
모십니다
▷대전
042)282-9270

대방등 대집경 대승기도

- 기도법을 배우려는 스님
- 위치 : 백선사 절 (전철1호선 부천역 소명사거리 3층)

☎ 032)664-0048 / 011-741-0867

한국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경산,철곡,구미,포항,서울,뉴욕,감포 동시모집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목 · 금요일 오전반, 화요일 저녁반 / 주1회 공부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문의: ☎ 053)474-8228
- 다음카페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모집: ☎ 010-2488-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여자)신청하세요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이름 · 상호 팔자에 맞게끔 찾아드립니다. (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명상치유 (건강관리)

지구 테스트를 통해 불자님의 건강을 상담해드립니다. (무료)

- 체질을 알아야 나에게 맞는 음식, 과일, 차를 알고 먹을 수 있습니다.
- 생명수, 기(氣) 두 가지중 한가지만 본인에게 드립니다.
-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기(氣)를 넣어 드립니다.



음식+생명수+기(氣)=건강증진을 키워 드립니다.

사는 동안 아프지 않고 살고 싶은분, 수술전이나 후 허약하신분, 치매, 암, 당뇨,고혈압, 아토피, 뇌졸증, 심장병(부인화병), 우울증, 천식, 위장장애, 모든 요법으로 고치지 못한 분이나 여러가지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계신분.

건강한 사람은 더욱 건강하게 허약한 사람은 건강하게 - 음식, 생명수, 기(氣)로 그날 변화를 직접 본인이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 스님,불자님 지구에 계시는 모든분 꼭 한번 찾아오세요!!
(예약은 7일 전에 해주세요)

약사(氣)선원
원장 김광호 합장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2동 572-4
■ 053) 568-7373 / 010-5672-7373

봉축 화합으로 함께하는 한마음세상되길...

64형으로 나누어서 본 나의 체질을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나의 체질을 알아야 나에게 맞는 음식. 맞는 과일. 맞는 차를 알고먹어야 병을 만들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제마의 사상의학공부를 40년 넘게 하면서 손등의 피부를 만져보면 정확한 체질을 알려드리오니 시간을 꼭 내셔서 만나보세요.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병은 무엇이며 현재 병증은 왜 있는지를 체질을 알면 다 알수있기에 궁금하신 분, 사는 동안은 아프지 않고 살고 싶은 분은 찾아오세요.

현재 병증이 나오면 한약차로 처방을 해주는데 드셔보면 5일안에 변화를 본인이 느낍니다.

아토피 피부병은 바로완치됩니다.

스님들께는 건강한 몸으로 수행하시라고 모든 특혜를 드립니다

상담연락처 010-9373-3778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금강사
- 법 명 : 봉화(유수원)
- 주 소 : 경북 칠곡군 북삼읍 보손1리 491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7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스님...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가 모태가 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찰관련대출… 보장되지 않은 대출이율과 이사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겪어야하는 종교적 성향에 따른 대출금 상환독촉을 겪어보신 스님들께서는 이제야 귀의처를 찾았다고 안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보현사신협은 불교를 모태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불교병원건립 등 불교복지재단설립을 위해 창립된 전국 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1 사찰매매시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전문 불교은행입니다.
2 이사장(前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지성 큰스님)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불교은행입니다.
3 보현사신협은 수익금을 초파일 연등법회, 제등행사, 봉축위원회 분담금 지원, 불교대학 장학금, 불교신행단체 지원 등 불교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전국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4 보현사신협 전 직원은 불자로서 20년 전통의 노하우로 가람의 평가 및 사찰의 역사적 가치까지 정직하고 꼼꼼하게 평가해 드립니다.



불교은행 보현사 신협 확장 이전기념 (2008. 01. 28) 이사장 지성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1-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사찰,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법당 · 앰프 · 마이크 · 스피커 설치공사
사찰 CCTV 설치 (적외선 카메라)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엠프 시스템



법당 앰프



PWA-110 320×230×270mm...8.5kg



PWA-730 430×275×275mm...4kg



PWA-3000 200×480×230mm...11kg



무선마이크



TV,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하면서 녹화기능까지..
(야간에도 녹화 가능함)

사찰 CCTV 설치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윈미디어 방송 · 음향 · 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장사동 156번지 아세아전자상가 가열 119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H·P 010-8705-4288

대덕큰스님과 불자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불기 2554년(2010) 경인년 부처님 오신날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



내가 웃으니 꽃이 피네요.

사랑도 미움도 내 마음에 있다.

http://cafe.daum.net/maeum119

불자정보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가로 7cm - 70,000원 ,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02)2004-8215 FAX 02)737-0696

사 찰 안 내 / 토 굴

- ●위치 : 경기
- ●법당 : 27평
- ●요사 : 30평외 1동
- ●부지 : 260평
- ●가액 : 7억

- ●위치 : 경남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부지 : 280평
- ●가액 : 2억 8천

- ●위치 : 강원 강선 건물 1동(2층)
- ●부지 : 300평
- ●가액 : 2억 8천

- ●위치 : 강원 주문 건물 3동
- ●부지 1300평
- ●가액 :5억 5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 송 기 획 02)998-1994 011)713-5634

광 진 사 찰 안 내

- ● 위치 : 서울
- ● 부지 : 100평
- ● 법당 : 20평
- ● 요사 : 25평
- ● 가액 : 10억

- ● 위치 : 서울
- ● 부지 : 100평
- ● 법당 : 50평
- ● 요사 : 50평
- ● 가액 : 22억

- ● 위치 : 수도권산사
- ● 부지 : 100평
- ● 법당 : 30평
- ● 요사 : 30평
- ● 가액 : 2억 4천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전국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위탁알선판매 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및 토 굴 안 내

양산 신도시 부근 사찰

- ●총 대지 : 약 1,500평
- ●법당 35평(전통와가 5포 7포)
  요사채 80평(방10칸), 대종각
- ●부산근교 신도시, 산세수려
  계곡물 철철, 주차장 300평, 텃밭 400평
- ●총금액 : 13억

옛 사찰 터

- ●대지 평수 : 606평
- ●위치: 부산, 울산 간 중간지점
- ●토목(석축) 완료
- ●경관 아주 수려, 전망 최고
- ●가액 : 3억 3천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 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남구 대연동 (최요지)
  전철 3분거리, 시장 2분거리
- ●부지 130평, 건평 150평
- ●1,2,3층 ●주차 6~7대 가능
- ●1층 50평, 大방1, 큰거실1 ●2층 대웅전, 방1
- ●3층 천불전, 주지실, 방2, 다실별도1
- ●2, 3층 베란다 사용가능 ●가액: 11억

017-572-3714
011-419-3714
051)556-9530 (야간)

포교원(급)안내

- ● 위치: 안산시 상가밀집지역
  5층건물 중 2층
  (옥상, 텃밭 30평 사용)
- ● 평수 50평(법당 20평, 단청, 탱화 A급)
- ● 삼존불, 원불 60불, 인등 500
  주지실, 공양간, 해우소, 다용도실
-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2천만원(절충가능)
- ● 모든시설 A급, 현 법회중
- ● 소임관계로 급 양도

010-8954-8033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단양, 경관 수려
- ●대지 320평, 200평
- ●2층 법당(급 단청 되었음)
  1층 요사채 60평
- ●삼성각(조립식) 20평
- ●마당에 선미륵 2분, 선방 25평
- ●밭 450평, 요사채 27.5평
- ●가액 : 5억 5천만원(절충가능) , 교환가능

010-6436-9888

포교원안내

-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531-5
- ● 태양빌딩 5층 중 4층
- ● 평수 45평 육합
- ● 삼존불, 탱화, 후불, 신중, 지장, 칠성
- ● 가전제품 등 일체 완비
- ● 인등 100등, 연등 165등
-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 보증금 2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200만원

011-742-8458

사 찰 안 내

- ● 위치: 지리산 견불, 와불 관터
- ● 대지 300평, 700고지
- ● 요사채 양옥, 1층 35평
  2층 법당 15평
- ● 천리행용 백리안계 해동제일
  기도도량 최적지
- ● 가액 : 1억 5천만원

011-335-6389

사 찰 안 내

- ● 위치 : 영덕창수 ● 대지 : 330평
  농사가능 (농기계 완비)
- ● 방 5개, 큰 법당 1, 문수전,
  산신각 1, 지장보살입상(3m)
- ● 가액: 상담 후 결정

054)733-3858
010-9377-2356

사 찰 안 내

- ● 위치 : 충북 영동 시내
- ● 대지 약 54평, 건평 약 28평
- ● 법당, 요사(방2)
- ● 주방, 욕실, 심야보일러
- ● 가액: 8천 2백만원 (시설비포함)

010-7325-1259

포교원(급)안내

- ● 위치 : 양천구 ● 평수 70평
- ● 법당, 요사채3칸,
- ● 욕실 주방, 온수보일러
- ● 몸만오시면 법회가능
- ● 경비 5천만원
- ● 스님 공찰 관계로 급 양도

017-586-5699

포교원안내

- ● 위치: 부산시 남구 대연동 시장통
- ● 2층 60평 ● 법당30평,
- ● 방3개, 주방 大 주차가능
- ●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절충 가

011-9342-9794

포교원안내

- ● 위치: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 ● 평수 70평(4층 건물중 3층)
- ● 법당: 20평, 방4개, 창고1개,
  공양간 및 화장실 2개(남,여)
  아미타불, 관음, 대세지, 지장
  보살, 신중단, 산신
- ● 보증금 1,000만원, 월 55만원
  시설비 1,700만원

010-5800-3210

포교원안내

- ● 위치: 인천시 부평구부개1동
  대로변 2층
- ● 실평수 35평
-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1490만원

011-729-6011
032)614- 6011

사 찰 터 안 내

- ● 위치: 하동군 청암면 명호리
  1370번지 외 4필지
- ● 평수 : 총 3,352 (1,005평)
- ● 토지정리 완료, 청암면 소재지
  가기전 10리 산속
- ● 산세가 수려하고 청정지역으로
  작은 계곡이 접하고 있는 정남향
- ● 가액 : 평당 10만원

055)882-6760
011-9512-6763

사 찰 안 내

-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유하리
- ● 종교부지 200평
- ● 임야 200평, 전체 400평
- ● 가액: 9천만원

054)336-9775
010-2407-5899
010-9396-0739

포교원안내

-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안락2동
- ● 2층 30평 ● 소불 100분,
  인등 270등, 각단탱화
-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800만원
- ● 주택가 횡단보도 신호등사거리
  1층은 불교용품점
  온천천 공원이 근거리에 있습니다.

010-2446-2626

포 교 원 안 내

- ● 위치 : 대구 남구 공덕 1동 531-1번지
- ● 2층, 3층 각 70평, 합 140평
- ● 2층 공양실, 휴게실, 찜질방
- ● 3층 법당, 종무실, 스님방,
  부전방, 객실
- ● 삼존동불, 소불168불
- ● 2층, 3층 단청 내부시설 완벽,
- ● 주차 편리
- ● 보증금 1,500만원에 월 100만원
-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2878-3380

사찰(급)안내

- ● 위치 : 경북 봉화군 상운면
- ● 대지 200평(전 3천평)
- ● 법당 30평(삼존불)
- ● 좋은 약수샘 있음 ● 가액: 1억

054)672-8231
010-9004-7212

사찰(급)안내

-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 ● 사용부지 6,000평
  (실등기 5,000평)
- ● 법당 (목조) : 약 20평,
  산신각, 요사채, 2동중황토방 1개,
  실내외 화장실 3개
- ● 가액 : 3억 9천만원

011-816-9104
011-815-9104

포 교 원 안 내

- ● 위치 : 전남 목포 삼정동
  아파트 1,200세대 입주 예정지
- ● 총 43평 ● 4층 건물에 3층
- ● 삼존불, 후불탱화, 지장탱화,
  신중탱화 ● 시설완벽
- ● 보증금 1,000만원, 월 20만원
- ● 시설비 : 상담 후 결정
- ● 즉시법회 가능

010-3535-2469

암자 · 토굴 안내

- ● 위치 : 경남 거제시
- ● 대지 344㎡, 104평
- ● 아궁이, 황토방, ● 단독주택 2채
- ● 방3, 공양간 1, 인법당
- ● 가액: 1억 8천 5백만원

055)632-3840

사 찰 안 내

- ● 위치: 경남 함안군 대산면
- ● 대지 605평, 건평 약 100평
- ● 법당 60평, 요사 30평
- ● 다용도 창고 10평, 방 4칸
- ● 가액 : 2억 5천만원

010-4775-2799

사 찰 터 안 내

- ● 위치 : 경북 김천시 대항면
- ● 답 1470평 중 대지 288평
- ● 건평 45평 ● 호두나무 54그루 중
  34그루 수확중
- ● 사계절 물이 흐르고 있으며,
- ● 생수가 있음 ,직지사 근처
- ● 가액: 2억

010-4015-4627

포교원안내

- ● 위치 : 부산 감만동
- ● 4층 상가건물 ● 동불 삼불
- ● 4층 요사, 3층 법당
-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 시설비 1천2백만원(주인인정)

051)638-1134

포교원(급)안내

- ● 위치 : 창원시 사림동
- ● 평수 50평 ● 모든시설 완벽
  (신설2개월, A급)합니다
- ●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 ● 4천만원 (시설+전세) 월 60만원
- ● 소임관계로 '급' 양도

010-6436-8072

포 교 원 안 내

- ● 위치: 서울수유동화계사거리 대로변
- ● 4층 건물 중 3층 약 40평
- ● 시설A급, 삼존불, 신중,
  산신탱화 등, 집기일체
-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 보증금 1000만원, 월6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2)900-8705

암 자 터 안 내

- ● 위치: 정선군 화암면 북동리
  501부터 507 , 5필지
- ● 3만평
- ● 가액: 6천 5백만원

010-5201-8338

포 교 원 안 내

- ● 위치: 부산 구포시장 내
- ● 평수: 54평. 2층건물 중 2층
- ● 1층 허가된 주차장
- ● 보증금 3천만원 월 60만원
  (주차장 사용비 35만 포함)
- ● 주차장 완비
-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51)364-4889

포 교 원 안 내

- ● 위치: 대구동구도동
- ● 법당, 방 산신각
- ● 해수관음도량
- ● 하천부지, 터밭사용가능
- ● 전세 5천5백만원
- ● 몸만 들어오면 즉시 법회가능

010-2281-3577
053)985-1815

사 찰 안 내 참선기도도량

- ● 위치: 전남 담양군 수북면 오정1구
  광주에서 20분 거리
- ● 대지 250평, 텃밭 30평
- ● 기와집 30평, 황토집 20평, 차고와 벽돌 2층 25평
- ● 가액: 2억 5천만원

061)535-1090 /010-2523-1090

전망좋은 전원주택

- ● 위치: 양평 청운면
- ● 아름다운 산속, 사계절 물이 흐르는 곳
- ● 대지 198평 건물(조립식), 29.8평 외 1필지 38평 (무료증정)
- ● 가액: 3억 7천만원(가격절충)

010-3088-3133

의령 자굴산 토종오가피 및 사찰터 안내

- ● 위치 : 경남 의령군 부림면 막곡리 181-3
- ● 농장 인수 하실분, 건물 100평
- ● 공장 특허, 늘푸른 식품 ● 대지 1만 1천평
- ● 산 좋고 경치 좋은 곳, 공장 1동 집포함
- ● 시설완벽, 교환가능 ● 가액: 11억 7천만원

010-8791-5655

임야 사찰 터

- ● 위치 : 창녕군 창녕읍 여초리
- ● 44,120평 ● 화왕산 주령 사찰터
- ● 가액: 3억 8천만원 ● 관리지역, 농림지역

017-570-1600

납골당터.절터부지 안내

- ● 위치 : 경남 합천군 덕곡면 포두리
- ● 평수 7700평 (분할가능)
- ● 가액: 평당 1만원

010-8753-8899

포 교 원 안 내

- ● 경북 울진군 죽전면 봉평2리 83-9번지
- ● 삼존불
- ● 보증금 3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없음

010-3377-5432

포 교 원 안 내

- ● 위치 : 대전월평동소재, 유성온천 자동차5분
- ● 3층건물 중 1층 40평
- ● 법당1, 방사3, 주방1, 화장실 2개,
- ● 삼존불, 약사불, 신중, 산신, 칠성탱화
- ● 지하 약 40평 : 창고로 사용 가능
- ● 보증금 1000만, 월40만, 시설비 1200만
- ● 월평역 지하철 5분거리, 생활상담 최적
- ● 포교당 5년차, 소임관계로 양도
-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010 - 7227 - 6007

귀신뽑는 신통술!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과 모습의 점쾌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상대방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
귀신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제 권하기가 쉽습니다.!

* 귀장술12신궁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매매 • 이동운 보는 법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귀장술12신궁의 금전재물운 보는 법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부부인연因緣에 낀 액운厄運암시록
* 집안 동토귀신 알아내는 법
* 자녀액운 착귀탈 정단법
* 취직시험 • 승진시험의 합격 판단법
* 선거 후보당선 벼슬하는 여부 판단법
* 관청 • 공무원 빈자리 입관가능여부
* 소송 • 관재사의 승패 판단법
* 보고싶은사람, 기다리는 사람 소식가능일
* 가출자가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
* 잃어버린 분실물 위치 추정법
* 도주 • 도망간 사람이 어느쪽으로 갔을까?

* 12신궁 숨어있는 조상원귀법
* 12신궁에 암장된 악령귀신
* 귀장술歸藏術로 보는 前生투시법
* 前生의 夫婦인연 원침살이 現生에 미치는 현상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빙의착귀신론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사후死後환생 귀신작해론
* 산소 • 무덤에 관해서 [음택법]
* 무덤안 유골의 현재상태 알아내는 법



글 • 백초스님
상 • 하권 / 720면 / 정가 각 120,000

百超律歷學堂
입금 |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계좌 |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비법전수중
(02) 3667-4446
010-3813-4443

佛紀 2554年 庚寅年 Buddha's birthday |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지혜로운 수행자는 장애물을 태우는
불처럼 자신의 길을 향해 나아간다.
- 법구경

대한불교법상종

종 정 자 봉 원로원장 학 암

종회의장 천 웅
종회부의장 경 천
종 회 의 원 강 명 광 공 륜 산 연 월 우 혜 운 운 공 명 련
대 법 법 법 보 선 선 성 소 일 해 혜

총무원장 해 월
총 무 부 장 해 명
교 무 부 장 법 공 혜
재 무 부 장 선 대 광
호 법 부 장 대 법 산
사 회 부 장 법 법 연
문 화 부 장 법 우
총 무 국 장 선 응 명 경 덕 지
교 무 국 장 관 선 선 관 법
재 무 국 장 선 명 경 덕 지
호 법 국 장 선 관 법
사 회 국 장 관 법
문 화 국 장 법

사정원장 혜 명
교 육 원 장 도 일
교육원부장 일 공
교육원국장 혜 각
연구원부장 보 월
역 경 원 장 동 선
역경원부장 지 운
역경원국장 법 화
포 교 원 장 각 정
포교원부장 법 륜
포교원국장 능 경
홍 보 원 장 소 운
홍보원부장 성 운
홍보원국장 인 명
참 선 원 장 도 선
참선원부원장 선 담

사 정 위 원 대 광 강 명 지 안

강원종무원장 대 광
부산종무원장 혜 명
경북종무원장 도 선
대전종무원장 송 암
울산종무원장 석 천
경남종무원장 일 공
광주종무원장 성 운
충북종무원장 강 월
대구종무원장 강 명
충남종무원장 경 천

■ 총무원 : 경기 평택시 세교동 569-8 구문빌딩 4층 / 전화 031)653-1250~1 팩스 031)653-1253

非營利宗教法人 대한불교 대원종

종정 정허당 신풍

원 로 원 장 달오 부 원 장 청량범왕
원 로 위 원 대월 지성 수인
연 수 원 장 정봉 부 원 장 대월
감 찰 원 장 도명 부 원 장 성덕
포 교 원 장 혜조 부 원 장 법기
호 법 원 장 법경 부 원 장 대광
중앙종회의장 정법 부 의 장 혜도
불교예술원원장 소연 수석부원장 도영 부원장 도이
비 구 니 회 장 대광 비구니부회장 연아 성화
대원신풍불교(승가)대학 학장 신풍 부 학 장 정법
사 무 처 장 소원 종정사서실장 법수 종정큰스님시봉 연아

총무원장 대광 총무부장 연아 규정부장 법정
교육부장 정법 재무부장 대광 사회부장 범수
홍보부장 도언 기획실장 대각
중앙종회의원 정법 대광 연아 혜정 도언 혜연 범수
법승 조향 각오 혜인 혜성

부산교구종무원장 정법
대구교구종무원장 대각
포항교구종무원장 조향
전남광주교구종무원장 법정
김해교구종무원장 대광
강원교구종무원장 각오
대원종전국신도회장 용안(정원수)법사, 부회장 신우연 법사
경북교구종무원장 혜정
경남서부교구종무원장 경덕
목포교구종무원장 법주
경기교구종무원장 일연
통영교구종무원장 도언
경기교구종무원장 일연

신규사암 등록하실 스님 환영합니다. 행자승 모집합니다.
무료숙식제공 납골당 양로원 역학(철학) 대원승가(불교)대학 및 불교의식 교육생 모집함
지역교구 종무원장 하실 분 초빙 환영합니다.
역학 철학 풍수지리 속성 개인지도신규사찰 등록 환영 사찰이나 포교당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총무원 : 경남 김해시 한림면 병동 20번지 대한불교대원종 총무원 신풍사 / 기도원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931번지 오세암 055)521-1878
한국역술철학 협회 회장 시인 철학박사 종정(총무원장) 정허당 신풍 / 총무원 055)346-2909 무료전화 080-3030-5959 팩스 055)346-2909 /
큰스님 直 055)346-2908 휴대폰 011-869-8608 총무실 010-8548-8608 평생전화 1577-0408
한글홈페이지 네이버 대원종 또는 dw180.com / E메일 asp8990@hanmail.net

한국불교 법안조계종

종 정 운봉

부종정 송 봉 총무원장 대 현
승정원장 영암 승정부의장 성암
종회의장 본자 종회부의장 홍운. 법신

교육원장 승법 호법원장 원광 포교원장 정도 수선원장 서연
문화원장 무공 의전원장 동선 감사원장 법안 비구니원장 효상
총무부원장 도명 호법부원장 광월 문화부원장 설운 감사부원장 현공
비구니회장 관욱
충북교구원장 지호 경북교구원장 제법 서울교구원장 운산
강원교구원장 도현 경남교구원장 갑태 호남교구원장 도암
총무부장 불현 재무부장 혜진 사회부장 혜명 규정부장 도영
호법부장 무성 사회부장 혜명 종정사서실장 지성

• 입종안내 : 가족 같은 종단에 오셔서 같이 포교해 나가실 스님을 모십니다
• 입종서류 : 소정양식 2부, 등본 1통, 사진 4장

■ 총무원 (화남정사)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44-7 전화 031)222-2265. 217-2633

"生命의 雄飛, 그 위대한 법계 平和를 위하여"

화쟁평화중앙교원 현대불교조계종

종 정 덕현 벽운
총무원장 동화 칠통

전종도 사부대중 일동

*** 본 종단의 회원가입을 적극 환영합니다.**

■ 총무원 보광사 : 대전 동구 가오동 293-1 전화 042)283-5896 / 011-769-0300

〔등록번호 206-82-65359〕

대한불교 종단진흥총연합회

대 표 회 장 회 암 (대한불교본조계종 정토불교 종정)
수석부회장 혜 인 (불교조계종삼화불교 종정)
사 무 총 장 혜 성 (대한불교구화조계종 총무원장)
운 영 위 원 산 수 (대현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이 사 향 운 (세계불교법사종 총무원장)
법 광 (세계불교법륜종 총무원장)
탄 공 (대한불교법륜종 총무원장)
청 호 (대한불교연화종 총무원장)
법 성 (대한미타조계종 총무원장)
태 춘 (대한불교용화종 총무원장)
준 석 (대한불교불입종 총무원장)
춘 서 (세계불교평화종 총무원장)
영 국 (대한불교일광종 총무원장)
성 기 (대한불교해동평화종 총무원장)
관 봉 (불교도솔천유마종 총무원장)
한 영 (세계불교달마종 총무원장)
총 태 (진언불교지송종 총무원장)
용 환 (한국불교법성종 총무원장)
해 월 (대한불교법상종 총무원장)
일 원 (대한불교법화여래종 총무원장)
중 식 (법화종 총무원장)
윤 식 (한국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윤 서 (정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허 범 (대한불교교화선종 총무원장)
혜 종 (대한불교선교종 총무원장)
학 량 (불교영산법화종 총무원장)
청 열 (대한불교조계선종 총무원장)
우 열 (한국불교세계종 총무원장)
묘 일 (불교실상연화종 총무원장)
황 정 (세계불교일화종 총무원장)
정 자 (한국불교달마종 총무원장)
상 호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정 산 (세계불교해동원효종 총무원장)
도 선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 철 (대한불교대승연화종 총무원장)
법 장 (한국불교선조계종 총무원장)
회 례 (대한불교불승종 총무원장)
동 범 (대한불교약사여래종 총무원장)
숙 회 (불교용화세계미륵종 총무원장)
대 월 (대한불교지음종 총무원장)
청 암 (호국불교정토종 총무원장)
혜 각 (세계불교복지종 총무원장)
중 규 (일체불교유법종 총무원장)
지 일 (한국불교대승법사종 총무원장)

감 사 법 민 (한국불교원효종 총무원장)
법 우 (대한불교조계종정토교 총무원장)
영 호 (한국불교조동선종 총무원장)
영 도 (한국불교천일종 총무원장)

고문변호사 김진태 한국종교예술방송국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서울중랑우체국 사서함 76호 / 전화 02)3436-0796 팩스 02)2201-1163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종 정 법정

부종정 성월 총무원장 혜 상

장로원장 등봉 종회의장 도일 총무부원장 보타
포교원장 금단 교육원장 법운 호법원장 청담
복지원장 덕산 비구니원장 해광

경남교구원장 경 공 경북교구원장 혜 광 전남교구원장 학 룡 대구교구원장 종 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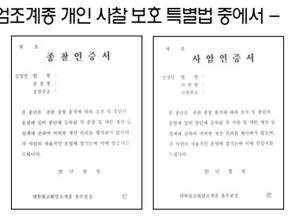
입종안내

대한불교 화엄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홍포하고 뜻을 함께 하실 종도들을 모십니다. 특히 본 종단은 종도들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종단 운영도 맑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엄조계종은 귀일심(歸一心)을 목표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일심사상과 통불교적(通佛敎的) 귀일사상(歸一思想)인 화쟁사상(和爭思想)과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라는 원효대사의 무애사상을 바탕으로 이 세상이 진속불이(眞俗不二)평등무애(平等無碍)한 화엄으로 장엄되는 그날까지, 대승불교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종단이 될 것입니다. **입종에 대한 많은 문의 바랍니다.**

대한불교화엄조계종 개인 사찰 보호 특별법 중에서 –

제 1조.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 종단입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총무원장 혜상스님께 문의 바랍니다

■ 총본산 : 경북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 총무원 054)632-2799. 011-228-7813

佛紀2554年 庚寅年 Buddha's birthday |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현명한 이는 마음을 잘 다스린다.
잘 다스린 마음은 행복의 근원이다.
- 법구경

大韓佛教 曹 洞 宗

宗正 : **智明. 德瓚** 僧正院長 : **怛帝. 德周**

總務院長 : **大隱. 德牛** 中央監察院長 : **德性 行性** 中央宗會議長 : **海倫. 行峰**

禪院長 : **眞一**

中央護法院長 : **慧泉**	中央布教院長 : **優潭**	中央教育院長 : **光慧**
中央律院長 : **雲潭**	中央宗會副議長 : **雲性**	中央宗會副議長 : **道一**
國際文化院長 : **行燦**	京畿宗務院長 : **法空**	南海宗務院長 : **淸雲**
江原宗務院長 : **慧覺**	忠北宗務院長 : **慧煜**	忠南宗務院長 : **法空**
嶺東宗務院長 : **慧空**	慶南西宗務院長 : **法光**	慶南中宗務院長 : **慧山**
嶺南宗務院長 : **慧悟**	慶北宗務院長 : **雲鶴**	釜山宗務院長 : **道一**
僧正副院長 : **心月**	僧正委員 : **圓峰**	僧正委員 : **法空**
僧正委員 : **慧空**	副院長 : **眞法**	總務部長 : **古牛**
財務部長 : **法蓮**	社會部長 : **慧山**	敎務部長 : **海權**
糾正部長 : **月峰**	布務部長 : **素圓**	文化局長 : **平潭**
監察局長 : **道賢**	敎務局長 : **月光**	財務局長 : **淸淨**
社會局長 : **法文**	糾正局長 : **松潭**	

■ 총무원 : 서울시 노원구 상계4동 154번지 도선사 전화 : 02)2091-0408

대한불교 조동종 조동종 총무원장 주석사찰

수 락 산 도 선 사

주지 대은덕우



불기2554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사

늙기 싫고 병드는 것이 싫으며 죽는 것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바르지 못함이고
이러한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봄꽃 향기처럼
부처님이 이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불자들은 부처님이 오신 그 뜻에 따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고통 받고 있는 이웃과 함께
평화롭고 행복한 부처님 오신 날이 되도록 합시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신 도 일 동

■ 주소 : 서울시 노원구 상계4동 산 154번지 전화 : 02)2091-0408

대한불교 조동종 종정 주석사찰

삼각산 청 련 사

주 지 **지명 덕찬**

신 도 일 동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562-1번지
TEL 02)379-3935

대한불교 조동종 승정위원 주석사찰

두리봉 산하 행 운 사

회주 **법공 득룡**
주지 **수임 행천**
총무 **지현**

■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삼성리 216번지
TEL 010-9189-3346 / 011-781-0218

대한불교 조동종 감찰원장 주석사찰

봉제산 우 암 사

주지 덕성 행성

신도일동

■ 서울시 강서구 화곡본동 24-197
TEL 02)2698-6100

대한불교 조동종 중앙종회의장 주석사찰

약수산 명 덕 사

주지 해륜 행봉

신도일동

■ 강원도 홍천군 남면 명동리 471
TEL 033)432-7345

대한불교 조동종 중앙호법원장 주석사찰

성 문 사

주지 혜천

신도일동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2리 330번지
TEL 033)378-8254 / 011-9705-8254

대한불교 조동종 중앙포교원장 주석사찰

법 화 사

주지 용성

신도일동

■ 대전시 삼성동 293번지
TEL 043)637-1793

대한불교 조동종 중앙종회부의장 주석사찰

만 덕 사

주지 운성 행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3리
TEL 054)261-2477

대한불교 조동종 국제문화원장 주석사찰

금 불 사

주지 행찬

신도일동

■ 강원도 포천시 신북면 가채1리 819-4
TEL 031)544-1195

대한불교 조동종 영동교구종무원장 주석사찰

천 일 사

주지 혜공

신도일동

■ 강원도 영월군 남면 토교4리 1010번지
TEL 011-868-5506 / 033)374-0012

대한불교 조동종 부산종무원장 주석사찰

정 광 사

주지 도일

신도일동

■ 부산시 해운대구 중1동 1147-8번지
TEL 051)741-6493 / 017-561-7858

대한불교 조동종 사회부장 주석사찰

소백산 보림사(대작불사 중)

주지 혜산

신도회장 이경환

신도일동

■ TEL 043)422-5527 / 010-3662-5527

대한불교 조동종 교무부장 주석사찰

덕 수 사

주지 해권

신도일동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산 160번지
TEL 031)636-2360 / 011-364-6239

대한불교 조동종 총무부장 주석사찰

벽 조 사

주지 고우

신도일동

■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126-5
TEL 011-9061-5963

대한불교 조동종 규정국장 주석사찰

송 암 사

주지 송담

혜명화보살

신도일동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 1동 303-1번지
TEL 011-9038-6768 / 02)969-6742

대한불교 조동종

법 륜 사

주지 혜산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1동 4-8
TEL 02)394-5113 / 017-274-1633

대한불교조동종

백암산 오 도 암

법사 정각심

신도일동

■ 경기도 대구시 동구 검사동 764-9
TEL 053)984-0343

오도암 포교당 호심사

■ 경북 의성군 기억면 순호리 430-1
TEL 054)833-0668

현대불교신문사 경남남부지사

지사장 청운 합장

기사제보. 광고. 구독신청

■ 전화 : 055)867-0776 / 055)746-9778
팩스 : 055)867-8009

대한불교조동종 남해교구원장

금산 미 륵 암

주지 청운

신도일동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3번지
TEL 055)867-0776 / 070-8838-3776



대행 스님

잎새 하나하나도 자기 뿌리에 의해서 사는 겁니다



그림 · 최주현

여러분께서 자리가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활에서 참선이라는 것을 알 양으로 무척 애를 쓰는 것을 볼 때 참 감개무량하고 어떤 땐 너무 기쁩니다. 생활에도 도리가 있듯이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참 도리가 있어야 하고, 중심과 중도(中道), 중용이 있듯이 불가에서도 부처님 법을 진짜로 전수 받고 진짜로 내가 정각을 이룰 때에, 어떻게 해야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겁니다. 조금이라도 그것이 틀리면 아니 되니깐요.

팔만대장경을 보기 이전에 세상 돌아가는 거를 가만히 보십시오. 일체 만물만생이 죽었다 깨어나고 깨어났다 죽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고 사계절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그렇게 봄이면 피고 또는 늦은 가을이 되면 단풍이 지고, 그러는 게 있는가 하면 사계절을 푸르르게 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간도 좀더 차원이 높으면 사계절을 푸르르게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100% 다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 되기가 어렵고 또 인간은 됐으나 아주 100% 인간이 돼야만이 진짜 인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린애를 탄생시켜서 놓으면은 그냥 인간이라고 하긴 하죠. 그러나 100% 어른 사람이 된 것은 아니죠. 그와 같이 여러분이 많지만 그 중에도 완전히 인간이 된 분이 있는가 하면, 인간이 덜 된 분이 있고, 허허, 아직도 한창 자라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이루어도 견성한 것은 금방 태어난 아기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둘 아닌 도리를 알기 위해서 또 습을 녹이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또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알기만 하면 그건 도가 아닙니다. 내가 남에게 목마른 데 줄 수 있고 내가 먹을 수 있어야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둘 아닌 도리를 알았으면 둘 아니게 나툴 줄 알아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얼마만큼 이것이 똑바로 들어가야만이 되는 겁니까? 지금 컴퓨터나 전자기계라든가 이런 것도 글자 하나만 틀려도 그것은 모두가 틀려 넘어갑니다. 숫자 하나만 틀려도 전부 틀리고요. 여러분, 현재에 사시면서도 그러시죠.

그와 같이 우리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집니다. 우리가 행선(行禪)이라고도 하죠.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니까요. 곧장 직선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구(活句)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볼 때에 팔만대장경에 어떻게 그것을 다 쓸 수가 있겠습니까? 팔만대장경이 아무리 잘됐다 하더라도 삼세(三世)를 돌아가면서 이 모든 병풍 둘러치듯 한 이 세계, 우주 만물 이 자체는 아마 '팔만대장경은 저리 가라.' 할 겁니다. 왜? 팔만대장경 자체가 그냥 고정되게 써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볼 때는 글자로 보이거든요. 글자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 글자 뒷면에, 백지의 뒷면에 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동방 너머 세계가 있고, 서방 너머 세계가 있고, 남방 너머 세계가 있고 모두 이렇게 있듯이, 이 너머 세계가 다시 또 있고 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직결하지 못하면은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에 들어설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학술적으로 하고, 경을 읽어서 한다면 문이 있는 것을 찾지만, 문이 있는 것 뒤에 문 없는 문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 없는 문을 찾기 위해서는 똑바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통신이 되질 않아서 연결이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을 이끌어갈 때에 '당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모두가 없고 당신이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부터 알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부터 나로 생긴 거지 내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게 똑바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또 내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나를 이끌어가는 나의 선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놓으라니까 "참, 다 놔지지 않습니다." 이러거든요. 왜 다 놔지지 않습니까? 모두 자기가 하는 건데요.

모두 그 껍데기 속에 알맹이가 있습니다. 알맹이와 껍데기가 둘이 아니게 만날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말입니다. 울게 된 것도 자기가 한 거, 웃게 한 것도 자기가 한 거, 즐거운 것도 자기가 하는 거, 슬픈 것도 자기가 한 거, 자기가 있으니깐 된 겁니다, 그게 모두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간단히 나로부터 생각하세요. 잘하든 못하든 울든 웃든, 어느 누구가 하는가? 그래서 자기로부터 상대가 생겼고 세상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어, 이런 거구나!' 자라가지고 '아! 세계는 이런 거구나!' 또 어른이 돼가지고 '아! 세계는 우주화가 됐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자기가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움죽거리고, 보고 들이고, 생각하고 하는 게 다 자기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 아닌 자기가 하는 거죠. 부처님께서도 자기 그림자와 자기가 서로 싸운 겁니다. 둘 아니게 싸운 거죠. "너는 내 껍데기 아니야?", 껍데기는 하는 소리가 "너는 내 알맹이 아니야?" 하고 말입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지금 공부해 내려가는 그 모두는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겁니다. 남이 해주는 것도 없고, 남이 주는 것도 없고, 뺏어가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약하게 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좀 가지시고 말입니다. 내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서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나를 아주 얄게 생각을 하고 나는 빼놓고 부처님을 위에 모신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거는 백날 가도 부처님 속에 같이 한자리를 못합니다. 얄보지도 말고 높이 보지도 말고 평등하게 나와 둘 아니게 보세요. 그러면서도 바로 과거에 살던 자기 조상이기 때문에 그 자기 조상으로 인해서 자기 조상을 상봉을 한다면 바로 그게 견성입니다. 일체제불의 마음과 더불어 같이 할 때 그때 이제 성불이고요. 일체 만물만생과 더불어 응신이 돼서 나툴 때, 그때에 바로 열반경지까지, 구경경지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말하다 말고 저 넘어갔습니다, 말하다가요.

그래서 우리는 울어도 자기요 웃어도 자기요, 못해도 자기요 잘해도 자기요, 망해도 자기요 승화가 돼도 자기예요. '몽땅 놔버려야 한다.' 이런 것도 말입니다, 본래 몽땅 놓고 가는 겁니다. 왜냐? 내 몸속에 그렇게 자생중생들이 잔뜩 들어 있어서 같이 더불어 돌아가니깐 그놈의 게 전부 공(空)했죠, 네? 혼자 하는 게 한 알갱이도 없어요. 혼자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 말하는 것도 없고 뭐 별게 다 혼자 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 이거는 내가 했다고 내놓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 얻어야 다 줄 수가 있는 거지 다 얻지도 못해가지고 어떻게 남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똑바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놓고 들이고, 들이고 내고 하는 그놈이 바로 자기 알맹이죠. 즉 말하자면 콩깍지 속에 콩, 허허허. 여러분이 콩을 심어놓고 콩이 익지 않았으면은 깔 때 그 속에 그 뭡니까, 그거? 뭐라고 그러죠? 그 창이 붙어서 익지 않았으면 까기가 참 어렵죠. 다 익었으면은 아주 까기가 좋을 텐데 말이에요. 그것도 공부하는,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콩이 완전히 익었다 할 때는 콩깍지와 콩이 따로따로 놉니다. 우리는 지금 콩깍지와 콩이 따로따로 놀아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해서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자유스럽게 콩이 안에서 구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안에서 구를 수가 있어야만이 콩깍지를 벗어난 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콩이 벗어났기 때문에 무위도(無爲道)로써 무심도(無心道)를 그냥 중용을 한다 이겁니다. 들고 남이 없으면서 문도 없으면서, 벽도 없고

☞26면으로 계속

불기 2554년(2010) 경인년 부처님 오신날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사단법인 한국불교 조계종

불기 2554년 나라안정 기원 불교도 대법회

봉 행

제7대 종정, 총무원장 및 임원진 취임

종 정 수경당 법일 대종사

원로 회의의장 단각종사 총무원장 대봉 대종사 종의회장 지암종사

◆ 일 시 : 2010년 5월 27일 (음 4월 14일) 목요일 10시 ◆ 장 소 : 한국불교조계종 총본산 문경 백봉사

- 초대의 말씀 -

귀의 삼보하옵고
불기 2554년 부처님 탄신을 봉축하오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불자여러분의 가내에 충만하옵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나라 안팎으로 몹시도 어렵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나라의 참된 일꾼을 찾는 이 중차대한 시절에 21세기 한국불교를 선도해가는 본한국불교조계종은 나라안정을 위한 불교도 기원대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때를 같이하여 본 종단은 제7대 종정에 수경당 법일대종사를 추대하고 총무원장 및 임원진 구성에 따른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여 취임식을 봉행하오니 공사다망하시더라도 불자님의 많은 동참으로 법석을 빛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불자여러분의 행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한번 기원드립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불기 2554(2010) 5월 좋은날

사단법인 한국불교 조계종
봉행위원장 지 연 합장

(사) 한국불교 조계종 7대 임원진 명단

원로위원 : 성 학 사 무학스님 약수사 보연스님
불소리정사 현공스님 약사암 지암스님
우리지장정사 태흥스님

종회위원 : 보광선원 용주스님 해운정사 행운스님
법 성 사 선정스님 도 선 사 혜명스님
관 음 사 화명스님

교구원장 : (서울1교구) : 도각사 지광스님 (경기 2교구) : 황룡사 도성스님
(충정3교구) : 약사사 보경스님 (전북 4교구) : 유심사 무휴스님
(전남5교구) : 용운사 해양스님 (강원 6교구) : 명상사 동암스님
(경북7교구) : 대각선원 지연스님 (경남 8교구) : 선봉사 관봉스님
(제주9교구) : 대정암 태암스님 (부산10교구) : 약사암 지암스님

감 사 : 관 음 사 명화스님
비구니 회장 : 용 운 사 혜양스님
중앙신도회장 : 대행심
포 교 원 장 : 수미정사 도관스님
사 정 원 장 : 도 각 사 지광스님
교 육 원 장 : 문 주 사 탄허스님
호 계 원 장 : 화엄정사 정안스님
기 획 실 장 : 율 곡 암 지연스님
재 무 부 장 : 수 월 사 일공스님
총 무 부 장 : 대 원 사 유원스님
교 무 부 장 : 대 선 암 법정스님
사 회 부 장 : 백 련 암 서경스님
문 화 부 장 : 백 암 사 도연스님
감 찰 부 장 : 등 불 사 지오스님
교 임 단 장 : 태 원 사 원성스님
법 사 단 장 : 어 천 김정석
사 무 국 장 : 이소연

◆ 후원 : 문경시, BTN불교TV,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현대불교신문, 룸비니불교예술단

본 종단에 입종을 희망하시는 청정수행스님들의 동참을 적극 환영합니다.

오시는길 :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새재IC에서 마성방면 3Km 지점 백봉사 전화 : 1588-0408, 054-572-1034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진짜로 근본을 믿으세요

☞25면에서 계속

봇장도 없고, 물 깊이도 없고 뚫을 것도 없고, 이 말 언어도 붙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콩깍지가 그렇게 붙다가,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아플 때에 만약에 수술을 한다 이럴 때 콩깍지하고 콩하고 따로 떨어져 있으면 콩은 좀 나와서 쉬어도 됩니다. 콩깍지 부스러진 것만 고치게끔 놔두고 말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일체 만물이 응신(應身)으로서 다 될 수 있고,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나 아님이 없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도량 아님이 없고 내 모습 아님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이제 내가 껍데길 벗어도 되겠다.' 할 때는 탁 치기만 해도 그 콩껍데기는 그냥 탁 벌어지게 까진단 말입니다. 콩 알맹이는 알맹이대로 나오고요. 이렇듯이 우리가 공부를 진짜 하려고 칼을 뺐으면 그 칼로 인해서 일체 만물만생을 세세생생에 살릴 수 있는, 건질 수 있는 그런 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말이 틀리다 하면은 한번 세상을 쭉 둘러보시고요. 죽고 사는 게 어떠한 일인지 그것도 알아보시고, 유마경도 한번 보시고요. 이 한문을 완전히 또 모르면은 그냥 한문 글자만 풀이를 할 줄 알지 그 뒷면의 그걸 몰라서 과거를 못 봅니다. 허허허.

옛날에 어느 선비가 과거 보러 한양을 가는데 어느 주막에서 이렇게 쉬다가 너무 더워서 바깥으로 나와서 바람을 쐬느라고 앉았는데, 그 아내가 남의 집에 일해줘서 푼돈 푼돈 모은 거를 주머니에 담아서 준 거를 생각을 하니까 이번에도 과거를 못 보면은 참 큰일나겠거든요. 이거 어린 자식들은 모두 헐벗고 그 노부모들도 그렇고, 또 아내는 그냥 남의 집에 다니면서 그러고, 자기 공부시키느라고 그냥 그렇게 살다보니까 살기가 무척 고통스러웠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번에 과거를 못 보면 난 얼굴을 들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아주 죽을 각오를 하고선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앉아 있으니까, 어느 초췌하게 입은 노인네 한 분이 척척 걸어오더니 "어이구, 다리 아퍼!" 그러고 쉬더랍니다. "자네는 어디를 가는 행각인가?" 그러니까 "지금 한양에 과거를 보러 갑니다." 하니까, "자네 과거를 보러 가려면 이거를 보게." 그러고선 주머니에서 훌쩍훌쩍 꺼내더니 아, 책을 한 권 주거든요.

책을 한 권 주는데 펴보니깐 백지예요, 백지. 허허허. 그거를, 이 책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과거를 볼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 백지 한 장을 주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그 백지를 보고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답니다. '아하, 이 과거 보는 글자 뒷면에는 백 자가 꼭 필요하구나!' '백 백 자는 고개를 들었고, 백을 그냥 둥글리면 둥글려졌고,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전체가 꽉 찰 수도 있고, 꽉 차서 중심을 (손가락을 세워 보이시며) 들었을 수도 있다.' 하는 걸 생각을 하곤 떡 과거를 보러 갔는데 아, 그 대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잘 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다고 해서 그걸 어렵게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딱 기억해둘 거는 요 선장이라는 주인공이 자기 뿌립니다. '뿌리에서 하나하나 잎새가 다 살고 있구나!' 잎새라는 건 내 몸속의 생명들을 말합니다. 잎새 하나하나도 거기 뿌리에 의해서 살고 있구나! 그럼 이 큰 덩어리는, 뿌리에 달린 덩어리는 바로 그 헤아릴 수 없는 생명들을 살게 하는 주머니예요. 주머닌데 바로 그네들의 시자도 됩니다. 그네들을 다스리는 시자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시자예요. 속에 들어 있는 거와 이 거죽에 싸고 있는, 우리 이 몸뚱이 자체가 전부 그 중심을 다스리는 시자예요. 그 중심에 끼워져 있어서 수레와 같이 돌아가는 바로 이걸 '법륜바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똑바로 하나 잊지 마라 하는 것은 내 뿌리에서 모든 거, 들이고 내는 것도 그놈 속에서 나오는 거고, 울게 하는 것도 아프게 하는 것도 일거수 일투족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고 무조건 믿고 무조건 거기에 놓고 들어가야 해요. 그냥 '너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알아서 해!' 이러지 마세요. 지금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좀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너 알아서 해!' 이러면은 그냥 평등하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아픈 거라든가, 가난한 거라든가, 일이 벌어졌다든가 그러면 자기의 용도에 따라서 잘되는 거는 감사하게 거기 놓고, 안되는 거는 '너만이 할 수 있지 않아.' 또 어떤 사람은 '당신만이 할 수 있잖아.' 또 어떤 사람은 '아빠만이 할 수 있잖아.' 어떤 사람은 '뿌리만이 할 수 있잖아.' '주인공만이 할 수 있잖아.' 별 이름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 이름은 다 같다 하더라도 이거는 꼭 그 하나에서 나고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화두를 스님한테 받았다고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온 게 화두니까 화두를 받은 것도 감사히 받아서 거기 같이 한자리에 놔라 이겁니다. 그냥 놓고 자꾸 가라 이거예요. 생각 나면 거기 놔라 이거예요. 나빼놓고 화두를 들고선 '이게 뭣고?' 그러고 아무리 굴려도 그건 백날이 가도 그거는 깨칠 수가 없습니다. 이 공부도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점검을 해주고 이럽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점검을 잘하죠, 아주. 때로는 정히 모를 때는 꿈에라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가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딴소리 하지 마시고 들이고 내는 거, 이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아무리 속가에서 살림을 하고 살더라도 이 공부하는 거는 평등합니다. 또 돈이 있고 없고도 없고, 잘나고 못나고도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날더러 "병이나 고치는 게 부처님 도인 줄 아는 모양이지?" 이렇게 비웃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앞에 닥치는 대로, 그 고생을 하는 것도 닥치는 대로지 병이라고 어떻게, 부처님 법은 병을 고치지 않는다 하고 이렇게 내버립니까? 또 내가 병을 고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관(觀)하시면 부처님 마음과 내마음이 통과, 통과가 된다는 얘기를 이끌어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용도에 따라서 병이 나면 병이 나는 대로 자신이 대치를 하고, 가난해도 자신이 대치를 하고,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자기가 대치해야, 할 줄 알아야 그 몸속에 있는 자생중생들의 조복을 받게 됩니다. 조복이라는 거 아시죠?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보이시며) 이래요? 허허허. (대중 웃음) 이 몸속에 있는 생명의 의식들이 내가 한생각을 하면 똑같이 따라주는 것입니다.

공부를 진짜로 하려고 칼을 뺐으면
일체 만물만생은 세세생생 건질 수 있는
그런 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마음이 된다는 것을 조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 한마음으로 통신이 되지 않는다면 제각기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된 대로 그냥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입력된 거를 없애는 도리를 만날 일러드렸죠? 거기다 놓게 되면은 앞서의 입력이 없어진다, 이렇게요.

또 오신통이라는 자체가 바로 우리 생활 속에 다 있는 겁니다. 보는 거, 듣는 거, 가고 오는 거, 아는 거, 내가 어머니 속에서 탄생을 한 거, 이런 거를 뒷면의 그 뜻은 모르더라도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갑니다. 그거를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입력이 다 되니까 그게 숙명통(宿命通)으로부터, 그 모두 있는 데서, 누진(漏盡)으로부터 이게 다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야 누진으로 활딱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열심히 공부해서 조금도 그 차원 낮은 인간으로 세세생생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지 마시고, 마음으로 지금이라도 자꾸자꾸 벗어나게 되면은 위 조상들도 아래 자녀들도, 내 몸속의 자생중생들도 자꾸 조복을 받게 되고 벗어나게 돼 있습니다. 모두 말입니다.

그러니 조그만 거서부터 생활 속에서, 아니 내 몸으로부터, 내 몸 속에도 세계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 하나가 세계라고 해도 됩니다. 그 세계, 내 몸 자체도 대치해 나가야겠고, 내 가정도 대치해야겠고, 사회도 대치해야겠고, 국가 민족을 또 대치해야겠고, 나아가서는 세계를 대치해야겠고, 이게 모든 게 이 마음 하나로 인해서 되는 겁니다. 뭐 다른 거 양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거 하나면 됩니다, 불씨 하나면! 그러니 여러분이 지혜롭게 물리가 터지고 이게 깨달아서 굴릴 줄 알아야, 하나의 작대기가, 이게 작대기가 만약에 태양빛이라면, 태양이라면 그 헤아릴 수 없는 바늘같이 이렇게 퍼졌죠, 빛이 말이에요. 바늘같이 퍼진 그 자체가 바로 중용할 수 있는 이름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뭐 우리 산사람이나 보이지 않는 데나 다 지킴이 있어요. 바다에는 해신(海神)인 주해신(主海神)이 있고, 산에는 주산신(主山神)이 계시고, 나무들은 지혜로운 주림신(主林神)이 있고 이 모두가 이름이 다 있듯이 이름이 그렇게 많아요. (양 손으로 차례로 더 큰 원을 그려 보이시며)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싸고 있듯이 그거와 같이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의 한생각이 아촉이고, 아미타고, 관세음이고, 지장이고, 칠성이고, 독성이고, 다 용신이고, 산신이고, 다 이게 한생각에서 나온 이름들이에요. 여러분이 한 가정에서 그 가정을 이루어나가는데 한 분이 한 식구를 이끌어가면서 다 하시죠? "나는 이걸 지금 할 테니까 자네는 이거 이거 해." 하고선 그렇게 애들한테는 애들 할 일, 어른한테는 어른 할 일 이렇게 하듯이 보이지 않는 거는 보이지 않는 대로 무궁무진하죠. 한생각이 이 허공에 꽉 찰 수 있으니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으면 좀 질문 좀 하시든지요. 아시더라도 이성계가 저 무학 대사 찾아가는 길에서 떡장수 할머니를 봤을 때에 그러듯이 떡그릇에도 무조건 엎드러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라도 두들겨가면서 가시도록 하시면 남들이 또 배우죠.

질문자1(남): 스님, 이번에 제가 죽지 못해가지고요, 많은 분들한테 누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제 문제도 그렇고 옆에서 일어난 문제도 보면은 제가 죽지 못했다는 거 그게 제일 걸리고요. 제 자신상이 죽지 못했습니다, 나라는 그 상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몰락 맡겨놓지 못해가지고요. 맡겼다가도 다시 들고 또 맡겼다가 다시 들고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 벌어지고 괴롭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해주셨지만 다시 한 번 죽고 말기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큰스님: 몽땅 자기가 생각하고 들이고 내는 거, 몸뚱이, 모두 보고 듣고 하는 거 등등 하여튼 일거수일투족 몸뚱이 하나가 뿌리에 다 달려있어요, 한 뿌리에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선지식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지 제 나무가 딴 나무 이름이나 형상에 이렇게 끄달리면은, 제 뿌리는 얻다가 놔두고 그러고 다녀?" 이러고 했거든요. 그러니 저를 끌고다니는 영원한 자기 뿌리를 믿지 못하고 거기다가 놓지 못하고, 바깥으로 그냥 당당당당 발을 구르면 어떻게 합니까? 통신이 돼야만이 보이지 않는 데서 다 조절을 하게 돼 있어요. 다 맡겨놔야 이게 대뇌로 가서 사대(四大)로 통신이 돼서 의식들이 다 털구멍을 통해서 나고 들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응신(應身)이 돼서 다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통신이 돼요? 왜 맡겼다가 도로 뺏고 맡겼다가 도로 뺏고 그래요?

모두들 여러분이 그렇게 해놓고는 내게 와서는, 이제 좀 아프니까 다니다가 보면 좀 낫거든요. 그러면은 해이해져선 더이상 안 와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가 또 딴 데가 벌어지면은 그때서야 또 와서 "죄송합니다."이러거든요. 허허. 그게 그게 있을 수가 없죠. 생활 속에서 그냥 자기가 공부하라는 건데 누가 돈을 싸다가 달라고 그러나, 누가 줄창 와서 기도를 하라고 그러나. 아니, 자기 생활 속에 그 생활이 그냥 공부할 수 있는 재료라고 그래도 그렇게들 모두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진짜로 믿어요. 죽든지 살든지 그거 아랑곳없이 말이에요. 그렇게 믿어야 믿는 거예요. 그래야 죽지도 않고 정말 살지 않으면서도 죽지 않고, 죽지 않으면서도 살고, 이렇게 되죠?

질문자2(여): 저는 한마음선원에 나온 지 이제 1년 됐습니다. 그런데 항상 공부를 하라고 그러셔도 공부가, 뭐를 배워야 공부가 되는 건지 그걸 모르고요, 또 참선을 어떻게 해야 참선이 되는 건지 그거를 몰라서 스님께 질문드립니다.

큰스님: 여기 스님네들한테 자꾸 와서 배우세요. 그렇게 하세요.

질문자2(여): 제가 다리가 아파가지고서 자주 나오질 못해요.

큰스님: 그러니깐요, 자주 나오세요. 자주 나오시다 보면은 다리를 들어주는 데가 있을 거라고요. 그거 이따금씩 그저 에휴! 좀 잊어버릴 만하면 또 한 번 들여다보고 그냥 훌쩍 가고 그러니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 다리가 부러지든 성하든, 한번 내가 지극하게 그걸 배워보겠다 하고 자꾸 와지면요, 한 다리 이렇게 층층대 이렇게 올려놓지 못한 게 또 한 다리 올라가고 또 한 다리 올라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공부하세요.

※위 법문은 1995년 5월 21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자 세상보기

최승철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사찰의 에너지 소비의 대안

인류가 불을 사용면서부터 에너지는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에너지가 있기에 삼복더위에도 긴소매 셔츠를 입을 수 있으며, 엄동추위에도 런닝셔츠 차림으로 연중 생산되는 철없는 과일을 즐길 수 있다. 지난 200여 년간의 산업화와 근대화는 현세대의 물질적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쾌락을 선물하였지만, 미래세대와 지구생태계에게 기후변화에 따른 생존권 위협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의 확대를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적 근대화 시스템은 사회적, 생태적 소외의 근본적인 원인이었으며, 종국에는 삶을 죽음으로 내몰아왔다.

미래세대 위협하는 풍요

대표적 에너지원으로서 석유는 앞으로 40년, 천연가스와 우라늄은 60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석유소비 규모는 1500만 배럴/일(1955년)에서 8200만 배럴/일(2005년)로 엄청난 속도로 증가해왔다. 현대 에너지 시스템은 끊임없이 에너지 수요를 재촉해왔다. 현대 에너지 체계의 지지자들은 에너지의 생산과 분배, 소비가 무제한적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와 환경 위험이 완화되고 사회적 위험이 통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새로운 기술과 전략이 생태적으로 무해하고 경제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엑손 발데스호(알레스카), 허베이 스피리트호(태안), BP의 해저유전 사고(멕시코만), 체르노빌 원전 사고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 파괴와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다.

제한된 에너지원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하는 상황은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국제유가의 변화는 승용차의 휘발유 가격뿐만 아니라 도시서민의 식탁에 올라오는 야채가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에너지 문제는 공급의 확대보다 수요를 관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아껴라, 아끼는 것만이 살 길이다"라는 구호는 대표적인 에너지 폭식국가로 손꼽히고 있는 미국이 선택한 대안이다. 이와 같은 정책 전환은 오바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선거과정에서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80%를 줄일 것을 제시하면서, 정부청사를 비롯한 주택건물의 에너지효율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500만 개의 녹색일자리 창출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은 현재의 위기가 에너지, 특히 석유를 포함한 화석연료의 지나친 소비에 있음을 인식하고 절약과 대체를 통한 새로운 에너지체계 형성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경우, 절약과 대체보다는 여전히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공급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에너지 절약의 문제는 그동안의 소비행태에 대한 성찰이 전제되어야 한다. 최근 한 환경단체와 사찰의 조사에 따르면, 겨울철 에너지 소비 규모가 1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사찰들이 산중에 입지함으로 인해 값싼 에너지원인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사찰 겨울나기에 1억

최근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유가 동향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가격의 원가연동제 도입을 발표하였다. 즉 석유와 그에 의존하는 전기에너지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석유와 전기에 의존하고 있는 사찰의 에너지 공급체계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최근 들어 건강한 생활과 생태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산중의 사찰을 찾는 경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일반인의 방문이 잦아지면서 사찰의 규모가 커지고 도시적 소비패턴에 빠져들고 있다. 사찰 주변에는 다양하고 풍부한 재생에너지원이 분포하고 있다. 사찰은 우리사회에서 어느 곳보다 가장 생태적인 공간에 입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찰의 에너지 소비는 생태적인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제 사찰 에너지소비에서부터 성찰을 통한 대안을 스스로 모색할 시기가 되었다.

사 설

'새 불교' 각성하는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의 가르침은 뭇생명의 화해로움과 평화를 염원하는 간절함이다. 지금 그 염원이 더욱 절실한 시기이다. 나라 안을 살펴보면, 온통 혼돈이다. 거칠고 폭력적이다.

며칠 전에는 젊은이들이 동반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나라 중 가장 높다. 우리가 얼마나 팍팍하고 무자비의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이다.

출산율은 1.15명(2009년)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 수치는 한 세대가 지나면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으로, 2세를 낳지 않는 불임의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통스런 삶을 되물림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의식이 불임사회가 된 근본원인이다.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육아휴직제를 실시하는 것으로는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고서는 난망하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침몰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후 대북 응징론과 안보 부실 책임론이 첨예하게 맞부딪치는 형국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4대강 밀어붙이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국토해양부가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종교단체 등에 토론회를 제안했으나, 공사를 일시 중지하겠다는 조건을 내놓지 않아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정부가 지금 할 일은 그동안 반대운동 측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내놓음과 동시에 공사를 일시 중지한 후 토론을 하자고 해야 한다. 그래야 반대운동 측에 진정성이 전해진다. 그렇지 않으니 시간 벌기니 여론호도용이니 하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한 사회의 방향타를 쥐고 있는 정치는 한치 앞의 세상만 쳐다본다. 그것조차 외눈박이다. 나와 우리 집단에 이득이 되느냐는 것만이 판단의 근거로 삼을 뿐이다. 긴 안목과 양보와 배려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미덕이 되지 못한다. 편 가르기와 배제의 원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도에 기반한 지성은 실종되었다. 정치권력의 자장에 빨려들어 허우적거리거나 제 세상 만난 듯 으스대고 있는 꼴이다.

이러한 때에 불교는 어디에 있는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많은 이들이 불교에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이고 있다. 팍팍한 세상을 적셔줄 부드러움을 불교에 기대하고 있다. 불교가 단비를 뿌려주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다그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불교는 조선조의 기나긴 억불의 시기를 견뎌왔다. 이후 일제치하에서 불교다움의 면목을 되찾지 못했다. 해방 후 부처님법대로 살자는 운동이 일어 그나마 불조 앞에 송구스러움을 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50년대에서 70년대에 이르도록 30여 년 이어진 비구-대처의 갈등으로 발전의 토대를 닦지 못했다. 갈등의 시기로부터 벗어난 지 한 세대를 지나왔음에도 여전히 그 후유증에 호되게 시달리고 있다. 가장 큰 후유증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법보다는 권력의 논리가 지배함으로써 비법이 구조화되었다는 것이다.

새 불교를 위한 성찰과 새로운 기운을 배양하기 위한 각성이 있지 않고서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맞이하는 부처님오신날은 허탈하다. 법전 스님의 봉축법어를 다시 새겨본다. "눈앞에 있는 모든 생명이 법신의 구현체요, 여러분이 불조대기(佛祖大機)를 구족한 미륵의 현신입니다." 새 불교를 열라는 할방(喝棒)으로 새겨야 한다.



사부대중 칼럼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소장

불교와 성교육

법적 처벌을 받고 있는 성폭력 범죄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상담을 진행해오면서 놀라는 일 중의 하나는, 이들 중에 평소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살아왔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이다.

최근 충격적인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언론보도 때문인지 성폭력 가해자는 극악무도한 성격파탄자, 범죄 성향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떠올리지만, 사실 성범죄는 성격이나 정신적 문제라기보다는 성(sexuality)에 대한 왜곡된 통념과 인식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전문성도 갖춘, 성실한 사람이지만 성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 성폭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왜곡된 남성성 · 여성성

예를 들면 거칠게 성행동을 하는 것이 사귐의 깊이를 더해 간다거나 때로는 공격적 성적 행동이 남성답다는 신념, 반면 내숭과 애교, 성에 대한 수동적 태도를 여성성의 상징으로 인식하여 의외로 수많은 여성들이 자기주장을 하지 못하는 일, 불평등한 관계가 강요되어지는 데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묵묵히 받아들이는 일들이다. 왜곡된 통념은 때로는 친밀감의 표현으로, 때로는 놀이 속에서, 장난처럼, 그리고 화해와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일상에서 성폭력을 일으킨다.

성교육은 말 한마디도, 손짓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성폭력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일이다. 성교육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태도와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차별적 성역할을 당연하다고 인식하고 있는지, 자신의 성적 욕망이나 성에 대한 두려움, 불편함이 어떤 맥락에서 일어나는지, 왜 내 몸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 성적 상황에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등을 이해하게 하는 일이다. 성교육은 기존의 가부장적, 폭력적, 상업적인 성문화로부터 평등하고 민주적이며 생명 · 평화적인 성문화를 지향하게 한다.

무엇보다 성교육은 '나'의 주인으로서의 권리 즉 내 몸에 대한 주권이 내게 있다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알고 행사하게 한다. '성은 인권이며 존중과 배려'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과 관련된 태도, 인식, 행동, 규범 등은 어린 시절 가정과 학교 그리고 그 사회와 문화를 통해 배운 것들이다. 그렇다면 최근의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한국의 성문화가 우리들의 성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그 성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고민하게 한다.

성에 대한 인식과 행동은 후천적으로 학습되어진다는 점에서 상대방과 자신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책임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오랜 연습과 배움을 통해 이뤄진다. 그런 점에서 성교육은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조기교육이며 생애주기 동안 평생 받아야 하는 평생교육이다.

내가 '나'의 '주인됨'을 깨닫고 자신의 존재를 가치 있게 여기는 성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모두가 차별 없이 성불할 수 있다는 평등과 본래 부처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기를 강조하는 불교의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한다. 모든 생명 있는 것에 대한 존엄성과 서로 다른 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역시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성행동은 후천적 학습

한편 불교적 수행에서 성은 금기의 대상, 수행의 장애로 여겨지고 있는데, 성이 불편하고 삶의 장애물이 되는 것은 물리쳐야 할 적이라고 생각할 때이다. 우리들의 삶에 엄연히 존재하는 성은 성적 욕망, 성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은 생명에 대한 것이며, 권리에 대한 것이며, 정체성에 대한 것이며, 성역할, 의사소통, 자존감, 친밀감의 표현에 대한 것이다.

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성주체성을 갖는 데 성교육만이 대안이 아니지만 성교육은 가장 희망적인 대안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글로코에이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엘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클로코에이크림을 발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2개. 1set 가격 30,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치아로 인한고통은 없으실거예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 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 연구 끝에 2006년 4월 28일 미합중국 발명대회 特許 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 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 · 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 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윤택을 내며 하얀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 50,000원
金剛닥터사 / 전화 : 02) 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창업을 위한 전문자격증 교육생 및 지부모집
제 7 기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 육 과 목	교 육 기 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표정관리 및 웃음치료, 최면요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건강식품업소탐방,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월요일 반

수시교육 / 매월 상시 모집 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i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02)393-5111
지부교육원
영남본부교육원 055-543-3155
대 구 교 육 원 053-566-1116
부 산 교 육 원 051-636-2972
부산해운대지부 051-757-9990
호남본부교육원 063-254-5500
광 주 교 육 원 062-672-5432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울 산 교 육 원 052-260-1037
-지부모집-
현재 9개 운영 중 아래 9개 지부를 상시 모집합니다.
강원남부 / 강원북부 경기남부 / 경기북부 충청남부 / 충청북부 대전 / 인천 / 수원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영산불교가 새로운 불교의 정법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 가섭존자 광명만덕 큰스님과 아난존자 자재만현 큰스님이 부처님의 법통을 이어받아 신불교인 영산불교를 개창했습니다. (2007.7)
영산불교는 부처님께서 무아속 절대계에 빛의 인격체로 여여히 계심을 선언합니다!
영산불교는 2000여년 간 왜곡되어온 무아설을 바로 잡으면서, 사설(邪說)인 무아윤회설을 폐기하고, 불교사상 처음으로 영혼체 윤회설을 선언합니다!
불멸 200년쯤 뒤 출세한 아쇼카 대왕(어느 붓다의 후신)께서 전 인도를 통일하고 불교화 시킨 인도 대륙에서 우리 불교는 힌두교에 밀려 소멸하다시피 되었습니다. 주지하는 바처럼 불교가 인도에서 망한 주된 원인은 불교의 무아설을 잘못 해석한 데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불교역사상 그 누구도 이 무아설을 바로 잡는 분이 없었습니다. '왜곡된 무아설'은 불교를 이처럼 왜소화시킨 바로 그 주범입니다.

영산불교는 영혼체 윤회설로 2000여년간 무아윤회논쟁에 종지부를 찍어드립니다.영혼체는 영원불사의 인간 본체이고 윤회와 해탈의 주체요, 주인공입니다.영혼체는 지옥도 가고 짐승의 몸으로도 들어가며, 천상세계도 가고 극락세계도 갑니다.

영산불교는 보살이 되고 붓다가 되는 타력중심의 칭명염불을 공식적인 수행법으로 선언합니다!
영산불교는 불력으로 전쟁을 막고 민족의 평화통일과 국운융창, 그리고 지구촌의 평화를 이루려는 호국평화불교의 구심체임을 선언합니다!

◈ 가섭 · 아난존자는 한국 땅에서 불과를 이루고 중생구제와 호국평화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현지사를 창건했습니다. (2001.5)

현지사는 부처님 본불과, 다보부처님과 여러 부처님들이 상주하시는 세계불교 성지 중의 성지입니다.


영산불교 현지사 춘천본사 봉축 10만등 돌파

2600년만에 다시 열리는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
부처님 교단 '영산불교'

Ⅰ. 영산불교는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

영산불교는 광명만덕 큰스님과 자재만현 큰스님께서 지금의 왜곡된 말법시대 불교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정법시대 불교를 열기 위해 2007년 7월에 개창한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이다. 영산불교의 핵심사상은 부처님 실존관, 영체중심 생사관, 칭명염불중심 수행관, 호국평화 불교관과 5대 수행덕목 (부처님에 대한 철기둥 같은 믿음을 갖고, 부모조상에 대해 지극한 효행을 하며, 청정계율을 생명처럼 지키고, 자비이타행을 생활화하며, 말보다 실천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Ⅱ. 현지사는 부처님 본불께서 상주하시는 성지

〈현지사 춘천본사와 부산 · 대전분원〉

현지사 춘천본사는 가섭존자, 아난존자가 세운 세계유일 정법본산

• 광명만덕, 자재만현 큰스님께서 정법포교를 통한 중생구제와 호국평화의 원력을 실현하기 위해 2001년 5월에 창건한 법통도량이다.
• 현지사(顯智寺)는 "부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절"이란 의미로 부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다. 현지사 터는 보명부처님께서 잡아주셨다.
• 현지사 부산분원은 기도 · 포교성지, 대전분원은 미타성전.
• 2006년 2월에 설립된 현지사 부산분원은 오여래부처님이신 불세존 · 다보부처님 · 약사여래부처님 · 아미타부처님 · 보명부처님을 모셔놓고 있는 기도와 정법포교중심의 정법도량이다.
• 2009년 12월에 개원한 현지사 대전분원은 불세존과 약사여래부처님, 그리고 아미타부처님을 모신 성전으로서 서방극락세계와 완전히 하나로 도킹이 되어 있어 아미타불 성전으로서의 역할이 중심이 되고 있다.

〈현지사는 세계불교 성지 중의 성지〉

현지사는 불세존과 오여래부처님계시는 세계불교 성지 중의 성지

• 현지사는 불세존의 본불이신 노사나부처님께서 상주하고 계시고, 삼계지존 다보부처님, 의중대왕 약사부처님, 극락정토 아미타부처님, 법보관장 보명부처님과 부처님들의 어머니 역할을 하시는 준제보살님께서 상주하고 계신다.
• 현지사에는 사바세계에서 보살행 하시는 4대 부처님이신 문수보살님 · 보현보살님 · 관세음보살님 · 지장보살님과 인간의 길흉화복을 관장하시는 3대부처님이신 보명부처님 · 산왕부처님 · 치성광여래부처님께서 상주하고 계신다.
• 그리고 우리 중생들이 그렇게도 갈망해왔던 도솔천 내원궁교주, 미륵부처님(혜위등왕불)께서 금년 4월 초파일부터 현지사에 상주하신다.

현지사는 불세존께서 업장을 씻어주시는 희유한 붓다회상의 성지.

• 금생에 불과 이루신 자재만현 큰스님께서는 영산회상 이후 2600여년 만에 처음으로 매월 2회의 붓다회상을 열고 있다.
• 설법시에는 불세존께서 자재만현 큰스님의 정수리에 정좌하시고 수많은 부처님,보살님,성중,하늘사람 백천만이 모이며, 전국 각지에서 상시 1000여명의 불자가 참석한다. 부처님께서는 무량광으로 참석불자들의 업장을 씻어주신다.

현지사는 실제 부처님 모습대로 머리 깎고 눈 뜬 불상을 모신 성지

• 불세존과 여러 부처님들의 불상은 절대계에 계시는 본불의 모습대로 재현하여 세계 어느 절에서도 볼 수 없는 머리 깎고 눈 뜬 모습을 하고 있다.

〈현지사가 조성한 지구촌의 3대 보물〉

• 부처님 세계와 도킹이 되어있는 3대보물–
• 대적광전 · 다보불탑 · 미타성전
• 대적광전에 모신 비로자나부처님은 붓다가 점안하여 생명력이 창조된 세계 유일의 비로자나불상(청정법신비로자나 부처님과 하나로 도킹된)이며, 불세존과 삼천대천세계 모든 붓다님들의 우주적 능력을 실제로 발휘할 수 있다.
• 다보부처님을 모신 다보불탑은 보정국토에 있는 다보불탑과 하나로 도킹이 되어 있다. 붓다가 점안하여 생명력을 가진 세계유일의 보탑으로서, 다보부처님과 수많은분화보살들의 우주적 능력을 실제로 발휘할 수 있다.
• 현지사 대전분원에 있는 미타성전은 아미타부처님이 계시는 서방극락세계와 우주적 도킹이 되어있으며. 중생을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불세존 본불을 모신 대웅보전과 삼불보전〉

초파일 부처님 점안 봉불 및 대웅보전 개원 봉축 10만등 돌파!

• 현지사의 대웅보전은 불세존을 주불로 하고, 좌우에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있으며, 초파일 개원 봉축 대법회와 10만등 불사를 봉행한다.
• 삼불보전에는 인간의 길흉화복을 주관하는 보명부처님 · 산왕부처님 · 치성광여래부처님을 모셔놓고 있다.



영산불교 현지사 부산분원

■ 현지사 정기법회 안내

아난존자 자재만현 큰스님 붓다회상 대법회
◇ 매월 음력 8일 : 춘천본사
◇ 매월 음력 23일 : 부산분원 또는 대전분원

■ 주소 및 연락처

· 춘천본사 :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95번지 현지사 (033-243-1795)
· 부산분원 : 부산시 동래구 온천2동 1439-2 이센타워 15층 (051-554-5150)
· 대전분원 : 대전시 서구 변동 14-39 번지 (042-525-5325)

≪ 현지사에서 발간한 불교 성서 ≫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자재만현 큰스님 저

부처님의 실존을 선언하여 세계불교사에 새로운 지평을 연 화제의 대작! 육도윤회세계와 해탈계의 존재를 분명히 밝히면서 진리의 생사관을 제시한 21세기 인류사상의 금자탑!
부처님께서 어느 불교 경전 못지않게 평가하시는 위대한 시대적 성서! 박태호 변호사(법학박사):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통한 큰스님의 사자후에 모든 의문점이 눈 녹듯 사라졌다....
조우석 중앙일보 기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는 예사롭지 않았다. 고백컨대 충격으로 다가왔다....가히 파천황이다.

이 책은 금생에 불과를 증한 자재만현 큰스님께서 붓다가 되는 관문인 무량광을 보고 대적정삼매를 통과하여 부처님을 친견하고 친히 들은 법설을 중심으로 쓴 시대적 성서다. 부처님께서 32상 80종호를 갖추고 빛의 인격체로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시다는 부처님의 실존을 선언하여 세계 불교사의 새로운 장을 연 화제의 대작이다.
아울러 지옥 · 천상등 육도윤회세계와 극락세계 등 해탈의 사후세계가 실제로 존재함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21세기 인류사상의 기념비적 금자탑이다. 부처님께서 어느 불교경전 못지않게 평가하고 계시며, 발간 당시 6개월 연속 불교서적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

광명만덕 큰스님, 자재만현 큰스님 공저

가섭 광명불, 아난 자재통왕불 두 붓다가 출세하여 전하는 부처님의 메시지! 부처님의 희유한 실체와 사바세계에 현신하시는 모습을 최초로 공개!
영혼윤회설을 선언하여 2000년 무아윤회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종교상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을 주창한 미증유의 보서!
보살이 되고 붓다가 되는 혁신적인 칭명염불 수행법을 주창하여 불교수행의 일대 파라다임 변혁을 주도!

"새벽에 올리는 남섬부주 제자의 공양을 드시고 천녀들이 가져온 차 공양을 드십니다. 우리 교주
불세존께서는 모든 불보살님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하루 일과를 지시 하십니다. 회의시간은 거의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금생에 불과를 증하신 두 분 큰스님께서 전하는, 종교상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을 뛰어넘는 부처님의 메시지다. 부처님 이후 2600여년 만에 열리는 영산불교 붓다회상의 희유한 설법장면과 불세존과 여러 부처님들께서 사바세계에 현신하시는 모습을 최초로 공개하고 있다. 불교사상 처음으로 부처님의 희유한 실체와 인간 영혼체의 비밀을 밝히면서 영체윤회설을 최초로 선언하여 2000년 불교사의 무아윤회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불교역사의 새로운 한 페지를 기록한 미증유의 보서이다.
아울러 보살 · 붓다가 되는 혁신적인 칭명염불 수행법을 주창하여 '타력중심수행'이라는 불교수행의 일대 파라다임 변혁을 주도하고 있다.

〈육도윤회의 주체는 비아인 영혼체이다〉

– 불교사상연구소 (2010년 신간)

2000여년간 왜곡된 무아설을 혁파하고 영체윤회설을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분석한 역사적 대논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간 영혼체의 신비를 낱낱이 파헤치고 영적으로 해부한 인간영혼체의 알파와 오메가!
상락아정의 본체계에 존재하는 진아의 실체를 밝히고 불보살의 실존을 논리적으로 증명한 대역작!

불세존 말씀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다. 육도윤회에 돌면서 고생하는 것을 끊어주기 위해 무아(無我)를 이야기 했노라. '있다 없다'를 확실하게 알면서 '있다 없다'를 초월한 자리, 더 나아가서 대적정삼매에 들어 무아(無我)의 환희는 붓다의 경계이니라. 여기까지 공부 못하고 법을 모독 능멸하여 중생을 오도한 죄는 무간지옥에 가느니라. 붓다와 법은 영원히 멸도하지 않느니라.

〈당의 女황제 측천무후 - 그 분이 다시 이 세상에 온 까닭은〉 송도현 저 / 2010년 신간

중국 최초의 여황제 칙천무후의 정체를 새로운 역사적 시각에서밝혀 불교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자리 매김한 대역작! 중국 최초의 여황제로서 80화엄경을 만들고 불경에 나오는 개경게를 쓰고 사찰을 짓고 불교를 중흥시킨 칙천무후, 그 화려한 제관에 덧씌워진 부정적인 문제점들의 허구성을 저자의 해박한 역사적 시각으로 예리하게 분석하고 무후가 불교사에서 해야 할 사명이야말로 바로 그녀가 이 세상에 온 진정한 뜻임을 밝힌 대역작이다.
저자는 세간에 알려진 칙천무후의 딸 살해사건, 왕비찬탈, 태종후궁 사실, 남총(男寵) 등이 모두 일부 사가(史家)들에 의해 날조된 인격적 살인임을 규명하면서 칙천무후야말로 화엄경을 통해 불세존의 존재를 알리고 정법 천년을 반석위에 올려놓은 위대한 인물로서, 인도 아쇼카 왕과 함께 3천여년 불교사에 가장 중요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관음태교에서 부처님 천도까지〉

– 영산불교 사상연구소

잉태시부터 사후까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행복지침서!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으로 천재와 성현을 동시에 길러내는 혁신적인 관음태교법을 최초로 공개!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영원한 해탈계로 가는 타력중심의 새로운 부처님 칭명염불법을 상세히 소개!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천도대의 실상을 통해 돌아가신 부모조상님께 진정한 최고의 효행을 하는 길을 제시!

현대불교 B1
buddhanews.com
2010년 5월 19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제 784 호

장선우 감독

스승을 만나다 행복하고 슬프다

"자기의 방식을 찾으려니 고통스러운거죠"

스크린 가득 부처님법 펼칠 날 언제일까?



우뻬카! 살면서 겪는 어떠한 흥망성쇠에도 흔들리지 말고 평온하길!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고 자유롭게 하는가?, 이런 질문의 답을 구하는 과정이 그의 영화다.

1990년대 영화 '화엄경'은 장선우 감독이 고은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화엄경'은 불교 영화 중 수작이라는 대중적 인지도 외에도 뛰어난 작품성으로 장선우 감독에게 제32회 대종상 감독상과 44회 베를린 영화제 알프레드 바우어상을 안겨줬다.

'화엄경' '경마장 가는 길' 등 1980~1990년대 충무로를 주름 잡았던 장선우 감독을 서귀포 앞바다가 한 눈에 보이는 '물고기 카페'에서 만났다.

장 감독은 아내와 함께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에서 물고기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카페에서 본 그는 푹 눌러쓴 모자에 티셔츠, 청바지 차림이었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검정 고무신이다.

"원래 흰 고무신을 신고 있었는데, 이걸 누가 선물로 주더라고요. 받은 지 얼마 안돼서 실내화로 신고 있습니다. 정말 편하거든요."

장선우 감독은 '우묵배미의 사랑'으로 백상예술대상 신인감독상(1990), '너에게 나를 보낸다'로 청룡영화상 감독상(1994), '화엄경'으로 대종상 감독상(1994), '꽃잎'으로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 최우수작품상(1996 · 1997)을 받는 등 잘나가는 감독이었다. 2002년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이 흥행에 실패했고, 2005년 몽골에서 제작에 나섰던 '천개의 고원'도 여의치 않아 도중에 접어야만 했다.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제주도에 눌러 앉았다.

장 감독은 서울 토박이다.

"처음에는 3개월만 살아보자는 마음이었는데 벌써 5년째 제주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시골마을에 위치한 카페이지만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찾아오는 사람은 많은데 통장에 돈이 쌓이질 않으니(웃음)…."

물고기 카페가 위치한 대평리는 제주에서도 빼어난 풍광을 자랑한다. 특히 마을 서편을 깍아 지른 듯한 암벽 '박수기정'이 절경이다. 대평 앞바다에 병풍처럼 서 있는 박수기정은 탄성을 절로 자아내게 했다. 1년 내내 샘물이 솟아 이 물을 바가지로 마신다는 뜻의 '박수'와 절벽의 의미를 가진 '기정'을 합친 박수기. 그 박수기정과 손에 잡힐 듯 부서지는 서귀포 앞바다가 보이는 물고기 카페에서 이야기가 시작됐다.

그는 불교와의 인연을 운명으로 보고 있었다.

"이미 정해진 것 같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말이에요. 사춘기 때부터 삶의 고민이 시작됐어요. 인생에 대한 의문들이 끊임없이…. 니체, 라즈니쉬, 들뢰즈, 장자, 노자 등의 사상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답을 구해 갔죠. 어느 때는 성경을 보기도 했어요. 그때 한 책을 만났는데 그게 헤르만 헤세의 <싯다르타>에요. 그 책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때 부처님을 만나고 나서 불교에 관심이 생겼어요.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선지식'에 정말 목말라 있었죠. 하지만 여기 와서 스승을 찾았어요. 이제 더 이상 방황은 없을 거예요."

장 감독은 제주도에서 어떤 인연으로 스승을 만났을까?

"2008년쯤 불교인재개발원의 한 분을 알게 돼 초기경전을 접하게 됐어요. 그 당시 부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자들과 어떤 삶을 살았는지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었어요. '아, 부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여기 와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공부도 하게 됐죠.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 행복감…."

장선우 감독은 무언가를 찾아 헤맬 때는 만나지 못했는데, 오히려 가만히 있으니 스승이 저절로 온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장선우 감독이 서울대 재학 시절인 1970년대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1975년에는 서울대 김상진 열사의 할복 사건이 있었고, 그 이듬해 학우들과 1주기 추모집회를 주도하다가 장 감독이 체포되기도 했다. 1980년대 마당극을 시작하고 또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어서 수감생활도 했다. 그 후에 문화운동에 뛰어들었는데, 왜 하필이면 영화를 택했을까.

"삶의 진정한 의미, 행복의 의미, 무엇이 진실인가 그런 고민들의 답을 찾아 헤매는 과정이었어요. 저는 사춘기 때부터 지금까지 늘 의문이 들어요.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고 자유롭게 하는지. 그런 질문의 답을 구하는 과정이 영화에요. 그 중 영화 '화엄경'은 그런 저의 의문을 노골적으로 표현했죠. 영화에서 주인공 선재가 엄마를 찾아가는 구도 과정이, 제가 선지식을 만나길 바라는 간절함이에요."

"사춘기 때 접한 <싯다르타>는 적잖은 충격이었어요. 이제껏 알지 못했던 이웃 · 인류 · 평등 · 이타 등의 개념들을 접하면서 다른 세상을 만난 것 같았어요. 저는 사회의 부조리함을 바로 잡아 모두 평등하길 바랐죠. 제가 무언가를 한번 시작하면 치열하게 하는 편이라 운동도 했고, 덕분에 전과도 많죠.(웃음)"

장선우 감독은 고등학교 때 자퇴 경력도 있다.

"고등학교 때 똑같은 교복을 입고 입시에 매달려 공부하는 친구들이 꼴 보기 싫더라고요. 순간 화가 났죠. 뭐한다고 이런 경쟁하고 있나 싶었어요. 그대로 저는 등록금을 가지고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발길 닿는 데로 걸어 절에 가게 됐어요. 거기가 변산반도에 있는 절인데, 그곳에서 2개월 정도 머물렀죠. 그곳에 있는 동안은 정말 편안했어요. 끓어오르는 번뇌가 가라앉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 2개월간 절에 있었던 힘으로 장선우 감독은 입시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고서 저 때문에 마음 고생한 '어머니 한번 웃게 해 드리자'고 마음먹고 학교로 돌아가서 공부했습니다.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과 절에서 기도한 힘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하니 서울대에 합격하더라고요."

장 감독의 불연(佛緣)은 제주도에서도 계속되고 있었다.

"법화사에 가요. 그곳 주지스님은 계(戒)도 잘 지키고 배울 점이 많은 분이세요. 좋은 분이거든요. 주지스님 방이 대나무로 둘러싸여 있는데 분위기가 좋아요. 가면 연꽃도 보고, 차도 마시고, 또 부처님도 뵙죠."

"예전 어느 인터뷰에서도 말한 적이 있는데, 저는 행복의 이미지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예쁜 여자와 야자수가 있는 바닷가에 사는 것. 다른 하나는 선방 같은 데서 스님이 졸고 있는 것이에요. 선방에서 정진하는 스님의 모습은 불교를 잘 모르는 제게 조는 듯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그 모습이 마냥 행복해보였죠. 여기서는 그 두 개를 다 누릴 수 있어요."

그에게 편안함과 행복감을 선사한 초기경전. 장선우 감독이 그 초기경전을 통해 본 부처님의 모습은 어떤지 물었다.

"슬퍼요."

초기경전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와 닿았을까.

"부처님은 잘못된 견해를 버리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나라는 생각, 나의 것이라고 규정짓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에요. 부처님은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아야 하는지.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나름의 방식을 찾으려고 하니까 고통스러운거죠."

영화 '화엄경'에는 '꽃은 꽃을 잃어야 열매를 맺고, 강은 강을 잃어야 바다에 이를 수 있고, 나는 나를 잃어야 허공이 돼요'라는 시가 나온다. 장선우 감독은 그 시에 대해서도 한마디 덧붙였다.

"부처님은 끝없는 행복 길에 이르는 방법도 설명했어요. 팔정도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 오기 전까지 아무도 제게 팔정도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여기 와서 알게 됐죠. 부처님이 제 스승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마음잡는 일이 참 어렵네요. 부처님을 생각하면 감사해요. 그런 부처님께 답례를 하자는 마음이 늘 있어요.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네요."

한때 충무로에서 치열한 삶을 살던 장선우 감독은 차안(此岸)에서 피안(彼岸)으로 건너듯 남해바다를 지나 제주도 서귀포 언덕에서 그가 꿈꾸던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그가 차안으로 건너와 필름 가득 부처님 법을 펼쳐 보이는 날은 언제일까?

우뻬카! 삶이 평온하길!

글=박선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 불교로 본 장선우의 영화들

중생의 자유 · 구원 성찰하는 구도의 여정










장선우 감독 영화 연대기



1986 '서울 황제' (선우완 공동 연출)
1988 '성공시대'
1990 '우묵배미의 사랑'
1991 '경마장 가는 길'
1993 '화엄경'
1994 '너에게 나를 보낸다'
1996 '꽃잎'
1997 '나쁜 영화'
1999 '거짓말'
2002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장선우 감독은 1986년 데뷔 이후 현재까지 극영화만 10편을 만들었다. 사진은 시계 방향으로 서울 황제, 성공시대, 화엄경, 너에게 나를 보낸다,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거짓말, 꽃잎.

불이 · 공 · 화엄사상 담아 불국토 갈망
'예술가=구도자' 보여주는 대표적 감독

장선우 감독 영화의 주제는 인간구원인데 그것은 종교적 색채를 띤다. 첫 영화 '서울 황제'는 원제가 '서울 예수'였다가 개신교계 반발을 의식한 나머지 엉뚱한 이름으로 개제돼 개봉됐고, 이 영화를 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극장에서 사장된 영화였다. 이 영화에서 예수는 누더기를 걸친 부랑자 모습의 인간으로 그려져 있다. 비록 이 영화는 예수를 소재로 했으나 그 사상은 불교의 불이사상(不二思想)이라고 볼 수 있다. 성(聖) · 속(俗)의 구분을 없애고 그 경계를 모호하게 지워냄으로써 중생을 구원하는 붓다의 모습을 현실 속에서 찾은 것이다. 흙탕 위의 연꽃처럼 현대의 성자는 일상 속에서 초연하게 그려져 있다.

'성공시대'는 물질주의와 경쟁 사회 속에서 남을 억누르고 자신이 성공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비틀린 욕망을 비판적으로 그려낸다. 주인공은 비정하게 남을 짓밟고 성공에 오르지만 이어 자신도 똑같은 방식으로 퇴출당하고 만다는 자본주의 경쟁 사회의 비정함을 묘사한다. 모든 대상은 다 허망하다. '모든 물질적 대상이 허상임을 알면 곧 본질을 깨닫는다'는 <금강경>의 공사상(空思想)을 엿볼 수 있다.

그의 초기 대표작이라 볼 수 있는 '우묵배미의 사랑'은 피착취인이 더 가난한 자를 착취한다는 주제를 멜로드라마로 정감 있게 그린 수작이다. 이 영화는 장선우 특유의 민중 지향적 의식이 잘 드러나 있다. 영화는 민중 스스로의 반성과 자각을 사실주의적으로 그렸다. '평상심이 곧 도'라는 사상이 드러난 작품이다.

'경마장 가는 길'은 지식인의 위선과 모순을 고발한 작품이다. 영화는 인간의 삶이 허상이며 껍데기라고 설득한다. 프랑스 유학 갔다 온 대학교수가 자신의 제자이자 전 연인이었던 여자를 다시 만나는데, 그녀가 자신의 논문을 표절해 교수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줄거리다. 영화는 부도덕이 일상화된 현대인의 내면을 섬세하게 그려냈다. 현상은 항상 다른 것을 모방하고 표절하며 되풀이 될 뿐이다. 고유의 자아는 없다. 이는 모든 현상은 주체가 없다는(諸法無我) 부처의 가르침이 녹아 있다.

'화엄경'은 선재동자의 구도과정을 현대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영화의 주제는 자신을 버림으로써 자신을 완성해간다는 것인데, 제목이 화엄경인 만큼 영화 곳곳에 대승사상이 전개돼 있다. 중생의 삶과 부처의 삶이 같은 것이라는 불이사상과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을 자각하게 하는 육조 혜능의 사상도 엿볼 수 있다.

'너에게 나를 보낸다'는 지식인의 허위를 고발한 작품 계열에 속한다. 영화는 포르노 소설을 쓰는 소설가와 그 애인을 등장시킨다. 나중에 애인은 스타가 되고 소설가는 그녀의 시종이 된다는 결말을 통해 인생유전의 도리를 나타낸다. 영화는 '모든 행위는 영원한 것이 없다' '끝없이 소멸 · 생성된다'는 윤회의 진리를 제시한다.

'꽃잎'은 광주 항쟁 때 어머니를 잃고 유랑하는 미친 소녀의 이야기다. 감독은 이 작품을 통해 광주 항쟁의 후유증은 단지 광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점을 강조한다. 인드라망이라는 말처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 '일중일체 다중일(一中一切, 多中一)'의 교훈을 담고 있다.

'나쁜 영화'는 도시의 빈민, 부랑아, 아웃사이더에 대한 애정을 다시금 표명한다. 가출 청소년들의 본드 환각과 매춘, 절도 등의 비행을 통해 이 사회가 인간의 본성과 자유를 얼마나 억압하는가를 그려냈다.

'거짓말'은 한 유부남이 아내 몰래 여고생을 만나 성적인 일탈을 하면서 새디즘(Sadism)과 매조키즘(Mazochism)의 쾌락 속에서 끝없이 부유한다는 이야기이다. 영화는 평범한 일상 속에 엄청난 일탈의 광풍이 내재해 있다는 중산층 지식인의 허위의식을 고발했다. 반면 방황하는 현대인 내면의 고독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하다. 물질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본능과 야성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정신적 좌절과 방황을 그렸다. 십우도(十牛圖)에 나오는 반본환원(返本還源 · 본래의 맑고 깨끗한 근원으로 돌아감)의 진리를 성찰케 한다. 현대인의 모든 방황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자각하는 곳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은 역시 물질 자본주의 사회의 비정함 속에서 가난한 자들의 원한과 비참을 복수극 형태로 그려낸다. 현실은 냉혹하지만 이상적 세계는 환타지로 나타냈다. 영화에서는 게임, 나비 등의 소재를 사용해 그 경계를 모호하게 왕래한다. 불이사상이 표현된 부분이다.

장선우 감독의 영화는 교훈적이며 계몽적인 석가모니 혹은 조사들의 일대기를 그린 뻔한 종교영화가 아니라, 대단히 차원 높은 대승사상이 반영된 영화이다.

그의 영화에는 중생의 불국토를 구현하는 유마거사의 불이 · 공 · 화엄사상으로 점철돼 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도 그리 쉽게만 읽혀질 수 있는 영화는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대중, 즉 고통 받는 중생의 자유와 구원을 향한 구도의 과정을 영화를 통해 진지하게 성찰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예술가가 곧 구도자라는 점을 잘 보여준 대표적 사례임에는 분명하다.



정재형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
영화평론가

불기 2554년(2010) 경인년 부처님 오신날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 정 현붕해 총무원장 김화엄

재단이사장 경원
명예이사장 붕해
상 임 이 사 혜광
이 사 화엄 도기 일명 경담 자명
감 사 혜천 혜원

원 로 의 장 금봉
원로부의장 명종
원 로 의 원 무찰 청송 수암 송은 염원각 원경
고시위원장 염원각

종 회 의 장 경원
종회사무처장 삼주
종 회 의 원 이경담 조경담, 대각 대성, 덕봉 도정, 도허 만성, 무상 법경, 상원 승원, 일운 자견, 자명 재성, 정일 지공, 지연 지우, 지허 해월, 현암

호 계 원 장 용암
교 육 원 장 법해
포 교 원 장 도안
감 사 원 장 석성
선거관리위원장 해동
총 무 부 장 용운
교 무 부 장 지언
재 무 부 장 보월
포 교 부 장 정지현
홍 보 국 장 김지현
자비나눔실천회장 광명심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www.ilbung.org
총무원 : 서울시 강북구 인수동 440-27 엄지빌딩 3층 ☎ (02)998-8161~ 2 / 전송 (02)998-8384

□ 분한 신고 및 입종공고 □

귀의삼보하옵고
부처님 오신날, 더없이 좋은날을 맞이하여 창종주 일붕존자 큰스님의 높으신 뜻을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하면서 본 종단에서는 제4차 분한신고을 각지역 교구를 통하여 접수하오니 바른 종도로서 애종심을 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종도를 환영하고자 하오니 본 종단에 입종하시여 시대에 걸맞는 신바람나는 종단으로 같이 발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 접 수 처 (각교구 종무원) -

· 서울 총무원 (직할 02-998-8161) · 부산 삼주(연화사, 051-294-2443)
· 대구 고봉(달마선원, 053-986-7134) · 대전 용주(금강사, 042-935-2796)
· 울산 지운(운지암, 052-260-4897) · 인천 용운(은혜사, 032-504-8359)
· 강원동부 보해(약수암,033-682-1933) · 강원서부 동청(동봉사, 033-436-8942)
· 경기남부 광은(우리절, 031-637-3766) · 경기북부 영우(혜인선원, 031-551-2107)
· 경남 승원(보현사, 055-832-6901) · 경북 해동(지장사, 054-672-6564)
· 전남 혜성(도선사, 062-261-0108) · 전북 석성(선각사, 063-244-2419)
· 제주 경운(경운사, 064-762-7816) · 충남 · 북 상원(해천사, 041-863-1259)

※ 본종 종헌 제17장 재정 및 회계, 제118조 2항 종단은 등록사찰의 재산에 대하여 일체 관리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제119조 3항 각 개인사찰의 재정에 대하여 본 종단은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마음' 연주하는 아티스트



레게가 곧 부처님 말씀이자 진리
미륵보살이 되고픈 김반장은 '음악하는 농부'

레게 소울 밴드 '윈디시티'

"우리 생명의 물줄기 강을 잘라서 흐르는 물을 막아 고이게 한다는 것이 과연 내일을 위한 것일까? 홍수가 나지 않는 곳에 대비를 하고 흐르는 물을 막아 고이게 한다는 것이 과연 생명을 살리는 것일까♬ 우리는 돈을 먹고 살 수는 없다네 잊지 말게나,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4대강 생명살림 수륙대재가 열린 4월 17일 서울 조계사. 24시간 염불 · 목탁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계사 경내에 레게 음악이 울려 퍼졌다. 괘불 앞에서 빨강 노랑 초록 파랑 알록달록한 복장을 입은 젊은 밴드가 신나게 연주하고 노래했다. 레게 소울 밴드 '윈디시티'다.

이날 '윈디시티'는 1만 여 사부대중에게 낯선 즐거움을 선사했다. 레게 선율에 4대강 사업 반대 메시지와 자연의 섭리를 노래했다. 그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매일 <법구경> 한 구절만 읽어도 이런 엄청난 일은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는 날까지 위하여~"라며 청중의 박수를 이끌기도 했다.

걸죽한 막걸리 같은 목소리의 주인공 김반장(유철상 · 34)은 우리나라 레게음악 1세대를 이끄는 실력파 레게그룹 '윈디시티'의 리더로 보컬이자 드럼연주자이다. 그는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한국대중음악상 노래부문 최우수상을 수상(2006년)한 레게음악 유망주다.

윈디시티는 4대강 살리기 영상프로젝트 '저수지의 개들'의 첫 번째 뮤직비디오 '저수지의 개들-Take 1 남한강'의 배경곡 '위하여'를 통해 이미 네티즌 사이에서는 유명하다. 이 뮤직비디오는 3월 13일 여주보 공사현장을 지키고 있는 여강선원(선원장 수경) 개원 날 촬영됐다. 뮤직비디오는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U-tube)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됐다.

젊은 유망주 밴드들이 용감하게(?) 돈 안 되는 공연과 음악을 하는 이유가 뭘까?

김반장은 "4대강 사업은 끔찍한 일이다. 마음이 아프다. 의식적이고 정치적인 음악인이라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의 일부인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김반장은 "우리의 진정한 재산은 물, 공기, 산, 갯벌이다. 한걸음 뒤에서 보면 지금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얼마나 미천한 것인지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돈을 수백 만 장 찍는다고 우리가 행복하겠어요? 지금 우리 사회는 사람이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삶인지는 돌아봐야 합니다."

김반장은 자연의 소중함도 절실히 깨닫고 있었다.

"자연을 한번 거스르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흐름이라는 자연의 섭리가 거대 담론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개인에게 섭리를 적용해 보면 그것이 먼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윈디시티를 결성할 때에도 의식 있는 그룹이 되고자 했던 이들은 그동안 핵문제, 전쟁, 석유, 환경 등의 사회문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은 노래를 꾸준히 해왔다.

"제가 하는 소울음악은 영혼을 울리는 음악이에요. '음악이 밥벌이인가, 음악으로부터 받는 매력이 무엇인가?'라는 자문에 겉모습이나 기교가 아닌 진실을 담은 음악, 진정한 음악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반장은 3년 전 자메이카에서 레게음악을 접하고 진정한 음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다. 자메이카 뮤지션들은 음악을 소유하지 않고 지역 사람들과 나눴다. 삶의 노래를 부르고, 보이지 않는 고통을 노래했다. 그들의 생활은 물질적 부유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삶이 풍요로웠다.

김반장은 "레게가 곧 부처님 말씀이고 부처님 말씀은 곧 레게다. 또 진리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말하는 레게는 선어록"이라고 정의 내렸다. 거기에 따르는 즐거움은 잿밥이다.

그는 "왜 태어나서, 왜 사는가?"라는 화두를 안고 살아왔다. 삶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해 준 것이 바로 경전이었다. 주변에 '보살'같은 친구들이 많아 불교를 접하게 됐다는 김반장. 김반장의 불교는 머리 속 지식이 아니라 가슴속에 담겨 있었다. 김반장은 <법구경>과 <잡보장경>, 법정 스님의 책 등을 누구나 평생토록 읽어야 하는 필독서로 꼽았다.

김반장은 한때 사회현상과 주변 상황에 화도 내고 답답해 할 때가 있었다. "왜 이래야 할까? 왜 속고 속여야 할까? 나를 찾는 여정은 왜 없는가. 미디어는 왜 행복을 방해하는가, 왜 분에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일까?"라는 생각에 분노도 치밀었다.

그러던 때 만난 <법구경>은 그에게 한줄기 광명과도 같았다. '불을 불로 끌 수 있는가, 물을 물로써 씻을 수 있는가'라는 구절이었다. 그 구절에 김반장의 번뇌는 눈 녹듯이 사라졌다.

"말씀을 기념하기에는 지쳤어요. 부처님도 행을 강조하고 있듯 아는 것이 지식으로 머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의 주인이 삶의 주인입니다. 그 전에는 마음의 주인이 돼야 하기에 경전 문구를 실천으로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4대강 반대운동 등 그의 공연스케줄과 음악만 봐도 그가 실천에 옮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반장은 음악가로 개인적인 차원을 넘은 메시지 전달이 최종 목표다. 자신들의 음악을 듣고 삶에 매몰돼 잊고 지내던 것들을 찾길 바란다.

"음악은 자기완성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음악을 통해 자신은 늘 깨어있는 '나' 그리고 참된 인간으로 완성될 때까지 '부처도 버려야 한다. 죽여야 한다'는 말처럼 온전한 내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김반장은 "부처를 비롯한 성인은 모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티스트이다. 특히 부처님 말씀은 하나의 훌륭한 작품이다"라고 말했다.

김반장은 늘 자연의 흐름에 귀 기울이는 사람, 미륵보살이 되고 싶단다. 자연의 일부이면서도 늘 함께하는 컨트리맨. 김반장은 '음악하는 농부'였다. 올 여름에는 실상사로 내려가서 농사를 지을 계획이다. 집 짓는 일을 배우고 텃밭에 삽질을 하며 자연을 몸에 담을 계획이다. 그는 자연과 가까이 할 때, 흙을 밟으면서 자연같이 살아야 가능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한 삶이 진정한 아티스트다.

글=이상언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윈디시티와 김반장



김반장(사진)은 2003년부터 그룹 아소토유니온에서 'Think About' chu'로 대중 음악계를 휩쓸었다. '단순한 음악 엔터테이너가 아닌 생각하고 활동하는 예술가집단이 되겠다'며 2005년 윈디시티를 새로 결성했다. 5월 27일에는 상상마당 라이브 홀에서 가수 이승환과 함께 '외규장각 도서 및 약탈문화재 반환을 위한 라이브 에이드 콘서트'에 참석한다. 콘서트 수익금 전부는 해외반출 문화재 반환을 위한 소송 · 활동기금으로 쓰인다.

NH NongHyup
농업인의 꿈을 소중히 키우는 서서울농협
농촌에 희망을 고객에게 행복을
미래를 향한 더 큰 생각으로
NH서서울농협이 고객님과 함께 합니다
서서울농업협동조합
본 점 | 주소 : 서울 은평구 응암동 397-95 전화 : 02)302-4321~3
연 수 원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북면 적목리 544-4 전화 : 031)582-9912
유통분사 하나로마트 | 서강본점 02)3144-5253 응암점 02)302-1125 사직점 02) 725-4021 신사점 02)388-8925
망원지점 | 338-6711 신사지점 | 388-8921 홍은지점 | 394-0133 상암지점 | 375-2762 연서지점 | 383-3045 갈현지점 | 383-4471 수색지점 | 376-0315 홍제지점 | 732-2892 홍대역지점 | 337-6896 광흥창지점 | 324-2031 연희지점 | 326-3961 사직지점 | 725-4571



여주 여강선원에서 활동 중인 한 시민이 공사가 진행 중인 강으로 들어가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여주 여강선원장 수경 스님은 4대강 공사 현장 주변에서 오체투지로 생명 평화를 기도하고 있다.


공주 금강선원을 찾은 공주대 학생이 4대강 공사중단을 촉구하는 소원지를 묶고 있다.

강이 사라진다… 인간과 자연 공존케 하라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는 눈에 불을 켜고 3년 안에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로 다가올 장마철 전까지 4대강에 16개의 보 건설을 마무리하고 올해 말까지 60%의 공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보 건설이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포크레인이 할퀴고 간 자리에는 뭇 생명이 죽어가고 강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자연의 절규에 종교·환경·사회단체의 반대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오늘도 4대 강변에서는 삽질이 계속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

정부가 말하는 '4대강 사업'은 오염된 하천을 정비하고 홍수재해 예방 차원에서 22조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정작 피해를 입는 곳은 지류인데, 본류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홍수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4대강 사업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댐 건설, 하도 정비, 농업용 저수지 증고 등은 모두 강 중하류와 도시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가뭄이 발생한 지역과는 무관하다.

또 16개 보는 지점에 따라 높이가 4~13m로 수문이 달려있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는 높이가 10m 이상으로 댐에 가깝다. 대한하천학회는 보 설치에 따른 6가지 자연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4대강은 사라지고 16개의 넓은 저수지가 만들어 진다 △수위가 상승돼 주변 지하수위가 높아진다 △흐르는 강물을 막아 수질이 나빠진다 △유속이 느려져서 퇴적물이 쌓인다 △수심이 깊어져 부영양화(정체된 수역에 영양물이 많아져 조류가 많아져 물이 흐려지고 용존산소를 감소시키는 현상)가 발생한다 △수표면적이 늘어나 안개가 빈번해지면 일조량이 감소해 주민들의 건강과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하천학회는 4대강 사업의 정부안이 "건강한 사람에게 병부터 먼저 주고(보 설치)나중에 약을 줘서(수질 원상 복귀) 그 후에 보약(수질개선사업)을 먹이면 더 건강해질 것이라는 주장과 비슷하다"며 "보를 막는 일보다 수질개선사업이 우선 시행 돼야할 것"말한다.

사회, 환경적 문제와 함께 정부와 시민간의 소통 부재와 일방적 파행도 문제다.

4대강 사업은 66.8%(2010년 3월 경향신문과 KSOI 설문조사 결과) 국민은 '지금이라도 중단(36.3%)' 과 '규모 축소 추진(30.5%)'이라고 답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정부는 '국민이 잘 몰라서' '정부가 홍보를 잘못해서'라는 식으로 홍보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 정부는 2009년 9월부터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으로 현재 4대강 각 강에서는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이다. 4대강 사업은 대형토목공사로 설계만 2~3년, 환경영향평가는 최소 1년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과 시공을 이명박 정부 임기 전까지 끝낼 것을 목표로 두고 있어 더 큰 논란이 우려된다.

4대강 정비에 예산이 집중 투입됨에 따라 복지 예산 등이 삭감 등도 국민으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4대강 사업에 최소 22조 이상의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교육 예산 1조 4000억,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541억, 한시적 생태구호비 4181억, 저소득층 의료지원비 880억, 저소득층 긴급복지비 1000억, 장애아동무상교육 지원비 50억, 장애인차량지원비 116억 전액, 사회적 일자리 창출 340억이 삭감됐다.

#종교계의 움직임 한목소리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주경), 불교환경연대 등이 주축을 이루고 각 교구본사에서 지역적 움직임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여주 신륵사와 공주 영은사 내에는 4대강 반대운동의 구심점인 여강선원(선원장 수경, 화계사 주지), 금강선원(선원장 기돈)이 지역 시민·종교·사회단체와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낙동강에는 천성산 도룡뇽 스님으로 잘 알려진 지율 스님이 낙동강 공사현장을 지키고 있다.

여강선원에서는 수경 스님이 시민들과 함께 오체투지로 생명 살리기 기도를 진행하고 있다. 여강선원에는 활동가들은 경찰, 공사인부들 간 몸싸움을 벌이면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등을 지키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율 스님은 낙동강에서 낙동강 순례 안내와 4대강 실태를 카페 (http://cafe.daum.net/chorok9)에 속속 올려 현장의 모습을 공개하고 있다.

금강선원은 공주 마곡사와 대전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등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선원에서는 방문객에게 4대강 사업의 실체를 알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또 공주대 내 4대강 공사 전후 사진을 전시해 청년층의 참여율을 고조시키고, 부처님오신날 이후부터는 마곡사 말사 신도들이 매일 공사현장을 방문한다. 5월 29일 금강유역 4대강 반대 운동 역량 결집대회를 여는 등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업 저지 운동을 본격화 할 전망이다.

#6·2 지방선거와 4대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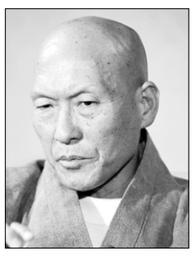
영산강 지역을 담당하는 광주불교사암연합회와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5월 14일 연등축제에서 '4대강을 그대로 두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4대강을 그대로 두라"며 "최소한의 개발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명평화의 강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종교계의 지속적인 움직임은 6·2 지방선거와도 밀접한 관계가 깊다. 10일 열렸던 '4대강 반대' 가톨릭 대규모 시국미사에서는 "투표를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해 분명히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앞서 불교계에서도 4월 17일 수륙대재에서는 불자 행동 결의문을 통해 6·2지방선거에서 4대강 보존과 생명살림에 앞장서는 후보들을 적극 지지할 것을 결의해 정부와 정치계의 행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법정 스님 4대강 사업 가상인터뷰

구불 구불 자연스럽게 흘러야 합니다



지난 3월 입적한 법정 스님은 늘 '자연과 인간'을 말했다. 만약 스님이 살아계셨다면 올해 법회에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스님의 저서 <산에는 꽃이 피네> <일기일회> 등에서 스님의 말씀을 인용해 가상으로 구성해봤다.

Q: 4대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귀찮다고 해서 농약으로, 강한 살충제로 죽여 보세요. 그 생물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이 연쇄반응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진짜 없어서는 안 될 이로운 것까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날 생태계의 이변과 환경문제, 또 지구 온난화 문제, 이것이 다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과 조화를 모르고 어떤 부분적인 것에 갇혀서 그것만 지나치게 소비하고 낭비하고 혹사시키다 보니까 지구 자체가 인간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 지구적인 재앙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반 자연적인 그릇된 습관부터 고쳐야합니다. 살아 있는 생명을 무엇보다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자신의 목숨이든, 남의 목숨이든, 살아있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4대강 사업은 이 땅의 무수한 생명체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끔찍한 재앙입니다. 대지는 한두 사람의 생각만으로 이 땅을 만신창이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국토는 오랜 역사 속에서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우리의 영혼이고 살이고 뼈입니다. 대운하를 만들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 신성한 대지에 대한 무례함이고 모독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것은 이리 구불 저리 구불, 굽이 굽이마다 자연스럽게 흘러야 합니다. 강을 직선으로 만들고, 깊은 웅덩이를 파서 물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채워 넣고, 강변에 콘크리트 제방을 쌓아 놓으면 그것은 결코 살아 있는 강이 아닙니다. 한반도 대운하는 멀쩡한 우리 국토를 허물고 파헤치고 토막 내겠다는 지극히 반자연적인 무모한 계획입니다. 일찍이 없었던 이런 위험한 국책사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면 커다란 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Q: 4대강 문제에 대해 여전히 무관심인 사람이 많습니다. 사부대중은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합니까?

수도자가 세상의 흐름에 대해 너무 어두워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세상 흐름에 편승하는 것도 수도자답지 않습니다. 개인의 능력이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정보에 대한 지식들을 갖추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사회를 알고, 그 사회를 바르게 이끌테니까요.

우리가 마음의 수양을 하고 개인의 수행을 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도달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만 멈추라는 것은 아닙니다.

불기 2554년(2010) 경인년 부처님 오신날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인 천 교 구

귀의 삼보하옵고 본 종단 인천지역 종도들은 부처님 날을 맞이하여 온누리에 부처님의 법음이 가득하시길 합장 발원드립니다.

종무원장 용 운

호 불 사 경 원 (연수구 옥련동)
동 함 사 연 화 (부평구 십정동)
묘 현 사 지 현 (남동구 간석 3동)
일 심 사 지 명 (남구 용현 1동)
일 조 사 혜 수 (김포시 감정동)
법보정사 법 려 (남동구 구월 4동)
청 룡 사 수 월 (남구 숭의 4동)
수현정사 수 현 (부평구 십정동)
백 두 암 백 두 (연수구 청학동)
수 인 암 연 화 (남구 숭의동)
은 송 암 태 붕 (남동구 구월 3동)
해 음 사 월 해 (남구 학익동)
약 사 암 서 연 (중구 송월동)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 인천교구 종무원 : 은 혜 사 (인천시 부평구 청천 1동 125-5) 전화 (032)504- 8359 / 전송 (032)502-8459



재즈는 늘 나를 궁금하게 만들어요

재즈는 연주자들이 서로의 눈짓과 몸짓을 통해 다양한 멜로디를 표현해 낸다. 서로의 감성들을 섞어내 악기로 표현하는 이 음악은 마치 인드라망과 같다.

웅산은 2010년 1월, 60년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일본 재즈 전문잡지인 <스윙저널>에서 한국인 최초로 '골든디스크' 상을 수상했다. 15년 넘게 재즈보컬리스트로 활동해온 그녀가 명실공이 한국의 '재즈 디바'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계기였다. 최근까지도 일본에서 라이브투어 공연을 진행했던 그녀가 현재 한국 팬들을 위해 한국에 머물고 있다. 그녀를 5월 10일 강남의 한 플라워 스튜디오에서 만났다.

카리스마 넘치던 무대의 모습만 보다 실제로 만나니, 생각보다 많이 여성스러운 것 같다. 목소리도 많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조용히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는 공연을 많이 하고 목을 많이 쓰다보니깐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편이예요. 노래할 때처럼 이야기를 하면 에너지소비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평소에는 이야기를 잘하지 않아요. 목소리도 최대한 작게 내려고 노력하고요.

음악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짙은 눈 화장도 이슈다. 특별히 짙은 메이크업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

–사실 저는 너무 착한 눈매를 가졌어요. 고향이 문경인데, 정말 영락없는 시골처녀같이 생겼거든요. 음악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그 느낌에 맞고, 깊은 소리를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 화장을 일부러 짙게 하는 편이예요. 무대에서는 강한 '웅산'의 이미지를 표현해야 하니까요.

'웅산'이라는 이름이 출가당시의 법명이었다는 사실은 누구다 다 아는 사실이다. 어찌 보면 '웅산'이라는 이름이 다소 무겁게도 느껴지고, 재즈라는 음악과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특별히 '웅산'이라는 이름을 선택한 이유라도 있나.

–사실은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법명을 이름으로 쓸 생각은 없었어요. 또 '웅산'이라는 이름이 센 이미지를 연상시키고 법명이다 보니, 처음에는 사람들이 '재, 절에서 왔대'라며 놀리기도 했죠. 하지만 제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나선 사람들이 '웅산'이란 이름이랑 제가 정말 잘 어울린다고 말해요. 사실은 그 이름이랑 어울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요.

사람들이 웅산이라는 이름을 두고 놀렸다고 하는데, 그럼 출가했었다는 과거를 숨기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나.

–아니요 전혀요. 열 일곱 살에 많은 사람을 위해 한 평생 기도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출가를 결심했었죠. 비록 계를 받고 정식 스님이 됐던 것은 아니지만, 그 시간은 지금의 재즈가수 웅산이 있게 된 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매일같이 염불을 하고, 독경을 외우고, 참선을 하면서 지금의 건강한 목소리와 좋은 인성, 좋은 생각을 얻게 됐죠. 하지만 가끔 기사에서 저의 음악적인 면보다 마치 무슨 사연이 있어서 출가를 했었던 것처럼 기사에 소개될 때는 조금 속상하기도 해요. 이제는 순수하게 뮤지션 '웅산'으로 평가받고 싶거든요.

15년 넘게 음악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이렇게 계속 음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따로 있나.

–저한테는 이 재즈라는 음악이 늘 숙제 같은 존재예요. 항상 저를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음악이죠. 평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주며 살겠다고 출가를 결심했던 것처럼, 이제는 재즈라는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주고 싶어요. 재즈는 정말 저의 또 다른 종교이며, 재즈를 한다는 것은 마치 수행을 위해 정진하는 것과 같아요.

불교와 재즈가 가장 닮은 점은 무엇인가.

–바로 자유로움을 원한다는 사실이죠. 불교에서 해탈이 자유로움을 주는 것 처럼요. 재즈를 한다는 것은 큰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 것과 같아요. 재즈는 절대 같은 음악이 나올 수가 없는 음악이죠. 재즈는 '명연주는 있다. 하지만 명곡은 없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 음악이에요. 만약 저에게 똑같은 음악과 똑같은 노래를 다시 하라면 절대 못 할거예요.

어쩌면 계속 변화해야 하는 재즈의 특성 때문에 앨범을 작업할 때는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변화에 대한 부담감은 없나.

–어렸을 때에는 노래를 잘하고, 멋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방법이 잘못된 방법임을 알았죠. 음악을 한지 15년 정도 되다 보니깐 이제는 버리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잘 보이려고 하는 음악이 아닌, 진심을 담은 음악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아마 3집 앨범 'YESTERDAY' 때부터 버리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상도 받고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더라구요.

이번 5집 앨범 'Close Your Eyes'는 전의 앨범보다 전통재즈음악을 많이 보여준다. 음악을 작업할 때 영감은 어떻게 얻나.

–굉장히 많은 곳에서 영감을 얻는 편이예요. 저는 소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자연의 소리에 관심을 많이 두죠. 나무가 자라는 숲의 소리, 바람소리, 사람의 소리 등 다양한 소리를 궁금해 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영감을 얻죠. 제가 만든 멜로디들은 격하지가 않아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제 음악의 특징이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던지, 어떤 소리를 내던지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본서 한인 최초 골든디스크 수상

올 겨울 병원음악회 준비 중

앞으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따로 계획한 것이 있나.

–어머니가 암에 걸리셔서 한동안 건강이 좋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때 제가 재즈가수 '웅산'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병원에 계신 의사, 간호사분들 중에 제 팬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를 정말 잘 보살펴 주셨거든요. 제가 가진 것은 이 목소리뿐이잖아요. 이제는 제 목소리로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어서 쾌유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래서 병원음악회를 준비 중이에요. 일본과 한국을 오가면서 활동하느라 당장은 힘들겠지만, 올 11~12월쯤에는 꼭 공연을 하려고 해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서 특별히 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있나.

–법정 스님의 글 중에서 '친절이 가장 위대한 종교'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조금 더 배려하고, 사랑하고, 친절하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한결 더 아름다워질 거라 생각해요. 저는 만나지 못한 인연들보다 당장 현재의 제 옆에는 인연들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자주 하려구요. 이번 5집 앨범 'Close Your Eyes'에 '비발디송'이란 곡이 있는데, '아름다운 여름날처럼 우리의 인연이 아름답게 피어 날거다'라는 뜻을 가진 곡이에요. 주위 분들과 이 곡을 들으며 함께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글=이은정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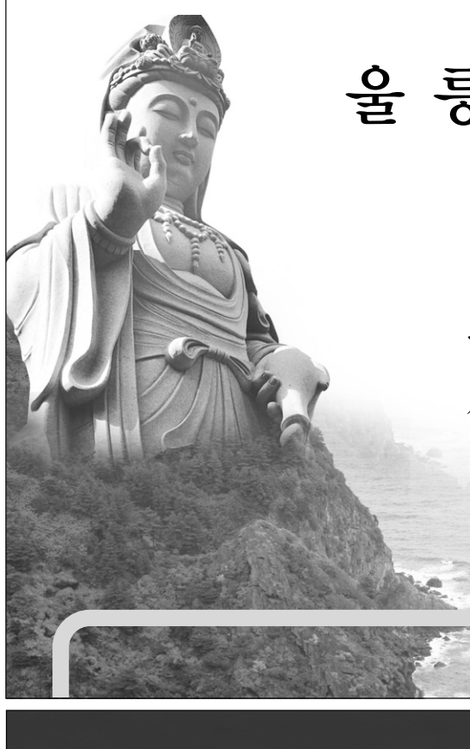
대한불교 천태종 부산 삼광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 131번지
TEL.(051)808-7111~5 FAX.(051)803-1332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amkwangsa.or.kr

2554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재)대한불교조계종
안 국 선 원
선원장 수 불
사부대중일동


■ 부산 :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35-14번지 (지하철 1호선 두실역 8번 출구)
TEL 051)583-0993 · 0994 / FAX 051)583-0999
■ 서울 :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0-3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TEL 02)732-0772. (744)0772 / FAX 02)744-0779
www.ahnkookzen.org

불기 2554년(2010) 경인년 부처님 오신날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대한불교천태종
동해 관음성지
울릉 해 도 사
주 지 정비룡
남양 성 인 사 신도회장 도영국 外
태하 삼 도 사 신도회장 김도근 外
신 도 일 동


■ 경북 울릉읍 도동 584-6 TEL 054)791-2471

불기 2554년(2010) 경인년 부처님 오신날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출가체험자 모집
■ 대 상 : · 15일 수행관 생활이 가능하신 분
· 수행함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 50세 이하의 남자
■ 회주우학스님의 법문 및 강의 · 교육비, 숙식비 전액 무료제공
■ 최첨단 멀티미디어 시스템 및 편의시설을 갖춘 수행관
■ 참선, 기도, 교리습의 = 수행자의 모든 것!
■ 상시 지원 가능! 언제든지 상담가능!
■ 문 의 : 010-2488-8228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불기 2554년(2010) 경인년 부처님 오신날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禪本寺
하시는 모든 일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빛과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꽃이 있듯이 실천이 따르는 사람의 말은
그 메아리가 조용히 그리고 멀리 울려퍼진다.
대한불교 조계종 직영사찰 선본사 (갓바위)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587
TEL 053)851-1868~9

대한불교조계종
운 문 사
운문 승가대학
운문사 보현율원
회 주 명 성
주 지 진 성
율원장 흥 륜
대중일동
주소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
전화 054)370-7100 / 팩스 054)371-0359
www.unmunsa.or.kr
불기 2554년(2010) 경인년 부처님 오신날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佛紀 2554年 庚寅年 Buddha's birthday |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지나친 집착과 어둠의 길을 버리고
빛의 길을 가서 홀로 기쁨을 찾으라.
- 법구경

기도성취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천 용 사

◆용연법회 : 매주 수요일 오후7시
◆거사림회 : 매월 두번째 일요일(신행기도), 네 번째 수요일(용연법회)
◆신행기도 : 매월 두번째 일요일 (사찰순례 및 기도법회)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240번지
E-mail:yongjuya2001@hanmai.net

대한불교 조계종
무등산 원효사

주지 현지

신도회일동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846
TEL : 062)266-0326

대한불교 조계종
광덕사 약천사
광주포교당 성거사

회주 포산 혜인
주지 범전 혜공
신도회장 응관, 대원성
화엄회장 구연지
지장회장 청정지
육법공양회 일동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남구 서2동 143-2
TEL : 062)676-1080

대한불교 조계종
대 광 사

[부설]
해뜨는다문화가족복지센터

주지 정선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535번지
TEL 062)222-4613
다음카페 http://cafe.daum.net/rs211

대한불교 조계종 18교구
완도 신흥사

주지 법일

완도행복한생협

신흥사에서 운영하는 '완도행복한생협'은
김, 미역, 다시마, 메생이 등
청정해역수산물을 판매합니다.

신흥사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성내리 168번지
전화 061)554-2634
신흥사 : www.sinheungsa.net
완도행복한생협 : www.wondocoop.com

대한불교 조계종 관음제일기도도량
무등산 규봉암

주지 정인

사부대중 일동

환경파괴
예산낭비
4대강개발
반대한다

문빈정사 사부대중

이 심 조 형

봉축장엄물, 조형물,
전통등 제작

대표 이기환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282-14
TEL : 062)521-6994
H·P : 010-7248-0171

현수막 제작 · 인쇄물 기획제작
부다기획
도서출판
수미등

현수막, 도서출판, 사보, 법요집
신문, 달력, 포스터, 카다로그
리플렛, 초대장, 봉투, 상장
상패, 수첩, 수료증, 명함, 스티커

광주시 동구 산수동 570-1
TEL 062)225-8825
FAX 062)225-8826

대한불교조계종
종남산 송광사

주지 도영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69번지
TEL 063)243-8091
http://www.songkwangsa.org

사회복지 법인 송광정심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01번지
TEL 063)243-1212

익산시 불교사암연합회

회 장 우성
부회장 덕림
부회장 도진
총 무 정산
재 무 원공

사부대중 일동

전북 익산시 여산면 호산리 65번지
TEL : 063)836-8047, 836-5984

대한불교조계종
월명산 관 음 사

주지 재곤

신도 가족법회 회원 일동

■ 전북 군산시 나운동 755-1번지
TEL 063)471-0198

대한불교조계종
전북포교사단

단 장 김진수
사무국장 이두연

전북포교사 일동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56-5 전북불교회관내
TEL 063)252-4940

대한불교조계종
익산 관 음 사

주지 덕림
신도일동

이리 불교대학

학 장 덕림 부학장 김진수

■ 전북 익산시 갈산동 31-9
TEL 063)854-1578, 842-6652

대한불교조계종
천호산 백 운 사

주지 우성

신도일동

■ 전북 익산시 여산면 호산리 65번지
TEL 063)836-8047, 836-5984
홈페이지 : http://www.baekwoonsa.com/

정 안 사

주지 정안

신도일동

■ 전북 군산시 회현면 고사리 310번지
TEL 063)466-6055

신통제일 나한기도도량
성 흥 사

주지 송월

신도일동

■ 전북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26-1번지
TEL 063)453-0050
http://www.sungheungsa.kr/

참 당 암

주지 대선

신도일동

■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605번지
TEL 063)563-3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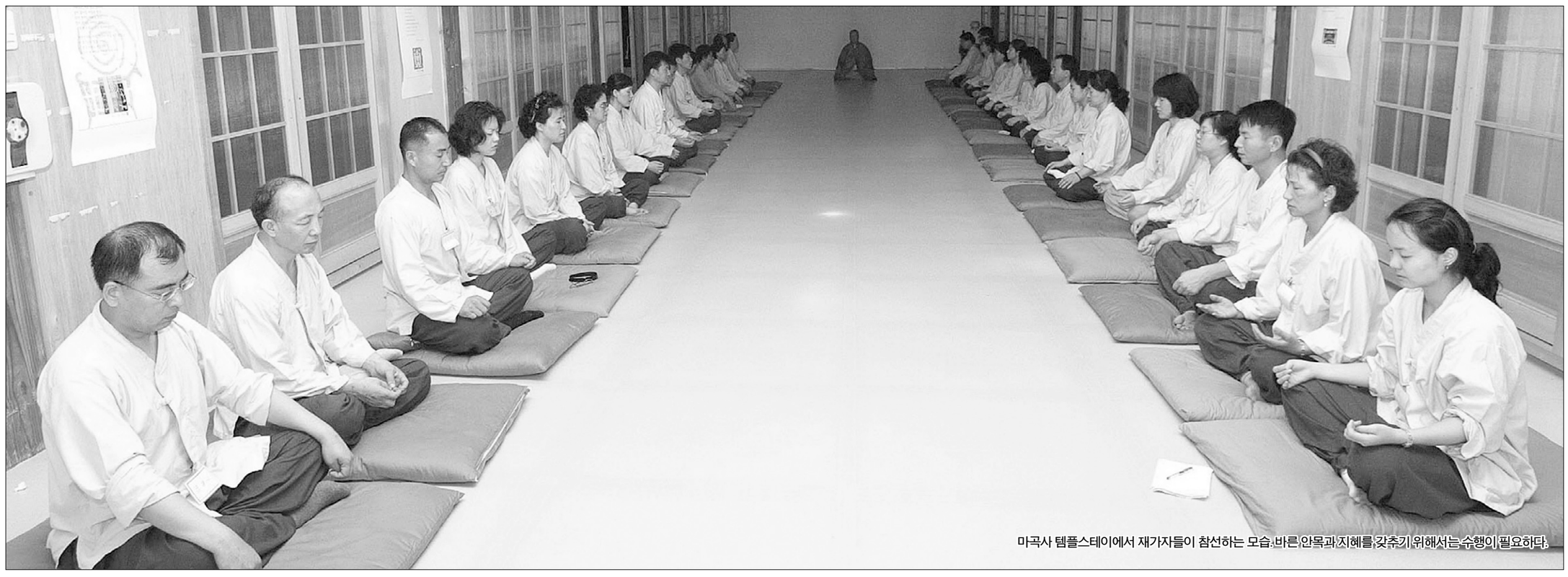
익산불교신도연합회

회 장 박중근
명예회장 이의식
고 문 김동확, 김진수

부회장단 및 실무국장 신도임원 일동

● 열가지 선행으로 부처의 삶 살기

10선행은 부처 이루는 생활윤리



마곡사 템플스테이에서 재가자들이 참선하는 모습. 바른 안목과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는 수행이 필요하다.

십선행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착하게 살라"는 말은 누구나 어려서부터 숱하게 들었던 말이다. 한 살 두 살 나이가 먹을수록 착하기보다는 세상을 요령 있게 사는 기술을 습득하며 살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고통들. 남북 분단의 비극과 4대강을 통한 환경 파괴, 빈부격차, 경제공황 등이 착하게 살지 못한 공업(共業)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가.

불교에서 선과 악을 나누는 경계는 단순 · 명확하다. 십선(十善)과 십악(十惡)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즉 십선에 부합된 행위가 선이며 이에 반하는 행위가 악이다.

십선은 몸[身]과 관련한 3종, 말[口]과 관련한 4종 · 마음의 동기[意]와 관련한 3종의 업을 합한 것이다. 십악은 살생(殺生) · 투도(偸盜) · 사음(邪淫) · 망어(妄語) · 양설(兩舌) · 악구(惡口) · 기어(綺語) · 탐욕(貪慾) · 진에(瞋?) · 우치(愚癡)의 열 가지로 이들을 여의는 것이 십선이다. 십선은 십선도(十善道)라고도 하며, 십선도는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게 하는 계(戒)이기 때문에 십선계(十善戒; 十善法戒, 十善性戒, 十根本戒)라고도 불린다.

10선은 초기경전부터 대승경전에 이르기까지 설해졌다. 초기불교에서 10선은 업에 근거한 선으로 설명되며 불교적 시각으로 본 세간의 윤리였다. 대승불교에서는 계율로서 10선을 중시했다. <숫타니파타>의 '설산아차경', <범망경> 소계(小戒) 등 여러 곳에서 10선을 직 · 간접적으로 설했다. 불교뿐만 아니라 인도의 <마누법전> 등에서도 십선에 상당하는 형태가 발견되기도 한다. 대승경전에서는 <지장십륜경(地藏十輪經)> <수십선계경(受十善戒經)> <화엄경> '십지품(十地品)' 등에서 10선을 설했다.

<화엄경> '십지품'에서 "두 번째 단계의 보살(보살지위의 제2지 보살)은 10가지 선한 업의 도를 수호해 가진다"고 설해져 있다.

10가지 선한 업의 도란 "보살은 마음에 ①살생의 뜻[不殺生] ②도적질할 뜻[不偸盜] ③사음할 뜻[不邪淫] ④망령된 말을 할 뜻[不妄語] ⑤두 가지 말을 할 뜻[不兩舌] ⑥나쁜 말을 할 뜻[不惡口] ⑦꾸밈의 말을 할 뜻[不綺語] ⑧탐욕의 뜻[不貪欲] ⑨성냄의 뜻[不瞋恚] ⑩삿된 소견이 없다[不邪見]"는 것을 뜻한다.

개신교 <성경>의 출애굽기에는 '십계명'이 있다. 십선과 십계명은 윤리적인 부분에서 악을 지양하고 선을 추구하는 면은 같다. 하지만 불교의 계율은 본질적으로 합리적인 교훈으로 '자기의 힘'에 기초한 것으로 자율적 · 자기 의존적 · 이타적(利他的)이나, 개신교의 십계명은 신의 권위에 의한 타율적 · 일방적 · 자리적인 것이 다르다.

십선이라도 실천하는 방법의 차이에 따라 개인적 성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 삼취정계(三聚淨戒)가 대두됐다. 삼취정계는 보살이 마땅히 행해야 할 윤리규범을 섭율의계 · 섭선법계 · 섭요익유정계로 분류한 것이다.

섭율의계는 모든 악을 완전히 끊는 것으로 '하지 말라'라는 의미의 계이다. 섭선법계는 모든 선을 닦는다는 의미이다. 보살이 계를 받은 다음 신구의 삼업을 통해 일체의 선을 쌓아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섭요익유정계는 선을 쌓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오로지 중생에게 이익을 베푸는 것이다. 쉽게 말해 자비행을 뜻한다.

십선은 불교적 윤리규범으로 수동적 금지조항이 아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상생 · 화합의 전제이다. 또, 일체 중생이 각자 부처라는 확신은 십선을 바탕으로 한 바른 생활을 통해야만 올곧은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산 대사는 <선가귀감>에서 이같이 말했다.

"음란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는 것 같고, 살생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제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다. 도둑질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새는 그릇이 가득 차기를 바라는 것 같고, 거짓말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똥으로 향을 만들려는 것과 같다. 이런 것들은 비록 많은 지혜가 있더라도 다 악마의 길을 이룰 뿐이다."

나와 우리의 공업의 청정을 위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착하게 살자'.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생명의 소중함 바로 알아야
생명보호와 자비 · 용서 · 평등 실천하는 불살생 · 불진애

남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 행위를 내가 당했다면 나 또한 아프기 때문이다. 이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보살이다.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은 것은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 이것이 있다(此有故彼有 此起故彼起 此無故彼無 此滅故彼滅)"는 '연기법'이다. 모든 존재가 상의상관하며 연관된 까닭에 어느 목숨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불교환경연대 수경 스님은 최근 4대강과 관련한 글에서 "부처님이 베푸신 팔만사천 가르침의 실천은 '불살생', 이 한마디에서 출발하고 이 한마디로 귀결된다. 재가 불자의 5계, 비구 250계의 으뜸이 불살생이다"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부처님은 <범망경>에서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우리의 부모다. 만약 우리가 그들을 죽인다면 우리의 부모를 죽이는 것이고, 우리 전생의 육신을 죽이는 일이다. 모든 땅과 물은 우리 전생의 육신이고, 모든 불과 바람은 우리의 본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오라지 생명 해방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어떤 이가 동물을 죽이는 걸 본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그 동물을 공포와 위험으로부터 구하여 보호해야 한다"라고 설했다.

소극적인 불살생은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을 뜻하지만, 적

☞B9면으로 계속

불기 2554년(2010) 경인년 부처님 오신날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사) 부산불교지도자포럼

고 문 김재운 김재진 조효식 최칠관 설동근 박민식
회 장 박수관
수석부회장 이윤희
부 회 장 권청길 김수현 박순곤 이상수 이시영 장남인 허인구
감 사 권기우 이종우
사무총장 박영근
재무총장 정원종
총무이사 장병주
친목이사 노종헌
홍보이사 김상훈
섭외이사 배도정
기획이사 안병호
상임이사 강갑균 강선태 김동열 김선오 김선일 김성규 김승영 김윤곤 김장현 김종백 김종한 박상호 박성봉 박형주 박홍근 박효근 배상진 배영호 손종현 신재철 안천일 윤경석 윤선병 윤종경 이상필 이재동 이희태 임정웅 장석준 장인화 장준업 정연식 조길제 최삼섭 최익두 하만경 하문원 허성하

주소 : 부산 진구 부전동 512-3번지 정산빌딩 9층 전화 051)334-0108 팩스 051)867-4397

C784-B08092010.5.2610:54AM페이지2(1.1)

☞B8면에서 계속

극적인 의미는 생명보호를 위해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불교계가 생명환경운동에 적극 나서고, 강을 뒤엎어 뭇생명을 죽어가는 4대강 사업을 중단시켜 4대강 살리기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사형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도 이것이다. 목숨뿐만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서로 말과 생각이 부딪히는 경우도 같다.

우리는 대화하면서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묵살하곤 한다. 내가 내 생각만을 고집한다면 타인의 생각을 짓밟아 죽이는 폭력을 저지르는 것이다.

부처님이 왕사성 죽림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다. 한 브라만이 찾아와서는 "왜 우리 신도를 빼앗아갔느냐"고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부었다. 한 브라만 출신의 젊은이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자 이에 대해 항의하러 온 것이었다. 하지만 부처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침묵만 지켰다. 그러자 그 브라만이 큰소리를 쳤다.

"사문(출가자)이여. 그대는 졌도다. 내가 이겼다."

부처님은 브라만에게 말했다.

"성내는 자에게 되받아 성내지 않는 자는 두 가지 승리를 얻는다. 다른 사람의 노여움을 알고 정념으로 자신을 진정시키는 자는 자신에게 이김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기는 것이다. 상대가 화를 낸다고 나도 덩달아 화를 내는 사람은 승리자가 아니다. 패배자다. 상대에게 끌려드니 상대에게 진 것이고, 자기 분을 못 이기니 자기 자신에게도 진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패배에 속한다."

■ 정당하게 정도껏 재산 모아야
보시와 자선으로 실천하는 불투도 · 불탐욕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을 쓰게 된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뜻이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中)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가 하나의 미덕이다. 사람들은 돈에 웃고 운다. 부자가 되면 정말 행복해 지는 것일까?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영국 언론들은 "경제학자들이 수학적 모델을 통해 '부자가 될수록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오랜 금언이 진실임을 증명했다"고 보도했다.

커티스 이튼 캘거리대 교수 등은 최근 경제학 학술지 <이코노믹 저널>에 게재한 논문에서 국가가 일정 수준의 부를 축적한 다음부터는 부의 증진에서 얻어지는 것은 없고 오히려 박탈감만 커진다고 결론지었다.돈을 벌수록 사람들은 부유층 유명인사를 따라 하려고 고급 의류나 보석, 값비싼 자동차 등 '신분 상징'의 소비에 집착하게 되는데 이런 사치품을 살 수 없는 다수의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돼 결국 국민 전체의 행복 총합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 사람들이 소비에 집착할수록 여가시간이 줄고 이타적인 행동도 감소해 사회 전체의 공동체 의식이 하락한다는 결과도 내놓았다.

탐욕은 자신을 망각하게 하고 모든 관심을 대상으로 돌린다. 남의 것을 훔치게 되는 경우가 그 예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주지 않는 남의 것을 갖지 말라'는 불투도계는 자신에게 불필요한 것이나, 필요 이상의 것을 모아두는 것에도 해당된다. 재화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써야 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는 이는 노력을 해서 얻어져야 한다는 말도 된다. 필요에 의해 쓰여 지는 것은 봉사를 뜻한다. 필요한 곳에 써야겠다고 마음을 내고 실천하는 것이 보시이다.

조계종의 아름다운동행, 천태종의 나누며하나되기, 태고종의 나누우리 등이 이웃돕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도 보시가 부처님 자비를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사회적 기업이 주목 받고 있다. '연우와함께'가 그 예이다. 사회적 기업은 빵을 만들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위해 빵을 만드는 기업이다.

지금껏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이루고 갖기 위해 재산을 모아왔는가. 재산을 모으는 수단 · 방법보다는 얼마나 모았는지에 집착해 왔는가. 내가 아닌 모두를 위해 노력 · 봉사 · 보시하자.

■사람과 사람끼리 배려와 존중을
청정한 생활로 실천하는 불사음

조두순 사건(일명 나영이 사건)은 2008년 12월에 안산의 한 교회 안 화장실에서 50대의 조두순이 8세 여아(나영이)를 강간 상해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나영이는 생식기가 80% 훼손됐고, 대장과 항문이 영구 소실됐다. 나영이와 그 부모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표현하기도 어렵다.

해마다 성폭력 · 성폭행 사건이 줄지 않자 정부는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신원공개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사건들은 왜 일까?

삿된 음행이 범죄로 이어지는 성폭행 · 성매매 등의 원인은 인간이 쾌락을 탐닉하는 후유증이기보다는 인간과 성의 도구화에 있다는 지적이 많다. 흔히 여성의 짧은 치마 등 과도한 노출이 남자로 하여금 성범죄를 저지르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여름철보다 겨울철 성폭력 발생률이 높다는 통계가 발표된 적도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사례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성폭력 등 성범죄의 70% 이상은 우발적 범죄가 아닌 계획된 범죄였다. 또, 가해자의 성범죄 범행 동기는 자신에 대한 분노, 소외감의 표출인 경우가 많았다. 때로는 자신의 남성다움을 과시하거나 능력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성폭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전체 성폭력의 30%를 넘는다. 그 건수만 봐도 2005년 738건에서 2009년 1017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단순히 성관련 문제가 개인적 쾌락 · 욕구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의 일면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결국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을 도구로 돈벌이를 하는 성매매도 같은 경우이다. 다른 관점에서는 인간을 노동 · 전쟁의 도구로 보는 것도 배려와 존중이 결여된 까닭이다.

한 젊은 비구가 색욕이 그치지 않음을 걱정하여 칼날로써 그 음을 끊으려 할 때에 부처님은 "그 음을 끊음이 그 마음을 끊음만 같지 못하다. 욕심은 네 뜻에서 나오고 뜻은 생각에서 난다. 뜻과 생각을 끊으면 색과 행에 안 끌리리라"고 설했다.

사람을 도구가 아닌 사람으로, 부처로 배려하고 존중하자.

■ 바른 언어 습관이 성공 부른다
진실되고 화합되는 말… 불망어 · 불기어 · 불악구 · 불양설

"말과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는 것은 감로의 길이요,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는 방종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삼가는 사람은 오래도록 살 것이요, 방종에 빠진 사람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느니라." <증일아함경> 中

봉은사 사건의 발단은 '말'이었다.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만난 자리에서 "강남 부자 절의 스님이 좌파" 운운하는 발언을 했다. 이 '말'은 대화의 당사자였던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에게 들어갔고, 스님은 "봉은사 직영전환에 외압이 있었다"며 '말'을 퍼뜨렸다. 안 의원은 명진 스님을 만난 적도 없다는 등 거짓 '말'을 했고… '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말'을 만들어 냈다. 결국 안상수 의원은 "그런 발언을 하긴 했지만 농담이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말'이 문제다.

<법구비유경(法句譬喩經)>에는 부처님과 아들 라훌라의 이야기가 나온다. 부처님은 라훌라에게 말하기를 "저 현제라는 절에 가서 안거 하거라. 안거 중에는 입을 무겁게 가져 부디 말을 조심하고 생각을 한 곳에 모아 경전과 계율을 열심히 배워라."

부처님이 아들에게 가장 먼저 당부한 것도 입조심이었다.

불망어는 거짓말을 않는 것이다. 거짓말은 남을 속이기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진실을 속이는 일이다. 거짓말을 하면 정보가 왜곡되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의식을 형성시킨다. 작게는 인간관계가 잘못되지만 크게는 역사가 왜곡된다.

불기어는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아첨은 권력과 연관이 있다. 아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권력이라는 썩은 고기에 빌붙어서 두 손을 비비며 떨어진 부스러기를 조금씩 훔쳐 먹는 파리와 같다.

불악구는 험한 말(욕)을 하지 않는 것이다. 험한 말을 하게 되면 마음이 흉폭해지고 생각이 거칠어진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은 크게 상처를 받는다. 작은 살생을 저지르는 셈이다. 험한 말로 절제되지 못한 채 표출된 화는 순식간에 자신을 사로잡는다. 더욱이 이동통신 등의 발달로 얼굴보기보다 말로 인간관계를 이어가는 요즘, 예의 바르고 올바른 말은 그 사람의 얼굴이며 가장 중요한 매너이다.

불양설은 두 말로 이간질하지 않는 것이다. 서로 싸워야 자신에게 이득이 되거나,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양쪽에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경우이다. 말 한마디를 옮기더라도 진실 · 화합에 부합된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올바른 말 습관은 신의를 지키고 쌓아가는 것이다. 정구업진언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 부처님 법 만났으니 정진하자
바른 안목으로 수행 · 정진하는… 불사견 · 불치심

부처님은 인생에서 지극히 만나기 어려운 인연 가운데 하나로 사람 몸 받기의 어려움을 맹구우목(盲龜遇木)에 비유했다. 그래서 옛스님들은 "사람 몸 받기가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중생은 모두 본래 부처인데 무명으로 인해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 어리석음은 탐욕과 진심 이전의 번뇌의 근본이며, 삿된 견해[邪見]은 악업의 근본이 된다.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신 것은 누구나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을 드러 내보인 것이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다.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말했다.

"이 세상에 세 가지 그릇된 견해를 가진 외도가 있다. 슬기로운 사람들은 그것을 밝게 가려내어 추종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그러한 견해를 따른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부정하게 될 것이다. 세 가지 그릇된 견해란 어떤 것인가. 첫째,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사람이 이 세상에 경험하는 것은 괴롭든 즐겁든 모두 전생의 업에 의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둘째,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은 자재천(自在天)의 뜻에 의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셋째, '인(因)도 없고 연(緣)도 없다'라고 말한다."

모든 것이 전생의 업이라고 주장하는 이들, 모든 것이 자재천의 뜻에 의한 것, 인도 없고 연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은 "이 일을 해서는 안된다거나, 해야겠다는 의지도 노력도 소용없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리가 그릇된 견해를 눈 밝게 알아차리고 무명을 걷어내려면 수행이 필요하다. 그것은 신수의 게송처럼 번뇌를 쓸고 닦아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혜능의 게송처럼 본래 한물건도 없는 것일 수도 있으나 중생이 부처가 되려면 마음공부를 해야 하는 것만은 변함이 없다.

백장 선사는 <백장록>에서 수행자의 올바른 자세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도를 닦는 사람이라면 괴로움과 즐거움, 마음에 맞고 안 맞는 갖가지 일이 닥쳐오더라도 물러서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명리나 의식을 염두에 둔다거나 공덕과 이익을 탐내서는 안 된다. 세간 어느 법에도 걸림 없으며 가까이 하거나 사랑하지 않고 괴로움과 즐거움을 똑같이 여기며, 거친 옷으로 추위를 막고 맛없는 음식으로 연명해야 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나 귀머거리 · 벙어리 같이 돼야 약간이라도 비슷해질 여지가 있을 것이다."

십선은 중생이 부처되는 첫걸음이다.

한 스님이 운문 선사에게 도(道, 길)를 물었다.

선사가 답했다. "가라(去)!"

조동섭 기자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뭇 생명을 살리자는 불살생계의 대승적 실천의 한 방편이다. 사진은 4월 17일 조계사에서 봉행된 4대강 수륙대재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사람을 부처로 배려하고 존중하자
십선은 중생에 이익주는 자비행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화계사
Samgaksan Hwagyesa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회 주 송원 설정
주 지 수경
국제선원 정진대중
신도회장 호법행
사부대중일동

사시예불 /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11시
거사회 108 참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30분
국제선원 참선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4시 (내.외국인)
수선회 참선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어린이/학생회 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11시
청년회 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선우회 철야정진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 새벽 3시
철야삼천배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9시 ~ 새벽 4시
합 창 단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1불자 1자비 실천" 운동 자비보시기금회 지원단체

결식아동 급식지원	독거노인 지원
쌍문동 노인복지센터	국립재활원 / 의료원
라오스 화계초등학교	이주노동자 지원
군 법당 법회 지원	국제선원 / 도제양성

신도교육 / 불교대학 사무처 ☎ 02-997-6469

기본교육과정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 5시
불 교 대 학	주간 1,2학년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 4시 주말 1,2학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 7시
불교대학원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3시
교 양 과 정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4시

※자비보시기금회 : 국민은행 353-25-0004-961 (예금주: 화계사) /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487번지 www.hwagyesa.org ☎ 02)902-2663 전송 02)990-1885





三角山華溪寺

2554 BUDDHA'S BIRTHDAY

불기 2554년 부처님오신날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더없이 좋은 날,
기쁨의 날,
생명의 날에
인류의 큰 스승이신
부처님 오신 참뜻을 새기며
지혜와 자비의 연등을 밝힙시다.






조실 보광 혜정 회주 진불장 혜성 부조실 경하 현성
주지 선묵 혜자 청담장학문화재단 이사장 동광

청담문도회, 청담장학문화재단, 복지법인 혜명복지원
학교법인 청담학원, 강북청소년수련관,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호국참회관음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264번지 전화 : (02) 993-3161~3
팩스 : (02) 993-3164 홈페이지 : www.dosunsa.or.kr

"불기 2554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대한불교 천태종
서울 관문사

주지 김영제

총무 구성해
재무 김효성
노전 서덕재



신도회장 장영일

고문 권영철 권무원 배두출 이금복 송대현
여부회장 김용실 총무위원 신면관
교무위원 김진홉 재무위원 오덕근 암전례 민기홍
사업위원 김진원 기획위원 윤을식
복지위원 조장묵 부녀위원 박말옥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전화(02)3460-5300 팩스(02)3460-5200 www.gwanmunsa.co.kr

2554년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봉녕사 승가대학 금강율원



학 장 묘엄
율원장 대우

학인대중일동

거사림회. 관음회. 승만회. 청년회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48번지
홈페이지 www.bongnyeongsa.org
전화 031)256-4127

대한불교 조계종 道樂山 廣德寺 백만불전 대도량

회주 포산 혜인
주지 범전 혜공

사부대중일동



충정북도 단양군 대강면 직티리 30 전화 043)421-4700 / 팩스 043)421-4707 / 홈페이지 www.84000.or.kr

봉 "불기2554년 부처님 오신날" 축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온 우주법계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대자비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 명원 김의정 합장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전화 02)733-7277 전송 02)733-7278
홈페이지 : 중앙신도회 www.LBA.or.kr

■ 부설기관
사)날마다 좋은날 불교인재원
불교생활의례문화원 사)연우

■ 부설위원회
반갑다연우야. 연우치과.
불교정책기획단. 문화재환수위원회
종교화합위원회. 세계불교도우의회 지역본부



佛紀2554年 庚寅年 Buddha's birthday |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아름다운 꽃에 향기가 나듯 말과
행동이 같은 이의 말에는 향기가 있다.
- 법구경

대한불교조계종
동 학 사

동학사승가대학
동학사화엄학림

주지 견성
학장 법성

대 중 일 동

www.donghaksa.or.kr

충남 공주시 반포동 학봉리 789
전화 042)825-2570
팩스 042)825-6068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경국사



사부대중일동

서울시 성북구 정릉 3동 75-3
전화 02)914-5447, 2828
팩스 02)914-4326

대한불교조계종
아차산 영화사

(사)지구촌공생회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복지법인 나눔의 집

위 단체는 영화사에서 후원합니다

회주 송월주 스님

사부대중 일동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9번지
전화 02)444-4321, 7215

독성기도영험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삼성암

회주 수봉 세민
주지 만월 현종

사부대중일동

진실한 기도가
알고싶거나 해보고 싶은분
[야간대다라니기도 수시봉행]

나한성지순례기도법회 : 매월음력16일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488
TEL 02)988-9300,1996
www.samsungam.org

公益法人 **大韓佛敎 華嚴宗**
大本山 藥師寺

(약사 추모관 운영中)

회 주 화 담
주 지 화 응
부주지 대 휴

신 도 일 동

財團法人 **華嚴僧伽奬學財團**
公益法人 **大韓佛敎華嚴宗奬學會**

이사장 한상호(화응)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산 21
☎ 032)422-2066

서울사무소 소장 양 위 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1-6번지 삼선빌딩 412호
전화 02)730-0798~9 / 팩스 722-3205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노고산 흥국사

주 지 대 오

사부대중 일동

- 템플스테이 접수받습니다 -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일반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203번지
전화 02)381-7970 / 팩스 02)381-7329
홈페이지 www.heungguksa.or.kr

한국불교태고종
무 량 사

주 지 무공 무상

한국불교 태고종 원로의원

사단법인 대륜불교문화

(태고)연구원 이사장

서울시 강북구 수유4동 584-12호
전화 02)904-0016,0081

한국불교태고종
봉 원 사

회 주 김혜경
주 지 마일운

총 무 조고담
교 무 김태허
재 무 박처명
사 회 김향천
사무장 류인숙
종무소 함규진

서울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전화 02)392-3007~8
팩스 02)393-9450
www.bongwonsa.or.kr

부처님 오신 날
대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 미륵정토종
미 륵 정 토 사

사부대중일동

충남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389번지
전화 041)855-3566~7

(사)대한불교무량종 인천지원
비 룡 정 사

주 지 박보산

신 도 일 동

인천시 중구 선린동 57-7

태아영가참회도량
대한불교 일승종
약 천 사

주 지 자 운

신 도 일 동

서울 노원구 중계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전화 02)3391-8523 핸드폰 011-9002-8523

불기 2554년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합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황일면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22
대성스카이렉스 101동 305호
전화 02)734-8050 / www.lisa.or.kr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산 축 서 사

주 지 무 여

문수선원. 보현선원
축서사 불교대학. 바라밀합창단

사부대중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전화 054)672-7579

대한불교 조계종
화엄도량 부 석 사

주 지 근 일

사부대중일동

■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
전화 054)633-3464

대한불교 조계종
개 운 사

사부대중일동

부설 룸비니유치원

■ 경북 문경시 산양면 연소리 483-2번지
전화 054)552-4300

재단법인 선학원
영주 관 음 사

주 지 도 기

사부대중일동

관음유치원.군포교.재소자포교활동

■ 경북 영주시 이산면 원리 739번지
전화 054)633-1138

대한불교 조계종
대 원 사

주 지 용 담

대원불교대학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선재어린이집

사 부 대 중

■ 경북 안동시 목성동 57-1
전화 054)858-2630

佛紀2554年 庚寅年 Buddha's birthday |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깨달은 이는 죽음과 고통을 능히
정복해 불멸의 길을 발견할 것이다.
- 법구경

염불선 수행 정진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성 원 사**

회주 여강 주경
주지 정공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810-1
TEL 033)661-5736
http//www.sungwonsa.org
■ 성정사(포교당)
강원도 강릉시 회산동 4-5 033)642-0142
■ 성원유치원 TEL 033)642-0142

청동대불봉안도량.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각원사.각원사불교대학**

주지 신법인
학장 서대원
www.gakwonsa.or.kr
신도일동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171-3번지
TEL 041)561-3545 / FAX 041)556-1425

대한불교조계종
봉 국 사

주 지 김월서
신도회장 구광명화
대중일동

■ 서울시 성북구 정릉2동 637번지
TEL 02)919-0211~2 / FAX 02)919-0216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지 진산 종하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519-3
TEL 02)582-8609
www.kwaneumsa.net

대한불교전통조계종
법 륜 사

주지 법 륜
사부대중일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10-38호
TEL 018-382-3448

2010년은 진관사 개산 10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진관사**

회주 진관
주지 계호
사부대중일동
<부설>포교원 보현정사, 코끼리 유치원
사회복지법인 진관무위원, 진관지역아동센타

■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54번지
TEL 02)359-8410/ www.jinkwansa.org

대한불교조계종
내 원 정 사

주지 현 문
사부대중일동

■ 서울 동작구 상도1동 788번지
TEL 02)814-5502

대한불교조계종
등 명 낙 가 사

주 지 이청우
가섭회장 최종명
금강회장 이상숙
신도일동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 1리
TEL 033)644-5337,5475

대한불교조계종
안성 석 남 사

회주 원공 정무 대종사
주지 덕운
- 정기법회 -
매월 첫째 일요일, 음력 초하루 신도법회
신도일동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508번지
TEL 031)676-1444

북한산 노 적 사

주지 종 후
사부대중일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331번지
TEL 02)353-5016

대한불교조계종 전법도량
청소년 수련원 **신 흥 사**

주지 오성일
대중일동 신도일동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72-11
TEL 031)357-2695, 357-3916

대한불교조계종
정 각 사

주지 정 목
마음의 소리를 듣는 방송 유나
www.una.or.kr

■ 서울시 성북구 삼성동1가 277-12번지
TEL 02)742-1231

대한불교조계종
보 광 사

영각전 납골당
www.bogwangsa.co.kr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13
TEL 031)948-4440

대한불교조계종
전 등 사

주지 혜 경
대중일동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35번지
TEL 032)973-0125, 0025
www.jeondeungsa.org

대한불교조계종
염 불 사

주지 성 직
사부대중일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산 17번지
TEL 03)471-2300

대한불교조계종
수 안 사

회주 세 민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38-12
TEL 02)587-4677 / FAX 02)522-5666

대한불교조계종
탑골승방 **미 타 사**

주지 원 호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3가 51
TEL 02)923-0492

호명산
감로사 · 승가사

우.477-816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산 1-4
청평면 우무내길 210 (새주소) 청평검문소 남쪽 2키로
전화 031)584-0117, 02)2292-3418 / FAX 031)585-5747
카페:http://cafe.naver.com/kamrosa.cafe

서울포교원 **승 가 사**

우.131-833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092-2 나동
용마산길 113(농협 용마지점 옆)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3번.
사가정역 4번
전화 02)2292-3418,2282-3418 이메일 ljk3418@naver.com

주지 이지성 합장 H·P 010-3722-3418

대한불교조계종
팔만대장경 판각성지, 사적 259호
선 원 사

주지 성 원
좋은 연식품 - 연잎차.연근차.연만두.연냉면
홈페이지 www.seonwonsa.com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692-5
TEL 032)933-8234 / FAX 032)933-8235

대한불교조계종
청 계 사

회 주 대궁 종상
주 지 성 행
신도회장 자비화
사부대중일동
청계사 부설 : 정신지적장애 생활시설 녹향원

■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11번지
TEL 031)426-2348, 2221
FAX 031)426-3666

대한불교조계종
보 현 정 사

주지 길청화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 동 1197-2호
리베로원빌딩 8층
TEL 031)263-4513

재단법인선학원
인 과 선 원

주지 정 덕
신도일동

■ 서울시 노원구 월계4동 657-2
TEL 02)907-3706

한국불교화엄종
구이 정 각 사

주지 벽 송
사부대중일동

■ 전북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산 176번지
TEL 063)222-2555~6

대한불교원융종
대 덕 사

주 지 설봉당 성인
원융종원로원장
상좌 일동 합장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곡3동 325-3번지
TEL 032)664-5545

홍천운봉산 광 운 사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장평리 577번지
TEL 033)433-9108

서울포교원 광운정사
부설광운불교대학
TEL 02)381-8966
주지 청 운
법회(음) 1, 18, 24일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87-10

대한불교조계종
승 가 사

주지 정 호
신도회 일동

■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산 1
TEL 02)379-2996 / FAX 02)391-9975

대한불교조계종
천봉산 흥 복 사

주지 선곡 철형
사부대중

■ 경북 상주시 만산동 113번지
TEL 054)534-5633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 산 반 야 회
동산불교대학

법 주 대종사 무진장
이사장 안동일
신도회장 이종현 동산회원 일동
www.dongsanbud.net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 / FAX 02)732-1207

봉 부처님오신날 축

한국불교 고승
지도자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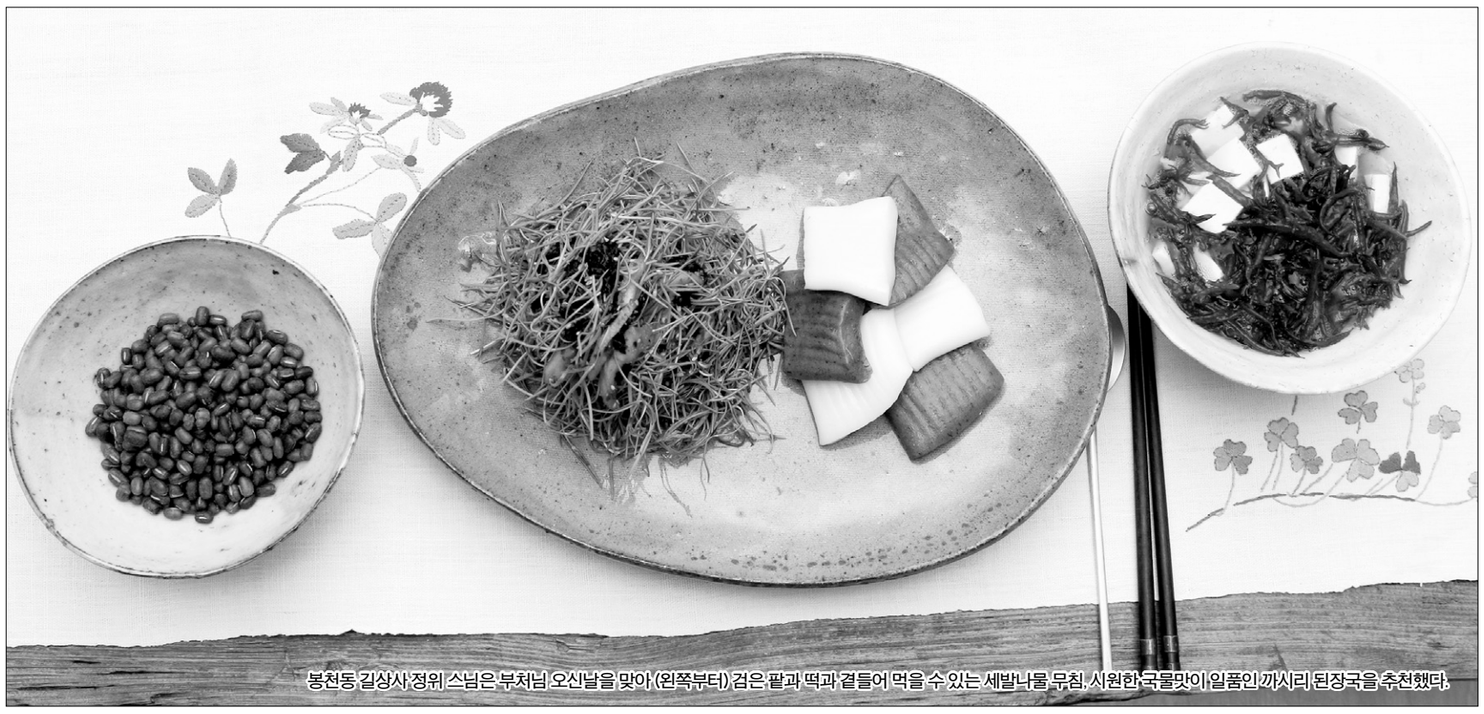
총 재 석청암
회 장 석연화

한국불교사진협회

www.buddhaphoto.org
회 장 조현숙
임원 및 회원 일동

■ 서울 종로구 명륜동4가 187 (이화빌딩 601호)
핸드폰 010-5477-0498(회장) / 팩스 02)745-7317





봉천동 길상사 정위 스님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왼쪽부터) 검은 팥과 떡과 곁들어 먹을 수 있는 세발나물 무침, 시원한 국물맛이 일품인 까시리 된장국을 추천했다.

길상사 정위 스님이 추천하는 부처님오신날 음식

이 음식 한번 먹어보세요

꽃들이 산을 물들일 쯤, 오색연등은 거리를 수 놓는다. 제등행렬, 탑돌이, 성불도놀이, 방생 등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지는 부처님오신날. 부처님의 탄신일을 축하하고, 한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이 날은 이제 많은 이들에게 또 하나의 축제의장이 됐다.

모든 흥이 나는 행사에는 음식이 빠질 수 없는 법인데 문득, 부처님오신날에는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 고민하게 된다. 무작정 서울 봉천동 길상사의 정위 스님에게 달려가 부처님오신날에는 무슨 음식을 먹으면 좋은지 여쭤봤다.

정위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이면 검은팥을 삶아 먹는다고 했다. 조선 순조 때의 학자 홍석모가 지은 <동국세시기>라는 세시풍속서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오신날이면, 검은팥을 먹는다"고 기록돼 있다.

스님은 "소금을 넣어 삶은 검은팥을 사람들과 나눠먹는 것은, 좋은 인연을 만나 좋은 일이 생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길상사에서는 스님과 신도들, 이웃들이 함께 항상 부처님오신날이면 행복을 기원하며 검은팥을 나눠먹는다.

스님은 "특별히 부처님오신날이라고 정해놓고 먹는 음식이 있기보다는 지역의 특징을 고려해 각 절마다 차려먹는 음식이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부처님오신날은 많은 신도들이 절을 찾아와 공양을 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비빔밥이나 전통음식인 떡을 많이 먹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정위 스님은 비빔밥과 함께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까시리 된장국과 떡과 함께 곁들어 먹을 수 있는 새콤달콤 세발나물 무침을 소개했다.

까시리 된장국은 스님이 즐겨 만들어 먹는 음식이다. 까시리는 해초류로 된장국에 함께 넣어 먹으면 시원한 맛을 낸다.

까시리 된장국을 만드는 방법은 냄비에 물을 넣고 다시마와 마른 표고버섯을 넣어 끓인다. 물이 어느 정도 끓기 시작하면 된장을 풀어서 간을 한다.

"절에서 만드는 음식은 오신채(마늘 · 파 · 부추 · 달래 · 흥거)를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미료도 사용하지 않아요. 된장만 풀어서 간이 좀 싱겁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간장을 조금 넣어서 간을 하셔도 괜찮아요. 까시리는 맨 마지막에 넣으셔야 돼요. 너무 일찍 넣게 되면 국의 색깔이 변하거든요. 국이 다 끓었을 때 먹기 직전에 까시리를 넣으시면 돼요."

<동국세시기>에 "검은팥 먹는다"
비빔밥에 까시리 된장국 일품

구수한 냄새가 풀풀 올라오면 어느 정도 된장국이 다 끓은 것이다. 다 끓여진 된장국에 마른 까시리를 넣으면 토독 토독하며 까시리가 국 안에서 춤추는 소리가 들린다. 스님은 "방금 토독토독 거리는 소리 들으셨죠? 이게 바로 음식을 만드는 재미이고, 행복이죠"라고 말한다.

까시리까지 넣어 완성된 국에 두부를 적당한 크기로 총총 썰어 넣어 먹으면 된다. 조미료로 간하지 않은 된장국은 담백하면서도 구수한 냄새와 함께 시원한 맛이 난다. 까시리가 입안에서 오도독 오도독 씹히는 재미를 느껴볼 수 있다.

세발나물 무침은 떡과 함께 먹어도 좋지만 샐러드나 비빔밥나물로도 무방하다.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인 세발나물무침은 세발나물에 고춧가루를 적당히 넣고, 식초와 효소, 간장을 조금 넣어 버무리면 끝이다. 정위 스님은 세발나물에 스님이 직접 담근 복숭아통조림과 김을 함께 섞어 버무렸다.

"복숭아 통조림과 김은 굳이 안 넣어도 돼요. 취향에 따라 먹으면 더 재미 있잖아요. 각자 기호에 맞게 넣고 싶은걸 넣으셔서 버무려 드시면 됩니다. 다만 고춧가루는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그리고 여름에는 좀 더 짭짤하게 해서 무쳐 드시면 입맛을 돋우는데 좋을 겁니다."

향긋한 나물과 새콤한 간이 어우러지는 세발나물 무침은 아삭거리는 복숭아통조림과 고소한 김이 함께 어우러져 독특한 맛을 자아낸다. 절편과 함께 곁들어 먹으면 한 끼 식사로도 무방하다.

정위 스님은 "음식은 '아!' 하고 탄성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시각적, 미각적으로 훌륭한 것이 진정한 음식이 아니라 먹는 이와 만든 이 모두가 기쁨이 올라와야 한다는 것이다.

스님은 "음식이란, 먹을 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먹은 후에도 행복한 음식이 진정한 음식"이라고 말했다. 부처님은 이고득락(離苦得樂)이라고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글=이은정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음식 조리법

#까시리 된장국

① 물에 다시마, 마른 표고버섯을 넣고 끓인다.
② 물이 끓으면 된장과 간장을 조금 넣어 간한다.
③ 다 끓여진 된장국은 다시마를 건져내고 까시리와 두부를 넣어 먹는다.

#세발나물 무침

① 세발나물을 씻어서 준비한다.
② 세발나물을 고춧가루 조금과 식초, 간장, 효소를 넣어 버무린다.
③ 복숭아 통조림, 김 외에 기호에 따라 넣고 싶은걸 넣어 같이 버무려 먹어도 된다.

#검은팥

검은팥에 소금을 넣어 삶아내면 된다.

봉축
불기 2554년 부처님 오신날

부처님의 가피로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깨우겠습니다.

불교계 인재 육성의 중심 – 동국대학교

세상을 비추는 힘
세상을 깨우는 이름
dongguk UNIVERSITY

불교지도자로 세상의 빛이 되십시오!

후기 석사과정 신(편)입학 및 지도자 과정 모집 안내(야간)

■모집학과 및 인원

학 과	전 공	모집인원
불교	불교학, 선학	00명
차문화컨텐츠	다도 · 제다	
불교사회복지	사회복지	
생사의례	생사의례	
명상심리상담	명상심리상담	

■지원자격
◎석사과정
• 국내외 정규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자 또는 2010년 8월 학위취득 예정자
• 국내 · 외 대학원 석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예정자
•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지도자과정
• 각 불교 종단의 스님
• 각 신행단체의 임직원 또는 신심이 돈독한 불자로서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자

■전형일정

구 분	일 자	장 소
원서 교부 및 접수	2010. 5. 10(월)~25(화)	· 본 대학원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및 본 대학원 학사운영실 방문 접수
전형일 및 장소	2010. 6. 5(토) 10:00~	· 본 대학원 학사운영실

■특전
•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취득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재적승려, 조계종 종무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불교언론인,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
• 생사의례전공 석사학위취득자 또는 지도자과정 수료자는 장례지도사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함.

장례비즈니스과정 신입생 모집 안내(야간)
(FBA : Funeral Business Academy)

■지원자격
• 관련업계 종사자, 공 · 사 기업 경력자
• 학력제한 없음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구술고사

■전형일정

구 분	일 자	장 소
원서 교부 및 접수	2010. 5. 10(월)~8. 13(금) 17:00	· 본 대학원 학사운영실
전형일	수시	· 본 대학원 홈페이지 공고

■수업연한 및 수업요일
• 1년(2개 학기)
• 매주 월, 화요일 18:30 – 21:2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학사운영실로 문의바랍니다.
• TEL 02-2260-3096/7 • FAX 02-2260-8627
• http://gsbs.dongguk.edu

동 국 대 학 교 불 교 대 학 원
dongguk UNIVERSITY

▮ 제3회 보리수 아래 핀 연꽃들의 노래

나의 걸음에 발을 맞추어줄 사람이 좋습니다

나의 걸음에 발을 맞추어줄 사람이 좋습니다.
왜 이리 느리냐. 내 손 잡고 질질 끌고가는 사람보다는
"천천히 가자 괜찮아 시간 많아."
나의 속도에 맞추어 함께 세상을
걸어갈 사람.

흘리는 내 앞에서 함께 밥 한끼 먹는 사람이 좋습니다.
왜 흘리냐 똑바로 먹지 못하냐 다그치는 사람보다는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
휴지로 닦아주며
미소 띄우는 사람

…(줄임)

이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면
험난한 세상 즐겁고 힘차게
날아다닐 것 같습니다.

이 시는 5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열린 제3회 '보리수 아래 핀 연꽃들의 노래'에서 낭송된 홍현승(자운고 3년 · 뇌성마비)군의 시 '나는 이런 사람이 좋습니다'이다.

부처님은 보리수나무 아래서 해인삼매(海印三昧)의 경지에 들어 우주의 삼라만상이 서로 상의 · 상관 돼 있음을 깨달으셨다. 고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협력하고 화합할 때 진정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다. 그런 부처님 가르침을 흠모하며 실천하는 이들이 있다. 부처님을 사랑하는 장애인들의 모임 '보리수 아래'가 그들이다.

'보리수 아래'는 장애인 불자들의 모임을 만들어보자는 봉화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의 제안으로 2006년 7월 구성돼 150여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시 창작 부분에 뛰어난 실력을 갖춘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시낭송회를 여는 등 뜨거운 창작열을 불태워 왔다.

'보리수 아래'가 펼친 '보리수 아래핀 연꽃들의 노래'는 이번이 세번째다.

행사는 권오응 시인의 시낭송으로 시작됐다. 권 시인은 주변사람의 도움 없이는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든 장애인이다. 그는 무대에 올라 가까스로 마이크를 잡아들었다. 그래도 자신의 시 '행복을 위해'를 낭송하는 동안 그 누구보다 행복해보였다. 가슴을 졸이던 관객들도 이젠 편안한 듯 미소를 지었다.

이어 이운희씨가 춘천시 장애인 문학상을 수상했던 정상석(뇌성마비) 시인의 '일곱 빛깔 무지개와 동자스님'을 대신 낭송했다.

시에서 말하고 있는 동자 스님은 정상석씨가 아닌가 싶었다. 이 씨의 옆에서 자신의 시를 듣고 있는 정상석 시인의 웃는 모습은 누구보다 아름다웠다. 그 동심(童心)이 주옥같은 시를 쓰게 했을 것이다.

조계종봉축위원회 · 청량사 · 화계사 · 좋은벗 풍경소리가 후원한 이번 음악회는 권오웅 · 정상석 · 최명숙 · 이경남 · 홍현승 · 서지영 등 장애시인들이 참여해 시와 음악이 함께 하는 문화마당을 연출했다.

초청 시인으로는 인터넷 마음공부 방송 유나의 진행자로 알려진 김재진, 한국문인협회 정필자 시인이 참여했다. 음악에는 뇌성마비 장애인 출신의 여섯 손가락 피아니스트 김예지양과 가수 최현아, 작곡가 서혁신, 소프라노 박소림 씨 등이 함께 했다.

이날 행사에는 포교원장 혜총 스님,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 현대불교문인협회장 수완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병상에 있는 사람들은 매 순간이 기적 같다고 한다.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옴을 느끼고 100%로 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끔 이전에 없던 새로운 무언가가 춤추듯 다가 올 때를 느낀다. 누구는 기적이라고도 하고 누구는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도 한다.

보리수 아래 회원들의 삶은 매 순간 기적이다.

보리수 아래 대표 최명숙씨는 인사말을 통해 "너무 떨리고 기뻐서 눈물이 나려고 한다. 보리수 아래가 있기까지 씨앗을 심어준 지현 스님, 이종만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보리수 아래는 뇌성마비 등의 장애가 있는 시인들이 작곡가 가수들과 손잡고 창작시를 아름다운 선율로 노래한 음반을 벌써 3집까지 냈다.

최명숙씨는 그동안 희노애락을 같이한, 앞으로도 함께할 동료 회원들에게도 한마디 건넸다.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장애인이란 말로 동정표를 사지 않고, 노력하고 정진해 실력으로 인정받읍시다. 장애를 가진 모습 그대로 성장합시다."

뇌성마비로 어눌한 발음이었지만 관객들은 차분하게 그녀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박수를 받은 그녀는 행복한 웃음과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보리수 아래의 씨앗을 뿌린 장본인, 봉화 청량사 지현 스님은 "장애인 법회를 보는 곳이 드물다. 휠체어를 타고 예불을 보는 것이 우리의 꿈이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리수 아래 핀 연꽃들의 노래는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다. 행사에서 선보인 17개 팀의 공연은 하나하나가 다 주옥같았다.

디지털 세상에서 아날로그적 감성을 지니고 있는 보리수 아래 회원들의 음성공양은 밤하늘보다 짙게 무르익어갔다.

글=박선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여섯 손가락 피아니스트 김예지양이 리스트(F.List)의 '사람의 꿈(Liebestraume)'을 연주하고 있다. 사랑의 꿈이란 제목으로 알려진 이 아름다운 피아노 소곡은 리스트가 자신이 작곡한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를 피아노곡으로 편곡한 작품이다.

봉화 청량사 주지 스님 제안으로 150여 회원 활동
시낭송회 등 뜨거운 창작열 불태워


정상석 시인의 시 '일곱 빛깔 무지개와 동자 스님'을 이운희씨가 낭송하고 있다.


관음무용단이 보살 춤 '홀로 핀 연꽃, 마음의 혼불이 되어'를 공연하고 있다. 관음무용단의 몸짓은 한 송이 연꽃이 피어오르는 듯했다. 아름다우면서도 절제된 동작에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다.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792-6288,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아름다운 등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 공단등 · 오색공단등 · 영가등 · 종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 팔각봉축접등 · 종등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자비의 선물 포장 현장

사부대중 한마음으로 자비를…

봄 햇살이 대지를 간질이는 5월 12일 서울 조계사 경내. 조계사를 장엄한 연등 사이로 내비치는 찬연한 햇살이 눈부셨다. 선정에 들면 한달음에 깨달음에 이를 것 같은 날이었다.

이렇게 좋은 날 연등 아래에서 작업복을 입고, 흰색 면장갑을 끼고 쉴 새 없이 일하는 이들이 있었다. 대웅전 앞에는 차곡차곡 쌓인 라면박스가 성인키보다 높게 쌓여 있다. 사람들은 마당 앞에 펼쳐진 6개의 테이블에서 과자, 칫솔, 양말, 사탕, 치약, 책, 염주, 비누 등을 봉투에 담아 포장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분업화 된 공정과 협동작업이 재빠른 손놀림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선물을 조계사 신도들이 직접 포장하고 있는 중이었다. 포장된 선물은 군인, 교도소 재소자, 전의경,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가정, 독거노인, 수급가정, 다문화 가정,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틈새계층 등에게 전달된다.

이 행사는 조계사(주지 토진)가 주최하고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 혜경), 농심이 후원했다. 조계사에서 3000여 만원, 아름다움동행 500만원, 농심에서 라면 1000박스를 지원했다.

"여기요, 여기요. 테이블에 칫솔, 치약이 부족해요, 갖다 주세요."

"어디 어디요~? 뭐가 더 필요하세요?"

"여기 좀 주목해 주세요. 샘플 보이세요? 양갱은 2개씩 넣으셔야 됩니다. 순서대로 차곡차곡 넣어야 딱 맞아요."

"아이고 징하게 오랜만이여. 더 이뻐졌네 그려."

왁자지껄한 속에서 선물 포장하는 법을 알려주고 배우는 말들이 오갔다. 도반을 만나면 반갑게 맞으며 안부를 묻곤 했다. 함께 포장을 하러 나온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과 신도들은 못다 나눈 대화를 나누기도 하면서 서로의 안부와 신도회 상황에 대한 의견 공유도 했다.

'자비의 선물'이라고 쓰인 투명 봉투에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라는 축원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신도들은 투명 봉투 안에 준비한 각종 생필품과 간식들을 가득 넣었다. 조계사에서 엮은 포교용 책자 <모두 함께 꽃이 되어>와 염주도 정성스레 담았다. 이날 만든 자비의 선물 꾸러미는 단 3시간여 만에 5280개가 만들어졌다.

신도들은 포장을 하던 중 물품이 모자라면 큰 소리로 원하는 물건을 달라고 소리도 치고, 그 시간도 아깝다고 여길 땐 먼지 나도록 뛰어가서 박스 채 물건을 들고 날랐다.

요즘 사람들에게는 넘쳐나는 것들이지만, 이것을 필요로 하는

세 시간 만에 선물 5280개 포장

나눔은 불자들의 행복한 의무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신도들은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스님과 신도들의 손을 거친 과자는 약으로, 칫솔은 치과의사로, 음료수는 감로수로, 경전과 염주는 마음을 치료해주는 의왕 부처님으로 전해졌다.

행사에 동참한 8명의 동자승들은 가슴 높이의 탁자에서도 정성을 다해 포장했다. 어른보다 더 꼼꼼했다. 포장 마무리에서 박스에 옮길 때까지 한 과정도 빠지지 않았다. 과자를 보고도 먹고 싶다는 말보다는 "저도 할래요"라며 의욕을 보였다. 공양할 시간이 되자 자비심이든, 호기심이든 "또 만들고 싶어요. 공양하고 또 만들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모습은 그대로 아기 부처님이었다.

조계사 신도회 김금순 부회장은 이렇게 기원한다.

"부처님의 가르침 화합을 나눔의 장으로 실천하고 있어 매우 기쁩니다. 사부대중이 한마음으로 즐겁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 올해 봉축행사가 그 어느 때 보다 뜻 깊게 느껴지네요. 자연재해와 경제악화 등으로 모두가 어려울 때 나눔으로 모두가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물먹을 틈도 없이 바쁘게 진행된 자비의 선물 포장은 힘든 시간이 아니었다. 입정하지 않아도 이 순간 수행으로 깨달음의 길을 갈 뿐이었다. 불법과 인연을 맺은 이들이 해야 할 행복한 의무였다.

한편, 포장을 하고 있는 근처에도 다양한 나눔의 장이 펼쳐졌다.

불교계 최초 사회적 기업인 연우와함께(이사장 이상근)는 해외 약탈문화재 환수 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조계사 앞 우정국 공원에서 5월 10~20일 유기농 식품을 판매했다.

9일에는 2010 어울림마당에서 진행된 자비나눔 행사를 통해 불자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금이 1억1692만6200원이 모였다. 10일 영화사(회주 월주)는 아름다운동행에 자비나눔 기금 3000만원을 전달하고, 14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과 아름다운동행에서 중국 칭하이 티베트자치구 지진피해 복구 기금 5만 달러를 전하며 나눔의 열기를 더했다.

글=이상언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SK broadband IDC
www.coredata.co.kr
COREDATA
www.coredata.co.kr

코어데이타와 SK 브로드밴드 IDC가 함께 합니다.

》 코어데이타 소개

(주)코어데이타는 국내최고의 인터넷 데이터센터 SK Broadband IDC에 입주하여 최고의 인터넷 전산 환경에서 고객사의 전산시스템 및 네트워크 운영을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운영대행해주는 IT 아웃소싱 전문업체입니다.

"귀사를 위한 통합 IT 관리 서비스"

기술지원
다양한 고객들에게 얻은 축적된 기술
시스템 안정화 지원

인력지원
고객 당면 고제를 해결하는 파트너
적재적소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전문 기술 인력 지원

통합관리
고객의 E- Business
사업 파트너로서의 전문 컨설팅



서비스 기대효과
⇨ IT시스템 운영 원가 절감
⇨ 최신기술의 전문 인력과 고품질의 IT역량 확보
⇨ 안정된 네트워크 보안 및 인프라 환경은 원활한 서비스 보장
⇨ 최적의 성능유지로 신속한 장애처리

체계화 된 IT 체계구현
기업(전략적 경영)
업무효율화
핵심역량강화
기업가치 상승
기업 경쟁력 강화
고객서비스 혁신

서비스 문의 02-6266-3178
긴급 H·P 010-4272-9851 / E-maill : master@coredata.co.kr
위치 : 137-885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0-1 SK Broadband IDC 1층 (주)코어데이타

희담석 稀潭石
www.jawonet.com

정신 집중이 잘 되고
머리가 상쾌해지는 - 희담석 방석

사용방법
좌선용, 학생 및 사무용 의자, 소파, 차량 등에 사용하십시오
희담석 방석은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해야 하는
운전자,학생, 사무원, 스님 등
수련하시는 분들께 매우 유익합니다.
(오래 앉아 있어도 땀이 차지 않습니다)



보급형 정가
45,000원
(색상 : 황토색, 쥐색)
고급신형 정가
50,000원
(색상 : 황토색)
사이즈 450mm×450mm

희담석의 에너지가 숙면을 도와주는 -
희담석 베개용 패드



정가 : 25,000원
(색상 : 황토색)

사용방법
베개 위에 올려놓거나 베개 커버를 벗겨서 패드를 올려 놓은 후
다시 커버를 씌우고 사용합니다. (뒷면 미끄럼 방지 도트 처리로 밀리지 않습니다.)
· 아침에 일어나서도 개운하지 않는 분
· 두뇌 활동이 많은 학생
· 스트레스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 등

명상과 함께 하는 -
희담석 염주목걸이 · 합장주



건강과 활력을 주는
희담석의 무한한
에너지 방사능력을 체험해 보세요.

이런분께 권합니다.
· 수행하시는 스님 및 불자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
· 목과 팔목의 뻐근함을 느끼시는 분
· 피로가 누적된 분
·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수험생
·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셀러리맨

희담석의 생명의 에너지를
목걸이(팔찌,합장주)에 담았습니다.
목과 팔목이 뻐근하신 분들께는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염주목걸이 정가 ~~66,000~~원
⇨ 할인가 56,000원

합장주 정가 ~~35,000~~원
⇨ 할인가 30,000원



www.jawonet.com에서 카드 구입시 2~3개월 무이자 할부가 됩니다.
제품문의 011-9230-2335
자원넷 JAWONET CO.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8-4호 금구빌딩 B103호
TEL:(02)3476-2335 FAX:(02)3476-2505

佛紀2554年 庚寅年 Buddha's birthday |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영혼이 잠깬 이는 눈 먼 무리 속에서
찬란한 지혜의 빛을 발한다.
- 법구경

지장불교 근본도량 **공덕원**

http ://www.gongdukwon.net

주 지 **효 선**
신도회장 **양반야등**

신도회, 지장회, 대원회
연화합창단, 솔바람산악회,
열린마음봉사회, 대원청년회,
백상어린이회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동 370-5
부산은행 5층
TEL 051)625-2253
FAX 051)625-3886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부설> 대자유치원 · 토월도솔유치원
진해 자은 도솔 어린이집 · 영축불교대학

주 지 **호 암 지 태**
신 도 회 일 동

■ 정법사:경남 마산시 추산동 65-2
☎ 055)246-8393, 245-6544
■ 대자유치원
☎ 055)245-0108, 242-0108
■ 토월도솔유치원:
경남 창원시 창남동 45-1번지 APT단지내
☎ 055)261-0832
■ 진해자은 도솔 어린이집:
경남 진해시 자은동 911번지
☎ 055)551-2112

경남 마산시 추산동 65-2
TEL 055)246-8393, 245-6544

대한불교조계종
해 운 정 사

조 실 **진제 대선사**
주 지 **지 성**
명예회장 **서석인**
신도회장 **정대원행**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410번지
TEL 051)746-2256, 4812
www.seon.or.kr

대한불교조계종
弘法寺

國際佛光會
韓國釜山協會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한나래문화재단

주 지 **深 山**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1220-1
TEL. 051)508-0345
FAX. 051)508-6561
www.busanbuddhism.com
E-mail: 5080345@hanmail.net

삼천배 참회기도 근본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감 로 사**

감로불교대학 - 기초/경전 과정 -

조실 지 관
회주 법 희
주지 혜 총
신 도 회 일 동

부산시 진구 전포2동 33번지
☎ 051)809-0926 / FAX 803-0188

불교자비사상 실천현장
용 호 종 합 사 회 복 지 관
양 정 재 가 노 인 복 지 센 터
부 산 시 서 부 노 인 보 호 전 문 기 관

■ 가릉빈가언어치료센터 ■ 용호치매노인주야간보호센터
■ 용호방문요양파견센터 ■ 용호어린이집
■ 양정노인주야간보호센터 ■ 용당어린이집
■ 무료급식(매일 400여명) ■ 노인대학(매일 200여명) 등

이사장 혜 총 관 장 이춘성
소 장 김영곤 부 장 서은해

TEL 051)628-6737 / FAX 628-6562

자비실천수행도량
미 용 사

회 주 **정 각**
주 지 **청 명**
법 사 **범 진**
노 전 **정 혜, 이 구**
신도회장 **광 운**(김동열)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1동 323-194
TEL 051)404-4300, 2100, 403-4848
FAX 051)403-4860
E-mail: jbw000@chol.net

부산불교회관은 도심포교를 위해 계획 설계된
미래 불교 도량입니다

부산불교회관 (부산시청 옆)
여여선원 · 여여정사

(부설) 신행학교 · 여여불교대학 · 수선회

선원장 **정여 스님**(범어사주지)

수 선 회 선 감 **도경 스님**
김해포교원 주 지 **도명 스님**
여 여 선 원 총 무 **효산 스님**
명예회장 **김 경 환**
신도회장 **서 정 혁**

신도회, 총동문회, 복지회, 선림회, 다도회,
삼천일기도회, 여여산악회, 여여선원카페,
지장회, 청년회, 청소년회, 어린이회,
기초교리반, 여여불교대학, 불교대학원

■ 여여선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157-1 부산불교회관
TEL 051)853-5486~7 FAX 051)863-6422
■ 여여정사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리 1058
TEL 055)355-9290~1
● 김해포교원 : 경남 김해시 삼계동 1416-1
TEL 055)311-2911~2

대 한 불 교 조 계 종
대광명사

<부설> 대광명 불교대학
<부설> 참마음 노인방문요양센터
참마음 간병사회
참마음 간병사교육원

주 지 **목 종**
신도회장 **신익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 1동
해운대로데오아울렛 B동 3층
TEL 051)742-7610
FAX 051)742-7606

부산불교사회복지
청소년기관협의회

후원 및 자원봉사는
부처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본 불교협의회 복지기관을 통해 해주십시오.

명예회장 **혜총**스님
회 장 **정여**스님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545-22
연락처 : Tel 532-0115~7 / Fax 531-0114
홈페이지 주소 : http://www.bswia.org

正法弘布를 위하여
進一步 登一段하는
釜山佛教實業人會
妙 光 禪 院

회 장 김윤환
고 문 강병중, 최 찰, 서춘석
박수복, 이상태, 하문원
부 회 장 조재원, 이근철, 임정웅
이달수, 황인관
감 사 안인성, 지호경
총무이사 이환길
재정이사 이학성
사업이사 이종환
관리이사 이규인
재정자문 김정웅

회원 및 마야부인회 회원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401-9
부산불교실업인회관 4층
전화 070-8133-9917 / 전송 051)818-9916

홍 제 사
황 령 선 원

선원장 **혜 국**
사부대중일동

• 매월(음) 초하루법회, 화엄경강의, 초사흘 신중기도
• 매주 월요일 다라니기도 : 오후7시~9시

■ 부산광역시 진구 전포3동 산 51-2
TEL 051)802-0130

대한불교조계종
영 주 암

[부설] 양정청소년수련관,
영주암유치원, 영주암어린이집

회 주 **불국 정관**
주 지 **범 산**
신도일동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1동 950
종무소 051)754-2210 유치원 051)754-6120
어린이집 051)755-2888 수련관 051)868-0750

대한불교조계종
문 수 사

문수불교문화원
회 주 **법 흥**
주 지 **지 원**
신도회장 **최묘각심**
신 도 일 동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 51-8
TEL 051)624-3754, 623-3648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금강암

주지 **정 만**
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
TEL 051) 508-4509 / FAX 508-4870

삼천불 봉안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정 토 사

주지 **산하 덕진**
사부대중일동

조계종 신도 전문 교육기관
정토불교대학
무료급식소:밝은세상
울 산 시 민 선 원

■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803-5

맑고 향기로움이 머무는
백옥 부처님 천불기도도량
봉화산 길 상 사

주지 **자 인**
신도일동

■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신촌마을 8번지
TEL 051)973-5224, 3076

대한불교조계종
운 수 사

사부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3동 산 5번지
TEL 051)317-5671

대한불교조계종
청 량 사

[부설] 마애뜨리아 불교대학

주지 **운 암**(석현엽)
신도일동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445번지
TEL 051)271-2774

대한불교조계종
사)생명나눔실천본부
부산지역본부

본 부 장 원법
부본부장 자인, 목종, 신익철
감 사 심산, 이경순
총무이사 해암, 문수용 기획이사 마나, 이욱태
재무이사 법안, 박계수 홍보이사 혜산, 김성수

이 사 일 동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1동 345-5번지 대성빌딩3층
TEL 051)853-0429 / FAX 051)853-0439
http://www.bslisa.or.kr
나눔은 습관이며 베풂은 수행입니다 !!

부산 여성 불자회

회 장 왕선자
부회장 정정자 박영옥
엄점선 박종남
총 무 하영조 손영순
재 무 김정식 서정례
감 사 김정숙 한순정

이사 · 회원 일동

■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1동 393-12 (불교회관 4층)
TEL 051) 817-3166, 3168(FAX겸용)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454-1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물로 청소 할 수 있는 제품



■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조립식평상**
· 1800×1030×400mm 가격 ~~250,000~~ → 할인가 190,000원
연결이동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설치가 간단한 평상
· 폴리프로필렌자재
기 둥 : 110×90×350mm 도 리 : 80×35mm
중간대 : 80×35mm 마루판 : 210×12



■ **벤 치**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판 (폴리프로필렌)
· 규격 1500×380×400mm 가격 ~~200,000~~ → 할인가 150,000

지 구 산 업
www.bangaro.com / 방갈로.com
TEL : (063)323-3011~2
FAX : (063)323-3010
계좌번호 : (농협) 462-12-314256 예금주 : 지구산업 곽영호



전 국 대 리 점 모 집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2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함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하택신회대사 현종기 육조대사의 법을 드날린 신간!
실증설 실증하지 않고는 설파할 수 없는 실증의 법문
방거사어록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말 밖의 말
선문염송16 세계 최대의 공안집 / 전 30권 중 16권
임제, 목주 선사편 공안참구의 길잡이
www.zenparadise.com
정맥선원 대원 선사님 법회 문의 02-3494-2460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선칠용맹 정진 안내

卍 선칠용맹정진 (19시간 정진)
卍 선칠가행정진 (14시간 정진)

◆ 결 제 : 2010년 5월 23일 일요일 오후 7시
◆ 해 제 : 2010년 5월 30일 일요일 오전 6시

선칠수행도량
묘 실 상 선 원
대전시 동구 중동 47-18
☎ 042)585-0778

불기 2554년(2010) 경인년 부처님 오신날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감 사

주지 **태 진**

사부대중일동

■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52번지
전화 041)857-8981~2
www.gapsa.org



이름다운 연꽃!
향기로운 연꽃!

집에서 키워 보세요.

보현선원에서 연꽃새싹을 불자님께 무료로 분양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꽃 등 밝히듯 내 마음도 연꽃같이 되길 발원하며 예쁘게 키워 보세요.

'5월 14일(음, 4월 1일) 오전 10시' 부터 선착순으로 나누어 드립니다.

(사월 초파일 연등 접수 합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4동 1184-3 국악고등학교 정문 앞 보현선원 02)579-3690

신간

대한국민필독서 박해일 원장 신간

인간농사! 미래의 인간형

- 나는 이 인농을 모든 사람들에게 꼭 알리고 싶다 -



나됨출판
값 10,000원

첫째날, 사람의 재발견
-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요

둘째날, 인간구조의 재발견
- 인간개혁의 실체

셋째날, 육체창조재료 재발견
- 먹이사슬에 대한 생명본질

넷째날, 우주의원소 6합법 재발견
- 물질의 생성과 변이

다섯째날, 육체창조기술 재발견
- 유전정보와 유전인자

여섯째날, 우주의 cycle 재발견
- 과거.현재.미래통찰과 예견

www.backmin.com
주관 : 백민문화원.연수원

도서구입 : 0502-012-1004
농협 401143-56-235764 백민문화원

인간개혁 지도자 연수회

2박3일간의 인간농사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라고 누가 그래요.
철부지란 말이 있다. 만사에는 때와 기한이 있는데 사람이란 인생의 그 철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생각은 꽃의 향기처럼 정보에 의해서 생겨나는 창조에너지이다. 그런데 그 생각을 실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보다 인간에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그 보다 더 숭고하고 거룩한 목적이 따로 있다. 나는 비록 이름 없는 촌부에 불과하지만 내 척박한 삶을 통하여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경험되어진 이것을 이 세대가 반복하지 않도록 꼭 일러주고 싶다.

육체, 정신, 생활을 변화시킬 혁신적인 인간개혁!
인류정신문화를 승화시킬 5000년 한국역사의 보배!

· 육체적 : 각색 질병으로부터 해방. / 치유본질과 의료개혁
· 정신적 : 깨달음이 상식이 되는 진리의 세상. / 정신개혁
· 공간적 : 생활 풍수지리 / 환경개혁
· 시간적 : 예견과 통찰의 역리(易理) / 미래창조
· 인간적 : 사랑,지혜,건강을 전제로한 재물,명예,권위의 분배
· 연수목적 : 21세기 인간농사. 불멸의 생명력 개발. 국내외 지도자양성
· 연수대상 : 제한없음

◆연 수 회 : 2010. 5. 27(목) ~ 29(토) 2박 3일 ◆연 수 비 : 50만원(재단설립기금)
◆장 소 : 충남서천 희리산 자연휴양림(서해안고속도로 서천IC에서 5분)
◆상담문의 : 0502-012-1004



소통·화합의 빛 세상 두루 밝히네

전통의 멋과 흥이 넘치는 등 잔치, 불기 2554년 연등회 연꽃축제가 장엄하게 회향됐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는 5월 9일 장충체육관에서 연등축제의 열기를 노래 · 합성으로 모은 흥겨운 어울림마당을 개최한데 이어 15일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전야제인 연등놀이를 개최했다.

같은 곳에서 16일에는 불교문화마당이 펼쳐졌다. 불교문화마당에는 시민 · 외국인들이 한국 및 세계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120여 개 부스가 설치돼 운영됐다.

동국대 운동장에서는 연등법회를 봉행하고 연등행렬을 준비하는 화합한마당이 열렸다.

봉축위원장 자승 스님은 개회사에서 "연등축제는 과거와 소통하는 동시에 오늘의 세상과 화합하는 축제"라며 "너와 나, 좌와 우, 남과 북이 갈라지고 대립해 원한 · 갈등만이 가득한 어두운 세상에 소통의 등, 화합의 빛을 널리 펼치자"고 말했다.

행진선언으로 시작된 연등행렬에서는 화려한 장엄등과 깃발들, 수 만개의 갖가지 등이 종로 거리를 수놓았다.

글=조동섭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장 자승 스님이 5월 16일 개최된 불교문화마당에서 관불의식을 하고 있다.





5월 9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어울림마당(왼쪽).
15일 연등놀이에서 연희단과 시민이 한데 어울려 축제의 한마당을 펼쳤다(위 · 아래).

봉 불기 2554년 부처님 오신 날 축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특출한 인재를 양성하는 강한 대학

VISION 1 인성/덕성 함양
VISION 2 외국어(영·중·일) 교육 특화
VISION 3 행정실습 교육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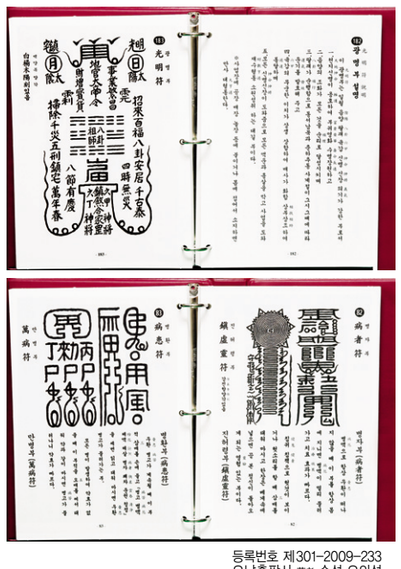
계룡산 기슭에 자리한 금강대학교
성낙승 총장 외 교직원 일동

부적총만법 符籍總萬法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간한 부적책으로 한 획도 빠짐없이 특수 제작한 코팅된 서적으로 한 장씩도 빼내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원본 책입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직접 선택하여 훼손하지 않으면서 바탕에 대고 쉽게 그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더욱 빠른 성취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정가 80,000원
입금계좌 : (예금주 : 오의성)
국민은행 347802-04-16456 / 농협 35602-03-231853

등록번호 제301-2009-233
오남출판사 펴낸 수성 오의성

오남출판사 서울 중구 장충동 1가 7-1 / 전화 02)2233-2050, 010-3034-7774





연등행렬에 환호하는 시민들.



불교문화마당에 참가한 불자들이 부처님을 그리고 있다(위)
제등행렬에 선보인 장엄등(아래).

5월 16일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개최된 연등축제(위).



연등 만들기에 참가한 외국인들이 연등을 만들며 즐거워하고 있다(오른쪽 · 아래).









군산 동국사 회주 벽송당 재훈 큰스님
영결 · 다비식 봉행에 대한 감사 말씀

귀의삼보하옵고
대한불교조계종 군산 동국사 회주 碧松堂 在焄 큰스님께서 5월 10일 세수 72세, 법납 54세로 입적하셨습니다. 이에 영결식 및 다비식을 5월 12일 고창 선운사에서 24교구 문도장으로 엄숙히 봉행했습니다.

먼 길을 직접 찾아와 주신 종단의 원로 대덕큰스님들과 제방의 큰스님들 그리고 사부대중께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올림이 도리인줄 아오나 지면을 통하여 인사 올림을 널리 惠諒하여 주시길 앙망합니다.

앞으로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더욱 수행 정진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기 2554년 5월 12일

벽송당 재훈 큰스님 49재 일정

	장 소	날 짜
초재	동국사	5월 16일
2재	보현사	5월 23일
3재	성불사	5월 30일
4재	미소사	6월 6일
5재	도솔암	6월 13일
6재	동국사	6월 20일
49재	선운사	6월 27일

■ 문의 : 선운사 063)561-1422
군산 동국사 063)462-5366
성불사 063)445-3266

大韓佛教曹溪宗 東國寺 會主 碧松堂 在焄 큰스님 門徒一同

상좌 : 종명, 종원, 종현, 종고, 종상, 종범, 종일, 종인, 종진, 종광, 종해, 종걸, 종수 손상좌 : 자운, 혜공, 자인

“동백꽃처럼 뒷모습이 아름다운 삶 살아야”

제주 올레길 원조 카멜리아 힐

양언보 대표

5월 어느 날 이른 아침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에 위치한 카멜리아 힐(Camellia Hill · 동백 언덕)을 찾았다. 카멜리아 힐은 가수 소녀시대 윤아가 청순함을 발산하며 화장품 광고를 찍은 장소로 더 유명해진 곳이다. 카멜리아 힐은 5만여 평에 달하는 부지에 전 세계 560여 종 6000여 그루의 동백나무가 식재돼 있다. 까멜이라 힐은 양원보 대표의 원력과 신심으로 준비만 26년이 걸렸다. 1984년부터 시작된 동백나무 심기는 2008년까지 계속됐다. 양언보 대표의 정성과 열정이 담긴 카멜리아 힐은 2008년 11월 22일 세상에 첫 선을 보였다.

양 대표는 “국내에 동백꽃 전문가가 없어 직접 일본 · 중국 · 유럽 등 세계 80여 나라를 돌아다니며 묘목을 구입하고 공부했다”고 말했다.

최근 제주도 올레길(제1~18길)이 유명세를 올리며 많은 관광객을 제주로 유치하고 있다. 올레는 ‘올란길’이라고도 하며 골목길을 의미하는 제주도 사투리이다. 하지만 올레의 명칭이 양언보 대표의 카멜리아 힐에서 유래됐음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양언보 대표가 카멜리아 공원을 조성하던 당시 사단법인 제주올레 서명숙 이사장이 방문했다. 서 이사장은 ‘올레’라는 이름을 쓰겠다는 제안을 했고 제주도 토박이였던 양언보 대표는 이를 흔쾌히 허락했다.

양 대표가 동백을 좋아하게 된 것은 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8년 쯤입니다. 군을 제대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지 막막하더라고요. 가난이 사방을 막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 혼자 우연히 계곡에 갔습니다. 털썩 앉아서 하염없이 계곡만 보고 있는데 절벽을 뚫고나온 동백나무와 그 나무에서 피어난 동백꽃을 보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의지할 곳이 없어 정말 힘들었지만 그 곳에서 동백을 보고 사생결단을 했습니다.”

양 대표는 대학을 마치고 20여 년간 감귤, 고구마 전분공장, 건설 · 유통 · 무역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해왔다. 때로는 시련이 있었지만 매일 새벽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양 대표는 어려울 때 힘을 준 부처님 은혜에 보답코자 현재 제주 북성사 신도회장도 맡고 있다.

양언보 대표는 1984년 당시 큰 수익을 내던 감귤나무를 베어내고 동백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다들 미쳤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동백에 흠뻑 빠진 뒤였지요. 바위틈에도 피어나는 생명력, 눈 속에서 피어나고 눈 위에 떨어진 다음에도 아름다움을 갖는 꽃은 나에게 시련을 이겨내도록 만들고 삶의 진리를 전해 주었으니까요.”

내친 김에 그동안 사업해 번 돈을 몽땅 ‘동백 언덕 만들기’에 쏟아 부었다.

카멜리아 힐을 조성한 양언보 대표는 아내와 함께 동백차(茶)도 2종을 개발했다. 식용유로 개발한 동백기름은 특허도 받았다. 최근에는 카멜리아 힐의 성공사례를 배우러 일본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이다.

“동백꽃은 ‘겨울 꽃의 여왕’이지만 겨울에만 피는 꽃은 아닙니다. 꽃피는 시기에 따라 추백(秋柏), 동백(冬柏), 춘백(春柏)으로 나눠집니다. 동백은 겨울에도 푸르름이 있고 눈 속에서 꽃을 피워내는 강인함이 있습니다. 동백꽃은 ‘중도의 꽃’입니다. 활짝 피었다가 미련 없이 ‘툭’ 떨어지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요.”

그의 ‘동백 예찬’은 계속됐다.

“그렇게 떨어지고 나서도 일주일 정도 싱싱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동백은 떨어진 모습을 사진 찍는 유일한 꽃이에요. 동백은 뒷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불자들도 동백꽃처럼 뒷 모습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카멜리아 힐을 둘러보는 관람객들은 동백꽃 하나하나를 신기해했다. 양언보 대표는 카멜리아 힐의 곳곳에 숨은 보물을 소개하며 자연이야 말로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며 극찬했다.

“식물이야 말로 이타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양이 있어서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나무는 우리에게 좋은 공기를 줍니다. 우리를 숨 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상생의 가르침이 위대하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생물이 부처님 가르침을 증명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양 대표는 동백과 인생에 대한 철학적인 이야기도 늘어놓았다.

“동백은 자신이 언제 가야하는 줄을 알고 있는 꽃이에요. 그래서 뒷모습이 아름답죠. 인생은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인생은 하루를 살더라도 보람을 느끼는 삶입니다. 비가 오면 나무가 잘 크듯, 시련을 받아들고 견디면 사람은 성장합니다.”

양언보 대표는 불자들에게도 한마디 남겼다.

“제가 생각하는 불심은 ‘남을 편안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불자로서 무엇을 하면서 상대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불자라면 조금 천천히 생각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부자연스러움, 억지스러움은 빼고 서로 화합하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글=박선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양언보 대표가 카멜리아 힐에 핀 목단(모란) 앞을 지나가고 있다. 양 대표는 “목단은 부귀를 상징하는 꽃으로 조선시대 왕비들의 병풍에 많이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 카멜리아 힐



까멜리아 힐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동백 품종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카멜리아는 동양에서 건너간 동백꽃을 18세기 스웨덴 식물학자 칼 폰 린네가 붙인 이름이다. 동백의 꽃말은 ‘신중 · 허세부리지 않음’으로 알려져 있다.

까멜리아 힐(Camelia Hill)은 현대인의 급박한 삶에 여유와 자연에서 휴식하는 즐거움을 주기 위해 조성한 공원이다. 동백 언덕을 뜻하는 카멜리아 힐은 전 세계 동백 560종이 식재돼 있다. 까멜아 힐의 동백 올레 길에는 사상까 · 유럽동백 · 아태동백 · 야생화 · 홍가시나무 · 후박나무 올레가 펼쳐져있다. 또 지하 300m 암반수를 맛볼 수도 있다. 이 외에도 갤러리 · 카페가 있어 동백을 주제로 전시된 다양한 작품과 동백 상품을 만날 수 있다.

동백꽃은 9월 중순부터 피기 시작해 3월에 만개한다. 늦게 피는 꽃은 5월까지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향기 나는 동백이 나지 않지만 카멜리아 힐에는 향기 나는 동백이 6종 있다. 동백의 향기를 맡고 싶다면 11월에 카멜리아 힐에 가야 한다.

카멜리아 힐: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271 번지 (064)792-0088

봉 法 대한불교 법성종 축

종 정 장허 덕암
총무원장 능허 혜운

교육원장 설허 만원
포교원장 상허 재령

총무원부원장 도원
중앙종회부의장 설봉 성인

포교부장 보현 조보현
재무부장 옥천 류옥순
총무부장 백봉 성관

원로원장 춘광 법주
중앙종회의장 일허 혜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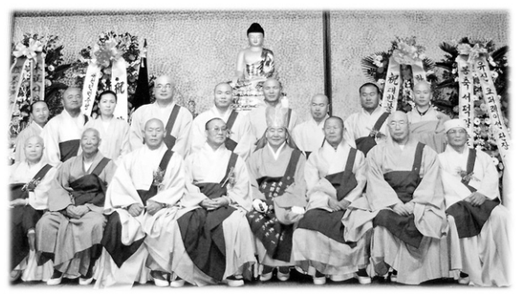
문화원장 락허 혜운
규정원장 조허 혜윤

교육원부원장 법정
포교원부원장 보안 현철

교육부장 일초
문화부장 문순재


종 정 장허 덕암


총무원장 능허 혜운



대한불교 법성종 총무원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81-14 TEL 02)747-2202, 02)762-2459

佛紀2554年 庚寅年 Buddha's birthday |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이 세상에 태어나 보람된 일을
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 법구경

봉 부처님 오신날 축

초파일 연등 접수함

5년차 전액 (회향)

회 주 진귀
주 지 현정 합장

신 도 회 장 사리화 보살 외 신도일동
유마거사회 송천거사 외 회원일동

화엄경전문강원
종교법인 화엄불교대학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3동 861번지 / 전화 053)764-4962
홈페이지 : http://www.jingwi.co.kr / (화엄불교대학원)

대한불교조계종

보 경 사

회 주 법 달
주 지 정 은
총 무 현 담
재 무 정 여
신도회장 김경희

사부대중일동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2
TEL 054)262-1117 FAX 054)262-0149

대한불교천태종

황 해 사

주 지 진 덕
신도회장 김길환

신도대중 일동

■ 경북 포항시 북구 학잠동 산20
TEL 054)277-3611 / FAX 054)277-3644

대한불교조계종

원각사 해동선원

선원장 태 응

사부대중일동

■ 경남 산천군 금서면 평촌리 540-5
전화 055)973-9554
banyob@naver.com

대한불교법화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

종무원장 혜 각

사부대중 일동

● 부전스님, 행자승 모집합니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51-102
전화 053)766-7231 팩스 053)766-7232

대한불교조계종

용 연 사

「비슬산 천년고찰
부처님 사리모신 적멸보궁」

회 주 성문
주 지 활중

신 도 일 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 882
전화 053)616-8846 팩스 053)616-0408

불교종단협의회 상임이사종단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대구교구

교구원장 백운 고봉
부 원 장 도정

교구종회의장 만 성 중앙종회의원 도 정
중앙종회의원 지 공 총 무 국 장 무 경
규 정 국 장 무 상 회 국 장 법 광
감 사 무상심

법성. 혜일. 진송. 법인. 지현. 무법. 명신. 지월
용암. 경덕. 지용. 성수. 혜주. 석월. 무상. 금용
혜정. 석원. 효연. 법지. 자광. 고성. 정암. 자행
보리심. 보명화. 대법화. 묘법심

입종안내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홍포하고 뜻을
함께하실 종도들을 모집합니다

■ 종무소 : 대구광역시 동구 용수동 439 달마선원
전화 053)986-7134 / 팩스 053)986-7135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신도회 대구광역시 신도회

신도회장 류병선

(주)영도벨벳 대표이사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2동 665번지
반월당 삼정그린코아 상가 121호
전화 053)253-2886
팩스 053)252-9485

대한불교조계종

보 리 사 보리불교대학

학 장 증 악
대중일동

※매주 목요일 오후2시
신묘장군대다라니독송법회

(문화강좌안내)
선체조/다도/어린이 천자문 교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958-10
TEL 053)522-7611 FAX 053)522-7612

대한불교천태종

대 성 사

주 지 김도산
총 무 김정도
신도회장 윤수현

• 부설
동해유치원 053)652-5760
대구금강불교대학 053)624-0133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520-3
TEL 053)624-0542
FAX 053)623-0265
홈페이지 www.daesungsa.or.kr

"생활불교 실천불교"

대한불교진각종 대구교구청

교구청장 혜 명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 3동 584-1
TEL 053)255-1450,1411
FAX 053)252-9703
홈페이지 www.jingak.or.kr

경북 성주군 사암 연합회

고 문 지장사 진공
회 장 천불사 법원

총 무 지안사 지안
기획실장 장산사 지원
포교부장 길조암 보현
조직부장 자은사 도철
감 사 삼학사 대원
약사암 홍제
회 원 : 보광사 지영
대승정사 묘덕

■ 경북 성주군 벽진면 매수리 775
전화 054)932-8443

대한불교조계종

송 림 사

주 지 혜 성

대중일동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61-6
전화 054)976-8116
팩스 054)976-6802

대한불교조계종

파 계 사

조실 청운 도원
주지 운봉 법광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7번지
전화 053)984-4550

佛紀2554年 庚寅年 Buddha's birthday |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자신을 어리석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이미 어리석은 이가 아니다.
- 법구경

대한불교조계종
승보종찰 송광사
대구포교원 반야선원
※(부설)반야불교대학
학장 효종
신도회일동

문화강좌 : 사찰요리, 다도강좌,
영어강좌, 서예교실 등

명산 효종 스님의 墨書 詩畵展
'부처님 오신날 맞이 등단기념 서화전'
기간 : 5월 11일 - 23일까지
장소 : Gallery (네루다의 시처럼)
전화 : 053)756-6648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1동 241-3번지
(황금고가사거리 옆)
전화 053)763-1249 / 010-9238-1689

대한불교조계종
보 문 사

주지 도성

※본 도량에서는 현재 삼천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인1불 기도도량에 동참하시어
부디 선근공덕 지으시고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1동 804-20번지
(범어네거리 한도맨션 건너편)
전화 070)7789-5578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교구종무원

종무원장 대원사 청운
부 원 장 상덕사 송암
총무국장 삼룡사 혜운
교무국장 지장사 준범
재무국장 보광사 원심
사회국장 보현암 무정
교임국장 일성사 덕현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9동 629-21
전화 053)622-3702

高靈 기와
(주) 高靈청기와

(고령기와는 명품기와 만을
만듭니다)
KS 表示許可
중소기업우수제품 인증工場

代表理事 金段東

■ 공장 : 경북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350
전화 054)954-8000(代)
팩스 054)954-5335
www.rooftile.co.kr
e-mail:gr@rooftile.co.kr

합동석물(주)

석재가공 석공사
전문건설업체

대표 탁희열

■ 경북 고령군 다산면 나정리 714-10
전화 054)955-8200~1

보건복지부지정
(사)생명나눔실천본부
대구지역본부

'자원봉사자,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본부장 박종명
건강한 삶!
편안한 삶!
행복한 삶!
나눔의 삶!

장기기증, 헌혈지원사업,
환우지원사업, 결연사업

■ 후원계좌안내
대구은행 188-13-073651
농 협 301-0031-1553-61
국민은행 805501-01-375024
예금주:생명나눔실천본부 대구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522(구. 신암동)
TEL 053)945-0007 / FAX053)945-0008

지산치과의원

원장 송준기

「가족같은 병원, 환자 중심의 병원」

• 지산치과의원 원장
• 치의학 박사
(임프란트, 보철학 전공)
• 단국치대 임상교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 2동 1188-2
전화 053)782-0022 팩스 053)782-2875

대한불교조계종
동화사 직할 포교당
보 현 사

불기 2554년(2010) 경인년 부처님 오신날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주지 각만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2동 932-35
TEL 053)431-5400

대한불교조계종
최정산 광덕사

주지 운성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190-2
TEL 053)763-0068

대한불교조계종
월 인 사

주지 포전 혜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옥분리 605
TEL 053)767-3971

대한불교조계종
장 암 사

주지 도명

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산 83
TEL 053)762-3800

대한불교조계종
매봉산 고성사

주지 고성

■ 경북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 755
TEL 054)977-0962

대한불교조계종
화악산 적천사

주 지 정광
신도회장 변숙현
반야회장 정광심
구도회장 양해성
신도일동

■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리 981
TEL 054)373-0307

대한불교조계종
최정산 남지장사

주지 선공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록 2리 865
TEL 053)768-9920

구미 선산 비봉산
서황사(구, 죽장사)

주지 명효
총무 견진

대중일동

■ 경북 구미시 선산읍 죽장리 479-2
전화 054)481-2736

대한불교조계종
청량선원

부설 : 아행가요가센터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1-17
전화 : 서울 02)599-8150
전화 : 대구 053)981-3553

대한불교조계종
감천사

■ 대구광역시 동구 진안동 151-1
TEL 053)982-0562 / FAX 053)983-6668
사회복지법인 감천복지재단
후원계좌 : 대구은행 179-04-153377-001
(예금주: 감천복지재단)
TEL 053)986-5522~3 / FAX 053)986-5524
www.gamchun.com

대한불교조계종
금 용 사

(금용복지회관)

주지 혜선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 1동 172
TEL 053)628-5404

대한불교조계종
관 운 사

주지 지산

■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526
TEL 054)931-7777,933-0808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지 임대

■ 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939-1
TEL 054)247-2729(팩스 겸용)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천년기도도량 덕 사

주지 연암

신도회 일동

■ 경북 청도군 화양읍 소라리1
TEL 054)372-7640

대한불교조계종
성 화 사

주지 진공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1동 521
TEL 053)625-9030

佛紀2554年 庚寅年 Buddha's birthday |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삶에서 나보다 낫거나 동등한 이를
만나지 못했다면 차라리 홀로 가라.
- 법구경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성불산 **안 일 사**
주지 선광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6동 산225
TEL 053) 655-0225
부설 반야유치원 TEL 053) 655-0223

대한불교조계종
서 봉 사
주지 경희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439-2
전화 053)471-4812 팩스 053)471-4813

대한불교조계종
최 정 사
주지 금봉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주동리 302번지
전화 053)767-4860

대한불교조계종
성주 **취운향당**
주지 능혜
■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845
TEL 054)933-6371~2 / FAX 054)933-6373

대한불교조계종
고 방 사
주지 성현
■ 경북 김천시 농소면 봉곡리 485
전화 054)431-6822, 6823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비슬산 **은적사**
은적사 부설 룸비니 유치원
주지 허주
신도회장 황복덕화
합창단장 강정심화
봉사단장 문청량심
부설 룸비니유치원 원장 이수련화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3동 1572
TEL 053)653-1572 FAX 053)653-2765

대한불교조계종
법 륜 사
주지 법성
■ 경북 영덕군 영덕읍 덕곡1리 171
전화 054)734-1258

청도 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정광
부회장 법춘
회원일동
■ 경북 청도군 금천면 박곡리 794
TEL 054)372-3876 / FAX 054)373-8505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산 **통 천 사**
주지 선지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 3-1(아양교옆)
TEL 053)941-3503, 053)953-4481

대한불교조계종
석 가 사
주지 경암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 97-3
TEL 053)791-8137
FAX 053)792-0784

마음청정 · 국토청정
대한불교 조계종 **보 현 암**
주지 선진
사부대중일동
(보현다도회, 일승회,하루헌 카페, 영남불교문화연구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257
전화 053)767-0274 팩스 053)762-8950
휴대폰 011-534-8950

대한불교조계종
영천 포교당 **청 량 사**
주지 천은
(영천시사암연합회 회장)
■ 경북 영천시 교촌동 237
전화 054)334-3526

대한불교조계종
연화산 **옥 천 사**
사부대중일동
■ 경남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408번지
TEL 055)672-0100
FAX 055)672-0481
홈페이지 www.okchensa.or.kr

대한불교조계종
법 성 사
주지 부용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6동 386-3
전화 053)553-5371

대한불교조계종
망 월 사
주지 동진
사부대중일동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달서1리 421-4
TEL 054)972-2700

대한불교조계종
대 승 사
주지 석지형
신도일동
■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458-1
TEL 052)298-5865 · 6623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 · 경북불교대학
"나와 이웃과 자연이 함께하는 삶"
학장 돈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 444
TEL 053)792-1353, 1181 FAX 053)791-4951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구 룡 사**
주지 효재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 2리 328
TEL 054)975-9045, H·P 011에9045또9045

대한불교조계종
원 각 사
주지 석대혜
신도일동
"부처님은 영원한 동반자이시며"
-저자 석대혜-
카페 : 선산 원각사
■ 경북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159
TEL 054)481-2363

재단법인 선학원
기 원 정 사
주지 우록
■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1152-5
TEL 053)982-9329 / FAX 053)983-1698

대한불교법화종
천 불 사
주지 법원
(성주사암연합 회장)
■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32-1
TEL 054)933-7881

(사) 대한불교 화엄선종
자 은 사
주지 도철
■ 경북 성주군 용암면 문명1리 438-2
TEL 054)933-6705

대한불교화엄조계종 대구교구종무원
덕 안 사
종무원장 종범
주지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1동 129-11
TEL 053)656-4144

대한불교선각종
영천보현산 **등 명 사**
조실 석정암
주지 석혜명
신도회장 이선혜
신도일동
■ 경북 영천시 화북면 오동리 603-2
TEL 054)337-4572(등명사)054)281-7712, 7719(포항자명선원)
H.P 010-5506-944 8

대한불교의왕종
대 광 사
종주 법문(오현권)
■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 217-16
TEL 053)421-8417~9

운 주 사
주지 약천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 74-9
TEL 053)951-0002~3 (주지실)

대한불교서각종 총무원
용 궁 사
총무원장 원각
주지
※각 지역에서 함께 하실
종무원장을 모십니다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5동 1158-1
TEL 053)358-1029

대한불교원효종
관음기도 참회도량 **대 각 사**
주지 대각
신도일동
■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 1동 325-3
전화 052)296-0908

관음기도도량
까치산 길조암
주지 보현
■ 경북 성주군 용암면 본리 3리 471
전화 054)931-5204

한국불교전통조계종
팔공산 봉 경 사
봉경통선원
주지 아산
대중일동
■ 경북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 산 183
TEL 053)857-5686 FAX 053)853-5686







❶ 흰 옷을 입은 스리랑카 불자들이 불전 앞에 꽃 공양을 하고 합장하고 있다.
❷ 스리랑카에서는 '베삭 쿠두(Vesak koodu)'라 불리는 불법승을 상징하는 형형색색의 랜턴을 가로수나 집 앞에 걸어놓는다.
❸ 홍콩의 모녀가 베삭데이에 아기부처님에게 물을 뿌려주고 있다.
❹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광장에서 베삭데이를 기념해 동양인 스님들이 아기부처님에게 물을 뿌려주고 있다.
❺ 인도네시아 스님들이 꽃 장식을 한 양초를 들고 봉축행렬에 참여하고 있다.
❻ UN 베삭데이를 맞아 각국의 어린이불자들이 유엔본부에 모여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
❼ 말레이시아에서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새를 풀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한 남자가 새장을 열어 새들을 풀어주고 있다.
❽ 싱가폴에 있는 한 사찰의 청년 불자가 연등을 만들고 있다.

부처님탄생일을 기념하는 날이 돌아왔다. 청명한 신록의 계절로 접어든 5월은 모든 생명체에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어준다. 부처님은 이런 생명력 넘치는 날 탄생했다. 불교국가들은 부처님 탄생을 축복하기 위해 성대하고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부처님의 탄생일은 네팔,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인도 등에서 베삭데이(Vesak Day)로 불리우며 1년 중 가장 큰 축제일로 여겨진다.

스리랑카와 말레이시아에서는 'Vesak(또는 Wesak)'이라 부르고, 태국은 'Visakah', 인도네시아는 'Waisak', 캄보디아는 'Visak'인데 그 의미는 모두 베사카(Vesākha)에서 유래한다.

베사카는 빨리어와 산스크리트어의 'Vaiśākha'에서 유래 됐다. 베사카의 정확한 날짜는 각국의 서로 다른 전통에서 사용되는 음력에 따라 변천됐다.

부처님의 탄생일은 전 세계적으로 세 가지 기념일이 있다. 동아시아의 경우 중국식 달력을 사용해 음력 4월 8일을 부처님오신날로, 남아시아 · 동남아시아의 불교국가에서는 음력으로 만월인 4월 15일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은 서양력을 사용해 4월 8일을 부처님오신날로 정하고 있다.

국제연합(UN)은 1998년 스리랑카에서 개최된 세계불교도회의의 안건이 받아들여져, 양력 5월 중 보름달이 뜬 날을 석가탄신일로 정해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UN 베삭데이는 해마다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축하행사를 하고, 동시에 불자들이 가장 많이 집중돼 있는 아시아 유엔센터인 방콕에서 전 세계 불자들이 함께 모여 회의와 축하문화행사를 진행한다.

스리랑카

국민의 80%이상이 불교인 스리랑카는 베삭(Wesak)이라 해 음력 4월 15일 당일과 그 다음날을 공휴일로 제정해 부처님의 탄생일 · 성도일 · 열반일을 모두 함께 기려 성대한 축제를 펼친다. 스리랑카의 베삭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며 문화축제와 동시에 매우 경건하고 종교적으로 진행된다. 베삭 주일 동안 술과 고기를 파는 것이 금지돼 있다. 특히 이 기간 중 2일간은 모든 술집과 도살장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법으로 만들었다.

모든 신도들은 흰 옷으로 갈아입고 종일 절에서 보낸다. 흰옷은 청정과 순결을 의미한다. 신도들은 기름등 · 꽃 · 향 · 초 등을 공양으로 올리며 스님들에게 필요한 가사, 비누 등 생활용품도 공양으로 올린다. 스님들은 종일 절에서 법문을 하거나 토론회를 갖고, 신도들은 명상과 빨리어 경전을 암송한다.

또 축제 때 불치(부처님 치아)를 모신 사리함이 공개되며, 108마리의 코끼리 행렬이 장엄하게 펼쳐진다. 신도들은 집 대문에 커다란 아치형의 장식을 꾸미고 밤에는 네온사인 장식을 해 화려한 축제분위기를 조성한다.

미얀마

인구의 85%가 불교신자인 미얀마의 부처님오신날은 '까송쉬우 내돈'이라고 하며 그 의미는 '깨끗한 물을 보리수에 끼얹는다'는 뜻이다. 신도들이 복을 짓기 위해 은으로 된 그릇에 물을 길어다 관욕시키고 촛불을 탑 주변에 켜놓고 소원을 비는 행사를 연다.

관욕식을 끝낸 미얀마인들은 대문을 모두 열고 길가는 사람을 위해 차, 과일, 담배 등을 무료로 나눠준다.

태국

인구의 97%가 불자인 불교국가 태국은 음력 4월 15일 베사카(Vesak)를 국경일로 정해 35일간 국기와 불교기가 게양되며 각 사원의 법회 실황을 TV와 라디오를 통해 보도한다. 베사카에 참석한 불자들은 등이나 촛불을 켜들고 금종이를 사서 불상에 붙이며 각자의 소망을 기원한다. 특히 태국 국민들이 부처님오신날에 가장 정성을 드리는 일은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 음식, 꽃에서 치약, 휴지 등에 이르기까지 일용품을 공양하기도 한다.





일본

전체 국민의 약80%가 불자인 일본은 동양에서 유일하게 양력 4월 8일 '하나마쓰리(花祭 · 꽃의 제전)'이라 해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한다. 각 사찰에서는 대웅전 앞에 봄에 피는 갖가지 꽃으로 당우를 만들어 탄생불상을 안치하고 단차(아미차, 설탕을 첨가하지 않아도 단맛이 나는 차)로 천불게를 독송하면서 아기부처님을 목욕시킨다.

대만

국민의 약70%가 불자인데 비해 한국과 같은 연등행사는 없다. 독경 위주로 조용히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한다. 종파에 따라 양력 4월 8일과 음력 4월 8일을 부처님오신날로 봉축하고 있다.

백화유로 불을 밝히고 꽃, 과일, 다과공양과 방생법회 및 양로원, 병원, 극빈자, 탁아소들을 방문해 대중공양을 베푼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의 1500년 역사를 지닌 스와얌무 사원에서 아침부터 대법회가 시작된다. 음악과 춤 속에 탑돌이 행사가 진행되고 세존의 일대기를 그린 팔상도가 전시된다. 오후에는 왕과 왕족 및 국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 진신사리를 친견하는 봉축행사가 있고 저녁에는 봉축점등식이 열린다.

홍콩

음력 4월 8일이 부처님오신날인 홍콩에서는 사찰 부속학교가 많아 강연회, 세미나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사찰에서는 신도 참배와 철야정진 등의 참회의식뿐 별다른 행사는 없으며 각 사찰별로 간소하게 지낸다. 그중 많은 신도들이 세계 최대의 청동좌불이 있는 란타우 섬의 보림사를 방문한다.

말레이시아

이슬람국가로 알려져 있는 말레이시아는 불자수가 전체 국민의 20%정도지만 국가 공휴일로 정해 봉축행사를 진행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중국계 화교들이 불자의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의 민속이 스며들어 있다.

인구 45만 명인 말라카에서만 1만 명이 넘는 불자들이 갖가지 연꽃등 · 탑 등과 장식물을 준비해 제등행렬을 펼치는데, 용(龍)을 특별하게 여기는 중국인들답게 거대한 용 장엄물이 등장한다.

제등행렬에는 시내 중고등학교의 밴드가 동참해 참가자들의 흥을 돋우고 분위기를 고조시키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화교 학교뿐 아니라 가톨릭계 학교에서도 참여해 종교 화합에 앞장서기도 한다.

사찰에서는 해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새를 풀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때로는 이 방생이 오히려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살생이 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불기 2554년(2010) 경인년 부처님 오신날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한국 근본 불교 조계종

명예종정 만운 종정 일송
상임부종정 법정 부종정 혜성, 현공

■장로회의
의장 지선 부의장 덕암
의원 원진 우천
성월 현공
만운 의륜
법정 월주
태종 해원
성원 정훈
혜성 일송
해주 혜공
수혜 혜원

■중앙종무위원
총무원장 의륜
상임부원장 청광 총무부원장 법운 포교원장 청광
교육원장 수혜 사정원장 해법 감사원장 해석
문화원장 상연 수선원장 일진 비구니원장 해인
총무부장 진법 교무부장 태산 재무부장 무일
규정부장 무진 감사부장 법경 문화부장 일월
의전부장 석암 사회부장 법정 사업부장 대성
포교부장 수덕 사서부장 동봉

■중앙종회의원
의장 혜원 부의장 법정
의원 의륜, 청광, 수혜, 해법
해석, 상현, 일진, 해인
진법, 태산, 무일, 무진
법경, 일월, 석암, 법정
대성, 동월, 도암, 법성
동천, 해곡, 학용, 해월
일도, 동법, 서우, 법완
법륭, 석일, 왕인, 상법
법원, 동봉, 수덕

◆ 총무원 :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390 불탑사 전화 033) 671-7751 / 011-352-7751

佛紀2554年 庚寅年 Buddha's birthday |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집 짓는 이는 나무를 잘 다듬고
현명한 이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다.
- 법구경

개원사 심녕총림
개 원 사
주지 문공
■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196
TEL 053)981-0995

꿈과 희망을 꾸는 인연의 世界
대한불교법화종
수 참 사
주 지 영 암
신도회 · 관음회원 일동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 6동 640-5
TEL 053)561-3129

대한불교일붕선교종
팔공산 선 원 사
주지 성봉
■ 경북 칠곡군 동명면 득명리 185-5
TEL 054)975-6976

대승불교관음종
석 송 사
주지 법장
■ 경북 영주시 문수면 월호3리 838
TEL 054)636-2201

古佛 전법도량
비슬산 보성선원
주지 한북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1동 1952-1
TEL 053)653-7558/FAX 053)653-7560

大韓佛教禪密宗
극 락 사
주지 김보현
대중일동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 1동 188-7
전화 054)976-0405

동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용 불 사
조 실 월운 성도
총무원장대행 만학
총 무 부 장 청명
위 원 관법
사부대중일동
■ 경북 구미시 사곡동 603-243
TEL 054)465-4658

대한불교조계종
향 림 사
주지 정관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산1번지
전화 053)767-7504

대한불교禪조계종
대각사 : 경북 청도군 이서면 칠곡리 165번지
일지암 포교원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663-13번지
일각 혜동 합장
■ 054)373-5830, 053)625-5830
010-6486-5830

대한불교관음종
운 람 사
주지 등오
■ 경북 의성군 안평면 신안리 806
전화 054)832-6696

장 산 사
주지 지원
■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3리
TEL 054)932-9847

(불교용품전문)
삼 보 불 교 사
현진 이한득 합장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2동 932-14
전화 053)257-7578. 256-0443
휴대폰 011-526-4058
www.sambobulgyo.co.kr

동성한약방
■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3가 47
전화 053)252-6411
053)255-0008

부처님과 인연을 맺는곳 자비와 지혜를 배우는 전법도량
학교법인 능인학원
능인중·고등학교
이 사 장 종 광
법인사무국장 일 릉
중 교 장 김영현
고 교 장 양근식
■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85 (지산동 800)
TEL 053)764-0807

DCI(디씨아이)열처리
대 표 김상진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345-7
포항 철강4단지 3B/7L
전화 054)276-1072 (열처리), 276-1167
팩스 054)276-1168 휴대폰 011-503-9196

수행과 회향 자정과 혁신의 공동체
참 여 불 교
대구·경북 재가연대
대 표 김 주 동
■ 대구시 중구 남산2동 536번지 동아빌딩 4층
전화 053)427-0108 / 팩스 053)254-9348

대한불교조계종
원 만 사
원만사 부설 유치원
주 지 법 홍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708
TEL 053)257-1914

대한불교조계종
대 해 사
"도(道)에 이르는 길은 어렵지 않나니
오직 간택함을 싫어 할 뿐이로다.
다만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통연히 명백하리라"
-신심명 중에서-
사부대중일동
■ 경북 경산시 대동 160-6
전화 053)818-4055 팩스 053)294-0408
www.daehaesa.org

팔공산 갓바위 앞산
용 주 암
주 지 韓成鶴
사부대중일동
■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동 산 44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성지 휴휴암
사부대중일동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1번지
TEL 033)671-0093

가장 행복한 공부로의 초대
월암 스님과 함께하는
행복禪수행학교
참선교육전문도량
• 강좌별로 수시 모집합니다.
• 강의시간 : (주간) 오후 2시
(야간) 오후 7시 30분

대한불교조계종
용두산 미타선원
주 지 하 림 합장
사 부 대 중
부산시 중구 광복동 용두산공원
에스컬레이터 첫 번째 하차점
TEL 051)253-8686~8

부처님 오신날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대한불교 조계종
혜 원 정 사
고산장학회 · 혜원불교대학
조 실 고 산
주 지 원 허
사부대중일동
사회복지법인 혜원
선재어린이집
혜원가정봉사파견센터
영도구노인복지관
5월 28일 차문화 축제 오전 10시부터
5월 29일 혜원백일장 오전 10시
혜원음악회 오후 5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 4동 1113-1
TEL 051)866-7771
FAX 051)866-7777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 동림동문회
회 장 무 상
회원일동
사무국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동 370-5 부산은행 5층
TEL 051)900-3606
E-mail:donglimdongm@naver.com

대한불교조계종
내 원 정 사
주 지 단옹정련
● **석암장학회** 051)243-0692
● **내원정사** 유치원 051)244-0691
● **사회복지법인 내원**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051)264-9033
내원어린이집 051)264-9031
부산서구시니어클럽 051)244-6700
부산사하지역자활센터 051)263-6697
하단어린이집 051)206-3722
중증장애인요양시설반야원 055)632-1854
마하병원 055)633-3000
●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
함지골 청소년 수련관 051)405-5223
구 덕 청소년 수련관 051)240-4681
중구청소년 문화의집 051)247-8425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산3-2번지
TEL 051)242-0691 / FAX 051)248-0691

신발의 행방

그의 전성기는 태어난 그 순간 뿐이었다

고지연 시나리오 작가



삽화 · 김홍인

지금 하려는 이야기는 아주 오래 전에 살았던 한 남자와 그의 신발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이야기'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전. 얼마나 오래 됐냐고? 그게 궁금한 당신이라면 이 이야기는 듣지 않아도 좋다. 그렇게 오래 된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고? 그게 궁금한 당신이라도 이 이야긴 듣지 않는 게 좋겠다. 어차피 알 수 없을 테니까. 당신이 짐작도 못할 만큼 오래된 이야기이고, 내게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경로가 있다. 그리고 그 경로는 당연히 비밀이다. 며느리에게 고추장 만드는 비법도 안 알려주는 세상이다. 그러니 그냥 들어나 보시라.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구석기시대부터 철기시대까지 혹은 고조선시대부터 조선시대, 현대까지. 참으로 다양하고 그 시대마다의 고유성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다. 마음에 가닿을 예로 뮐렌도르프가 발견한 비너스와 보티첼리가 그린 비너스의 몸매의 차이를 떠올려 보라. 그러나 어느 시대에나 어리석은 자들은 있었다. 나르키소스란 젊은이가 잘생긴 자기 얼굴만 쳐다보다가 무슨 꽃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다. 그 청년은 그나마 꽃이라도 되었으니 폼은 난다고 할 수 있다. 아무튼 어리석은 이들에 관한 내용이라면 어떤 시대의 이야기라도 현재 진행의 의미가 있다. 지금 들려주려는 이 사람의 이야기도 그렇고.

그가 살았던 그 때엔 개념이라는 게 별로 없었다. 국가, 종교, 인종, 성별, 피곤하게 따질 만한 기준이란 게 별로 없었다는 소리다. 당연히 세상은 별 탈 없이 잘 굴러갔다. 부자는 있어도 가난한 자들은 없었다. 그야말로 태평한 시대였다. 그의 이름은, 그래, 대두라고 해두자. 물론 존이라고 해도 되고, 왕장쯔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다. 혹은 구텐탁이라고 해도 되고. 그러나 이곳은 21세기, 게다가 대한민국. 이야기의 현재 진행성을 위해서 알기 쉽게, 듣는 이들의 정서에 알맞게 이름을 짓는 것도 이야기꾼의 의무임과 동시에 즐거움이다.

대두는 어떤 마음씨 좋은 중년 부부의 늦둥이 아들로 태어났다. 그가 세상에 처음으로 머리를 들이밀 때, 그의 나이 많은 모친은 몇 번이나 혼절을 했다고 한다. 그렇게 워낙에 큰 머리를 가지고 세상에 나온 대두는 머리가 커서인지 어찌된 영문인지, 날 때부터 생각이 많고 더불어 궁금한 것도 많았다. 몇 년 전 나온 어떤 영화에 전라도 보성 벌교에서 태어난 갓난쟁이들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욕을 한다는 말이 나오더라마는 그건 그냥 웃기자고 하는 과장일 뿐이고. 이 대두라는 자는 정말로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질문을 던지며 나왔다고 한다.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인가?"라면서.

갓 태어난 아기가 말을 했으니 사람들이 놀라 나자빠졌음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그를 받은 산파는 아기를 떨어뜨리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대두의 머리는 흠집하나 나지 않고 멀쩡했다. 그러니 크기만 한 게 아니라 단단하기까지 한 머리라는 걸 태어나자마자 증명한 셈이다. 놀라움이 사라지자, 부모들은 이 상서롭게 태어난 자식을 무척 자랑스러워했다. 마을 사람들도 대두가 좀 더 크면 훌륭한 스승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대두는 키우는 데 손이 많이 가는 아이도 아니었다. 배가 고프면 "젖을 주세요."라고 말했고, 오줌이 마려우면 "마려워요."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아기였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다면 '세상에 이런 일이'이라는 프로그램 정도가 아니라 방송 3사의 여덟 시와 아홉 시 뉴스, 5대 일간지, 나아가서는 미국과 영국의 주요일간지에 소개될 정도로 불가사의한 사건으로 다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 때는 아주 오래 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도, 천리 밖에 마을 하나 찾기 힘들 정도로 온 세상이 여백의 미로 가득했던 시대였다.

대두는 무럭무럭 자랐고, 말도 점점 잘 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사용하는 단어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질문도 많아졌다. 처음엔 그야말로 어린 아이다운 천진한 발상에서 나온 것들이었다. "아빠 배는 왜 불룩해?"라던가 "옆집 누나는 밤만 되면 어디로 가는 거야?"라는 정도로. 그 중에 답을 못할 질문은 거의 없었다. 교육상 답을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경우야 종종 있었지마는. 그러나 대두가 쑥쑥 크는 만큼 머리도 커졌고 그 속도에 비례하여 생각도 많아져서 점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양이 늘수록 질도 나아졌나, 하며는 딱히 또 그렇지는 않았다. 사람들이 무릎을 탁 치며 "아니,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의 과학도 머리 크기와 지능 지수의 관련성에 대해 이렇다 할 규명을 못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라.

그럼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란 대두의 이런 갈수록 심해지는 행태에 대해 주위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처음엔 될 성 부른 떡잎은 어떻게든 될 성 부르게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성의가 대단했다. 자신이 못하는 대답이라면 이웃에 이웃까지 불러다 답을 찾아내 주었다. 그러나 결국 대두가 일곱 살도 되기 전에 이웃에 이웃, 그 이웃의 이웃까지 대두의 끝도 없는 질문에 질려버리게 되고 말았다. 가장 먼저 지쳐 버린 것은 당연히 그의 부모였다. 부모의 사랑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안 되는 것도 있기 마련이다.

대두는 점차 말을 잃어갔다. 세상엔 대답 없는 당신들뿐이었다. 부모의 근심은 늘었고, 차라리 그가 평범한 아이로 자랐으면 싶었다. 그러나 부모의 희망 사항이 이루어지기란 그때나 지금이나 힘들긴 매한가지였다. 그가 열 살 때다.

"대두야. 오늘은 밭에 씨를 뿌리는 날이니 함께 나가자꾸나."

세월이 흘러 좀 더 불룩해진 배를 힘겹게 접으며 신발을 신던 대두의 아버지가 큰맘을 먹고 아들에게 말했다.

"왜 하필 오늘, 밭에 씨를 뿌리나요?"

"신발을 신느라 얼굴이 벌게진 아버지가 대답했다.

"오늘이 가장 씨 뿌리기 좋은 날이기 때문이지."

"가장 씨 뿌리기 좋다는 날은 어떤 것인가요?"

아버지가 신발을 신는 걸 보면서도 방 안에서 전혀 나갈 생각이 없어 보이는 대두가 또 물었다.

"온도와 습도가 적당하고, 이렇게 날씨가 화창하면서도 덥지 않아 일하기 좋은 날씨지. 그러니 너도 얼른 나와 신발을 신도록 해라."

그는 슬슬 대두의 질문 공세가 또 시작되나 싶어 일부러 명령형 종결 어미를 사용해 말을 끝맺었다. 그러나,

"아버지, 그런데 애초에 씨앗의 씨앗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라고 대두가 또 질문을 던지지 않겠는가. 자. 생각해 보라. 이제 밭에 씨를 뿌릴 농부가 이 씨의 씨는 어디서부터 나왔으며 그 씨의 씨는 어디서부터… 라고 거슬러 올라가다 정작 씨앗은 언제 뿌릴 수 있겠나.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그리고 잠시 후, 집을 나서는 그의 얼굴에 햇빛에 비친 무엇인가 반짝했다. 그것이 눈물인지, 아니면 신발을 신느라 맺혔던 땀방울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른 건 다 궁금한 대두도 그건 궁금해 하지 않았고.

시간은 흘러갔다. 그때나 지금이나 붙잡는 이가 있어도 없어도 무심하게 알아서 흘러가는 게 강물과 세월이다. 대두도 어느덧 스무 살의 청년이 되었다. 노동이라고는 질문을 던지는 것과 생각 말고는 하는 게 없는 그의 피부는 모공 하나 보이지 않는 도자기 같았고, 원래도 깊었던 눈빛은 자신을 이해해 주는 이 없는 고독 속에서 우수

신발을 찾고 싶나? 사라진 이유를 알고 싶나?



삽화 · 김홍인

를 더했다. 그러나 몇몇 철없는 아가씨들 말고는 그에게 관심을 가지는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없었다. 대두에게 최대 전성기는 태어난 바로 그 순간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대두는 생각할 것이 있어 집을 나서려던 참이었다. 그는 추수가 한창인 요즘도 늦잠을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 서늘한 바람이 좋은 강가에 앉아서 생각하는 게 일이었다. 그는 또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며 발을 내디뎠다. 그런데, 신발이 없었다! 그는 정신이 번쩍 들어 주위를 둘러봤다. 당연히 아무도 없었다. 집에서 놀고 있는 생명체라고는 가축 말고 없을 시간이었다.

"신발이 어디로 갔지?"

그는 일부러 소리 내어 말한 다음, 다시 주위를 둘러봤다. 여전히 조용했다.

"신발이 도대체 어디로 갔지?"

좀 더 소리를 크게 내어 보았다. 도무지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었다. 다시 한 번 말하는데, 이때는 정말 아주 오래된 옛날로 '도둑'이라는 단어도 생겨나기 전이었다. 게다가 대두네 이웃에는 신발을 물어갈 개도 없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발이 저절로 사라진 셈이었다.

자, 이 '신발의 실종'이라는 전대미문의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대두는 어찌 했을까. 그 답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이다. 그날 오후, 고된 노동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온 대두의 부모는 깜짝 놀랐다. 아들이 이 시간에 집에 있었던 적이 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아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나 싶어 부모들의 마음에 미약하나마 어떤 기대가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시대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이 혹시나, 역시나의 법칙! 이날 이후 대두가 집 밖을 나가는 일은 없었다.

"어떻게 좀 해봐요. 여보."

"도대체 내가 뭘 할 수 있겠소?"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라도 찾아봐야하지 않겠어요?"

몇 달에 한 번씩 반복되는 부부 간의 대화였다. 방 안에는 한숨으로 가득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한숨이었다. 측량이 가능하다면 말이지만. 잠시 후,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다.

"대두의 모든 의문이 풀리고, 생각이 끝날 때까지는 별 도리가 없지."

"그런 날이 과연 올까요? 그리고 도대체 신발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늙은 부부는 아들의 미래가 어쩐지 사라진 신발에 달려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니까, 도대체 신발은 어디로, 무엇 때문에 사라진 것일까.

같은 시간, 대두도 자기 방에서 사라진 신발의 행방에 대해 골몰해 있었다. 눈을 떠도 감아도, 사라진 신발이 아른거렸다. 이리 눕고, 저리 누워도 역시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여기저기서 마구 떠올랐던 모든 의문들이 한 점으로 모아졌다.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던 '씨앗의 씨앗의 씨앗… 은 어디서 났나'부터 시작해서, 바위가 모래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같은 의문들은 이웃집 굴뚝에서 나온 연기처럼 허공 속으로 흩어졌다. 사라진 신발만이 어디로도 날아가지 않고 그의 머릿속에 남아 떠나질 않았다.

대두에게 이제 시간의 흐름 같은 건 어떻게 되도 좋은 것이 되었다. 오로지 신발에 관해서만 생각했다. 방 안에서 나가는 일 없이, 씻지도 움직이지도 않으니 몸이 발효가 될 지경이었다. 요즘의 '은둔형 외톨이'쯤 될까. 아무리 맑고 투명한 날씨라도 대두네 집 위에는 언제나 먹구름이 떠 있었다. 정말 그랬다는 건 아니고,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소리다.

겨울, 봄, 여름, 세 계절이 지나갔다. '생각'이라는 과도한 업무와 운동 부족, 불규칙적인 식단으로 대두의 몸에는 어느 새 초기 노화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런 아들의 모습에 괴로워하던 부모들도 차츰 그의 방문을 여는 일이 줄어들게 되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가고 다시 가을이 왔다. 그날도 날이 훤히 밝아서야 잠이 든 대두는 꿈을 꾸었다.

"니가 대두가?"

꿈이라는 걸 거의 꿔본 적 없는 대두는 꿈속에서도 자신이 꿈을 꾼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 낯선 말투의 목소리가 또 다시 말했다.

"니가 대두 맞나?"

"네? 누구세요?"

"나는 니 신발이 어디 있는 줄 아는 사람이다. 아직도 신발 찾고 있나?"

대두는 강하게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라면 인제 일어나가, 너거 마을 뒷동산에 제일 큰 밤나무 알제? 그리로 나온나."

그러더니 삐릭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목소리는 사라졌다. 대두는 벌떡 일어났다. '이게 꿈이라는 건가.' 대두는 묘한 기분을 느끼며 방문 쪽을 쳐다봤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되리라고 했던 스승일 지도 모른다!'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잠시 후, 마을 곳곳에서 사람들이 일제히 어떤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대두가 집 밖을 나와 어딘가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대두 쪽을 바라본 것은 비단 그의 외출이 신기해서는 아니었다. 냄새 때문이었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약한 냄새 말이다. 이윽고 폐활량이 나빠진 대두가 헉헉대며 동네 뒷산 밤나무 앞에 도착했다. 정말 거기에는 한 노인이 앉아있었다.

"왔나?"

목소리는 잘 모르겠지만 꿈속에서 들었던 말투가 맞았다. 서 있으나, 앉아있으나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은 작은 체구에 누런 피부, 선만 살짝 그어놓은 것 같은 눈에선 어떤 정도 찾아볼 수 없었다. 외모 어디에서도 품위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두는 드러내놓고 실망스러운 얼굴을 했다.

"대두, 니 지금 내 생긴 거 보고 그라나?"

노인이 말했다. 대두는 딱히 대꾸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생각난 듯, 물었다.

"그런데 누구신지요?"

"니 지금 그거 물어 볼라고 여기까지 올라왔나? 내가 그것도 갈키주고 신발도 찾아주고 그랄 줄 아나?"

대두는 강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럴 때마다 꼬리한 냄새가 진동을 했다.

"아닙니다. 저는 무엇보다 신발이 어디로, 왜 사라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만 알면 신발은 안 찾아도 되고? 이유만 알만 되나?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노인의 질문에 대두는 갑자기 헷갈렸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다.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정신이 번쩍 든 대두는 자신의 발을 내려다 봤다. 맨발이었다. 산길을 올라오느라 엉망이 된 맨발.

"신발을 찾고 싶습니다."

대두는 눈을 질끈 감으며 충동적으로 대답했다.

그런데 대두가 말을 끝내고 나니 노인은 간 데 없고, 그가 앉았던 자리에는 덩그러니 신발 한 켤레만이 놓여있지 뭔가. 그러니까 대두 자신의 것으로 추측되는 신발이었다. 처음에 그는 이것도 꿈인가 싶었다. 그러나 바람의 감촉과 새소리, 자신의 몸에서 나는 톡 쏘는 냄새까지, 생시는 생시였다. 일단 신발을 신어 보았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자신이 신발이 맞았다. 조금 헐렁한 느낌은 있었지만, 그건 자신이 부쩍 마른 탓일 것이라고 여겼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다음? 집에 도착한 그는 신발을 고이 벗어놓고, 목욕을 한 다음 다시 자신의 방에 들어갔다. 그리고 또 나오지 않았다.

"도대체 그 노인은 누구지?"

대두는 생각해보는 것이었다.

자, 당신이 대두라면 어찌 하겠는가. 이야기를 이야기로만 들으며 따라가면 별 재미가 없는 법이다. 하다못해 '내가 대두 같을 리 없잖아' 정도로는 생각해볼 수 있으리라. 이야기했듯이 어리석은 자들의 이야기에는 언제나 현재 진행형의 의미가 있다니까.

사족

이야기에 나오는 노인이 왜 하필 경상도 사투리를 쓰느냐. 이유는 없다. 인물의 차별성을 위해서 선택했을 뿐. 일본 간사이 지방이나, 미국 남부 뉴올리언즈 사투리를 구사했을 수도 있다.

고지연 작가는…

동양 신화와 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지식을 갖고 있다. 최근 디지털 콘텐츠 전문 기업 지니앤노박(www.jiniandnovak.com)을 통해 환타지 소설 '수리아의 검'을 선보인 그녀는 다수의 드라마 대본과 시나리오를 집필해 왔다.

불기 2554년(2010) 경인년 부처님 오신날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세계 선불교육조선교류연맹(한국육조선원)

대 표(한국 육조선원 용화사 방장) 석 연화

지도위원 : 향 운. 정 진. 금 봉. 혜 산
부 원 장 : 혜 봉(김일석). 청 산. 혜 봉(이민택)
지도위원장 : 법 붕
문화원장 : 원 도
수선원장 : 효 진
교육원장 : 종 섭
복지원장 : 혜 문
호법원장 : 일 웅
예술원장 : 영 사
복지원장 : 해 문
감찰국장 : 도 관
사업국장 : 지 원
홍보국장 : 해 양
사무처장 : 자 운
사서실장 : 자 은
기획실장 : 청 운
호법부장 : 선 담
문화부장 : 법 성
홍 보 부 장 : 혜 천
복 지 부 장 : 자 문
사 무 국 장 : 선 호
감 찰 부 장 : 오 성
비구니원장 : 성 담
비구니부원장 : 종 니. 해 명.

주소 : 강원 원주시 귀래면 용암 2리 산 247번지 용화사
전화 033)761-7008. 2556 / 서울사무소 02)766-6800

대 한 호 국 불 교 소 림 선 종

총 무 원 장 석 연화

부 원 장 : 청 산. 동 일
원로원장 : 돈 오
율 원 장 : 만 공
종회의장 : 향 운
종회부의장 : 금 봉
포교원장 : 자 은
수선원장 : 혜 문
호법원장 : 탄 공
교육원장 : 남 륜
문화원장 : 원 도
선 원 장 : 정 진
복지원장 : 혜 명
총무국장 : 자 운
사서실장 : 무 영
기획실장 : 청 운
감찰국장 : 도 관
사업국장 : 수 월
홍보국장 : 해 양
사 무 국 장 : 선 호
사 무 처 장 : 해 암
호 법 부 장 : 선 담
문 화 부 장 : 법 성
감 찰 부 장 : 혜 천
사 회 부 장 : 수 인
사 업 부 장 : 혜 명
조 직 부 장 : 오 성
홍 보 부 장 : 법 장
비구니원장 : 향 오
비구니부원장 : 혜 원
조직국장 : 정 원

주소 : 강원 원주시 귀래면 용암 2리 산 247번지 용화사
전화 033)761-7008. 2556 / 서울사무소 02)766-6800

현대불교와 불서출판운주사가 함께하는

불서도서 BEST 15



인터넷 불교서점 붓다북 www.buddhabook.co.kr



지면에 나온 도서는 **붓다북** (02-953-7181) 과
여시아문 (02-2004-8213) 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삶은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세월이 흐를수록 깊이를 더해 가는 법정 스님의 새로운 산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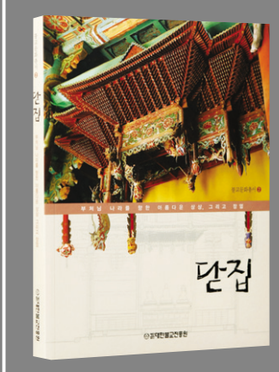
영혼을 치유하는 맑고 순수한 언어
이 시대의 경전 〈무소유〉의 감동을 잇는 또하나의 깨우침

현대인의 정신적 스승이라 불리우는 법정 스님의 「아름다운 마무리는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매듭짓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영적 지침서이다.
의미없는 매일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선택한 삶을 이끌어나가는 방법과, 순간 속에서 영원을 발견하고 순수와 본질의 세계를 회복하는 길을 알려준다. 내가 걸어온 길을 중간중간 되돌아보고, 내려놓음의 소중한 가치를 스스로 알게 된다면 진정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삶은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법정 지음 | 반양장본 | 244쪽 | 값 11,500원 출판사 문학의숲

닫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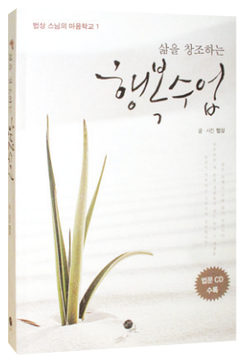
부처님 나라를 향한 아름다운 상상, 그리고 장엄

닫집은 부처님이 머무는 전각을 상징한다. 닫집에는 불교의 상징을 표현한 여러 가지 장물들을 장식하는데, 연꽃을 비롯해 각종 꽃 구름 용 비천상 극락조 등이 그것이다.
이책은 우리 전통 건축과 공예가 어울린, 입체예술의 정수인 닫집을 작가가 1년여에 걸쳐 전국에 오래된 닫집을 하나하나 찾고, 현재의 닫집 제작현황까지 상세하게 조사하여 풀어놓은 책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전통 건축과 공예가 한데 어울린 , 입체예술의 정수인 닫집에 관하여 새롭게 배울수 있으며 또한 불교미술의 가치를다시한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심대섭 지음| 207쪽 | 값 20,000원 대한불교진흥원

삶을 창조하는 행복수업



법상스님이 전하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 그리고 영혼의 휴식
삶을 창조하는 행복수업 (CD1장포함) 법상 스님의 마음학교 1

**"인생은 원래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 행복과 불행의 이유를 바깥에서 찾습니까?"**

이책은 저자가 법회와 설법, 강의와 강연 등을 정리하여 불교와 명상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웹사이트 '목탁소리'에 올려온 글을 정리하여 담아냈다. 세상을 향한 나눔과 회향을 실천하면서, 자비와 사랑이라는 근원의 꽃을 피우는데 거름을 보내도록 이끄는 실천적 가르침을 건네고 있다. 아울러 진정한 행복과 평화, 그리고 영혼의 휴식을 전한다.

저자 법상 · 사진 법상 | 395쪽 | 값 15,000원 무한출판사

종정열전 1,2



종정 큰스님의 삶을 통해 인생의 혜안을 얻는다

- **종정열전은 해동고승전과 동사열전에 이은 3대 역작!**
  초대 종단 원종의 종정인 회광 사선부터 도림 법전 스님까지 모두 종정 큰스님 22분의 전기를 다룬 역작이다.
- **한국근현대불교사를 읽는다.**
  일제시기부터 현재까지의 불교사가 이 책에 녹아들어가 있다.
- **불교전반의 이해를 돕는 용어 해설, 사진, 깊이읽기 자료**
  종정 큰스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불교용어 설명, 100컷에 달하는 사진자료를 통해 불교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 **깨달음, 수행, 치열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종정 큰스님의 삶을 통해 삶과 죽음, 깨달음과 수행에 대한 혜안을 갖게 한다. 탐욕과 불안으로 점철된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큰 인생의 가르침을 준다.

임혜봉 지음 | 반양장 | 전2권 1권 | 525쪽 | 2권 431쪽 | 값 25,000원(1권) 값 20,000원(2권) 도서출판 문화문고

붓다의 세계와 불교 우주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로회원 이시우의 『붓다의 세계와 불교 우주관』

초기 경전에 기록된 인간 붓다의 위대한 인생관은 물론, 그의 뛰어난 우주관을 살펴본다.
천문학적 세계관과 불교의 세계관을 비교하면서, 객관적인 보편타당한 진리를 근본으로 삼는 자연중심사상을 지닌 불교의 우주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다른 종교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에 대한 진리를 펴보이는 불교가 첨단우주과학시대에 가장 알맞은 종교임을 보여준다. 붓다의 우주관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인간의 마음에만 몰입하는 인불사상으로 치우치는 한국불교도 꾸짖고 있다. 아울러 자연과 더불어살아가는 자연합일사상이 필요함을 깨우친다.

이시우 지음 | 508쪽 | 값 25,000원 민족사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육조대사의 법을 중국천하에 드날린
하택신회대사 현종기
실증설 실증으로 설파한 법문
방거사어록 본연을 꽃피운 일상의 함
선문염송16 세계 최대 공안집 전 30권 중 16권

마음치료 이야기



정신과 의사가 붓다에게 배운

당신의 불안한 마음에 대한 정신의학적 지침서

이 책은 저자가 환자를 만나 정신치료를 하면서 불교 수행과 공부를 통해 경험하고 터득한 보편적 지혜를 정신치료에 응용해 갔으며, 이것이 얼마나 보편적이고 큰 효과가 있었는지를 자세히 밝혀 놓은 책이다.
즉 세상의 이치, 정신과 전문의인 저자가 느끼고 체험한 마음 치유 이야기인 것이다.

"마음은 언제나 어딘가 가 있는 곳이 있다." "마음이 어떤 대상으로 자꾸 가면 그곳으로 길이 난다."는 가르침은 불교에게서 온 것이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보편 타당한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지음 | 280쪽 | 값 13,800원 불광출판사

생활 속의 명상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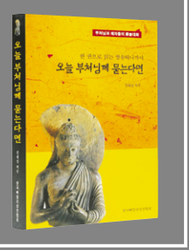


빠알리대장경 앙굿따라니까야 앤 솔로지

이 책은 기본적으로 감각적 욕망에 물들어 있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윤리적이고 정신적인 생활을 실천할 것인가, 출가수행자들과 재가신자들이 겪게 되는 일상의 관심사에 대한 물음을 풀어주는 책이다.

전재성역주 | 653쪽 | 신국판 | 값 30,000원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오늘 부처님께 묻는다면



쌍윳따니까야 엔솔로지 개정증보판

〈쌍윳따니까야〉에 실린 2,889개의 경 가운데 이시대에 유용한 180개의 경전을 골라낸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시각으로 문제가 되는 화두를 질문의 형식으로 제시하여 쌍윳따니까야를 부처님과 제자와의 대화를 담은 역사적 기록으로만 머물게 하지 않고 경전 전체를 활구로 만들었다.

전재성 역주 | 신국판 | 665쪽 | 값 30,000원 한국빠알리성전협회

금강경 읽기



효림스님과 함께

세상을 '금강경'의 사상으로 치유하다!

**이와 같이 무량, 무수, 무변한 중생을 멸도 하지만,
실은 멸도를 얻은 중생은 없느니라.
어떠한 연고냐?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효림 스님의 『금강경 읽기』. 저자가 봉국사에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일요일마다 '금강경'을 강의한 내용을 담아냈다.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은 물론, 자신의 세계관이 절대적이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하고 느낀 것을 '금강경'에 비유하고 응용하고 있다. 우리가 '금강경'을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금강경'을 통해 진리에 눈을 뜰 뿐 아니라, 우주의 실상을 깨닫게 하는 가르침을 얻도록 이끌고 있다. 아울러 이념과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금강경'의 사상으로 치유한다.

새싹 기획편집실 엮음 | 367쪽 | 값12,000원 새싹

부처님 생애



만화불교이야기 1

Buddha's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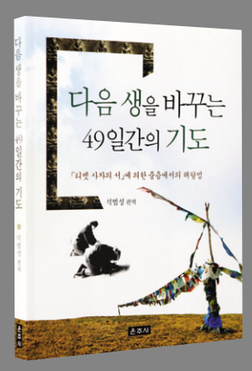
부처님의 생애를 만화로 만나다!
'만화 불교 이야기' 시리즈, 제1권 『부처님 생애』

이 시리즈는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불교'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기 쉽게 만화라는 특수한 형식을 빌려 설명해주고 있다. 제1권에서는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 다룬다.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 불교의 출발점을 배울 수 있다.
아울러 불교의 참된 가르침과 부처님의 깨달음 등을 보여준다.

만화로 구성하여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인간 중심의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가르침을 담은 불교의 가르침과 깨달음에 대해 쉽게 배울 수 있다.

정김정빈 글 | 최병용 그림 | 294쪽 | 값 9,600원 솔바람

다음 생을 바꾸는 49일간의 기도



티벳 사자의 서 에 의한 중음에서의 해탈법

중음신의 기간인 49일 동안 망자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며 어떻게 천도해야 망자를 해탈시킬 수 있는가 ?

책은 〈티벳 중음제도경〉에서 해탈 방법에 대한 중요한 경문들을 뽑은 것으로, 삶과 임종, 그리고 사망의 과정을 보다 친숙하게 인식시키고, 삶을 요달하고 죽음을 해탈할 실수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 존귀하신 000 영가시여 ! 당신은 지금 저를 따라 반복하여 일심으로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생사의 유전은 모두 저의 어리석은 무명으로 인한 ---- "

정김정빈 글 | 최병용 그림 | 294쪽 | 값 9,600원 솔바람

5월, 부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부처님의 생애

बुद्धचरिय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부처님의 생애 편찬위원회 집필
472쪽
24,000원
올컬러 양장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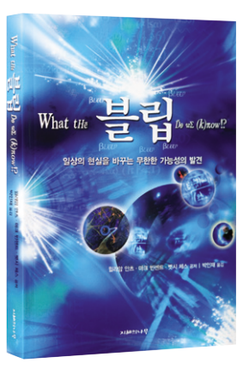
종단본



조계종출판사
www.jogyebook.com 02.733.6390

가볍고 아담한 사이즈
보급판 발간! (400쪽 12,000원)

블 립



우리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비밀의 힘을 과학적으로 풀어보는 새로운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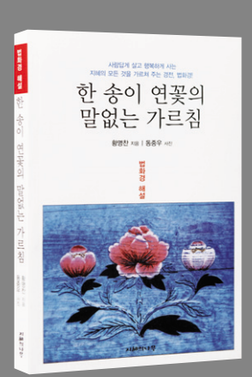
당신과 우주, 내면의 힘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 일상의 현실을 바꾸는 무한한 가능성의 이야기들을 하나로 엮어 낸 자기계발서 『블립』

다큐멘터리 사상 최고의 성공작이자 〈시크릿〉에 과학적 연감을 준 'What the bleep do we know!?'의 과학적인 부분을 더 깊이 파고들어 찾아낸 정보를 소개하는 책이다. 물리학의 역사와 양자물리학이 발견한 신비의 세계를 통해 관찰자와 의식, 물질세계를 지배하는 마음의 세계를 살펴보고, 현실을 창조하는 의식의 무한한 가능성을 엿본다.

이 책 〈블립〉은 영화제작자들과 영화에 출연했던 과학자들이 양자물리학이 발견한 가능성과 잠재력으로 가득 찬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당신은 〈블립〉을 통해 당신과 우주, 내면의 힘의 관계에 대한 새롭고도 놀라운 이해를 얻게 될 것이다.

저자 윌리암 안츠 , 마크 빈센트, 벳시 체스 | 박인재 옮김 | 358쪽 |값 15,000원 지혜의나무

한송이 연꽃의 말없는 가르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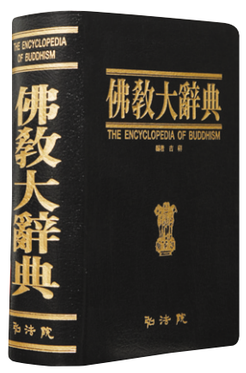


법화경은 어떤 경전이며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왜 필요한 것인가 !!
사람답게 살고 지혜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경전 법화경 해설.

이 책은 사람답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지혜의 모든 것을 담은 경전, 법화경을 해설한 책이다. 불교 경전하면 난해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 책 은 그런 독자들에게 희망이요, 단비가 아닐 수 없다.
저자 황명찬은 평생을 대학에서 강의하던 노하우와 30여 년간에 걸친 불교공부를 접목하여 불교경전 법화경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 요점을 정리하고 비유와 반복을 통해 경전의 어려움을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갖고 수행에 접할 수 있게 안내하고 있다. 또한, 둥중우의 사진 30여장이 독자들에게 지루함을 없애고 마음에 여유를 준다. 복잡한 현대인들이 법화경을 이해하고 쉽고 간단한 법화 수행을 통해 지혜와 마음에 평화를 주는 행복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부록으로 주요 경전의 가르침 요약과 용어 해설을 두었다.

황명찬 지음 | 덩종우 사진 | 239쪽 | 값 12,000원 지혜의나무

佛教大辭典(불교대사전)



체계적인 불교용어가 집대성 된 최고의 불교사전!!

이 책은 저자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 10년이라는 긴 산고 끝에 출간된 책이다.
특징으로 첫째는 불교문헌에서 65,000여 가지의 불교용어를 모아 그것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둘째 현대일상 용어나 서양철학의 현대어 번역용어가 과거의 불교문헌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알수 있도록 구성했다. 세계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베트어 등에 의한 문헌이 현존하는 것은 가능한 찾아내어 정확성을 기하였다. 네째 인명에 있어서는 출가자와 재가자를 구분하지 않고 불교와 인연이 있다면 수록되었다.

특히 편찬상의 창의성과 활용성 및 방대한 양의 자료가 실려 있어 일반인 및 불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저자 김길상 | 2095쪽 | 값 150,000원 출판사 홍법원